

I S B N

979-11-87917-52-6



# 2024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

지혜순 · 이영민 · 권태구 · 김미희 · 이유리



# 2024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

지혜순 · 이영민 · 권태구 · 김미희 · 이유리

---

## 참여연구진

---

### ■ 연구책임

지혜순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교육팀 연구위원

---

### ■ 공동연구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태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교수  
김미희 드림업컨설팅 대표

### 연구보조

이유리 숙명여자대학교 인력개발정책학과 박사수료

---

# 발간사

프리랜서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노동 형태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독립성과 유연성을 추구하는 프리랜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프리랜서의 체계적인 정의는 확립되지 않았으며, 각 지역 조례에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은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는 서울시 프리랜서의 규모와 주요 직종별 특성, 노동환경, 불공정 경험, 경력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프리랜서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에스프로 시스템과 연계된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 경력인정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시 프리랜서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여 선정된, 6개 주요 직종(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문리예능 강사, 디자이너,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시 프리랜서는 소득 불안정성, 일감 부족, 불공정 계약 관행,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력 인정과 증빙의 어려움, 표준계약서 미작성 문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문제는 프리랜서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프리랜서의 경력관리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프리랜서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중요한 시도이며, 프리랜서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소중한 자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를 위해 애써 주신 연구진과 자문위원들,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제공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 프리랜서들의 계약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임승운



# [ 요약 ]

## □ 연구 배경 및 목적

- 산업구조 패러다임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전통적인 취업과 창업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활동 유형이 확산
- 프리랜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간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낮은 단가, 불공정 계약, 부당한 작업 내용 변경 및 지속적인 작업 요구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됨(강금봉, 2022)
- 또한, 기술 변화에 발맞춰 경력개발 지원이 필수적이거나, 대다수의 프리랜서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프리랜서의 규모를 추정하고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 필요 영역을 도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및 방법

- 통계청이 조사·공표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프리랜서의 규모를 추정하고 6개 직종을 선정함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프리랜서 대상(6개 직종)으로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

## □ 프리랜서 정의 및 개념

- 국내에는 프리랜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각기 정의를 제공
-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며,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로 정의
- 미국은 "독립계약자" 개념, 독일은 "자유직업"으로 프리랜서를 정의하고 있으며, 해외의 정의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직업인을 공통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프리랜서’를 서울시 거주 또는 사업자 소재지를 서울시로 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약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자로 정의

#### □ 프리랜서 규모 추정 및 직종 선정

- 프리랜서 규모 추정에는 통계청이 조사·공표하는 경찰 부가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서울시 프리랜서를 직종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A형 자료가 사용됨
- 2023년 8월 기준, 전국의 프리랜서 규모는 좁은 정의로는 취업자의 2.1% 수준이며, 가장 넓게 식별하면 19.0% 수준으로 나타남
- 2023년 4월 현재, 서울의 프리랜서 규모는 유형 2, 유형 3이 각각 16만 1천 여명, 54만 2천 여명 수준으로 각각 전국 해당 규모의 25.3%, 13.2%를 차지함
- 전국 취업자 중 서울시 취업자의 비율(18.1%)을 고려할 때 유형 2의 비율은 다소 높고, 유형 3은 낮은 편이며, 이와 같은 현황은 2016~2023년 기간 중 대체로 유지
- 프리랜서 규모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진행을 위한 6개 직종(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디자이너,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을 선정

#### □ 프리랜서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15일간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시인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
- 실태조사 설문 문항은 김종진 외(2020)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여고, 관련 선행연구(프리랜서 및 불공정거래 등)와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 최종 선정된 6개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총 44문항으로 구성

#### □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 고용특성

- 직종별 응답자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34명(22.9%),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6명(25.1%), 디자이너 165명(16.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53명(15.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30명(12.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82명(8.0%)
- 프리랜서의 평균 활동 기간은 평균 7.8년(93개월)으로 활동기간 2~5년 미만의 프리랜서 30.3%, 5~10년 미만 24.2% 순으로 나타남
- 프리랜서 선택 이유(1순위)로는 '근로 유연성 확보'가 310명으로 많았고, 프리랜서 직종 외 다른 일을 하는 비율은 44.4%로 나타남

○ 계약

- 프리랜서의 주 발주처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중심이며, 디자이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개인사업자,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 일반 시민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계약 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65.3%로 높았고, 대부분 서면계약서 작성 후 동일계약서를 받고 있는 것(90.2%)으로 나타났으며,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37.4%로 나타남
-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은 34.0%로 나타났으며,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임금'(36.2%), '계약 기간'(32.4%), '업무 내용' (30.3%) 순으로 나타남
- 보수 결정방법은 '발주처 내부 규정'(42.4%), '구두 합의'(35.8%), '업계 관행' (21.0%)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고, 보수지급 방식은 정기적 지급이 35.7%, 완료 후 전액이 32.6%로 나타남
- 일감을 찾는 방법은 인맥 중심의 '개인 네트워크' (35.9%)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잡 포털 사이트'(18.4%), '온라인 커뮤니티'(16.6%) 순으로 나타남

○ 노동환경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비율은 32.3%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디자이너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비율이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남
-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33.4%), 35시간 이상~40시간 미만(22.9%), 15시간미만(19.5%), 40시간 이상~52시간 미만(18.1%) 순으로 나타남
- 근무 장소는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가 45.2%, '재택'(30.9%), '다양한 공간 활용'(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 근무 장소를 분석한 결과,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와 디자이너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불공정 경험

- 프리랜서로서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의 1순위는 '보수 미지급/지연지급/일방적 삭감/로열티 미지급 등'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계약 변경'(163명), '업무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음'(110명) 순으로 나타남
- 보수 미수금 일감(프로젝트) 비율의 평균은 24.4%였으며, 보수 미수금 금액은 200~300만원 미만(34.5%), 100만원 미만(24.8%) 순으로 나타남
- 일 수행 중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를 경험한 비율은 12.9%로 나타났으며, 인권침해 사례(유형)를 분석한 결과 '폭언'이 43.4%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이 22.3%, '기타 괴롭힘'이 14.9% 순으로 나타남
- 일 수행 중, 중도 하차한 경험은 21.3%,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기산 이행 중'이 59.0%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하차 이유는 '과도한 업무지시'(24.2%),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18.3%), '열악한 작업환경'(16.6%) 순으로 나타남

○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은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인관계 관리능력'(17.7%), '협업능력'(16.4%) 순으로 나타남
-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협업능력', 디자이너의 경우 '프로젝트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교육훈련(1순위)은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339명),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30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6개 직종 모두 직종별 직무수행 능력향상 교육과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일감 수주 시 프리랜서 경력인정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3.2%로 나타났고, 프리랜서 경력 증빙이 '필요하다'는 63.5%, '필요하지 않다'는 5.9%로 나타났으며, 프리랜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보관 방법은 '개인적으로 보관한다'는 72.7%, 경력 증빙자료는 주로 '포트폴리오'가 29.9%, 경력 증빙 용도(목적)는 '일감 수주'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발주처의 경력 증빙자료 인정 정도를 질문한 결과에서 60% 이상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일반 근로자 수준보다 낮게 인정'은 21.0%로 나타남
- 경력 증명서류를 요청받았을 때 어려웠던 경험을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0.8%로,

경력 증빙자료 요청 시 어려움의 이유는 '발주처에 경력증빙서류 발급 요청을 말하기 어려워  
서'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책

-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는 '경력인정시스템 마련'이 22.9%,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이 19.8%,  
'4대 사회보험 지원'이 17.6%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해 '있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7.6%였고,  
'보통'은 41.3%로 나타났으며, 사용 의향이 있는 이유는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어  
서'(40.2%), '보수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31.8%) 순이었고,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31.6%), '기존 거래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21.1%)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으로는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  
과'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b>I. 서 론</b> .....	<b>1</b>
1. 연구 목적 및 내용 .....	3
2. 프리랜서 개념 .....	4
<b>II. 서울시 프리랜서의 규모와 특성</b> .....	<b>9</b>
1. 실증분석 자료 .....	11
2. 전국 수준에서 측정한 프리랜서의 규모 - 유형 및 직종별 .....	13
3. 서울시 프리랜서 규모 - 유형 및 직종별 .....	17
4. 서울시 프리랜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2
5.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위한 직종 선정 .....	24
6. 요약 .....	25
<b>III.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b> .....	<b>27</b>
1. 실태조사 개요 .....	29
2. 설문조사 분석결과(전체) .....	30
3. 직종별 분석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	75
4. 직종별 분석결과: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 .....	96
5. 직종별 분석결과: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	116
6. 직종별 분석결과: 디자이너 .....	136
7. 직종별 분석결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	156
8. 직종별 분석결과: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	176
9. 직종별 분석결과: 요약 .....	196
■ 참고문헌 .....	199
■ 부 록 .....	200

## 표 차례

〈표 Ⅰ-1〉 조례에서의 프리랜서 정의	4
〈표 Ⅰ-2〉 프리랜서 정의 관련 선행연구	6
〈표 Ⅱ-1〉 통계별 프리랜서 추계 가용 범위	11
〈표 Ⅱ-2〉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의 서비스 유형별 제공 범위	12
〈표 Ⅱ-3〉 유형별 프리랜서 수 - 2023년 8월 현재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13
〈표 Ⅱ-4〉 유형별 프리랜서 수 - 2023년 4월 현재 - 지역별 고용조사	14
〈표 Ⅱ-5〉 프리랜서의 업종 분포 - 유형 3. 중범위 프리랜서	15
〈표 Ⅱ-6〉 프리랜서의 업종 분포 - 유형 2. 협의 프리랜서	16
〈표 Ⅱ-7〉 프리랜서 규모 추이 - 전국	17
〈표 Ⅱ-8〉 연도별 프리랜서 규모 - 서울 - 거주지 기반	18
〈표 Ⅱ-9〉 연도별 프리랜서 규모 - 서울 - 사업체 소재지 기반	19
〈표 Ⅱ-10〉 2023년 프리랜서의 직종 - 유형 3. 중범위 프리랜서	21
〈표 Ⅱ-11〉 서울시 프리랜서의 인구사회학적 및 일자리 특성: 유형 3.	23
〈표 Ⅱ-12〉 서울시 프리랜서의 인구사회학적 및 일자리 특성 - 직종별 2023년 - 유형 3.	23
〈표 Ⅲ-1〉 조사 개요	29
〈표 Ⅲ-2〉 프리랜서 실태조사의 설문 문항 개요	30
〈표 Ⅲ-3〉 프리랜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1
〈표 Ⅲ-4〉 프리랜서의 직종별 분포	32
〈표 Ⅲ-5〉 프리랜서의 활동기간(직종별)	32
〈표 Ⅲ-6〉 프리랜서의 활동기간(사회인구학적 특성)	32
〈표 Ⅲ-7〉 프리랜서 선택이유	33
〈표 Ⅲ-8〉 프리랜서의 다중직업 여부 및 이유	34
〈표 Ⅲ-9〉 프리랜서의 일감(프로젝트)의 발주처(직종별)	35
〈표 Ⅲ-10〉 프리랜서의 계약 형태 및 계약서 교부	35
〈표 Ⅲ-11〉 프리랜서의 계약 형태 및 구두계약 체결 이유(직종별)	36
〈표 Ⅲ-12〉 프리랜서의 계약서 교부 및 동일계약서 받지 않은 이유(직종별)	37
〈표 Ⅲ-13〉 프리랜서의 계약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직종별)	38
〈표 Ⅲ-14〉 프리랜서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38
〈표 Ⅲ-15〉 프리랜서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직종별/복수응답)	39
〈표 Ⅲ-16〉 프리랜서의 보수 결정방법(직종별)	39
〈표 Ⅲ-17〉 프리랜서의 보수 지급 방식(직종별)	40

## 표 차례

〈표 III-18〉 프리랜서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직종별) .....	40
〈표 III-19〉 프리랜서의 일감 선택 시 중요한 요인 .....	41
〈표 III-20〉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여부(직종별) .....	42
〈표 III-21〉 프리랜서의 노동시간(직종별) .....	43
〈표 III-22〉 프리랜서의 근무시간 결정방법(직종별) .....	43
〈표 III-23〉 프리랜서의 근무 장소(직종별) .....	44
〈표 III-24〉 프리랜서의 지휘·감독(직종별) .....	44
〈표 III-25〉 프리랜서로서의 어려움 1순위(직종별) .....	45
〈표 III-26〉 프리랜서의 부당대우 경험 .....	46
〈표 III-27〉 프리랜서의 부당대우 경험 1순위(직종별) .....	47
〈표 III-28〉 프리랜서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사회인구학적 특성) .....	48
〈표 III-29〉 프리랜서의 불합리한 계약변경 사례 .....	49
〈표 III-30〉 프리랜서의 보수 미수금 경험 .....	50
〈표 III-31〉 프리랜서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직종별) .....	51
〈표 III-32〉 프리랜서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직종별) .....	52
〈표 III-33〉 프리랜서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	53
〈표 III-34〉 프리랜서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 및 해결 여부(직종별) .....	54
〈표 III-35〉 프리랜서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직종별) .....	55
〈표 III-36〉 프리랜서의 필요역량 1순위(직종별) .....	56
〈표 III-37〉 프리랜서의 교육훈련 참여와 총 시간(직종별) .....	56
〈표 III-38〉 프리랜서의 역량 향상 정도(직종별) .....	57
〈표 III-39〉 프리랜서의 교육훈련 과정(대표과정 3개) .....	57
〈표 III-40〉 프리랜서의 교육훈련 과정별 이수 시간(직종별/대표과정 3개) .....	58
〈표 III-41〉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교육 .....	59
〈표 III-42〉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교육 1순위(직종별) .....	60
〈표 III-43〉 프리랜서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직종별) .....	61
〈표 III-44〉 프리랜서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직종별) .....	62
〈표 III-45〉 프리랜서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직종별/복수응답) .....	62
〈표 III-46〉 프리랜서의 경력 증빙 용도(직종별) .....	63
〈표 III-47〉 프리랜서의 경력 증빙자료 인정 및 보수 영향 정도(직종별) .....	64
〈표 III-48〉 프리랜서의 경력 증빙자료 미보관 이유(직종별) .....	65

## 표 차례

〈표 III-49〉 프리랜서의 경력 증빙서류 요청 시 어려움(직종별) .....	66
〈표 III-50〉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정책 1순위(직종별) .....	67
〈표 III-51〉 프리랜서의 데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직종별) .....	68
〈표 III-52〉 프리랜서의 데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 이유(직종별) .....	69
〈표 III-53〉 데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직종별) .....	69
〈표 III-54〉 데스크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직종별) .....	70
〈표 III-55〉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	71
〈표 III-56〉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76
〈표 III-57〉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직종 및 활동 기간 .....	77
〈표 III-58〉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프리랜서 선택 이유 .....	77
〈표 III-5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발주처 .....	78
〈표 III-6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계약 형태 및 계약서 교부 .....	79
〈표 III-6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계약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 .....	79
〈표 III-6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	80
〈표 III-6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	80
〈표 III-64〉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	81
〈표 III-65〉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	81
〈표 III-66〉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감 선택시 중요한 요인 .....	82
〈표 III-67〉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	82
〈표 III-68〉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자격증 여부(복수응답) .....	82
〈표 III-6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 결정방법 .....	83
〈표 III-7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근무 장소 및 지휘감독 .....	84
〈표 III-7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프리랜서로서 어려움 .....	84
〈표 III-7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부당대우 경험 .....	85
〈표 III-7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	85
〈표 III-74〉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 .....	86
〈표 III-75〉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	86
〈표 III-76〉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	87
〈표 III-77〉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 여부 .....	87
〈표 III-78〉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 .....	87
〈표 III-7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 .....	88

## 표 차례

〈표 III-8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필요한 교육 .....	88
〈표 III-8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인정 .....	89
〈표 III-8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 .....	89
〈표 III-8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복수응답) .....	90
〈표 III-84〉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 .....	90
〈표 III-85〉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책 .....	91
〈표 III-86〉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 .....	91
〈표 III-87〉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 및 이유 .....	92
〈표 III-88〉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에스크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 .....	92
〈표 III-8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	93
〈표 III-90〉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96
〈표 III-91〉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직종 및 활동 기간 .....	97
〈표 III-92〉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프리랜서 선택 이유 .....	98
〈표 III-93〉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감(프로젝트) 발주처 .....	98
〈표 III-9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계약 형태 및 계약서 교부 .....	99
〈표 III-95〉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계약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 .....	100
〈표 III-96〉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	100
〈표 III-97〉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	100
〈표 III-98〉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	101
〈표 III-99〉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	102
〈표 III-100〉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감 선택시 중요한 요인 .....	102
〈표 III-101〉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	103
〈표 III-102〉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자격증 여부(복수응답) .....	103
〈표 III-103〉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 결정방법 .....	103
〈표 III-10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근무 장소 및 지휘·감독 .....	104
〈표 III-105〉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프리랜서로서 어려움 .....	105
〈표 III-106〉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부당대우 경험 .....	105
〈표 III-107〉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	106
〈표 III-108〉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 .....	106
〈표 III-109〉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	107
〈표 III-110〉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	107

## 표 차례

〈표 III-111〉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의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 여부	108
〈표 III-112〉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	108
〈표 III-113〉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	108
〈표 III-114〉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에게 필요한 교육	109
〈표 III-115〉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	109
〈표 III-116〉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	110
〈표 III-117〉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복수응답)	110
〈표 III-118〉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	111
〈표 III-119〉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에게 필요한 정책	111
〈표 III-120〉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의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	112
〈표 III-121〉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의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 및 이유	112
〈표 III-122〉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의 에스크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	113
〈표 III-123〉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의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113
〈표 III-12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16
〈표 III-12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직종 및 활동 기간	117
〈표 III-126〉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선택 이유	118
〈표 III-127〉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발주처	118
〈표 III-128〉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계약 형태 및 계약서 교부	119
〈표 III-129〉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계약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	120
〈표 III-13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120
〈표 III-13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120
〈표 III-13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121
〈표 III-133〉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122
〈표 III-13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감 선택시 중요한 요인	122
〈표 III-13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123
〈표 III-136〉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여부(복수응답)	123
〈표 III-137〉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 결정방법	124
〈표 III-138〉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근무 장소 및 지휘·감독	124
〈표 III-139〉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로서 어려움	125
〈표 III-14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 경험	125
〈표 III-14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126

## 표 차례

〈표 Ⅲ-14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	126
〈표 Ⅲ-143〉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127
〈표 Ⅲ-14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127
〈표 Ⅲ-14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 여부	128
〈표 Ⅲ-146〉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	128
〈표 Ⅲ-147〉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	128
〈표 Ⅲ-148〉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에게 필요한 교육	129
〈표 Ⅲ-149〉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	129
〈표 Ⅲ-15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	130
〈표 Ⅲ-15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복수응답)	130
〈표 Ⅲ-15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	131
〈표 Ⅲ-153〉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책	131
〈표 Ⅲ-15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	132
〈표 Ⅲ-15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 및 이유	132
〈표 Ⅲ-156〉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에스크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	133
〈표 Ⅲ-157〉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133
〈표 Ⅲ-158〉 디자이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36
〈표 Ⅲ-159〉 디자이너의 직종 및 활동 기간	137
〈표 Ⅲ-160〉 디자이너의 프리랜서 선택 이유	138
〈표 Ⅲ-161〉 디자이너의 일감(프로젝트) 발주처	139
〈표 Ⅲ-162〉 디자이너의 계약 형태 및 계약서 교부	139
〈표 Ⅲ-163〉 디자이너의 계약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	140
〈표 Ⅲ-164〉 디자이너의 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140
〈표 Ⅲ-165〉 디자이너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141
〈표 Ⅲ-166〉 디자이너의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141
〈표 Ⅲ-167〉 디자이너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142
〈표 Ⅲ-168〉 디자이너의 일감 선택시 중요한 요인	142
〈표 Ⅲ-169〉 디자이너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143
〈표 Ⅲ-170〉 디자이너의 자격증 여부(복수응답)	143
〈표 Ⅲ-171〉 디자이너의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 결정방법	144
〈표 Ⅲ-172〉 디자이너의 근무 장소 및 지휘·감독	144

## 표 차례

〈표 III-173〉 디자이너의 프리랜서로서 어려움	145
〈표 III-174〉 디자이너의 부당대우 경험	145
〈표 III-175〉 디자이너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146
〈표 III-176〉 디자이너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	146
〈표 III-177〉 디자이너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147
〈표 III-178〉 디자이너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147
〈표 III-179〉 디자이너의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 여부	148
〈표 III-180〉 디자이너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	148
〈표 III-181〉 디자이너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	148
〈표 III-182〉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교육	149
〈표 III-183〉 디자이너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	150
〈표 III-184〉 디자이너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	150
〈표 III-185〉 디자이너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복수응답)	150
〈표 III-186〉 디자이너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	151
〈표 III-187〉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정책	151
〈표 III-188〉 디자이너의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	152
〈표 III-189〉 디자이너의 에스스로 시스템 사용 의향 및 이유	152
〈표 III-190〉 디자이너의 에스스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	153
〈표 III-191〉 디자이너의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153
〈표 III-19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56
〈표 III-19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직종 및 활동 기간	157
〈표 III-19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선택 이유	158
〈표 III-19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발주처	159
〈표 III-19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계약 형태 및 계약서 교부	159
〈표 III-19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계약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	160
〈표 III-19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160
〈표 III-19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161
〈표 III-20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161
〈표 III-20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162
〈표 III-2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감 선택시 중요한 요인	162
〈표 III-20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163

## 표 차례

〈표 III-20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여부(복수응답) .....	163
〈표 III-20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 결정방법 .....	164
〈표 III-20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근무 장소 및 지휘·감독 .....	164
〈표 III-20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로서 어려움 .....	165
〈표 III-20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 경험 .....	165
〈표 III-20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	166
〈표 III-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 .....	166
〈표 III-21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	167
〈표 III-21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	167
〈표 III-21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 여부 .....	168
〈표 III-21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 .....	168
〈표 III-21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 .....	168
〈표 III-21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에게 필요한 교육 .....	169
〈표 III-21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 .....	170
〈표 III-21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 .....	170
〈표 III-21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복수응답) .....	170
〈표 III-22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 .....	171
〈표 III-22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책 .....	171
〈표 III-22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 .....	172
〈표 III-22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 및 이유 .....	172
〈표 III-22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에스프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 .....	173
〈표 III-22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	173
〈표 III-226〉 돌봄 및 보건의 서비스 종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176
〈표 III-227〉 돌봄 및 보건의 서비스 종사자의 직종 및 활동 기간 .....	177
〈표 III-228〉 돌봄 및 보건의 서비스 종사자의 프리랜서 선택 이유 .....	178
〈표 III-229〉 돌봄 및 보건의 서비스 종사자의 일감(프로젝트) 발주처 .....	178
〈표 III-230〉 돌봄 및 보건의 서비스 종사자의 계약 형태 및 계약서 교부 .....	179
〈표 III-231〉 돌봄 및 보건의 서비스 종사자의 계약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 .....	180
〈표 III-232〉 돌봄 및 보건의 서비스 종사자의 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	180
〈표 III-233〉 돌봄 및 보건의 서비스 종사자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	180
〈표 III-234〉 돌봄 및 보건의 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	181

## 표 차례

〈표 III-235〉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	182
〈표 III-236〉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감 선택시 중요한 요인 .....	182
〈표 III-23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	183
〈표 III-238〉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자격증 여부(복수응답) .....	183
〈표 III-239〉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 결정방법 .....	184
〈표 III-24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장소 및 지휘감독 .....	184
〈표 III-24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프리랜서로서 어려움 .....	185
〈표 III-242〉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부당대우 경험 .....	185
〈표 III-243〉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	186
〈표 III-244〉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 .....	186
〈표 III-245〉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	187
〈표 III-246〉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	187
〈표 III-24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 여부 .....	188
〈표 III-248〉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 .....	188
〈표 III-249〉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 .....	188
〈표 III-25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	189
〈표 III-25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 .....	190
〈표 III-252〉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 .....	190
〈표 III-253〉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복수응답) .....	190
〈표 III-254〉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 .....	191
〈표 III-255〉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책 .....	191
〈표 III-256〉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 .....	192
〈표 III-25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 및 이유 .....	192
〈표 III-258〉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에스크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 .....	193
〈표 III-259〉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	193

## 그림 차례

---



[그림 Ⅱ-1] 실태조사 직종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별 검토 자료와 방법 및 결과 .....	24
[그림 Ⅲ-1]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 과정 .....	29





#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프리랜서 개념





#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취업과 창업으로 이분화 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경제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시간, 공간, 재능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프리랜서들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인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Freelancer’ 라는 단어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웹툰 등 창작 분야에서는 ‘개인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영역에서는 ‘크리에이터’, IT·SW 업계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강금봉, 2022).

이처럼 프리랜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중간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낮은 노무 단가, 불공정 계약, 불합리한 계약형태,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 지속적인 작업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강금봉, 2022). 또한, 기술변화에 발맞춰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이 필요하나, 이들 대다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경력개발 및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의 노동환경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2016~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및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과 사업체 소재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서울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고용 특성, 계약 관련, 노동환경, 경력과 경력 증빙 실태, 노동 인식, 에스크로시스템 활용 등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2. 프리랜서 개념

우리나라의 프리랜서에 대한 개념은 법률상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으나,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프리랜서를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한 개념은 없다.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서의 “프리랜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서는 “프리랜서”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프리랜서”를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사람으로, 제주도 조례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 및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을 사용해 노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1〉 조례에서의 프리랜서 정의

지역	조례명	프리랜서 정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
경기도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전라남도	전라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받지 않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지역	조례명	프리랜서 정의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가 아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노동관계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충청남도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사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경상남도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경상북도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및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을 사용해 노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4.11.06.)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법률로 프리랜서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박선효, 장진희, 2024). 그러나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법률에서 독립계약자라는 개념을 통해 프리랜서를 정의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프리랜서를 협의의 개념으로는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광의의 개념으로는 자유 직종 전체를 의미한다. 독일의 파트너십법에 따르면 자유직업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직업적 특성 또는 창조적 재능을 기반으로 하며, 위탁자와 공익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이고 책임감 있는 독립 콘텐츠를 창출하는 직업”이다. 프리랜서 개념은 국제적으로도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정한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유로운 직업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신태중, 2019).

신태중(2019)의 연구에서는 프리랜서를 임금노동자가 아니면서 혼자 일하는 전문직으로 정의하고 김종진 외(2021)의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 활용하여 프리랜서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5가지 유형 중 최협의 프리랜서는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보수 및 노동시간을 자신이 정하는 자, 협의 프리랜서는 최협의 프리랜서 외에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한국표준직업대분류상 관리직 및 전문직인 자, 중범위 프리랜서는 1인 자영업자, 광의 프리랜서는 중범위 프리랜서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자), 최광의 프리랜서는 광의 프리랜서와 임시·일용직 중 직업이 전문직 및 관리자인 자로 정의하였다. 김종진, 박관성(2021)의 연구에서는 프리랜서의 직업과 일하는 방식·특성을 기준으로 예술인형, 특수고용형, 플랫폼노동형, 독립자유계약형, 개인사업자형인 다섯 가지 이념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강금봉(2022)의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자기인식 프리랜서, 독립·종속 자영업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위치를 차지하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프리랜서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자기 선언적 프리랜서 정의는 한국노동패널 설문 중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자 중에서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대상이며, 중범위적 프리랜서는 자기 선언적 정의의 프리랜서 외에 전적인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경영하거나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을 포괄하였다. 광범위적 정의는 자기 선언적 정의와 중범위적 정의 외에 종업원과 사무실이 없는 자영업자까지 포괄하고 있다. 또한, 박선효, 장진희(2024)의 연구에서는 프리랜서를 종사상 지위가 임금노동자가 아니면서 혼자 일하는 전문직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프리랜서”를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종사상 지위가 임금노동자가 아니면서),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으로 개념화한다.

〈표 1-2〉 프리랜서 정의 관련 선행연구

구성	내용
근로환경조사	비임금노동자 중, 자신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자
전병유 외(2017)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중, 자신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자
정흥준·장희은 (2019)	다음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1인 자영업자로 응답한 사람 가운데 본인의 점포(직업장)을 가지고 있고, 계약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1인 자영업자로 응답한 사람 가운데 보수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자신이 정하는 경우 ③ 1인 자영업자로 응답한 사람 가운데 일체의 업무지시와 퇴근시간 제약이 모두 없는 경우
이승렬 외(2013)	① 광의의 프리랜서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② 협의의 프리랜서 정의: 광의의 프리랜서 중, 관리직 및 전문직
오재호 외(201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관리·전문직종 종사자+ 특수형태종사자 중 자발적이면서 관리·전문직종에 종사
안임준 외(2016)	임시직,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자(프리랜서 정의는 방송산업에 한정하여 정의)

구성	내용
신태중(2019)	임금노동자가 아니면서 혼자 일하는 전문직
김종진 외(2021)	① 최협의 프리랜서: 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보수 및 노동시간을 자신이 정하는 자 ② 협의 프리랜서: 최협의 프리랜서+비임금노동자 중 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한국표준직업대분류상 관리직 및 전문직인 자 ③ 중범위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④ 광의 프리랜서: 중범위 프리랜서+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자) ⑤ 최광의 프리랜서: 광의 프리랜서+임사·일용직 중 직업이 전문직 및 관리자인 자
박선호·장진희(2024)	종사상 지위가 임금노동자가 아니면서 혼자 일하는 전문직



## II

# 서울시 프리랜서의 규모와 특성

1. 실증분석 자료
2. 전국 수준에서 측정한 프리랜서의 규모 - 유형 및 직종별
3. 서울시 프리랜서 규모 - 유형 및 직종별
4. 서울시 프리랜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위한 직종 선정
6. 요약





## 서울시 프리랜서의 규모와 특성

### 1. 실증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서울시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이 작성·공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이다. <표 II-1>은 두 자료를 활용해 추정 가능한 프리랜서 유형을 제시하였다. 두 자료 모두 '보수 및 노동시간을 본인이 정하는 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최협의 프리랜서(유형 1)의 규모는 추정이 어렵다.

매년 8월에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근로형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협의 프리랜서, 중범위 프리랜서, 광의 프리랜서, 최광의 프리랜서 등 최협의 프리랜서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프리랜서 규모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 정보가 부재하므로 전국 단위의 규모만 추산이 가능하다. 추정에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다운받은 개인단위 MD(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II-1> 통계별 프리랜서 추계 가용 범위

구분		(1)	(2)	(3)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다운로드	다운로드	RAS
유형 1.	최협의 프리랜서	X	X	X
유형 2.	협의 프리랜서	O	O	O
유형 3.	중범위 프리랜서	O	O	O
유형 4.	광의 프리랜서	O	X	X
유형 5.	최광의 프리랜서	O	X	X
업종분류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
지역구분		전국	전국	시도/시군구

주 1. 프리랜서 구분 중 "보수 및 노동시간을 자신이 정하는 자"는 통제하지 못한다. 즉 TYPE1.=TYPE 3.

2. 정의 중 '노무제공자'를 특고로 식별

3. 통계청 제공 서비스 유형 : 다운로드 서비스, 온라인 분석 서비스, 인가용 서비스(RAS, RDC), 주문형 서비스

상·하반기(4월, 10월)에 각각 실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근로형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광의 프리랜서와 최광의 프리랜서는 식별이 불가하다. 그러나 지역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여 서울시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프리랜서 개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파악 가능하다. 추정에는 개인단위 MD 외에 원격접근 서비스(RAS)를 활용<sup>1)</sup>하였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의 모집단은 인구주택총조사이며, 표본조사가 상주(常住)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요 고용지표는 거주자 중심 자료이다. 취업자의 거주지와 근무지(사업체 소재지)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일자리 소재지 정보를 파악하여 조사지역과 근무지역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므로, 이를 비교하면 거주지 기준 취업자(공식 통계) 외에도 지역 내 실제 취업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면 서울시민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규모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규모(=서울시 프리랜서 일자리 수)도 추정이 가능하다.

서울시 직종별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격접근 서비스(RAS)를 통해 A형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통계청이 (MD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별로 변수의 상세내역이 상이한데, 예를 들어 지역별 고용조사 A형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행정구역을 식별할 수 있으며, 직종은 중분류 수준(2digit)의 자료를 제공한다(〈표 II-2〉 참고). 다만 자료의 활용은 RAS 또는 RDC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B형의 경우 직종 정보를 세분류(4digit)까지 제공하여 직종별 상세한 추계가 가능하나, 지역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수준의 추정은 불가능하다. C형과 D형의 경우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서울시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할 수 있지만, 직종 및 업종 정보가 대분류 수준에서 제공되므로 직종별로 상세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직종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확보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프리랜서 추정은 이상 검토한 두 자료를 활용한다.

〈표 II-2〉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의 서비스 유형별 제공 범위

변수별 제공 범위/서비스 유형		A형	B형	C형	D형
행정구역 (digit)		시군구 (4)	미제공 -	시도 (2)	시군구 (4)
산업, 직업	다운로드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대분류
	RAS/RDC	중분류	세분류	대분류	대분류

주 : RAS(원격접근서비스) - 이용자가 집, 사무실에서 원격 접근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만 통계청 승인 하에 반출  
RDC(이용센터 서비스) - 이용자가 물리적 보안 환경이 갖춰진 이용센터에서 분석하고 결과만 통계청 승인 하에 반출

1) RAS(Remote Access Service) : 유료 서비스로 공공용 자료보다 제공 항목 추가, 항목별 제공 수준 상세화 등 보다 세부적인 자료 제공

## 2. 전국 수준에서 측정한 프리랜서의 규모 - 유형 및 직종별

우리나라 전체 수준에서 프리랜서의 유형별 규모는 경찰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직종별 규모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2023년 8월 기준, 전국의 프리랜서 규모는 좁은 정의로는 취업자의 2.1% 수준이며, 가장 넓게 식별하면 19.0% 수준으로 기준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표 II-3 참고〉).

〈표 II-3〉 유형별 프리랜서 수 - 2023년 8월 현재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단위 : 천 명, %)

유형	종사자수	%	[%]
유형 2. 협의 프리랜서	608	(2.1)	[13.9]
유형 3. 중범위 프리랜서	4,370	(15.2)	[100]
유형 4. 광의 프리랜서	4,910	(17.1)	[112.4]
유형 5. 최광의 프리랜서	5,450	(19)	[124.7]
기초자료			
(1) 취업자	28,678	(100)	
(2) 임금근로자	21,954	(76.6)	
(3) 노무제공자	553	(1.9)	
(4) 임시일용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40		
(5) 비임금근로자	6,724	(23.4)	
(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13	(4.9)	
(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유형 3)	4,370	(15.2)	
(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유형 2)	608		

주 1. % - 취업자 대비 비율, [%] - 중범위 프리랜서 대비 비율

2. 협의 프리랜서=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8)

중범위 프리랜서=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7)

광의 프리랜서=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노무제공자(7)+(3)

최광의 프리랜서=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노무제공자 + (임시일용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7)+(3)+(4)

자료.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해당 추정치는 근로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경찰 부가조사를 활용한 결과이다. 직종대분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식별한 협의의 프리랜서는 약 60.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 수준이며 직종 구분없이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만으로 식별한 중범위 프리랜서는 취업자의 15.2% 수준(약 437만 명)이다. 중범위 프리랜서에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 정의한 광의 프리랜서는 491만 명으로 취업자의 17.1% 수준이며, 중범위 프리랜서를

12.4% 초과한 규모2)이다. 광의 프리랜서에 직종대분류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 임시·일용 근로자를 포함시킨 최광의 프리랜서는 약 545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0% 수준이다.

지역별 고용조사 B형 자료를 활용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소분류 수준에서 직종별 프리랜서를 세분화할 수 있는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로 추정된 활용한 협의 프리랜서는 61만 5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 수준이며, 중범위 프리랜서는 429만 8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5.1% 수준이다.

〈표 11-4〉 유형별 프리랜서 수 - 2023년 4월 현재 - 지역별 고용조사

(단위 : 천 명, %)

유형	종사자수	%	[%]
유형 2. 협의 프리랜서	615	(2.2)	[100]
유형 3. 중범위 프리랜서	4,298	(15.1)	[698.8]
<b>기초자료</b>			
취업자	28,432	(100)	
임금근로자	21,794	(76.7)	
비임금근로자	6,639	(23.3)	
(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298	(15.1)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15	(2.2)	

주 1. % - 취업자 대비 비율, [%] - 중범위 프리랜서 대비 비율

2. 협의 프리랜서=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중범위 프리랜서=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

자료. 2023년 4월, 지역별 고용조사 B형, 통계청

중범위 프리랜서를 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수준(2digit)에서 세분화하면 농축산 숙련직(22.5%), 운전 및 운송 관련직(14.5%),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10.6%),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7.1%),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4.5%),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3.4%) 순이다. 직종 대분류 단위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3.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6.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4.3%), 서비스 종사자(14.1%) 순이다.

2) 노무제공자는 2002년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정의로는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며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1)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2) (채용이 아닌)계약에 의해 주로 특정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 다만 근로(노무)제공의 방법, 근로(노무)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3) 타인을 사용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근로를 직접 제공한다.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Quick Service) 배달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표 11-5〉 프리랜서의 업종 분포 - 유형 3. 중범위 프리랜서

(단위 : 천 명, %)

코드	항목	종사자수 (비율)	코드	항목	종사자수 (비율)
<b>유형 3. 중범위 프리랜서</b>		<b>4,297.8 (100)</b>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15.0 (14.3)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93.8 (9.2)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0.9 (0)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36.0 (0.8)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8.5 (0.7)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33.9 (0.8)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6.4 (0.6)	73	목재·가구·약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20.8 (0.5)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35.5 (0.8)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11.1 (0.3)
25	<b>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b>	<b>191.4 (4.5)</b>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1.9 (1.7)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0.1)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48.5 (1.1)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126.1 (2.9)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19.8 (0.5)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03.4 (4.7)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117.4 (2.7)
3	사무 종사자	79.8 (1.9)	79	기타 기능 관련직	34.3 (0.8)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57.3 (1.3)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01.8 (16.3)
32	금융 사무직	3.6 (0.1)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9.4 (0.2)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0.3 (0)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15.7 (0.4)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18.6 (0.4)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3.9 (0.1)
4	서비스 종사자	604.5 (14.1)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7.0 (0.2)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0.4 (0)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18.8 (0.4)
42	<b>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b>	<b>229.0 (5.3)</b>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6.5 (0.2)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68.4 (1.6)	87	<b>운전 및 운송 관련직</b>	<b>625.1 (14.5)</b>
44	<b>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b>	<b>306.7 (7.1)</b>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0.6 (0)
5	판매 종사자	655.1 (15.2)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14.7 (0.3)
51	영업직	48.1 (1.1)	9	단순노무 종사자	248.8 (5.8)
52	<b>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b>	<b>455.3 (10.6)</b>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1.9 (0)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151.7 (3.5)	92	<b>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b>	<b>147.3 (3.4)</b>
6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999.1 (23.2)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1.1 (0)
61	<b>농·축산 숙련직</b>	<b>966.8 (22.5)</b>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59.8 (1.4)
62	임업 숙련직	2.4 (0.1)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14.2 (0.3)

코드	항목	종사자수 (비율)	코드	항목	종사자수 (비율)
63	어업 숙련직	29.9 (0.7)	99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 순 노무직	24.5 (0.6)

주 :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자료 : 2023년 4월, 지역별 고용조사 B형, 통계청

유형 3의 중범위 프리랜서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한정된 협의 프리랜서(총 61만5천 명)를 소분류 수준(3digit)에서 세분화하면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30.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16.8%), 시각 및 공연 예술가(7.6%), 디자이너(7.5%), 연극 영화 및 영상 전문가(6.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5.9%) 순이다. 중분류 수준으로는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33.1%),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31.1%),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20.5%),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5.8%) 순이다.

〈표 11-6〉 프리랜서의 업종 분포 - 유형 2. 협의 프리랜서

(단위 : 천 명, %)

코드	항목	종사자수(비율)	코드	항목	종사자수(비율)
<b>유형 2. 협의 프리랜서</b>		<b>615.0 (100)</b>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0.9 (0.1)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5.7 (0.9)
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0.2 (0)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7.7 (1.3)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0.6 (0.1)	248	종교 관련 종사자	7.0 (1.1)
213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0.1 (0)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91.4 (31.1)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8.5 (4.6)	251	대학교수 및 강사	1.4 (0.2)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0.6 (0.1)	252	학교 교사	0.2 (0)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5.3 (4.1)	253	유치원 교사	0.0 (0)
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0.5 (0.1)	254	<b>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b>	<b>187.2 (30.4)</b>
224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2.1 (0.3)	259	기타 교육 전문가	2.6 (0.4)
225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0.0 (0)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0.4)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6.4 (4.3)	261	법률 전문가	2.7 (0.4)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3.9 (2.3)	262	행정 전문가	0.0 (0)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8 (0.1)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126.1 (20.5)
233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0 (0)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10.0 (1.6)
234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1 (0.3)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3.6 (0.6)
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6 (0.3)	273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9.3 (1.5)
236	소방·방재 기술자 및	0.9 (0.1)	274	<b>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b>	<b>103.2 (16.8)</b>

코드	항목	종사자수(비율)	코드	항목	종사자수(비율)
237	안전 관리원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0.6 (0.1)		<b>관련 종사자</b>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03.4 (33.1)
238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0.8 (0.1)	28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9.2 (4.7)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7 (0.9)	2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0.1 (0)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35.5 (5.8)	283	<b>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b>	<b>41.3 (6.7)</b>
241	의료 진료 전문가	2.9 (0.5)	284	<b>시각 및 공연 예술가</b>	<b>46.8 (7.6)</b>
242	약사 및 한약사	4.1 (0.7)	285	<b>디자이너</b>	<b>46.0 (7.5)</b>
243	간호사	0.0 (0)	286	<b>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b>	<b>36.4 (5.9)</b>
244	영양사	0.0 (0)	287	식문화 관련 전문가	0.0 (0)
245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8.1 (1.3)	288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3.5 (0.6)

주: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자료: 2023년 4월, 지역별 고용조사 B형, 통계청

### 3. 서울시 프리랜서 규모 - 유형 및 직종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시 프리랜서 규모 추정에는 지역별 고용조사 A형 인가용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의 규모를 살펴보기에 앞서 전국의 프리랜서 규모 추이를 검토하면, 2023년 4월 현재, 협의의 프리랜서(유형 2)는 63만 7천 명으로 취업자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2.0%대를 유지 중이다. 중범위 프리랜서(유형 3)는 취업자의 14.8%(409만 5천 명) 수준이며 2016년 전체 취업자의 15.7% 수준에서 소폭으로 감소한 추세이다. 2020-2021년 기간 중 유형 3 프리랜서 비율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영업 위축과 구인난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축소하는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II-7〉 프리랜서 규모 추이 - 전국

(단위: 천 명, %)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유형2		유형3	
	2016	25,266	6,882	493	[2.0]	3,959
2017	25,709 (1.8)	6,877 (-0.1)	497 (0.8)	[1.9]	3,970 (0.3)	[15.4]
2018	25,846 (0.5)	6,815 (-0.9)	544 (9.5)	[2.1]	3,911 (-1.5)	[15.1]
2019	26,229 (1.5)	6,752 (-0.9)	546 (0.4)	[2.1]	3,960 (1.3)	[15.1]
2020	25,555 (-2.6)	6,571 (-2.7)	530 (-2.9)	[2.1]	3,957 (-0.1)	[15.5]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유형2			유형3				
	2021	26,283	(2.8)	6,638	(1.0)	554	(4.5)	[2.1]	4,051	(2.4)
2022	27,130	(3.2)	6,675	(0.6)	548	(-1.1)	[2.0]	4,064	(0.3)	[15.0]
2023	27,599	(1.7)	6,699	(0.4)	637	(16.2)	[2.3]	4,095	(0.8)	[14.8]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A형 인가용 자료, 통계청

주 : % - 전년비 증감률, [%] - 취업자 대비 비율

2023년 4월 현재, 서울의 프리랜서 규모는 유형 2, 유형 3 각각 16만 1천 여명, 54만 2천여명 수준으로 각각 전국 프리랜서의 25.3%, 13.2%를 차지한다. 전국 취업자 중 서울시 취업자의 비율(18.1%)을 고려할 때 유형 2의 비율은 다소 높고, 유형 3은 낮은 편이며, 이와 같은 현황은 2016-2023년 기간 중 대체로 유지된다. <표 II-8>의 규모 추이는 취업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결과이며, 2023년 4월 현재 서울시 거주자 중 프리랜서 유형 3은 약 54만 2천 명으로, 전국 프리랜서 유형 3의 13.2%를 차지한다.

<표 II-8> 연도별 프리랜서 규모 - 서울 - 거주지 기반

(단위 : 천 명, %)

	전국						
	서울		경기도		광역시		
<b>취업자</b>							
2016	25,266	4,795 (19.0)	6,140 (24.3)	6,165 (24.4)			
2017	25,709	4,846 (18.8)	6,280 (24.4)	6,380 (24.8)			
2018	25,846	4,863 (18.8)	6,411 (24.8)	6,402 (24.4)			
2019	26,229	4,793 (18.3)	6,678 (25.5)	6,407 (24.3)			
2020	25,555	4,643 (18.2)	6,564 (25.7)	6,204 (24.1)			
2021	26,283	4,747 (18.1)	6,862 (26.1)	6,340 (24.1)			
2022	27,130	4,878 (18.0)	7,200 (26.5)	6,547 (24.1)			
2023	27,599	4,983 (18.1)	7,345 (26.6)	6,660 (24.1)			
<b>유형2</b>							
2016	493	124 (25.2)	133 (27.0)	121 (24.5)			
2017	497	134 (27.0)	132 (26.6)	113 (22.7)			
2018	544	139 (25.6)	158 (29.0)	129 (23.7)			
2019	546	135 (24.7)	162 (29.7)	128 (23.4)			
2020	530	138 (26.0)	149 (28.1)	126 (23.8)			
2021	554	147 (26.5)	155 (28.0)	125 (22.6)			
2022	548	143 (26.1)	155 (28.3)	126 (23.0)			
2023	637	161 (25.3)	189 (29.7)	150 (23.5)			
<b>유형3</b>							
2016	3,959	530 (13.4)	769 (19.4)	806 (20.4)			
2017	3,970	534 (13.5)	765 (19.3)	822 (20.7)			
2018	3,911	521 (13.3)	787 (20.1)	805 (20.6)			

	전국						
	서울		경기도		광역시		
2019	3,960	507 (12.8)	804 (20.3)	816 (20.6)			
2020	3,957	504 (12.7)	780 (19.7)	835 (21.1)			
2021	4,051	523 (12.9)	824 (20.3)	859 (21.2)			
2022	4,064	514 (12.6)	851 (20.9)	837 (20.6)			
2023	4,095	542 (13.2)	882 (21.5)	858 (21.0)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A형 인가용 자료, 통계청  
 주 : % - 전국 대비 비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는 취업자의 사업체 소재지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지역 내 실질적 취업자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현재, 서울 소재 사업체의 취업자(=서울시 내 일자리 규모)는 전국 취업자의 21.2%를 차지하는 583만 8천 명으로 서울시민 중 취업자 498만 3천명을 크게 초과한다. 반면 인접 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사업체 종사자는 668만 3천 명으로 경기도민 중 취업자 규모(734만 5천명)를 하회)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프리랜서는 사업체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사업체 소재지를 식별한다.

2023년 4월 현재, 사업체 소재지에 기반하여 집계한 서울시 프리랜서 규모는 유형 2, 유형 3 각각 18만 1천 명, 59만 8천명으로 전국 프리랜서의 28.4%, 14.6%를 차지한다. 앞선 <표 II-8>의 결과와 유사하게 서울시 취업자의 전국 대비 규모를 고려할 때 유형 2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형 3은 낮는데, 서울시 프리랜서의 이와 같은 규모는 표본 기간 중 큰 변동이 없다. 사업체 소재지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의 전체 일자리 대비 비율은 3.1%p 증가하였으며, 유형 2는 3.1%p로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유형 3은 1.4%p 증가하였다.

<표 II-9> 연도별 프리랜서 규모 - 서울 - 사업체 소재지 기반

(단위 : 천 명, %)

	전국						
	서울		경기도		광역시		
<b>취업자</b>							
2016	25,266	5,479 (21.7)	5,597 (22.2)	5,727 (22.7)			
2017	25,709	5,508 (21.4)	5,743 (22.3)	5,989 (23.3)			
2018	25,846	5,552 (21.5)	5,863 (22.7)	5,982 (23.1)			
2019	26,229	5,567 (21.2)	6,043 (23)	5,989 (22.8)			
2020	25,555	5,370 (21)	5,965 (23.3)	5,801 (22.7)			
2021	26,283	5,448 (20.7)	6,265 (23.8)	5,961 (22.7)			
2022	27,130	5,642 (20.8)	6,578 (24.2)	6,134 (22.6)			

3) 경찰 부가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 공식 통계지표는 거주지에 기반하여 공표되는데 이 경우 실제적인 지역별 일자리 규모의 변동을 왜곡할 수 있다.

	전국						
	서울		경기도		광역시		
2023	27,599	5,838 (21.2)	6,683 (24.2)	6,195 (22.4)			
유형2							
2016	493	141 (28.6)	118 (23.9)	117 (23.7)			
2017	497	147 (29.6)	121 (24.3)	112 (22.5)			
2018	544	156 (28.7)	145 (26.7)	124 (22.8)			
2019	546	151 (27.7)	149 (27.3)	124 (22.7)			
2020	530	154 (29.1)	137 (25.8)	122 (23)			
2021	554	158 (28.5)	147 (26.5)	120 (21.7)			
2022	548	154 (28.1)	147 (26.8)	122 (22.3)			
2023	637	181 (28.4)	172 (27)	144 (22.6)			
유형3							
2016	3,959	568 (14.3)	738 (18.6)	775 (19.6)			
2017	3,970	567 (14.3)	739 (18.6)	795 (20)			
2018	3,911	563 (14.4)	756 (19.3)	773 (19.8)			
2019	3,960	551 (13.9)	770 (19.4)	784 (19.8)			
2020	3,957	534 (13.5)	765 (19.3)	801 (20.2)			
2021	4,051	560 (13.8)	800 (19.7)	824 (20.3)			
2022	4,064	555 (13.7)	823 (20.3)	804 (19.8)			
2023	4,095	598 (14.6)	838 (20.5)	827 (20.2)			

주 : % - 전국 대비 비율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A형 인가용 자료, 통계청

한편, <표 II-9>를 통해 2020-2021년 기간 동안 유형 3 프리랜서 규모의 소폭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유형 2 프리랜서는 2020년에 소폭 증가한 후 감소한 반면, 유형 3은 2020년에 13.5%로 최근 8년 검토 기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10>은 서울시 프리랜서를 업종별로 세분화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023년 4월 현재, 서울시의 유형 3 중범위 프리랜서 약 59만 8천 명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판매 종사자(20.8%)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3.1%)가 그 뒤를 이었다. 직종별 전국 규모에서 서울시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8.4%), 사무 종사자(24.8%), 판매 종사자(19.8%) 순으로 나타났다.

중분류 단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특정 직종에서 서울시 내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법률 및 행정 전문직(69.0%), 법률 및 감사 사무직(66.7%),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44.4%),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41.3%),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프리랜서(38.1%)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서울 쏠림은 해당 직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서울 시내에 특히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만, 이상의 결과는 전체 취업자 중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프리랜서를 업종별로 세분화한 것이므로, 실제 직종별 프리랜서 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업종별 비율의 크고 작음 정도를 파악하는 목적 외의 활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II-10〉 2023년 프리랜서의 직종 - 유형 3. 중범위 프리랜서

(단위 : 천 명, %)

코드	항목	전국		서울					
				소재지			거주지		
				천명	(%)	천명	(%)	천명	(%)
<b>유형 3. 중범위 프리랜서</b>		4,095	(100)	598.1	(100)	[14.6]	541.7	(100)	[13.2]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유형 2.)	637.1	(15.6)	180.9	(30.2)	[28.4]	160.6	(29.6)	[25.2]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0.9	(0)	0.4	(0.1)	[44.4]	0.4	(0.1)	[44.4]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9.2	(0.7)	10.8	(1.8)	[37]	9.2	(1.7)	[31.5]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6.9	(0.7)	1.9	(0.3)	[7.1]	2.3	(0.4)	[8.6]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35.1	(0.9)	8.1	(1.4)	[23.1]	7.2	(1.3)	[20.5]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00.9	(4.9)	43.6	(7.3)	[21.7]	40.0	(7.4)	[19.9]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9	(0.1)	2.0	(0.3)	[69]	1.7	(0.3)	[58.6]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133.7	(3.3)	35.0	(5.9)	[26.2]	30.9	(5.7)	[23.1]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07.4	(5.1)	79.1	(13.2)	[38.1]	69.0	(12.7)	[33.3]
3	사무 종사자	80.0	(2)	19.8	(3.3)	[24.8]	18.3	(3.4)	[22.9]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57.7	(1.4)	14.0	(2.3)	[24.3]	13.6	(2.5)	[23.6]
32	금융 사무직	3.8	(0.1)	0.5	(0.1)	[13.2]	0.4	(0.1)	[10.5]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0.3	(0)	0.2	(0)	[66.7]	0.2	(0)	[66.7]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18.2	(0.4)	5.1	(0.9)	[28]	4.1	(0.8)	[22.5]
4	서비스 종사자	545.4	(13.3)	81.2	(13.6)	[14.9]	72.0	(13.3)	[13.2]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0.3	(0)	0.3	(0.1)	[100]		(0)	[0]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207.5	(5.1)	35.0	(5.9)	[16.9]	30.5	(5.6)	[14.7]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64.2	(1.6)	7.6	(1.3)	[11.8]	7.0	(1.3)	[10.9]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273.4	(6.7)	38.3	(6.4)	[14]	34.4	(6.4)	[12.6]
5	판매 종사자	629.1	(15.4)	124.3	(20.8)	[19.8]	110.1	(20.3)	[17.5]
51	영업직	48.7	(1.2)	11.7	(2)	[24]	8.6	(1.6)	[17.7]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433.8	(10.6)	79.4	(13.3)	[18.3]	70.0	(12.9)	[16.1]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146.6	(3.6)	33.2	(5.6)	[22.6]	31.4	(5.8)	[21.4]
6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951.9	(23.2)	0.5	(0.1)	[0.1]	1.2	(0.2)	[0.1]
61	농·축산 숙련직	920.5	(22.5)	0.5	(0.1)	[0.1]	1.2	(0.2)	[0.1]
62	임업 숙련직	2.5	(0.1)	-	-	-	-	-	-
63	어업 숙련직	29.0	(0.7)	-	-	-	-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85.7	(9.4)	71.7	(12)	[18.6]	66.7	(12.3)	[17.3]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36.1	(0.9)	4.8	(0.8)	[13.3]	4.1	(0.8)	[11.4]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33.2	(0.8)	13.7	(2.3)	[41.3]	11.9	(2.2)	[35.8]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20.8	(0.5)	3.5	(0.6)	[16.8]	3.4	(0.6)	[16.3]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10.7	(0.3)	1.4	(0.2)	[13.1]	1.5	(0.3)	[14]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68.4	(1.7)	8.3	(1.4)	[12.1]	8.6	(1.6)	[12.6]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46.5	(1.1)	9.4	(1.6)	[20.2]	7.9	(1.5)	[17]

코드	항목	전국		서울					
				소재지			거주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18.7	(0.5)	4.7	(0.8)	[25.1]	4.5	(0.8)	[24.1]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116.9	(2.9)	19.3	(3.2)	[16.5]	19.0	(3.5)	[16.3]
79	기타 기능 관련직	34.4	(0.8)	6.6	(1.1)	[19.2]	5.8	(1.1)	[16.9]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49.8	(15.9)	78.3	(13.1)	[12]	72.0	(13.3)	[11.1]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9.5	(0.2)	0.9	(0.2)	[9.5]	0.9	(0.2)	[9.5]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14.2	(0.3)	1.3	(0.2)	[9.2]	1.3	(0.2)	[9.2]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4.1	(0.1)	0.1	(0)	[2.4]	0.1	(0)	[2.4]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7.2	(0.2)	0.4	(0.1)	[5.6]	0.8	(0.1)	[11.1]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19.6	(0.5)	1.9	(0.3)	[9.7]	1.4	(0.3)	[7.1]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6.6	(0.2)	0.4	(0.1)	[6.1]	0.5	(0.1)	[7.6]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573.3	(14)	70.0	(11.7)	[12.2]	64.1	(11.8)	[11.2]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0.6	(0)	-	-	-	-	-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14.7	(0.4)	3.2	(0.5)	[21.8]	2.8	(0.5)	[19]
9	단순노무 종사자	216.1	(5.3)	41.4	(6.9)	[19.2]	40.8	(7.5)	[18.9]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1.6	(0)	0.2	(0)	[12.5]	0.2	(0)	[12.5]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125.7	(3.1)	26.3	(4.4)	[20.9]	25.3	(4.7)	[20.1]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0.9	(0)	0.2	(0)	[22.2]	0.2	(0)	[22.2]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54.7	(1.3)	8.2	(1.4)	[15]	8.5	(1.6)	[15.5]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12.5	(0.3)	3.4	(0.6)	[27.2]	3.4	(0.6)	[27.2]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20.7	(0.5)	3.1	(0.5)	[15]	3.2	(0.6)	[15.5]

#### 4. 서울시 프리랜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II-11〉과 〈표 II-12〉는 서울시 프리랜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시계열로 제시하고, 전국 단위 평균과의 비교 결과를 함께 나타냈다. 2023년 4월 현재, 서울시 유형 3의 평균 연령은 49.7세이며, 주당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은 각각 41.6시간, 9.7년이다. 서울시 프리랜서는 전체 프리랜서에 비해 평균 연령이 낮고 근속 기간이 짧았으며, 근로시간은 다소 길었다.

남성이 64.4%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2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59세(25.0%), 40-49세(2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여성 비율과 40세 이하 청년층 및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령층 비율의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인구 진입과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탈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청년층 비율 증가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임금근로 일자리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국 프리랜서와 비교하면 여성과 40세 미만 청년층 및 고학력자 비율이 높았다.

〈표 II-11〉 서울시 프리랜서의 인구사회학적 및 일자리 특성: 유형 3.

			프리랜서					전국 2023	서울 임금 2023	전체 근로자 2023
			서울							
			(단위)	2016	2018	2020	2022	2023		
계		(천명)	568	563	534	555	598	4,095	4,835	27,599
성별	여성	%	32.8	33.6	35.2	35.1	35.6	30.4	47.5	43.1
	남성	%	67.2	66.4	64.8	64.8	64.4	69.6	52.5	56.9
연령더미	30미만	%	5.9	6	6.3	8.1	7.4	3.9	19.2	13.3
	30-39	%	16.2	18.3	17.5	15.9	17.5	11.2	26.3	19.1
	40-49	%	24.3	23.8	23.3	22.9	22.9	19.3	22.8	22.7
	50-59	%	31.2	29.8	27.5	27.1	25	25.7	19.1	23.6
	60이상	%	22.3	22.1	25.5	26.1	27.3	39.9	12.5	21.3
교육수준	중졸이하	%	15.8	13.6	11.6	10.6	9.3	22.4	5.8	12.3
	고졸	%	41.3	40.8	39.8	42.5	41.0	42.1	25.6	35.4
	초대졸이상	%	42.9	45.7	48.6	46.9	49.7	35.5	68.6	52.3
부업있음		%	0.2	0.2	0.2	0.1	0.4	0.8	1.2	1
평균연령		(세)	49.7	49.4	49.9	49.8	49.7	54.9	42.7	47.3
근속기간		(년)	9.9	9.6	9.6	9.7	9.7	15	6.3	8.5
근로시간/주		(시간)	46.4	45.4	41.2	41.6	41.6	40.7	39.2	39.3

주 : 사업체 소재지 기반

〈표 II-12〉 서울시 프리랜서의 인구사회학적 및 일자리 특성 - 직종별 2023년 - 유형 3.

(단위 : 천 명, %)

	전체	남자	연령더미					교육수준		
			30미만	30-39	40-49	50-59	60이상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이상
전체	598.1	64.4	7.4	17.5	22.9	25	27.3	9.3	41	49.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유형 2.)	180.9	51.6	13.9	28.1	28.2	18.3	11.4	0.6	19.1	80.3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0.4	100.0	-	50.0	-	-	50.0	-	-	100.0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0.8	75.0	4.6	36.1	48.1	7.4	3.7	-	14.8	85.2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1.9	84.2	-	36.8	31.6	-	31.6	-	-	100.0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8.1	45.7	9.9	17.3	30.9	24.7	17.3	-	7.4	91.4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43.6	26.6	21.6	21.3	32.6	16.5	7.8	-	19.0	81.0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	85.0	-	25.0	15.0	50.0	10.0	-	10.0	85.0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35	69.4	2.6	14.3	18.3	32.6	32.3	0.6	24.9	74.3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79.1	53.1	17.3	37.8	27.6	13.4	3.9	1.1	19.0	80.0
사무 종사자	19.8	66.2	7.1	18.7	26.3	33.8	13.6	-	23.2	76.8
서비스 종사자	81.2	37.9	7.8	19.1	18.6	29.8	24.9	9.6	53.3	37.3
판매 종사자	124.3	63.0	5.7	15.2	23.9	26.7	28.5	10.7	42.7	46.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7	84.4	2.2	7.8	21.8	32.6	35.6	15.3	52.7	32.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8.3	96.8	0.6	4.2	10.5	25.9	58.7	20.7	60.7	18.6
단순노무 종사자	41.4	79.2	4.8	15.7	28.5	21.3	29.7	14.7	57.5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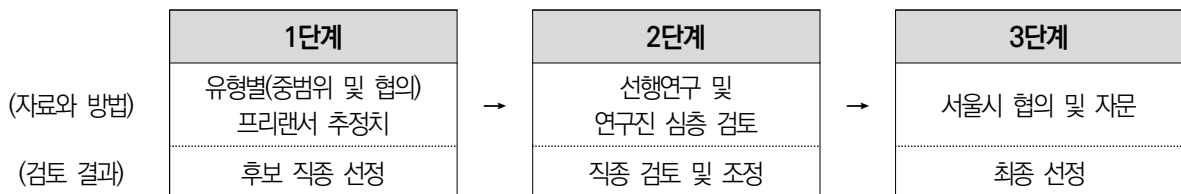
주 : 사업체 소재지 기반한 결과이며 직종 비율이 크지 않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제시하지 않음

직종별 분석 결과, 여성 비율은 서비스 종사자(62.1%)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9.4%)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40세 미만 청년층 비율과 상대적 고학력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각각 42.0%와 80.3%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이 낮은 프리랜서 직종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3.2%)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5.6%) 등이며, 해당 직종은 청년층 비율과 고학력자 비율도 낮은 편이다. 직종 중분류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73.4%를 차지하고,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직종의 경우 청년층 비율이 높았다.

## 5.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위한 직종 선정

실태조사를 위한 직종은 앞서 검토한 통계자료와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으며, [그림 II-1]과 같이 3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서는 전국 및 서울의 유형별 프리랜서 추정치를 바탕으로 소분류 수준의 직종을 선정하였고, 2단계에서는 선행연구와 연구진 검토를 통해 직종을 조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서울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최종 직종을 선정하였다.

[그림 II-1] 실태조사 직종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별 검토 자료와 방법 및 결과



1단계에서는 전국 및 서울의 프리랜서 규모를 분석하였다. 후보 직종 선정을 위해 중범위 프리랜서 수준에서 중분류 직종을 검토한 결과, 비중이 높은 직종으로는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전국 4.9%, 서울 7.3%),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전국 3.3%, 서울 5.9%),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전국 5.1%, 서울 13.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전국 5.1%, 서울 5.9%),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판매 및 상품대여직’(전국 10.8%, 서울 13.3%), ‘운송 및 운송 관련직’(전국 14.0%, 서울 11.7%)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선행연구 및 연구진 검토를 진행하였다. 신태중(2019)은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서울시 협의의 프리랜서를 검토하였으며, 2018년 기준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업, 정보통신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순으로 분포했고, 직업별로는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종진 외(2021)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정의의 유형별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였으나, 한국노동패널의 조사대상은 약 1만 명 내외이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약 100명 내외로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프리랜서 관련 초기 연구로 널리 알려진 이승렬 외(2013)와 전병유 외(2017) 역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분석 결과의 대표성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김종진(2021)은 517명의 프리랜서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프리랜서의 직종이 교육서비스, 문화 예술, 금융·부동산 영업, 전문서비스(통번역, 심리상담, 기능공), 도서출판·방송제작, IT 순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요약

이번 장의 분석 목적은 조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고, 서울시 실태조사 대상 직종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프리랜서를 식별하는 국내외 통용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통합한 김종진 외(2021)의 프리랜서 유형 구분을 차용하여, 각 유형별 프리랜서 규모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프리랜서 규모 추정에는 통계청이 조사·공표하는 경찰 부가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서울시 프리랜서를 직종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A형 자료가 사용된다. 2023년 8월 기준, 전국의 프리랜서 규모는 좁은 정의로는 취업자의 2.1% 수준이며, 가장 넓게 식별하면 19.0% 수준으로 나타나, 정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중범위 프리랜서를 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수준(2digit)에서 세분화하면 농축산 숙련직(22.5%), 운전 및 운송 관련직(14.5%), 매장 판매 및 상품대여직(10.6%),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7.1%),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4.5%) 순이다. 소분류 수준(3digit)에서 세분하면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30.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16.8%), 시각 및 공연 예술가(7.6%), 디자이너(7.5%),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6.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5.9%) 순이다.

2023년 4월 현재, 서울의 프리랜서 규모는 유형 2, 유형 3이 각각 16만 1천 여명, 54만 2천 여명 수준으로 각각 전국 해당 규모의 25.3%, 13.2%를 차지한다. 전국 취업자 중 서울시 취업자의 비율(18.1%)을 고려할 때 유형 2의 비율은 다소 높고, 유형 3은 낮은 편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2016~2023년 기간 중 대체로 유지된다.

2023년 4월 현재, 사업체 소재지에 기반하여 집계한 서울시 프리랜서 규모는 유형 2, 유형 3이 각각 18만 1천 명, 59만 8천 명으로 전국 프리랜서의 28.4%, 14.6%를 차지한다.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서울시의 전체 일자리 대비 비율은 3.1%p 증가했으며, 유형 2 프리랜서는 3.1%p로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유형 3 프리랜서는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전국 규모에서 서울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사무 종사자(24.8%), 판매 종사자(19.8%) 순으로 나타났다. 중분류 단위로 세분하면 특정 직종의 서울시 쏠림이 명확하며, 법률 및 행정 전문직(69.0%), 법률 및 감사 사무직(66.7%),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44.4%),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41.3%),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프리랜서(38.1%)의 비율이 매우 크다. 이러한 서울 쏠림 현상은 해당 직종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거나, 집적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서울시 프리랜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낮고 근속 기간은 짧은 반면, 근로시간은 다소 긴 편이다. 지난 8년 사이 여성, 40세 미만 청년층,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령층 비율의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청년층 비율의 증가는 양질의 임금근로 일자리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전체 프리랜서의 분포와 비교했을 때 여성, 40세 미만 청년층, 그리고 고학력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III

##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결과(전체)
3. 직종별 분석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4. 직종별 분석결과: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5. 직종별 분석결과: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6. 직종별 분석결과: 디자이너
7. 직종별 분석결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8. 직종별 분석결과: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9. 직종별 분석결과: 요약



# III

##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 1. 실태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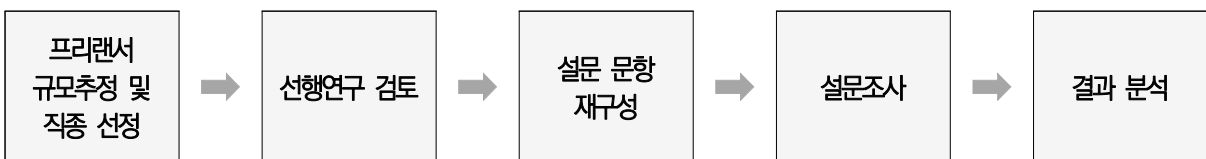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의 거래내역이 프리랜서의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시인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1,020명이 응답하였다.

〈표 III-1〉 조사 개요

구성	내용
조사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시인 프리랜서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4.10.18~11.01
설문 참여자 수	1,020명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설문 문항은 김종진 외(2020)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프리랜서 및 불공정거래 등)와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 그리고 최종 선정된 6개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이후 서울시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진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림 III-1]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 과정



실태조사 설문은 총 44문항으로, 대상 선별 문항(2문항), 사회인구학적 특성(6문항), 고용 특성(4문

항), 계약(7문항), 노동환경(7문항), 불공정 경험(6문항),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7문항), 개선방안(5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III-2>과 같다.

<표 III-2> 프리랜서 실태조사의 설문 문항 개요

항목	세부내용	문항수
대상 선별 문항	프리랜서 여부, 거주지 및 주 활동지역	2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상태, 소득, 이전 근로 이력 중 주된 직장에서의 지위	6
고용 특성	직종, 프리랜서 활동 기간,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유, 다중직업 여부	4
계약	주요 발주처, 계약체결의 여부, 계약 시 요구사항, 계약 내용 준수 정도, 보수 결정 방법, 보수지급 방법 일감 찾는 방식	7
노동환경	사업자등록증 유무, 자격증 필요 여부, 평균 노동시간, 근무시간 및 장소, 지휘·감독 여부, 프리랜서 활동의 어려움	7
불공정 경험	부당대우(계약 및 이행, 보수지급, 인권침해 등), 부당대우에 대한 반응	6
직무역량 & 경력 경로	프리랜서의 필요역량, 교육 훈련 참여, 프리랜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 여부, 경력인정 정도, 경력증빙	7
개선방안	개선방안, 기타 의견 수렴	5
<b>합계</b>		<b>44</b>

## 2. 설문조사 분석결과(전체)

###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 특성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프리랜서 1,020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 남성이 460명(45.1%), 여성이 560명(54.9%)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327명(32.1%), 30대 289명(28.3%), 50대 242명(23.7%) 순으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47명(63.4%)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경우, 200만원 미만 290명(28.4%), 200~300만원 미만 226명(22.2%)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미혼 425명(41.7%), 기혼 552명(54.1%), 이혼 또는 사별 43명(4.2%)으로 나타났다. 이전 근로 이력 중 주된 일자리 지위의 경우, 처음부터 프리랜서가 388명(38.0%), 상용근로자가 269명(26.4%), 임시근로자가 202명(19.8%) 순이었다.

〈표 Ⅲ-3〉 프리랜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020	100.0
성별	남성	460	45.1
	여성	560	54.9
연령	20대	88	8.6
	30대	289	28.3
	40대	327	32.1
	50대	242	23.7
	60대 이상	74	7.3
최종학력	고졸이하	60	5.9
	2~3년제(전문대) 졸업	105	10.3
	4년제 대학 졸업	647	63.4
	대학원(석사이상) 졸업	168	16.5
	기타 무응답	40	3.9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90	28.4
	200~300만원 미만	226	22.2
	300~400만원 미만	184	18.0
	400~600만원 미만	171	16.8
	600만원 이상	149	14.6
혼인상태	미혼	425	41.7
	기혼	552	54.1
	이혼/사별	43	4.2
이전 근로 이력 중 주된 일자리 지위	상용 근로자	269	26.4
	임시근로자	202	19.8
	일용근로자	59	5.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5	3.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7	5.6
	무급가족종사자	4	0.4
	처음부터 프리랜서	388	38.0
	일하지 않았음	6	0.6

## 2) 고용 특성

서울시 프리랜서 6개 직종의 응답자수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34명(22.9%), 문  
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6명(25.1%), 디자이너 165명(16.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53명  
(15.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30명(12.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82명  
(8.0%) 순이었다. 프리랜서 평균 활동 기간은 7.8년(93개월)이었으며 활동 기간 2~5년 미만의 프리  
랜서가 309명(3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247명(24.2%), 10~15년 미만이  
157명(15.4%), 2년 미만이 145명(14.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대학  
원 졸업인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프리랜서의 평균 활동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프리랜서의 직종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020	100.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34	22.9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	256	25.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53	15.0
디자이너	165	16.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82	8.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30	12.7

〈표 III-5〉 프리랜서의 활동기간(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2년 미만		2~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20년미만		20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45	14.2	309	30.3	247	24.2	157	15.4	76	7.5	86	8.4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37	15.8	73	31.2	69	29.5	29	12.4	13	5.6	13	5.6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24	9.4	65	25.4	61	23.8	49	19.1	29	11.3	28	10.9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1	13.7	34	22.2	30	19.6	30	19.6	14	9.2	24	15.7
디자이너	20	12.1	59	35.8	34	20.6	26	15.8	11	6.7	15	9.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9	11.0	25	30.5	27	32.9	11	13.4	6	7.3	4	4.9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34	26.2	53	40.8	26	20.0	12	9.2	3	2.3	2	1.5

〈표 III-6〉 프리랜서의 활동기간(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2년 미만		2~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20년미만		20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45	14.2	309	30.3	247	24.2	157	15.4	76	7.5	86	8.4	
성별	남성	56	12.2	143	31.1	118	25.7	79	17.2	27	5.9	37	8.0
	여성	89	15.9	166	29.6	129	23.0	78	13.9	49	8.8	49	8.8
연령	20대	26	29.5	45	51.1	13	14.8	1	1.1	1	1.1	2	2.3
	30대	50	17.3	112	38.8	82	28.4	36	12.5	8	2.8	1	0.3
	40대	39	11.9	71	21.7	91	27.8	68	20.8	40	12.2	18	5.5
	50대	25	10.3	57	23.6	49	20.2	44	18.2	21	8.7	46	19.0
	60대 이상	5	6.8	24	32.4	12	16.2	8	10.8	6	8.1	19	25.7
최종	고졸이하	20	33.3	13	21.7	8	13.3	11	18.3	3	5.0	5	8.3
	2~3년제 졸업	16	15.2	34	32.4	17	16.2	19	18.1	8	7.6	11	10.5

구분	2년 미만		2~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20년미만		20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 력	4년제 대학졸업	93	14.4	205	31.7	173	26.7	84	13.0	42	6.5	50	7.7
	대학원 졸업	10	6.0	45	26.8	38	22.6	40	23.8	17	10.1	18	10.7
	기타 무응답	6	15.0	12	30.0	11	27.5	3	7.5	6	15.0	2	5.0
소 득 수 준	200만원 미만	61	21.0	82	28.3	62	21.4	44	15.2	18	6.2	23	7.9
	200~300만원 미만	31	13.7	82	36.3	51	22.6	31	13.7	11	4.9	20	8.8
	300~400만원 미만	22	12.0	62	33.7	39	21.2	30	16.3	17	9.2	14	7.6
	400~600만원 미만	14	8.2	45	26.3	56	32.7	28	16.4	14	8.2	14	8.2
	600만원 이상	17	11.4	38	25.5	39	26.2	24	16.1	16	10.7	15	10.1

프리랜서 직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근로 유연성 확보’가 310명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조직 생활이 안 맞아서’ 166명,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 14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7〉 프리랜서 선택이유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020	1,020	1,020
조직 생활이 안 맞아서	166	66	47
소득이 다른 일자리보다 나올 것 같아서	115	91	71
근로 유연성 확보	310	215	146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	147	174	139
재택근무 선호	49	127	118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77	74	87
미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경력을 쌓으려고	9	55	101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116	121	151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20	88	143
기타	11	9	17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 1순위를 직종별(부록참조)로 분석한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소득이 다른 일자리보다 나올 것 같아서’와 ‘근로 유연성 확보’가 각각 25.6%로 나타났다.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디자이너,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근로 유연성 확보’가 각각 39.1%, 28.5%, 38.5%로 높게 나타났다.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경우에는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가 22.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는 ‘프리랜서가 본

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가 28.0%로 나타났다 또한,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 1순위를 사회인구학적 특성(부록 참조)에 따라 분석한 결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득수준(600만원 이상 제외) 모두 '근로 유연성 확보'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 프리랜서 직종 이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3명(44.4%)이고, 프리랜서 업무 외 다른 일을 하는 이유는 '주된 프리랜서 일자리만으로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가 192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프리랜서 직종 외에 다른 직종에도 종사하는 이유를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득수준 모두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참조).

〈표 III-8〉 프리랜서의 다중직업 여부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프리랜서 이외에 다중직업 여부	합계	1,020	100.0
	하고 있음	453	44.4
	하고 있지 않음	567	55.6
다른 일을 하는 주된 이유	합계	453	100.0
	주된 프리랜서 일자리만으로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192	42.4
	현재 주되게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소득이 불규칙해서	106	23.4
	프리랜서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78	17.2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14	3.1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는 직업 전망이 없어서	13	2.9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 외에 다른 경험을 쌓고 싶어서	45	9.9
	기타	5	1.1

## 나. 계약

### 1) 주 발주처

일감(프로젝트)의 주발주처를 중소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11명(30.5%)으로 가장 많았으나, 개인사업자 190명(18.6%), 대기업 145명(14.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130명(12.7%), 소기업 128명(12.5%)으로 프로젝트의 발주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주로 중소기업(98명, 41.9%)과 대기업(72명, 30.8%)에서 수주하였고,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는 주로 중소기업(55명, 21.5%)과 개인사업자(54명, 21.1%)로부터 수주하였다.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중소기업(59명, 38.6%), 다자

이너는 중소기업(59명, 35.8%)으로부터 수주하였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는 개인사업자(26명, 31.7%)로부터,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역시 개인사업자(33명, 25.4%)로부터 주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 프리랜서의 일감(프로젝트)의 발주처(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10인 미만)		개인사업자		일반 시민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30	12.7	145	14.2	311	30.5	128	12.5	190	18.6	103	10.1	13	1.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1	9.0	72	30.8	98	41.9	22	9.4	14	6.0	7	3.0	0	0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48	18.8	18	7.0	55	21.5	34	13.3	54	21.1	42	16.4	5	2.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1	7.2	29	19.0	59	38.6	22	14.4	20	13.1	6	3.9	6	3.9
디자이너	7	4.2	17	10.3	59	35.8	29	17.6	43	26.1	9	5.5	1	0.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4	17.1	5	6.1	15	18.3	10	12.2	26	31.7	12	14.6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29	22.3	4	3.1	25	19.2	11	8.5	33	25.4	27	20.8	1	0.8

## 2) 계약의 형태

일감(프로젝트)의 계약 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814명(65.3%)으로 가장 많았고, 구두계약은 433명(34.7%)으로 나타났다. 구두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 162명(37.4%), '구두계약이 편해서' 114명(26.3%),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서' 94명(21.7%)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계약서 한 부를 함께 교부 받았는지 질문한 결과, '받았다'는 응답이 734명(90.2%)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10〉 프리랜서의 계약 형태 및 계약서 교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계약 형태 (복수응답)	합계	1,247	100.0
	서면계약서 작성	814	65.3
	구두계약	433	34.7

구분		빈도	비율
계약서 교부 여부	합계	814	100.0
	예	734	90.2
	아니오	80	9.8
동일계약서 교부받지 않은 이유	합계	80	100.0
	동일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11	13.8
	동일한 계약서를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어서	30	37.5
	발주처(주요 고객)에서 주지 않아서	20	25.0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8	22.5
	기타	1	1.3
구두계약체결 이유	합계	433	100.0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서	94	21.7
	발주처(주요 고객)가 서면계약을 거부해서	53	12.2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	162	37.4
	구두계약이 편해서	114	26.3
	기타	10	2.3

직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경우 다른 직종과 달리 서면계약서 작성을 주된 계약 형태로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계약 체결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경우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48.4%)의 응답이 다른 직종보다 많았고,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구두계약이 편해서’(39.3%)의 응답이 다른 직종보다 많았다.

〈표 III-11〉 프리랜서의 계약 형태 및 구두계약 체결 이유(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계약 형태 (복수응답)				구두계약 체결 이유									
	서면		구두		서면계약요청 어려움		발주처의 서 면계약 거부		필요 없어서		구두계약이 편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814	65.3	433	34.7	94	21.7	53	12.2	162	37.4	114	26.3	10	2.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08	73.5	75	26.5	18	24.0	15	20.0	27	36.0	14	18.7	1	1.3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193	60.9	124	39.1	25	20.2	11	8.9	52	41.9	35	28.2	1	0.8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20	64.9	65	35.1	15	23.1	11	16.9	21	32.3	15	23.1	3	4.6
디자이너	127	60.8	82	39.2	20	24.4	10	12.2	26	31.7	21	25.6	5	6.1

구분	계약 형태 (복수응답)				구두계약 체결 이유									
	서면		구두		서면계약요청 어려움		발주처의 서 면계약 거부		필요 없어서		구두계약이 편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66	68.0	31	32.0	7	22.6	2	6.5	15	48.4	7	22.6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00	64.1	56	35.9	9	16.1	4	7.1	21	37.5	22	39.3	0	0

동일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한 5개 직종에서는 ‘동일한 계약서를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발주처(주요 고객)에서 주지 않아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프리랜서의 계약서 교부 및 동일계약서 받지 않은 이유(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계약서 교부				동일계약서 받지 않은 이유									
	받음		받지 못함		교부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필요 없어서		주지 않아서		구두 계약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734	90.2	80	9.8	11	13.8	30	37.5	20	25.0	19	22.5	1	1.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99	95.7	9	4.3	0	0	5	55.6	3	33.3	1	11.1	0	0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168	87.0	25	13.0	5	20.0	9	36.0	4	16.0	7	28.0	0	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04	86.7	16	13.3	1	6.3	5	31.3	4	25.0	5	31.3	1	6.3
디자이너	116	91.3	11	8.7	2	18.2	5	45.5	2	18.2	2	18.2	0	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62	93.9	4	6.1	0	0	4	100.0	0	0	0	0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85	85.0	15	15.0	3	20.0	2	13.3	7	46.7	3	20.0	0	0

### 3) 계약서 요청사항 및 준수 여부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있음’이 347명(34.0%)이었고,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임금 관련’이 232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직종별로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을 살펴본 결과,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는 임금 관련

요구사항이, 디자이너는 업무 내용 관련 요구사항의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13〉 프리랜서의 계약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요구사항 요청 경험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복수응답)							
	있음		없음		업무 내용		기간		임금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47	34.0	673	66.0	194	30.3	208	32.4	232	36.2	7	1.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08	46.2	126	53.8	66	32.2	67	32.7	72	35.1	0	0
문라 기술 및 예능강사	54	21.1	202	78.9	26	28.0	33	35.5	33	35.5	1	1.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57	37.3	96	62.7	27	25.7	32	30.5	42	40.0	4	3.8
디자이너	68	41.2	97	58.8	44	33.3	43	32.6	44	33.3	1	0.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8	34.1	54	65.9	16	31.4	14	27.5	21	41.2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32	24.6	98	75.4	15	27.3	19	34.5	20	36.4	1	1.8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한 결과, '업무 추가' 25명(21.2%), '임금 지연' 21명(17.8%), '기간 연장' 20명(16.9%), 업무 변경 19명(16.1%) 순으로 많았다.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직종에서 '업무 추가'와 '임금 지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프리랜서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18	100.0
업무 변경	19	16.1
기간 연장	20	16.9
임금 지연	21	17.8
임금 체불	11	9.3
임금 삭감	17	14.4
업무 추가	25	21.2
기타	5	4.2

주)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의 설문은 이에 준수되지 않음+준수되지 않은 응답자 대상으로 함

〈표 Ⅲ-15〉 프리랜서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직종별/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업무 변경		기간 연장		임금 지연		임금 체불		임금 삭감		업무 추가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9	16.1	20	16.9	21	17.8	11	9.3	17	14.4	25	21.2	5	4.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5	19.2	5	19.2	5	19.2	2	7.7	2	7.7	5	19.2	2	7.7
문라 기술 및 예능 강사	2	9.5	1	4.8	5	23.8	2	9.5	6	28.6	3	14.3	2	9.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4	12.1	7	21.2	5	15.2	4	12.1	5	15.2	8	24.2	0	0
디자이너	5	19.2	6	23.1	3	11.5	3	11.5	4	15.4	5	19.2	0	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	33.3	1	16.7	2	33.3	0	0	0	0	1	16.7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	16.7	0	0	1	16.7	0	0	0	0	3	50.0	1	16.7

#### 4)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일감(프로젝트)의 보수 결정방법을 질문한 결과, '발주처 내부 규정'이 432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두 합의' 365명(35.8%), '업계의 불문율 또는 관행'이 214명(21.0%)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일감(프로젝트)의 보수 결정방법은 디자이너를 제외한 5개 직종은 '발주처 내부 규정'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디자이너의 경우 '구두 합의' 비율이 높았으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는 '업계 불문율 또는 관행'의 응답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16〉 프리랜서의 보수 결정방법(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내부규정		구두합의		업계관행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432	42.4	365	35.8	214	21.0	9	0.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09	46.6	81	34.6	42	17.9	2	0.9
문라 기술 및 예능 강사	113	44.1	98	38.3	44	17.2	1	0.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57	37.3	50	32.7	43	28.1	3	2.0
디자이너	57	34.5	68	41.2	38	23.0	1	1.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36	43.9	20	24.4	26	31.7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60	46.2	48	36.9	21	16.2	1	0.8

보수지급 방식은 정기적 지급이 364명(35.7%), 완료 후 전액 333명(32.6%)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지급 방법을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와 디자이너는 ‘완료 후 전액 지급’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디자이너의 경우,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받음’이 다른 직종보다 높았다.

〈표 III-17〉 프리랜서의 보수 지급 방식(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완료 후 전액		일정 비율 분배		정기적 지급		시작 전 전액 지급		나눠서 받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33	32.6	150	14.7	364	35.7	36	3.5	135	13.2	2	0.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53	22.6	34	14.5	102	43.6	6	2.6	39	16.7	0	0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84	32.8	42	16.4	101	39.5	14	5.5	14	5.5	1	0.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67	43.8	23	15.0	34	22.2	3	2.0	25	16.3	1	0.7
디자이너	66	40.0	21	12.7	25	15.2	6	3.6	47	28.5	0	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7	20.7	13	15.9	42	51.2	4	4.9	6	7.3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6	35.4	17	13.1	60	46.2	3	2.3	4	3.1	0	0

### 5)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방식은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가 366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잡 포털 사이트’ 188명(18.4%), ‘온라인 커뮤니티’ 169명(16.6%)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비율은 디자이너(48.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4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8〉 프리랜서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잡포털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에이전시		협회 등		개인 네트워크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88	18.4	169	16.6	132	12.9	97	9.5	49	4.8	366	35.9	19	1.9

구분	잡포털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에이전시		협회 등		개인 네트워크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53	22.6	46	19.7	39	16.7	22	9.4	6	2.6	67	28.6	1	0.4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53	20.7	32	12.5	4	9.4	24	9.4	23	9.0	92	35.9	8	3.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9	12.4	15	9.8	14	9.2	23	15.0	8	5.2	68	44.4	6	3.9
디자이너	22	13.3	30	18.2	14	8.5	14	8.5	3	1.8	80	48.5	2	1.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4	17.1	20	24.4	12	14.6	11	13.4	4	4.9	21	25.6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27	20.8	26	20.0	29	22.3	3	2.3	5	3.8	38	29.2	2	1.5

일감(프로젝트)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보수' 396명, '업무 내용' 202명, '작업 기간' 15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9〉 프리랜서의 일감 선택 시 중요한 요인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020	1,020	1,020
작업기간	155	134	105
보수	396	216	95
발주처	65	47	58
업무 내용	202	200	167
본인 경력 도움 정도	37	76	89
작업 강도	43	95	135
작업 난이도	55	113	119
업무 마감기한	13	39	67
업무 결과물	16	30	70
작업 결과에 대한 유지보수	13	36	47
보수를 받는 방식	23	32	64
기타	2	2	4

## 다. 노동환경

### 1)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 여부

사업자등록증 보유 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받은 비율은 32.3%, 발급받지 않은 비율은 67.7%로 나타났으며,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45.3%(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24.8%, 필요 없음 20.5%)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디자이너 직종에서 사업자등록증 보유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자격증 여부에 대해 ‘필요 없음’이 44.9%로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는 ‘협회/단체/기업 등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33.3%), ‘협회/단체/기업 등에서 발급하는 교육수료증 필요’(27.8%)가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고,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국가 자격 필요’(29.3%)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0〉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여부(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사업자등록증 여부				자격증 여부(복수응답)									
	발급		미발급		국가면허 필요		민간자격증		교육수료증 필요		없어도 가능		필요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29	32.3	691	67.7	249	18.8	255	19.2	222	16.7	329	24.8	272	20.5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08	46.2	126	53.8	72	22.7	66	20.8	51	16.1	87	27.4	41	12.9
문라 기술 및 예능강사	67	26.2	189	73.8	58	17.6	58	17.6	64	19.4	75	22.7	75	22.7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40	26.1	113	73.9	11	6.2	19	10.7	21	11.8	47	26.4	80	44.9
디자이너	65	39.4	100	60.6	34	16.3	34	16.3	27	12.9	62	29.7	62	24.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6	31.7	56	68.3	25	19.8	42	33.3	35	27.8	21	16.7	3	2.4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23	17.7	107	82.3	49	29.3	36	21.6	24	14.4	37	22.2	21	12.6

### 2) 노동시간

1주일간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 341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35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이 234명(22.9%), ‘15시간 미만’이 199명(19.5%), ‘40시간 이상~52시간 미만’이

185명(18.1%) 순이었다. 직종별 분석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노동시간은 '40시간 이상'이 44.5%로,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 비율이 높았다. 반면,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시간은 '35시간 미만'이 74.7%로, 단시간 노동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 프리랜서의 노동시간(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		35시간 미만~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52시간 미만		52시간 초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99	19.5	341	33.4	234	22.9	185	18.1	61	6.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2	5.1	51	21.8	67	28.6	90	38.5	14	6.0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75	29.3	96	37.5	53	20.7	27	10.5	5	2.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9	19.0	52	34.0	31	20.3	9	12.4	22	14.4
디자이너	28	17.0	52	31.5	45	27.3	25	15.2	15	9.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1	25.6	27	32.9	16	19.5	15	18.3	3	3.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34	26.2	63	48.5	22	16.9	9	6.9	2	1.5

근무시간 결정방법은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 441명(43.2%),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결정' 323명(31.7%)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분석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디자이너는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2〉 프리랜서의 근무시간 결정방법(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발주처 지정		자유롭게 결정		발주처와 협의		발주처 권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25	22.1	441	43.2	323	31.7	31	3.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76	32.5	96	41.0	56	23.9	6	2.6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59	23.0	86	33.6	107	41.8	4	1.6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6	10.5	103	67.3	28	18.3	6	3.9
디자이너	19	11.5	90	54.5	48	29.1	8	4.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9	23.2	27	32.9	35	42.7	1	1.2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36	27.7	39	30.0	49	37.7	6	4.6

### 3) 근무 장소와 지휘·감독

근무 장소는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가 461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택' 315명(30.9%), '다양한 공간 활용' 154명(15.1%)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근무 장소를 분석한 결과,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와 디자이너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 프리랜서의 근무 장소(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재택		발주처 지정장소 상주		다양한 공간 활용		개인소유 작업장 (집 제외)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15	30.9	461	45.2	154	15.1	80	7.8	10	1.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72	30.8	119	50.9	33	14.1	10	4.3	0	0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38	14.8	141	55.1	46	18.0	22	8.6	9	3.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86	56.2	24	15.7	30	19.6	13	8.5	0	0
디자이너	94	57.0	40	24.2	16	9.7	15	9.1	0	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7	8.5	53	64.6	12	14.6	10	12.2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8	13.8	84	64.6	17	13.1	10	7.7	1	0.8

발주처의 지휘·감독 여부는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이라는 응답이 343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휘·감독 자체가 없었음'이 282명(27.6%)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분석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을 하였다'는 응답이 31.2%로 가장 높았다.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지휘·감독 자체가 없었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4개 직종은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4〉 프리랜서의 지휘·감독(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구체적인 지휘·감독받음		지휘·감독 없었음		지휘·감독에 대해 사전 협의		필요시 보고 요청받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01	19.7	282	27.6	343	33.6	194	19.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73	31.2	55	23.5	73	31.2	33	14.1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49	19.1	71	27.7	88	34.4	48	18.8

구분	구체적인 지휘·감독받음		지휘·감독 없었음		지휘·감독에 대해 사전 협의		필요시 보고 요청받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3	15.0	51	33.3	43	28.1	36	23.5
디자이너	18	10.9	48	29.1	58	35.2	41	24.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8	9.8	27	32.9	35	42.7	12	14.6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30	23.1	30	23.1	46	35.4	24	18.5

#### 4) 프리랜서로서의 어려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경험하는 1순위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득의 불안정성'이 36.4%, '일감 구하기'가 30.6%로 나타났다. 직종별 분석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디자이너의 경우는 '일감 구하기'가 각각 39.3%, 33.3%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고, 다른 4개 직종은 '소득의 불안정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Ⅲ-25〉 프리랜서로서의 어려움 1순위(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일감 구하기		특정 시기 일 집중		소득의 불안정성		낮은 직업 단가		직무 훈련 기회 부족		1인 사업자로서 처리 어려움		불공정한 계약 관행		불투명한 전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12	30.6	121	11.9	371	36.4	104	10.2	27	2.6	21	2.1	12	1.2	52	5.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92	39.3	36	15.4	65	27.8	14	6.0	8	3.4	5	2.1	1	0.4	13	5.6
문라 기술 및 예능강사	67	26.2	24	9.4	113	44.1	26	10.2	8	3.1	4	1.6	2	0.8	12	4.7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42	27.5	21	13.7	56	36.6	18	11.8	4	2.6	6	3.9	1	0.7	5	3.3
디자이너	55	33.3	19	11.5	53	32.1	20	12.1	4	2.4	3	1.8	5	3.0	6	3.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8	22.0	7	8.5	38	46.3	13	15.9	0	0	1	1.2	0	0	5	6.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38	29.2	14	10.8	46	35.4	13	10.0	3	2.3	2	1.5	3	2.3	11	8.5

## 라. 불공정 경험

### 1) 부당대우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에 대해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1순위는 ‘보수 미지급/지연지급/일방적 삭감/로열티 미지급 등’에 관한 응답 비율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변경’ 163명, ‘업무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음’ 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6〉 프리랜서의 부당대우 경험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020	747	747
일방적인 계약 변경 (일방적인 연장,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163	86	82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	176	99	75
다른 업무 강요	96	88	89
업무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음	110	124	109
업무와 관련 없는 갑질 행위	48	101	79
인권침해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27	43	37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 요구	22	52	62
아이디어만 탈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음	28	54	85
터무니없는 보수(단가) 제시 및 적용	76	96	121
기타	1	4	7
무응답	0	0	1
해당 없음	273	0	0

직종별로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돌봄 및 보건의 서비스 종사자는 ‘일방적 계약 변경’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른 3개 직종은 ‘보수 미지급/지연지급/일방적 삭감/로열티 미지급 등’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27〉 프리랜서의 부당대우 경험 1순위(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일반적 계약변경		보수 미지급 등		다른 업무 강요		사전 협의 없음		업무와 관련 없는 갑질 행위		인권침해		과도한 위약금/손해 배상 요구		아이디어만 탈취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기타		해당 사항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63	16.0	176	17.3	96	9.4	110	10.8	48	4.7	27	2.6	22	2.2	28	2.7	76	7.5	1	0.1	273	26.8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42	17.9	49	20.9	30	12.8	27	11.5	16	6.8	9	3.8	3	1.3	7	3.0	13	5.6	0	0	38	16.2
문리기술 및 에능강사	39	15.2	34	13.3	18	7.0	23	9.0	10	3.9	5	2.0	6	2.3	7	2.7	18	7.0	1	0.4	95	37.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0	13.1	29	19.0	13	8.5	18	11.8	4	2.6	3	2.0	5	3.3	3	2.0	15	9.8	0	0	43	28.1
디자이너	20	12.1	37	22.4	12	7.3	24	14.5	4	2.4	4	2.4	4	2.4	9	5.5	18	10.9	0	0	33	20.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7	20.7	12	14.6	8	9.8	7	8.5	8	9.8	6	6.1	4	4.9	1	1.2	4	4.9	0	0	16	19.5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25	19.2	15	11.5	15	11.5	11	8.5	6	4.6	1	0.8	0	0	1	0.8	8	6.2	0	0	48	36.9

불리한 계약 변경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계약 내용(구두계약 포함) 변경 경험 있음'이 312명(30.6%)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불리한 계약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프리랜서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12	30.6	708	69.4
성별	남성	153	33.3	307	66.7
	여성	159	28.4	401	71.6
연령	20대	36	40.9	52	59.1
	30대	99	34.3	190	65.7
	40대	100	30.6	227	69.4
	50대	59	24.4	183	75.6
	60대 이상	18	24.3	56	75.7
최종 학력	고졸이하	16	26.7	44	73.3
	2~3년제 졸업	33	31.4	72	68.6
	4년제 대학 졸업	191	29.5	456	70.5
	대학원 졸업	52	31.0	116	69.0
	기타·무응답	20	50.0	20	50.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61	21.0	229	79.0
	200~300만원 미만	82	36.3	144	63.7
	300~400만원 미만	62	33.7	122	66.3
	400~600만원 미만	61	35.7	110	64.3
	600만원 이상	46	30.9	103	69.1

불리한 계약 변경 사례는 갑질 행위, 무리한 계약 변경, 계약 조건 불이행, 근로시간 연장/변경, 다른 업무 강요, 보수 미지급 관련, 불합리한 계약 조건, 아이디어/저작권 관련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프리랜서의 불합리한 계약변경 사례

항목	사례
갑질 행위	강압적인 업무 지시
	무리한 추가 작업 요구, 계약 기간 이후 추가 작업 요구
	불필요한 감시
	사전 상의 없이 통보(일정변경, 업무 기간 등)
	관련된 일과 무관한 서류 제출 강요
무리한 계약변경	계약과 다르게 시간, 연봉 등 변경
	갑자기 권고사직, 해직 통보 등
	일방적인 계약 파기, 내용 및 일정변경 등
	계약보다 낮은 보수지급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추가, 추가 금액 발생 등
계약조건 불이행	계약서 미준수, 위반
	계약조건 변경(보수 삭감, 일정변경, 업무 범위 등)
근로시간 연장/변경	일방적인 시간 변경
	연장 근무, 야근 강요
다른 업무 강요	계약서상에 없는 업무 추가
	업무와 무관한 다른 업무 강요
보수 미지급 관련	급여 동결, 일방적인 임금 삭감 등
	급여 조건 불리하게 조절
	임금 미지급
불합리한 계약 조건	3년 이내 동종 창업 금지
	의견 미반영
	경력 인정 불가
	컴플레인에 따른 계약 해지, 프리랜서에게 모든 책임 부분 기재
	일방적인 단가 적용
아이디어/저작권	아이디어 도용
	저작권 권리 침해

일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수금 경험 있음' 응답 비율이 16.2%로 나타났다. 보수 미수금이 발생한 일감(프로젝트)의 평균 비율은 24.4%였으며, '10~20% 미만'이라는 응답이 2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수 미수금 금액은 '100~300만원 미만'이 34.5%, '100만원 미만'이 24.8% 순이었고, 보수 미수금의 최고 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표 III-30〉 프리랜서의 보수 미수금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보수 미수금	합계	1,020	100.0
	경험 있음	165	16.2
	경험 없음	855	83.8
보수 미수금 일감 (프로젝트)의 비율	합계	165	100.0
	10% 미만	25	15.2
	10~20% 미만	48	29.1
	20~30% 미만	41	24.8
	30~50% 미만	21	12.7
	50~70% 미만	20	12.1
	70% 이상	10	6.1
보수 미수금 금액	합계	165	100.0
	100만원 미만	41	24.8
	100~300만원 미만	57	34.5
	300~500만원 미만	26	15.8
	500~700만원 미만	16	9.7
	700~1,000만원 미만	6	3.6
	1,000만원 이상	19	11.5

보수 미수금 경험을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디자이너(23.6%),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20.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19.7%) 순으로 미수금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평균 미수금 금액이 56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31〉 프리랜서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보수 미수금 경험				보수 미수금 일감의 비율										보수 미수금 금액															
	있음		없음		10%	10~20%	20~30%	30~50%	50~70%	70% 이상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65	16.2	855	83.8	25	15.2	48	29.1	41	24.8	21	12.7	20	12.1	10	6.1	41	24.8	57	34.5	26	15.8	16	9.7	6	3.6	19	11.5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46	19.7	188	80.3	8	17.4	15	32.6	9	19.6	8	17.4	6	10.9	1	2.2	8	17.4	16	34.8	12	26.1	3	6.5	0	0	0	0	7	15.2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31	12.1	225	87.9	5	16.1	8	25.8	8	25.8	1	3.2	7	22.6	2	6.5	11	35.5	5	16.1	6	19.4	5	16.1	0	0	0	0	4	12.9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32	20.9	121	79.1	4	12.5	8	25.0	8	25.0	4	12.5	2	6.3	6	18.8	6	18.8	13	40.6	3	9.4	4	12.5	2	6.3	4	12.5		
디자이너	39	23.6	126	76.4	7	17.9	12	30.8	11	28.2	4	10.3	5	12.8	0	0	9	23.1	16	41.0	4	10.3	4	10.3	3	7.7	3	7.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0	12.2	72	87.8	1	10.0	2	20.0	2	20.0	4	40.0	0	0	1	10.0	5	50.0	3	30.0	1	10.0	0	0	1	10.0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7	5.4	123	94.6	0	0	3	42.9	3	42.9	0	0	1	14.3	0	0	2	28.6	4	57.1	0	0	0	0	0	0	1	14.3		

인권침해 경험 여부를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이 16.2%로 가장 높았으며,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7.8%로 가장 낮았다.

〈표 III-32〉 프리랜서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인권침해 경험 여부				인권침해 사례(복수응답)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기타 괴롭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32	12.9	888	87.1	76	43.4	22	12.6	39	22.3	12	6.9	26	14.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38	16.2	196	83.8	22	42.3	9	17.3	5	9.6	6	11.5	10	19.2
문라 기술 및 예능강사	31	12.1	225	87.9	17	43.6	5	12.8	8	20.5	3	7.7	6	15.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2	7.8	141	92.2	5	29.4	2	11.8	6	35.3	1	5.9	3	17.6
디자이너	22	13.3	143	86.7	15	53.6	2	7.1	9	32.1	1	3.6	1	3.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2	14.6	70	85.4	8	57.1	3	21.4	2	14.3	0	0	1	7.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7	13.1	113	86.9	9	36.0	1	4.0	9	46.0	1	4.0	5	20.0

일하면서 과도한 업무, 업무 변경, 임금 갈등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중도에 일을 그만둔 경험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7명(21.3%)이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 기간 이행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도하차 이유는 '과도한 업무지시'가 2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18.3%), '열악한 작업환경'(16.6%) 순으로 나타났다.

일 수행 중 중도하차 이유를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디자이너는 '과도한 업무지시'를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2%, 26.4%로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는 '불합리한 업무 지시'라는 응답이 25.8%로 나타나 타 직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부록참조).

〈표 Ⅲ-33〉 프리랜서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합계	1,020	100.0
	경험 있음	217	21.3
	경험 없음	803	78.7
중도하차 시점	합계	217	100.0
	계약 전	32	14.7
	계약 직후	57	26.3
	계약 기간 이행 중	128	59.0
중도하차 이유 (복수응답)	합계	458	100.0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	84	18.3
	과도한 업무지시	111	24.2
	열악한 작업환경	76	16.6
	협업/커뮤니케이션 갈등	66	14.4
	개인적 사유 (건강, 가정 문제 등)	42	9.2
	계약 내용 이외의 부가 업무 지시	69	15.1
	기타	10	2.2

일 수행 중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처리함’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냥 참고 넘김’이 24.7%로 그 뒤를 이었다. 대처 후 해결 여부에 대해서는 ‘해결되었음’이 60.4%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그냥 참고 넘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2%와 27.3%로 가장 높았고,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19.1%), 디자이너는 ‘개인적으로 처리’(32.5%)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경우 ‘현재 진행 중’(13.8%)으로 응답한 비율이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4〉 프리랜서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 및 해결 여부(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대처 방법(복수응답)												해결 여부									
	그냥 참고 넘김		발주처 등에 알림		공적기관 도움받음		관련 단체나 협회 도움 받음		법률 소송		개인적으로 처리		기타		해당사항 없음		해결되지 않았음		해결되었음		현재 진행 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56	24.7	186	12.9	102	7.1	85	5.9	63	4.4	359	24.9	2	0.1	286	19.9	251	34.2	443	60.4	40	5.4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77	21.0	70	19.1	29	7.9	31	8.4	22	6.0	78	21.3	0	0	60	16.3	55	31.6	111	63.8	8	4.6
문리기술 및 에너지강사	92	27.2	36	10.7	20	5.9	15	4.4	11	3.3	80	23.7	0	0	84	24.9	61	35.5	104	60.5	7	4.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56	26.9	16	7.7	15	7.2	12	5.8	7	3.4	57	27.4	0	0	45	21.6	44	40.7	58	53.7	6	5.6
디자이너	57	24.7	26	11.3	16	6.9	11	4.8	9	3.9	75	32.5	0	0	37	16.0	48	37.5	73	57.0	7	5.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7	22.0	18	14.6	12	9.8	11	8.9	7	5.7	30	24.4	1	0.8	17	13.8	19	29.2	37	56.9	9	13.8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7	27.3	20	11.6	10	5.8	5	2.9	7	4.1	39	22.7	1	0.6	43	25.0	24	27.6	60	69.0	3	3.4

부당대우·인권침해를 참고 넘긴 이유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이 37.1%로 가장 높았고,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이 34.8%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인권침해를 참고 넘긴 이유를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51.9%)’을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와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각각 44.6%와 48.2%가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을 이유로 응답해 다른 직종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Ⅲ-35〉 프리랜서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		비용이 많이 소모		적절한 대응 방법 모름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 없음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32	37.1	32	9.0	61	17.1	124	34.8	7	2.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4	44.2	12	15.6	12	15.6	17	22.1	2	2.6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26	28.3	6	6.5	18	19.6	41	44.6	1	1.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5	26.8	3	5.4	7	12.5	27	48.2	4	7.1
디자이너	25	43.9	2	3.5	12	21.1	18	31.6	0	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4	51.9	1	3.7	4	14.8	8	29.6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8	38.3	8	17.0	8	17.0	13	27.7	0	0

## 마.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 1) 직무역량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인관계 관리능력’(17.7%), ‘협업능력’ (16.4%) 순이었다.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모든 직종에서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1순위로 나타났고,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협업능력’, 디자이너의 경우 ‘프로젝트 관리 능력’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부록참조).

〈표 III-36〉 프리랜서의 필요역량 1순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협업능력	167	16.4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435	42.6
대인관계 관리능력	181	17.7
디지털 활용능력	58	5.7
협상 능력	72	7.1
프로젝트 관리능력	57	5.6
강의 및 발표능력	28	2.7
문서작성능력	11	1.1
행정사무능력	9	0.9
기타	2	0.2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31명(32.5%)이고, 이들이 교육 훈련과정에 참여한 총시간은 평균적으로 34.5시간이었다.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와 돌봄/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6.3%, 50.0%로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7〉 프리랜서의 교육훈련 참여와 총 시간(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교육훈련 참여 여부				교육훈련 총 시간											
	있음		없음		20시간 미만		20~40시간 미만		40~60시간 미만		60~100시간 미만		100~200시간 미만		200시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31	32.5	689	67.5	158	47.7	84	25.4	45	13.6	13	3.9	20	6.0	11	3.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74	31.6	160	68.4	35	47.3	20	27.0	10	13.5	4	5.4	3	4.1	2	2.7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94	36.7	162	63.3	42	44.7	20	21.3	17	18.1	5	5.3	8	8.5	2	2.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7	17.6	126	82.4	11	40.7	11	40.7	4	14.8	0	0	0	0	1	3.7
디자이너	33	20.0	132	80.0	15	45.5	8	24.2	5	15.2	1	3.0	2	6.1	2	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38	46.3	44	53.7	22	57.9	8	21.1	3	7.9	1	2.6	2	5.3	2	5.3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65	50.0	65	50.0	33	50.8	17	26.2	6	9.2	2	3.1	5	7.7	2	3.1

참여한 교육훈련이 역량 향상 효과에 대해서는 '도움 되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38〉 프리랜서의 역량 향상 정도(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역량 향상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도움이 되었음		매우 도움이 되었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	0.3	23	6.9	73	22.1	206	62.2	28	8.5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0	0	6	8.1	16	21.6	49	66.2	3	4.1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0	0	6	6.4	24	25.5	54	57.4	10	10.6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0	0	2	7.4	4	14.8	19	70.4	2	7.4
디자이너	0	0	3	9.1	7	21.2	20	60.6	3	9.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	2.6	1	2.6	7	18.4	23	60.5	6	15.8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5	7.7	15	23.1	41	63.1	4	6.2

지난 1년간 참여한 교육훈련 과정명(대표과정 3개)은 직종별로 다양하다

〈표 Ⅲ-39〉 프리랜서의 교육훈련 과정(대표과정 3개)

(단위 : 명, %)

구분	과정명	빈도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AI	14
	데이터	9
	소프트웨어 개발	16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	성희롱 예방	13
	아동관련	13
	IT 소프트웨어	1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번역	8
	AI 관련	4
	저작권	3

구분	과정명	빈도
디자이너	디자인	14
	프리랜서 기본 교육	6
	프로그램	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운동 프로그램	16
	성희롱예방교육	6
	해부학	3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요양보호사	6
	돌봄 관련	6
	노인 관련	5

지난 1년간 참여한 대표 교육훈련<sup>4)</sup> 과정 3개의 이수 시간을 분석한 결과, '10시간 미만' 응답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10시간 미만' 응답 비율이 74.4%로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0〉 프리랜서의 교육훈련 과정별 이수 시간(직종별/대표과정 3개)

(단위 : 명, %)

구분	10시간 미만		10~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97	62.9	112	17.7	44	7.0	32	5.1	46	7.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77	60.2	25	19.5	8	6.3	9	7.0	9	7.0
문라 기술 및 예능강사	128	63.7	35	17.4	18	9.0	6	3.0	14	7.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33	63.5	10	19.2	5	9.6	3	5.8	1	1.9
디자이너	27	50.9	11	20.8	6	11.3	5	9.4	4	7.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39	54.2	18	25.0	3	4.2	5	6.9	7	9.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93	74.4	13	10.4	4	3.2	4	3.2	11	8.8

4) 아동관련: 아동 미술, 아동 보호, 아동 지도실무 등의 교육명 포함, AI관련: AI디자인, AIDE 자격 등의 교육명 포함  
 프리랜서 기본 교육: 세금, 불공정계약의 이해, 계약 업무 등 포함, 노인관련: 노인복지, 인권, 정신건강 등의 교육명 포함  
 돌봄관련: 돌봄 서비스, 돌봄 책 읽어주기, 돌봄 미술프로젝트 등의 교육명 포함

지난 1년간 참여한 교육훈련 과정별(대표과정 3개) 훈련기관은 ‘온라인 강의’가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온라인 강의’를 선택한 비율이 42.3%로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교육을 우선순위로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는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이 339명,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 30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1〉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교육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020	1,020	1,020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	301	146	83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	339	193	87
저작권 관련 교육	102	112	97
계약 관련 교육	137	244	226
노동권익 교육	44	119	141
세무/회계 교육	46	100	178
불공정행위 예방 및 구제 교육	37	89	162
성희롱 예방 교육	11	15	41
기타	3	2	5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6개 직종 응답자 모두 직종별 직무수행 능력향상 교육과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경우 ‘저작권 관련 교육 (24.2%)’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42〉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교육 1순위(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기본 역량 교육		직종별 직무수행 능력향상 교육		저작권 관련 교육		계약 관련 교육		노동권의 교육		세무/회계 교육		불공정행위 예방 및 구제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01	29.5	339	33.2	102	10.0	137	13.4	44	4.3	46	4.5	37	3.6	11	1.1	3	0.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68	29.1	84	35.9	16	6.8	30	12.8	14	6.0	12	5.1	8	3.4	2	0.9	0	0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92	35.9	88	34.4	21	8.2	24	9.4	8	3.1	11	4.3	6	2.3	5	2.0	1	0.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37	24.2	31	20.3	37	24.2	28	18.3	6	3.9	7	4.6	6	3.9	0	0	1	0.7
디자이너	37	22.4	57	34.5	19	11.5	27	16.4	5	3.0	10	6.1	9	5.5	1	0.6	0	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9	35.4	29	35.4	5	6.1	12	14.6	1	1.2	3	3.7	2	2.4	1	1.2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38	29.2	50	38.5	4	3.1	16	12.3	10	7.7	3	2.3	6	4.6	2	1.5	1	0.8

## 2) 경력 경로

일감(프로젝트)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 인정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3.2%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직종에서 일감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3〉 프리랜서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2	2.2	141	13.8	594	58.2	255	25.0	8	0.8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4	1.7	25	10.7	122	52.1	83	35.5	0	0
문라 기술 및 예능강사	6	2.3	33	12.9	168	65.6	48	18.8	1	0.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5	3.3	23	15.0	93	60.8	30	19.6	2	1.3
디자이너	3	1.8	28	17.0	90	54.5	42	25.5	2	1.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	2.4	10	12.2	46	56.1	22	26.8	2	2.4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2	1.5	22	16.9	75	57.7	30	23.1	1	0.8

프리랜서로 일할 때 경력 증빙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함+매우 필요함)고 답한 응답자가 648명(63.5%)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리랜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보관한다’는 응답자가 742명(72.7%)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디자이너가 프리랜서 경력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응답 비율이 80.6%로 가장 높았고,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응답 비율이 55.4%로 가장 낮았다.

〈표 III-44〉 프리랜서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경력 증빙의 필요성										경력 증빙자료 보관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보관		미보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5	0.5	55	5.4	312	30.6	556	54.5	92	9.0	742	72.7	278	27.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0	0	10	4.3	71	30.3	133	56.8	20	8.5	175	74.8	59	25.2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1	0.4	15	5.9	63	24.6	144	56.3	33	12.9	187	73.0	69	27.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	1.3	14	9.2	52	34.0	75	49.0	10	6.5	111	72.5	42	27.5
디자이너	0	0	5	3.0	54	32.7	92	55.8	14	8.5	133	80.6	32	19.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	1.2	3	3.7	26	31.7	43	52.4	9	11.0	64	78.0	18	22.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	0.8	8	6.2	46	35.4	69	53.1	6	4.6	72	55.4	58	44.6

경력 증빙자료의 형태는 ‘포트폴리오’라는 응답 비율이 29.9%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 분석 결과, 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응답 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는 ‘경력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증’을 선택한 비율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5〉 프리랜서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직종별/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계약서		포트폴리오		거래내역서		세금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의 확인증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80	25.3	449	29.9	202	13.4	107	7.1	356	23.7	10	0.7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05	27.6	106	27.9	54	14.2	32	8.4	81	21.3	2	0.5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87	23.0	99	26.2	44	11.6	17	4.5	128	33.9	3	0.8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46	23.7	77	39.7	23	11.9	10	5.2	35	18.0	3	1.5
디자이너	64	22.5	115	40.4	38	13.3	24	8.4	43	15.1	1	0.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35	29.4	27	22.7	18	15.1	9	7.6	29	24.4	1	0.8

구분	계약서		포트폴리오		거래내역서		세금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의 확인증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3	29.1	25	16.9	25	16.9	15	10.1	40	27.0	0	0

경력 증빙 용도(목적)는 ‘일감 수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 분석 결과, 디자이너와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일감 수주’(55.6%, 51.4%),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취업용’(41.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46〉 프리랜서의 경력 증빙 용도(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공공기관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어린이집 등 지원신청		일감 수주		취업용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80	24.3	82	11.1	30	4.0	290	39.1	157	21.2	3	0.4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53	30.3	25	14.3	7	4.0	67	38.3	22	12.6	1	0.6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46	24.6	15	8.0	11	5.9	64	34.2	50	26.7	1	0.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7	24.3	9	8.1	2	1.8	57	51.4	15	13.5	1	0.9
디자이너	16	12.0	18	13.5	2	1.5	74	55.6	23	17.3	0	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0	31.3	9	14.1	4	6.3	14	21.9	17	26.6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8	25.0	6	8.3	4	5.6	14	19.4	30	41.7	0	0

경력 증빙자료 인정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는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됨’이라는 응답 비율이 49.4%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72.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디자이너는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됨’(62.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7〉 프리랜서의 경력 증빙자료 인정 및 보수 영향 정도(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경력 증빙자료 인정 정도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									
	인정받지 못함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		제출하지 않음		일정 정도 영향 미침		단가 산정시 활용됨		경력 증빙과 상관없이 책정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7	5.0	461	62.1	156	21.0	88	11.9	189	30.6	305	49.4	122	19.8	1	0.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4	8.0	126	72.0	27	15.4	8	4.6	62	40.5	78	51.0	13	8.5	0	0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6	3.2	115	61.5	41	21.9	25	13.4	41	26.3	65	41.7	49	31.4	1	0.6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8	7.2	55	49.5	23	20.7	25	22.5	22	28.2	35	44.9	21	26.9	0	0
디자이너	6	4.5	87	65.4	24	18.0	16	12.0	29	26.1	69	62.2	13	11.7	0	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3	4.7	38	59.4	17	26.6	6	9.4	14	25.5	28	50.9	13	23.6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40	55.6	24	33.3	8	11.1	21	32.8	30	46.9	13	20.3	0	0

주)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의 응답자 대상

경력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경력 증빙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서'(36.0%)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는 '경력 증빙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서'(46.4%)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경력 증빙할 상황이 없어서'(40.5%)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48〉 프리랜서의 경력 증빙자료 미보관 이유(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경력 증빙 상황이 없어서		경력증명 필요 없는 직업이라서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인쇄물 형태로 보관이 어려워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69	24.8	100	36.0	47	16.9	58	20.9	4	1.4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3	22.0	19	32.2	13	22.0	13	22.0	1	1.7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10	14.5	32	46.4	9	13.0	18	26.1	0	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7	40.5	12	28.6	3	7.1	7	16.7	3	7.1
디자이너	9	28.1	10	31.3	9	28.1	4	12.5	0	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6	33.3	4	22.2	3	16.7	5	27.8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4	24.1	23	39.7	10	17.2	11	19.0	0	0

경력 증빙 서류 요청 시 어려웠던 경험을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있음'(18.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어려움의 이유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발주처에서 경력증빙서류 발급 요청을 말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4.8%, 54.2%로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49〉 프리랜서의 경력 증빙서류 요청 시 어려움(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경험				어려움의 이유(복수응답)													
	있음		없음		발주처의 폐업 또는 담당자 퇴사		발주처에 발급 요청 어려움		발주처에서 서루 관리 하지 않음		구두계약 이러서		발주처에서 발급 차제를 꺼려서		발주처에서 폐기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14	30.8	706	69.2	119	20.3	137	23.4	124	21.2	94	16.0	83	14.3	28	4.8	1	0.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81	34.6	153	65.4	34	20.4	36	21.6	36	21.6	22	13.2	30	18.0	9	5.4	0	0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67	26.2	189	73.8	21	19.3	21	19.3	19	17.4	21	19.3	20	18.3	7	6.4	0	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60	39.2	93	60.8	22	19.6	28	25.0	27	24.1	22	19.6	11	9.8	1	0.9	1	0.9
디자이너	51	30.9	114	69.1	22	20.8	22	20.8	22	20.8	18	17.0	15	14.2	7	6.6	0	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31	37.8	51	62.2	11	21.2	17	32.7	11	21.2	6	11.5	3	5.8	4	7.7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24	18.5	106	81.5	9	22.5	13	32.5	9	22.5	5	12.5	4	10.0	0	0	0	0

## 바. 정책

### 1)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정책

서울시 프리랜서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으로는 ‘경력인정시스템 마련’ 22.9%, ‘표준계약가이드 마련’ 19.8%, ‘4대 사회보험 지원’ 17.6%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는 ‘4대 보험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24.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경우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31.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50〉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정책 1순위(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노동 관련 법률지원 시스템 제공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		세무상담 지원		4대 사회보험 지원		계약 및 업무수행 지원		프리랜서 인식개선		심리상담 지원		교육 훈련 지원		일감정보 지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52	14.9	234	22.9	202	19.8	63	6.2	180	17.6	44	4.3	55	5.4	10	1.0	19	1.9	61	6.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36	15.4	74	31.6	44	18.8	12	5.1	29	12.4	13	5.6	3	1.3	3	1.3	6	2.6	14	6.0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41	16.0	48	18.8	41	16.0	16	6.3	63	24.6	11	4.3	12	4.7	2	0.8	6	2.3	16	6.3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7	11.1	29	19.0	30	19.6	12	7.8	28	18.3	10	6.5	16	10.5	1	0.7	4	2.6	6	3.9
디자이너	25	15.2	34	20.6	47	28.5	10	6.1	20	12.1	3	1.8	14	8.5	2	1.2	0	0	10	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6	19.5	20	24.4	17	20.7	7	8.5	11	13.4	2	2.4	3	3.7	1	1.2	1	1.2	4	4.9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7	13.1	29	22.3	23	17.1	6	4.6	29	22.3	5	3.8	7	5.4	1	0.8	2	1.5	11	8.5

## 2) 에스프로 시스템 관련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sup>5)</sup> 사용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있음+매우 있음)'이라고 응답 비율은 전체의 47.6%로 나타났고, '보통'의 경우 41.3%로 나타났다.

〈표 III-51〉 프리랜서의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전혀 없음		없음		보통		있음		매우 있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0	2.9	84	8.2	421	41.3	429	42.1	56	5.5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9	3.8	14	6.0	96	41.0	106	45.3	9	3.8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9	3.5	29	11.3	107	41.8	101	39.5	10	3.9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6	3.9	19	6.5	56	36.6	66	43.1	15	9.8
디자이너	3	1.8	9	5.5	65	39.4	79	47.9	9	5.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0	0	7	8.5	38	46.3	30	36.6	7	8.5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3	2.3	15	11.5	59	45.4	47	36.2	6	4.6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있음+매우 있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40.2%)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보수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44.4%),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일감 찾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22.6%)라는 응답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은 발주처의 결제 대금(일감 보수)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프리랜서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이다.

〈표 Ⅲ-52〉 프리랜서의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 이유(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수료가 저렴해서		보수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감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경력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95	40.2	31	6.4	154	31.8	62	12.8	43	8.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40	34.8	15	13.0	31	27.0	18	15.7	11	9.6
문라 기술 및 예능강사	48	43.2	3	2.7	38	34.2	10	9.0	12	10.8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32	39.5	3	3.7	36	44.4	5	6.2	5	6.2
디자이너	34	38.6	3	3.4	32	36.4	13	14.8	6	6.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8	48.6	4	10.8	9	24.3	4	10.8	2	5.4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23	43.4	3	5.7	8	15.1	12	22.6	7	13.2

주) 사용 의향 이유(사용 의향 있음+매우 있음 응답 대상자)

또한, 사용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전혀 없음+없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에스크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31.6%)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스템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를 직종별로 살펴본 결과,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61.1%), 디자이너의 경우 '기존 거래 중인 클라이언트(발주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33.3%)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53〉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경력관리가 필요 없어서		보수 미지급 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해당 분야의 일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기존 거래 중인 클라이언트(발주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에스크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9	16.7	9	7.9	17	14.9	24	21.1	36	31.6	9	7.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4	17.4	4	17.4	2	8.7	2	8.7	8	34.8	3	13.0

구분	경력관리가 필요 없어서		보수 미지급 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해당 분야의 일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기존 거래 중인 클라이언트(발주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에스크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8	21.1	1	2.6	4	10.5	12	31.6	11	28.9	2	5.3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3	18.8	1	6.3	4	25.0	3	18.8	2	12.5	3	18.8
디자이너	2	16.7	2	16.7	3	25.0	4	33.3	1	8.3	0	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0	0	0	0	2	28.6	2	28.6	3	42.9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2	11.1	1	5.6	2	11.1	1	5.6	11	61.1	1	5.6

주)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사용 의향 전혀 없음+없음 응답 대상자)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라는 응답 비율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발급 건당 일정액(32.5%)', 디자이너는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32.7%)'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54〉 에스크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발급 건당 일정액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81	27.5	272	26.7	433	42.5	34	3.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54	23.1	76	32.5	95	40.6	9	3.8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72	28.1	64	25.0	111	43.4	9	3.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44	28.8	41	26.8	61	39.9	7	4.6
디자이너	54	32.7	45	27.3	63	38.2	3	1.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4	29.3	16	19.5	41	50.0	1	1.2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33	25.4	30	23.1	62	47.7	5	3.8

### 3)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프리랜서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4대 보험 관련, 경력관리, 권익 보호, 복지, 홍보, 일자리, 시스템 관련 등 다양한 의견이 언급되었다.

〈표 Ⅲ-55〉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항목	사례
4대 보험	4대 보험 지원 및 혜택 강화
	4대 보험 의무 가입
	경력증명으로 직장 가입자처럼 활용
경력관리	경력별 비율 평균 단가 관리
	경력지원 시스템 지원
	경력 증빙 가능
	프리랜서의 경력 인정
권익보호	고용안정과 노동자 권익보호, 인권 존중
	표준 근로계약서 제시
	노동상담, 법률 상담 지원
	부당한 대우 개선 및 관리
복지	일정 조건이 되면 퇴직금 형식의 보상
	복지향상 및 시스템 구축
보수 및 계약	적정한 보수 지급. 표준 권장 단가 산정
	급여 미지급 처리
	경력에 따른 단가 향상
	안정적인 보수 지급과 계약 관계 수립
	계약서 관련 도움 서비스
분쟁해결	법적 분쟁시 조정 시스템 마련(분쟁 조정 위원회 등)
	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지원
시스템	신속한 도입
	의무 시행
	수수료 지원 또는 낮은 이용 수수료
	간편한 사용 절차 및 빠른 처리
	에스크로 시스템 및 서버 안정성 향상
	정보 보호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기능
	빠른 처리 및
일자리	다양한 직종의 일감 정보 사이트 추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홍보	홍보 확대
	발주처를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

## 사. 요약

본 연구에서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디자이너,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를 최종 6개 직종으로 선정하였다. 실태조사 설문지는 총 44문항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고용 특성, 계약, 노동환경, 불공정 경험 등으로 구성하였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서울시 프리랜서는 총 1,020명으로 성별은 남성이 460명(45.1%), 여성이 560명(54.9%)이었고, 연령은 40대 327명(32.1%), 30대 289명(28.3%), 50대 242명(23.7%)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47명(6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 290명(28.4%), 200~300만원 미만 226명(22.2%)순으로 나타났다.

### 1) 고용 특성

6개 직종별 응답자 수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34명(22.9%),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6명(25.1%), 디자이너 165명(16.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53명(15.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30명(12.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82명(8.0%)이었다. 서울시 프리랜서의 평균 활동 기간은 평균 7.8년(93개월)으로 활동기간 2~5년 미만의 프리랜서 30.3%, 5~10년 미만 24.2%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선택 이유(1순위)로는 '근로 유연성 확보'가 310명으로 많았고, 프리랜서 직종 외 다른 일을 하는 비율은 44.4%, 프리랜서 외 다른 일을 하는 이유로는 '주된 프리랜서 일자리만으로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2) 계약

서울시 프리랜서의 주 발주처는 다양하며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중심이며, 디자이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개인사업자,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 일반 시민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계약 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65.3%로 높았고, 대부분 서면계약서 작성 후 동일계약서를 받고 있는 것(90.2%)으로 나타났다. 동일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이유는 '특별히 필요가 없어서'(37.5%)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발주처에서 주지 않은 경우라는 응답 비율도 25.0%로 높게 나타났다.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37.4%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은 34.0%로 나타났으며,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임금'(36.2%), '계약 기간'(32.4%), '업무 내용'(30.3%)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 결정방법은 '발주처 내부 규정'(42.4%), '구두 합의'(35.8%), '업계 관행'(21.0%)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고, 보수지급 방식은 정기적 지급이 35.7%, 완료 후 전액이 32.6%로 나타났다. 일감을 찾는 방법은 인맥 중심의 '개인 네트워크'(35.9%)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잡 포털 사이트'(18.4%), '온라인 커뮤니티'(16.6%) 순으로 나타났다. 일감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1순위)으로는 '보수' 396명, 다음으로 업무 내용 202명, 작업 기간 155명 순으로 나타났다.

### 3) 노동 환경

사업자등록증 보유 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받은 비율이 32.3%로 나타났고,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디자이너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응답 비율이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45.3%로 나타났다. 또한,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자격증에 대해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이 44.9%로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33.4%), 35시간 이상~40시간 미만(22.9%), 15시간 미만(19.5%), 40시간 이상~52시간 미만(18.1%)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노동시간이 긴 반면,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결정하기도 하지만, 발주처와 협의하거나 발주처가 특정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디자이너,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근무시간 결정방법을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 장소는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가 45.2%, 다음으로 '재택'(30.9%), '다양한 공간 활용'(15.1%)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근무 장소를 분석한 결과,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와 디자이너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발주처의 지휘·감독에 대해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33.6%, '지휘·감독 자체가 없었음'이 27.6%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1순위)은 '소득의 불안정성'(36.4%), '일감 구하기'(30.6%) 순이었다.

#### 4) 불공정 경험

프리랜서로서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1순위는 '보수 미지급/지연지급/일방적 삭감/로열티 미지급 등'에 관한 응답 비율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변경'(163명), '업무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음'(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 미수금 일감(프로젝트) 비율의 평균은 24.4%였으며, 보수 미수금 금액은 200~300만원 미만(34.5%), 100만원 미만(24.8%) 순으로 나타났고, 보수 미수금의 최고 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일 수행 중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를 경험한 비율은 12.9%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사례(유형)를 분석한 결과 '폭언'이 43.4%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이 22.3%, '기타 괴롭힘'이 14.9% 순으로 나타났다. 일 수행 중, 중도 하차한 경험은 21.3%,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기산 이행 중'이 59.0%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하차 이유는 '과도한 업무지시'(24.2%),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18.3%), '열악한 작업환경'(16.6%)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 인권침해 대한 대처 방법은 '개인적으로 처리함'이 24.9%, '그냥 참고 넘김'이 24.7%로 그 뒤를 이었다. 참고 넘긴 이유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이 37.1%, 대처 후 해결 여부에 대해서는 '해결되었음'이 60.4%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5)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은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인관계 관리능력'(17.7%), '협업능력'(16.4%) 순이었다. 직종별로 1순위를 살펴보면,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협업능력', 디자이너의 경우 '프로젝트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 훈련 참여 경험자는 32.5%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교육 이수 시간은 34.5시간이었다. 역량 향상 효과에 대해서는 '도움 되었음'이 62.2%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교육훈련(1순위)은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339명),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301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직종 모두 직종별 직무수행 능력 향상 교육과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일감 수주 시 프리랜서 경력인정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프리랜서 경력 증빙이 '필요하다'는 63.5%, '필요하지 않다'는 5.9%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보관한다'는 72.7%, 경력 증빙자료는 주로 '포트폴리오'가 29.9%, 경력 증빙 용도(목적)는 '일감 수주'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주처의 경력 증빙자료 인정 정도를 질문한 결과에서 60% 이상이 '일반적

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일반 근로자 수준보다 낮게 인정'은 21.0%로 나타났다. 경력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이유는 '경력 증빙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서'가 36.0%로 나타났다. 경력 증명서류를 요청받았을 때 어려웠던 경험을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0.8%로, 경력 증빙자료 요청 시 어려움의 이유는 '발주처에 경력증빙서류 발급 요청을 말하기 어려워서'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6) 정책

서울시 프리랜서로서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는 '경력인정시스템 마련'이 22.9%,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이 19.8%, '4대 사회보험 지원'이 17.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해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7.6%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41.3%로 높게 나타났다. 사용 의향이 있는 이유는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어서'(40.2%), '보수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31.8%) 순이었고,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31.6%), '기존 거래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21.1%)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으로는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 직종별 분석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 특성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34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179명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55명(23.5%)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73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5명(27.8%), 50대 56명(23.9%)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171명(7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수준은 600만원 이상 86명(36.8%), 300~400만원 미만 53명(22.6%)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 83명(35.5%), 기혼 144명(61.5%), 이혼 또는 사별 7명(3.0%)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근로 이력 중 주된 일자리 지위의 경우 상용 근로자 82명(53.0%), 처음부터 프리랜서 68명(29.1%) 순이었다.

〈표 III-56〉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연령	20대	27	11.5
	30대	65	27.8
	40대	73	31.2
	50대	56	23.9
	60대 이상	13	5.6
성별	남성	179	76.5
	여성	55	23.5
최종학력	고졸이하	11	4.7
	2~3년제(전문대) 졸업	21	9.0
	4년제 대학 졸업	171	73.1
	대학원(석사이상) 졸업	22	9.4
	기타 무응답	9	3.8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0	8.5
	200~300만원 미만	29	12.4
	300~400만원 미만	53	22.6
	400~600만원 미만	46	19.7
	600만원 이상	86	36.8
혼인상태	미혼	83	35.5
	기혼	144	61.5
	이혼/사별	7	3.0
이전 근로 이력 중 주된 일자리 지위	상용 근로자	82	35.0
	임시근로자	51	21.8
	일용근로자	13	5.6
이전 근로 이력 중 주된 일자리 지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	2.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3	5.6
	무급가족종사자	0	0
	처음부터 프리랜서	68	29.1
	일하지 않았음	1	0.4

## 2) 고용 특성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세부 직종은 총 6개로 분류되었으며,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가 64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51명(21.8%),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가' 47명(20.1%), '웹 개발자' 35명(15.0%), '기타 컴퓨터 시스템 운영자' 28명(12.0%), '기타' 9명(3.8%)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평균 활동 기간은 6.6년이었으며, '2년~5년 미만'의 프

리랜서가 73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10년 미만'이 69명(29.5%), '2년 미만'이 37명(15.8%), '10년~15년 미만'이 29명(1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57〉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직종 및 활동 기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세부 직종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64	27.4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47	20.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51	21.8
	웹 개발자	35	15.0
	기타 컴퓨터 시스템 운영자	28	12.0
	기타	9	3.8
프리랜서 활동 기간 (비율 평균 6.6년)	2년 미만	37	15.8
	2년~5년 미만	73	31.2
	5년~10년 미만	69	29.5
	10년~15년 미만	29	12.4
	15~20년 미만	13	5.6
	20년 이상	13	5.6

프리랜서 직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소득이 다른 일자리보다 나올 것 같아서'와 '근로 유연성 확보'가 각각 60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58〉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프리랜서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234	234	234
조직생활이 안 맞아서	58	14	6
소득이 다른 일자리보다 나올 것 같아서	60	44	22
근로 유연성 확보	60	46	34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	16	29	29
재택근무 선호	8	32	33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19	21	22
미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경력을 쌓으려고	2	8	29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7	23	26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4	16	30
기타	0	1	3

## 나. 계약

### 1) 주 발주처

일감(프로젝트)의 주 발주처를 ‘중소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8명(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 72명(30.8%), ‘소기업’ 22명(9.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1명(9.0%), ‘개인사업자’ 14명(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발주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공공기관	21	9.0
대기업	72	30.8
중소기업	98	41.9
소기업(10인 미만)	22	9.4
개인사업자	14	6.0
일반 시민	7	3.0

### 2) 계약의 형태

일감(프로젝트)의 계약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두계약’은 26.5%였고,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는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가 27명(36.0%),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서’ 18명(24.0%), ‘발주처(주요 고객)가 서면계약을 거부해서’ 15명(2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계약서 한 부를 함께 교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응답이 199명(95.7%)으로 나타났다.

〈표 Ⅲ-6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직종 및 활동 기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계약 형태 (복수응답)	합계	283	100.0
	서면계약서 작성	208	73.5
	구두계약	75	26.5
계약서 교부	합계	208	100.0
	예	199	95.7
	아니오	9	4.3
동일계약서 교부받지 않은 이유	합계	9	100.0
	동일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0	0
	동일한 계약서를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어서	5	55.6
	발주처(주요 고객)에서 주지 않아서	3	33.3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	11.1
	기타	0	0
구두계약체결 이유	합계	75	100.0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서	18	24.0
	발주처(주요 고객)가 서면계약을 거부해서	15	20.0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	27	36.0
	구두계약이 편해서	14	18.7
	기타	1	1.3

### 3) 계약서 요청사항 및 준수 여부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있음'이 108명(46.2%)으로 나타났고,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임금 관련'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6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계약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요구사항 요청 경험	합계	234	100.0
	있음	108	46.2
	없음	126	53.8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 (복수응답)	합계	205	100.0
	업무 내용	66	32.2
	기간	67	32.7
	임금	72	35.1

계약서 내용 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수됨’이 139명(59.4%),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이 84명(35.9%)으로 나타났다.

〈표 III-6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아예 준수되지 않음	1	0.4
거의 준수되지 않음	9	3.8
어느 정도 준수됨	139	59.4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	84	35.9
모르겠음	1	0.4

주)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의 설문은 아예 준수되지 않음+준수되지 않은 응답자 대상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변경’, ‘기간 연장’, ‘임금 지연’, ‘업무 추가’가 각각 19.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II-6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6	100.0
업무 변경	5	19.2
기간 연장	5	19.2
임금 지연	5	19.2
임금 체불	2	7.7
임금 삭감	2	7.7
업무 추가	5	19.2
기타	2	7.7

주)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의 설문은 아예 준수되지 않음+준수되지 않은 응답자 대상으로 함

#### 4)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일감(프로젝트)의 보수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발주처 내부 규정’이 4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구두 합의’가 34.6%, ‘업계의 불문율 또는 관행’이 17.9%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지급 방식은 ‘정기적 지급’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완료 후 전액’이 22.6%,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받음’이 16.7%로 나타났다.

〈표 Ⅲ-64〉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보수 결정방법	발주처(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 내부 규정	109	46.6
	구두 합의	81	34.6
	업계의 불문을 또는 관행	42	17.9
	기타	2	0.9
보수 지급방식	완료 후 전액	53	22.6
	완료 후 수익 일정 비율 분배	34	14.5
	정기적 지급	102	43.6
	작업 시작 전 전액 지급	6	2.6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받음	39	16.7

### 5)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방식은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가 67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잡 포털 사이트’ 53명(22.6%), ‘온라인 커뮤니티’ 46명(1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65〉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잡 포털 사이트	53	22.6
온라인 커뮤니티	46	19.7
어플리케이션(온라인 중개 사이트)	39	16.7
에이전시	22	9.4
협회 등	6	2.6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	67	28.6
기타	1	0.4

일감(프로젝트)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는 ‘보수’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업 기간’(49명), ‘업무 내용’(3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66〉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감 선택시 중요한 요인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234	234	234
작업 기간	49	40	29
보수	103	47	16
발주처	18	13	21
업무 내용	35	49	45
본인 경력 도움 정도	2	16	20
작업 강도	9	23	29
작업 난이도	11	24	21
업무 마감 기한	1	4	13
업무 결과물	2	7	18
작업 결과에 대한 유지보수	2	7	12
보수를 받는 방식	2	4	10

## 다. 노동환경

### 1)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 여부

사업자등록증 보유 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받은 비율은 46.2%, 발급받지 않은 비율은 53.8%로 나타났으며,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40.3%(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27.4%, 필요 없음 12.9%)로 나타났다.

〈표 III-67〉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발급받았음	108	46.2
발급받지 않았음	126	53.8

〈표 III-68〉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자격증 여부(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317	100.0
국가자격(면허) 필요	72	22.7
협회/단체/기업 등에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66	20.8

구분	빈도	비율
협회/단체/기업 등에서 발급하는 교육수료증(이수증) 필요	51	16.1
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87	27.4
필요 없음	41	12.9

## 2) 노동시간

1주일간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 이상~52시간 미만'이 90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35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이 67명(28.6%),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 51명(21.8%), '52시간 초과'가 14명(6.0%)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지정'이 72명(30.8%),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권고'가 66명(2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6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 결정방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12	5.1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51	21.8
	3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67	28.6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90	38.5
	52시간 초과	14	6.0
근무시간 결정방법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지정	72	30.8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	43	18.4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	12	5.1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권고	66	28.2

## 3) 근무 장소와 지휘·감독

근무 장소는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가 119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택' 72명(30.8%), '다양한 공간 활용' 33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하였음'과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7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근무 장소 및 지휘·감독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근무 장소	재택	72	30.8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직업장)	119	50.9
	다양한 공간 활용(카페 등 비업무 공간)	33	14.1
	개인소유 작업장(집 제외)	10	4.3
	기타	0	0
지휘·감독 여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하였음	73	31.2
	지휘·감독 자체가 없었음	55	23.5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	73	31.2
	지휘·감독이라기보다 발주처가 필요할 때 보고하도록 요청받았음	33	14.1

#### 4) 프리랜서로서의 어려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 ‘일감 구하기’라고 답한 응답자가 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의 불안정성’(65명), 특정한 시기에만 일이 집중됨(36명) 순이었다.

〈표 III-7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프리랜서로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234	234	234
일감 구하기	92	24	25
특정한 시기에만 일이 집중됨	36	30	13
소득의 불안정성	65	61	40
낮은 작업단가	14	30	28
직무 관련 훈련 참여기회 혹은 훈련비용 지불능력 부족	8	21	23
계약협상/체결/대금 결제 등을 1인 사업자로서 모두 처리하는 어려움	5	27	34
불공정한 계약 관행	1	14	25
장래에도 계속 일을 할지 전망이 불투명함	13	25	46
기타	0	2	0

## 라. 불공정 경험

### 1) 부당대우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로 '보수 미지급/지연지급/일방적 삭감/로열티 미지급 등'을 선택한 응답자가 49명,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선택한 응답자가 42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7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부당대우 경험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234	196	196
일방적인 계약변경 (일방적인 연장,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42	12	22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	49	25	13
다른 업무 강요	30	25	23
업무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음	27	26	26
업무와 관련 없는 갑질 행위	16	47	19
인권침해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9	14	9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 요구	3	20	23
아이디어만 탈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음	7	8	32
터무니없는 보수(단가) 제시 및 적용	13	19	29
기타	0	0	0
해당 없음	38	0	0

불리한 계약 변경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이 있는 경우가 75명(32.1%)으로 나타났다. 일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수금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이 19.7%로 나타났다.

〈표 Ⅲ-7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있음	75 32.1
	경험 없음	159 67.9
보수 미수금	경험 있음	46 19.7
	경험 없음	188 80.3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권침해 경험 있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38명(16.2%)이었고, 인권침해 사례유형으로는 '폭언'(42.3%), '기타 괴롭힘'(19.2%), '폭행'(1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74〉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인권침해 경험 여부	합계	234	100.0
	경험 있음	38	16.2
	경험 없음	196	83.8
인권침해 사례유형 (복수응답)	합계	52	100.0
	폭언	22	42.3
	폭행	9	17.3
	성희롱	5	9.6
	성폭력	6	11.5
	기타 괴롭힘	10	19.2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 있음'이 50명(21.4%)으로 나타났고,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 기간 이행 중' 52.0%, '계약 직후' 3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하차 이유는 '과도한 업무지시'가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열악한 작업환경'이 17.5%로 나타났다.

〈표 III-75〉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합계	234	100.0
	경험 있음	50	21.4
	경험 없음	184	78.6
중도하차 시점	합계	50	100.0
	계약 전	8	16.0
	계약 직후	16	32.0
	계약기간 이행중	26	52.0
중도하차 이유 (복수응답)	합계	114	100.0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	19	16.7
	과도한 업무지시	31	27.2
	열악한 작업환경	20	17.5
	협업/커뮤니케이션 갈등	14	12.3
	개인적 사유(건강, 가정 문제 등)	11	9.6
	계약 내용 이외의 부가 업무 지시	19	16.7

일 수행 중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처리함’(21.3%), ‘그냥 참고 넘김’(21.0%),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19.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76〉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367	100.0
그냥 참고 넘김	77	21.0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	70	19.1
공적기관(고용부, 공정위, 경찰 등)의 도움을 받음	29	7.9
관련 단체(노조)나 협회의 도움을 받음	31	8.4
법률 소송을 함	22	6.0
개인적으로 처리함	78	21.3
해당사항 없음	60	16.3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후 해결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해결되었음’이 63.8%, ‘해결되지 않았음’이 31.6%로 나타났다.

〈표 Ⅲ-77〉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74	100.0
해결되지 않았음	55	31.6
해결되었음	111	63.8
현재 진행 중	8	4.6

부당대우·인권침해를 참고 넘긴 이유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이라는 응답이 22.1%로 나타났다.

〈표 Ⅲ-78〉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77	100.0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34	44.2
비용이 많이 소요됨	12	15.6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르겠음	12	15.6

구분	빈도	비율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	17	22.1
기타	2	2.6

## 마.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 1) 직무역량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95명(40.6%), '협업능력' 54명(23.1%),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리능력' 37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7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협업능력	54	23.1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95	40.6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리능력	37	15.8
디지털 활용능력	19	8.1
협상 능력	14	6.0
프로젝트 관리능력	11	4.7
강의 및 발표능력	2	0.9
문서작성능력	1	0.4
행정 사무 능력	1	0.4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을 선택한 응답자가 84명으로 많았고,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68명), '계약 관련 교육'(3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8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필요한 교육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234	234	234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	68	26	20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	84	44	21
저작권 관련 교육	16	30	2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계약관련 교육	30	54	49
노동권익 교육	14	32	30
세무/회계 교육	12	25	45
불공정행위 예방 및 구제 교육	8	19	41
성희롱 예방 교육	2	2	8
기타	0	2	0

## 2) 경력 경로

일감(프로젝트)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52.1%), ‘매우 그렇다’(35.5%),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8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인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4	1.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	10.7
그런 편이다	122	52.1
매우 그렇다	83	35.5
잘 모르겠다	0	0

경력 증빙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함+매우 필요함)라고 답한 응답자는 153명(65.3%)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리랜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보관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75명(74.8%)으로 나타났다.

〈표 Ⅲ-8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경력 증빙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0	0
	별로 필요하지 않음	10	4.3
	보통	71	30.3
	대체로 필요함	133	56.8
	매우 필요함	20	8.5

구분		빈도	비율
경력 증빙 자료 보관 여부	보관	175	74.8
	미보관	59	25.2

경력 증빙자료의 유형은 ‘포트폴리오’라는 응답 비율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약서’(27.6%), ‘경력증명서, 해촉증명 등의 확인증’(2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8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380	100.0
계약서	105	27.6
포트폴리오	106	27.9
거래내역서(통장내역 등)	54	14.2
세금영수증	32	8.4
경력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증	81	21.3
기타	2	0.5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를 질문한 결과,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됨’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84〉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보수(계약금) 산정 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음	62	40.5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됨	78	51.0
경력 증빙과 상관없이 보수(계약금)는 똑같이 책정되었음	13	8.5

주)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는 경력증빙 자료 인정 정도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음의 응답자 대상

## 바. 정책

### 1)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정책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이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44명), '노동 관련 법률지원 시스템 제공'(3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85〉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234	234	234
노동 관련 법률지원시스템 제공	36	13	18
경력인정시스템 마련	74	31	18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	44	31	33
세무상담 지원	12	28	10
4대 사회보험 지원	29	39	32
계약 및 업무수행지원(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13	28	20
프리랜서 인식개선	3	27	28
심리 상담 지원	3	7	17
교육훈련 지원	6	12	30
일감정보 지원	14	17	28
기타	0	1	0

## 2) 에스프로 시스템 관련

에스프로 시스템 관련하여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23.5%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6〉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있음	55	23.5
없음	179	76.5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있음+매우 있음) 응답 비율은 전체의 49.1%로 나타났고, '보통'도 41.0%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있음+매우 있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34.8%)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용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전혀 없음+없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에스프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34.8%)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87〉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에스ক্র로 시스템 사용 의향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에스ক্র로 시스템 사용 의향	합계	234	100.0
	전혀 없음	9	3.8
	없음	14	6.0
	보통	96	41.0
	있음	106	45.3
	매우 있음	9	3.8
사용 의향 이유	합계	115	100.0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40	34.8
	수수료가 저렴해서	15	13.0
	보수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1	27.0
	일감 찾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8	15.7
	별도로 경력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11	9.6
	기타	0	0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	합계	23	100.0
	경력관리가 필요 없어서	4	17.4
	보수 미지급 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4	17.4
	해당 분야의 일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2	8.7
	기존 거래 중인 클라이언트(발주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	2	8.7
	에스ক্র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	8	34.8
기타	3	13.0	

주) 사용 의향 이유(사용 의향 있음+매우 있음 응답 대상자),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사용 의향 전혀 없음+없음 응답 대상자)

서울시 에스ক্র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라는 응답 비율이 40.6%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발급 건당 일정액'이 32.5%로 나타났다.

〈표 III-88〉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에스ক্র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4	100.0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예, 0.2% 내외)	54	23.1
발급 건당 일정액 (예, 700원)	76	32.5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예, 3회까지 무료 이후 발급)	95	40.6
기타	9	3.8

### 3)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프리랜서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권익 보호, 보수 및 계약, 시스템, 일자리, 홍보 등 다양한 의견이 언급되었다.

〈표 Ⅲ-8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항목	사례
권익 보호	근로자 인권 보호
	합리적인 처우 개선
보수 및 계약	적정한 보수지급
	표준계약서 의무
	계약사항 준수 및 이행
시스템	간편한 사용 및 서버 안정성 확보
	경력 증빙 가능 및 활용
	수수료 무료 지원 또는 수수료 인하
	빠른 승인 및 정산
일자리	일감정보 확보
	취업 연계 기능
홍보	기업 참여 독려
	홍보 확대

## 사. 요약

### 1) 고용 특성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세부 직종은 총 6개로 분류되었으며,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가 64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51명(21.8%),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가' 47명(20.1%), '웹 개발자' 35명(15.0%)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평균 활동 기간은 6.6년이었으며, '2년~5년 미만'의 프리랜서가 73명(31.2%)으로 가장 많았다. 프리랜서 직종을 선택한 이유(1순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득이 다른 일자리보다 나올 것 같아서'와 '근로 유연성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2) 계약

일감(프로젝트)의 주 발주처로 중소기업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감(프로젝트의 계약)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일한 계약서 한 부를 함께 교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응답이 95.7%로 나타났다. '구두계약'은 26.5%였고,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는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가 36.0%로 나타났다.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있음'이 46.2%로 나타났고,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임금 관련'이 35.1%로 가장 높았다. 계약서 내용 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수됨'이 59.4%,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이 35.9%로 나타났다.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변경', '기간 연장', '임금 지연', '업무 추가'가 각각 19.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일감(프로젝트)의 보수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발주처 내부 규정'이 4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수지급 방식은 '정기적 지급'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방식은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가 28.6%로 높게 나타났다. 일감(프로젝트)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3) 노동환경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40.3%(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27.4%, 필요 없음 12.9%)로 나타났다. 1주일간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 이상~52시간 미만'이 38.5%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근무시간 결정방법은,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지정'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 장소는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가 50.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발주처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하였음'과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1.2%로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1순위)은 '일감 구하기'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4) 불공정 경험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 중 1순위로 나타난 항목은 '보수 미지급/지연 지급/일방적 삭감/로열티 미지급 등'이었다. 불리한 계약 변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1%,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응답 비율은 19.7%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2%로 나타났고, 인권침해 사례유형으로는 ‘폭언’(42.3%), ‘기타 괴롭힘’(19.2%), ‘폭행’(17.3%) 순으로 나타났다.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에 대해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이 21.4%이었고,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 기간 이행 중’이 52.0%, 중도하차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지시’가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처리함’(21.3%), ‘그냥 참고 넘김’(21.0%)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인권침해를 참고 넘긴 이유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이라는 응답 비율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5)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에 대해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의 응답 비율이 40.6%로 높게 나타났고, 필요한 교육(1순위)에 대해서는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일감(프로젝트)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 증빙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증빙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8%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력에 대해서는 ‘보수(계약금) 산정 시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5%로 나타났다. 경력 증빙자료의 형태는 ‘포트폴리오’(27.9%), ‘계약서’(27.6%), ‘경력증명서, 해촉증명 등의 확인증’(21.3%) 순으로 나타났다.

### 6) 정책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은 ‘경력인정시스템 마련’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의 응답 비율은 전체의 49.1%로 나타났으며, 사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34.8%)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라는 응답 비율이 40.6%로 높게 나타났다.

## 4. 직종별 분석결과: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 특성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6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89명(34.8%), 여성이 167명(65.2%)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86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3명(28.5%), 30대 62명(24.2%)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157명(6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 95명(37.1%), 200~300만원 미만 72명(28.1%)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 102명(39.8%), 기혼 141명(55.1%), 이혼 또는 사별 13명(5.1%)이었으며, 이전 근로이력 중 주된 일자리 지위는 처음부터 프리랜서가 124명(48.4%)으로 가장 많았다.

〈표 III-90〉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성별	남성	89	34.8
	여성	167	65.2
연령	20대	17	6.6
	30대	62	24.2
	40대	86	33.6
	50대	73	28.5
	60대 이상	18	7.0
	최종학력	고졸이하	8
	2~3년제(전문대) 졸업	14	5.5
	4년제 대학 졸업	157	61.3
	대학원(석사이상) 졸업	70	27.3
	기타 무응답	7	2.7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95	37.1
	200~300만원 미만	72	28.1
	300~400만원 미만	37	14.5
	400~600만원 미만	37	14.5
	600만원 이상	15	5.9
혼인상태	미혼	102	39.8
	기혼	141	55.1

구분		빈도	비율
	이혼/사별	13	5.1
이전 근로 이력 중 주된 일자리 지위	상용 근로자	51	19.9
	임시근로자	53	20.7
	일용근로자	14	5.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	2.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	3.1
	무급가족종사자	1	0.4
	처음부터 프리랜서	124	48.4
	일하지 않았음	0	0

## 2) 고용 특성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세부 직종은 총 7개로 분류되었으며, '예능 강사'가 79명(3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문리 및 어학 강사' 69명(27.0%),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 강사' 32명(12.5%),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4명(9.4%), '기타' 21명(8.2%), '기술 및 기능계 강사' 20명(7.8%), '컴퓨터 강사' 11명(4.3%)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평균 활동 기간은 9.1년이었으며 '2~5년 미만'이 65명(2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61명(23.8%), '10년~15년 미만'이 49명(19.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91〉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직종 및 활동 기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세부 직종	문리 및 어학강사	69	27.0
	컴퓨터강사	11	4.3
	기술 및 기능계 강사	20	7.8
	예능강사	79	30.9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32	12.5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24	9.4
	기타	21	8.2
프리랜서 활동 기간 (비율 평균 9.1년)	2년 미만	24	9.4
	2년~5년 미만	65	25.4
	5년~10년 미만	61	23.8
	10년~15년 미만	49	19.1
	15~20년 미만	29	11.3
	20년 이상	28	10.9

프리랜서 직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 '근로 유연성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50명),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3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92〉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프리랜서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256	256	256
조직생활이 안 맞아서	28	15	17
소득이 다른 일자리보다 나올 것 같아서	16	21	12
근로 유연성 확보	100	52	33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	32	50	47
재택근무 선호	3	20	15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19	14	26
미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경력을 쌓으려고	1	15	20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50	40	40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4	25	37
기타	3	4	9

## 나. 계약

### 1) 주 발주처

일감(프로젝트)의 주 발주처를 중소기업이라고 선택한 응답자가 55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 54명(21.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48명(18.8%), '일반 시민' 42명(1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93〉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감(프로젝트) 발주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공공기관	48	18.8
대기업	18	7.0
중소기업	55	21.5
소기업(10인 미만)	34	13.3
개인사업자	54	21.1
일반 시민	42	16.4
기타	5	2.0

## 2) 계약의 형태

일감(프로젝트의 계약)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두계약’은 39.1%였고,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는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 52명(41.9%), ‘구두계약이 편해서’ 35명(28.2%),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 25명(2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계약서 한 부를 함께 교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응답이 168명(87.0%)으로 나타났다.

〈표 Ⅲ-9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계약 형태 및 계약서 교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계약 형태 (복수응답)	합계	317	100.0
	서면계약서 작성	193	60.9
	구두계약	124	39.1
계약서 교부	합계	193	100.0
	예	168	87.0
	아니오	25	13.0
동일계약서 교부받지 않은 이유	합계	25	100.0
	동일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5	20.0
	동일한 계약서를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어서	9	36.0
	발주처(주요 고객)에서 주지 않아서	4	16.0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7	28.0
	기타	0	0
구두계약체결 이유	합계	124	100.0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	25	20.2
	발주처(주요 고객)가 서면계약을 거부해서	11	8.9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	52	41.9
	구두계약이 편해서	35	28.2
	기타	1	0.8

## 3) 계약서 요청사항 및 준수 여부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4명(21.1%)이었고,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임금’과 ‘기간’ 관련이 각각 35.5%로 나타났다.

〈표 III-95〉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계약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요구사항 요청 경험	합계	256	100.0
	있음	54	21.1
	없음	202	78.9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 (복수응답)	합계	93	100.0
	업무 내용	26	28.0
	기간	33	35.5
	임금	33	35.5
	기타	1	1.1

계약서 내용 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수됨’이 167명(65.2%),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이 70명(27.3%)으로 나타났다.

〈표 III-96〉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아예 준수되지 않음	3	1.2
거의 준수되지 않음	8	3.1
어느 정도 준수됨	167	65.2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	70	27.3
모르겠음	8	3.1

주)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의 설문은 아예 준수되지 않음+준수되지 않은 응답자 대상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한 결과, ‘임금 삭감’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금 지연’(23.8%), ‘업무 추가’(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97〉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1	100.0
업무 변경	2	9.5
기간 연장	1	4.8
임금 지연	5	23.8
임금 체불	2	9.5

구분	빈도	비율
임금 삭감	6	28.6
업무 추가	3	14.3
기타	2	9.5

주)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의 설문은 아예 준수되지 않음+준수되지 않은 응답자 대상으로 함

#### 4)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일감(프로젝트)의 보수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발주처 내부 규정’이 4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구두 합의’가 38.3%, ‘업계의 불문을 또는 관행’이 17.2%로 나타났다. 보수지급 방식은 ‘정기적 지급’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완료 후 전액’(32.8%), ‘완료 후 수익 일정 비율 분배’(1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98〉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보수 결정방법	발주처(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 내부 규정	113	44.1
	구두 합의	98	38.3
	업계의 불문을 또는 관행	44	17.2
	기타	1	0.4
보수 지급방식	완료 후 전액	84	32.8
	완료 후 수익 일정 비율 분배	42	16.4
	정기적 지급	101	39.5
	작업 시작 전 전액 지급	14	5.5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받음	14	5.5
	기타	1	0.4

#### 5)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방식은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가 92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잡 포털 사이트 53명(20.7%), 온라인 커뮤니티 32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99〉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잡 포털 사이트	53	20.7
온라인 커뮤니티	32	12.5
어플리케이션(온라인 중개 사이트)	24	9.4
에이전시	24	9.4
협회 등	23	9.0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	92	35.9
기타	8	3.1

일감(프로젝트)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에서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내용'(58명), '작업 기간'(3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00〉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감 선택시 중요한 요인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256	256	256
작업 기간	33	27	29
보수	90	53	24
발주처	16	9	13
업무 내용	58	62	44
본인 경력 도움 정도	15	23	28
작업 강도	14	17	35
작업 난이도	13	25	26
업무 마감 기한	1	10	14
업무 결과물	4	6	10
작업 결과에 대한 유지보수	3	11	12
보수를 받는 방식	8	13	21

## 다. 노동환경

### 1)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 여부

사업자등록증 보유 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받은 비율은 26.2%, 발급받지 않은 비율은 73.8%로

나타났으며,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45.4%(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22.7%, 필요 없음 22.7%)로 나타났다.

〈표 Ⅲ-101〉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발급받았음	67	26.2
발급받지 않았음	189	73.8

〈표 Ⅲ-102〉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자격증 여부(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330	100.0
국가자격(면허) 필요	58	17.6
협회/단체/기업 등에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58	17.6
협회/단체/기업 등에서 발급하는 교육수료증(이수증) 필요	64	19.4
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75	22.7
필요 없음	75	22.7

## 2) 노동시간

1주일간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 96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15시간 미만' 75명(29.3%), '35시간 이상~40시간 미만' 53명(20.7%)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결정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이 107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이 86명(3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03〉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75	29.3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96	37.5
	3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53	20.7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27	10.5
	52시간 초과	5	2.0

구분		빈도	비율
근무시간 결정방법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지정	59	23.0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	86	33.6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	107	41.8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권고	4	1.6

### 3) 근무 장소와 지휘·감독

근무 장소는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가 141명(5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공간 활용' 46명(18.0%), '재택' 38명(14.8%) 순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0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근무 장소 및 지휘·감독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근무 장소	재택	38	14.8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작업장)	141	55.1
	다양한 공간 활용(카페 등 비업무 공간)	46	18.0
	개인소유 작업장(집 제외)	22	8.6
	기타	9	3.5
지휘·감독 여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하였음	49	19.1
	지휘·감독 자체가 없었음	71	27.7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	88	34.4
	지휘·감독이라기보다 발주처가 필요할 때 보고하도록 요청받았음	48	18.8

### 4) 프리랜서로서의 어려움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선택한 응답자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감 구하기'(67명), '낮은 작업단가'(2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05〉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프리랜서로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256	256	256
일감 구하기	67	37	46
특정한 시기에만 일이 집중됨	24	25	27
소득의 불안정성	113	65	29
낮은 작업단가	26	36	34
직무 관련 훈련 참여기회 혹은 훈련비용 지불능력 부족	8	15	12
계약 협상/체결/대금 결제 등을 1인 사업자로서 모두 처리하는 어려움	4	15	22
불공정한 계약 관행	2	13	19
장래에도 계속 일을 할지 전망이 불투명함	12	49	65
기타	0	1	2

## 라. 불공정 경험

### 1) 부당대우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에서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선택한 응답자는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수 미지급/지연지급/일방적 삭감/로열티 미지급 등'(34명), '업무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음'(2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06〉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부당대우 경험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256	161	161
일방적인 계약변경 (일방적인 연장,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39	19	19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	34	23	18
다른 업무 강요	18	16	19
업무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음	23	30	24
업무와 관련 없는 갑질 행위	10	21	18
인권침해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5	11	11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 요구	6	7	9
아이디어만 탈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음	7	10	15
터무니없는 보수(단가) 제시 및 적용	18	23	26
기타	1	1	2
해당 없음	95	0	0

불리한 계약 변경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계약 내용(구두계약 포함)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73명(28.5%)으로 나타났다. 일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수금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이 12.1%로 나타났다.

〈표 Ⅲ-107〉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있음	73	28.5
	경험 없음	183	71.5
보수 미수금	경험 있음	31	12.1
	경험 없음	225	87.9

인권침해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권침해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이 12.1%로 나타났고, 인권침해 사례유형으로는 폭언(43.6%), 성희롱(20.5%), 기타 괴롭힘(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08〉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인권침해 경험 여부	합계	256	100.0
	경험 있음	31	12.1
	경험 없음	225	87.9
인권침해 사례유형 (복수응답)	합계	39	100.0
	폭언	17	43.6
	폭행	5	12.8
	성희롱	8	20.5
	성폭력	3	7.7
	기타 괴롭힘	6	15.4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 있음'이 48명(18.8%)으로 나타났다.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 기간 이행 중'이 62.5%로 가장 높았고, '계약 직후'가 29.9%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하차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지시'가 2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와 '계약 내용 이외의 부가 업무지시'가 각각 17.0%로 나타났다.

〈표 Ⅲ-109〉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합계	256	100.0
	경험 있음	48	18.8
	경험 없음	208	81.3
중도하차 시점	합계	48	100.0
	계약 전	7	14.6
	계약 직후	11	22.9
	계약기간 이행중	30	62.5
중도하차 이유 (복수응답)	합계	100	100.0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	17	17.0
	과도한 업무지시	23	23.0
	열악한 작업환경	16	16.0
	협업/커뮤니케이션 갈등	15	15.0
	개인적 사유(건강, 가정 문제 등)	10	10.0
	계약 내용 이외의 부가 업무 지시	17	17.0
	기타	2	2.0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냥 참고 넘김’이 27.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개인적으로 처리함’(23.7%),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10.7%) 순이었다.

〈표 Ⅲ-110〉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338	100.0
그냥 참고 넘김	92	27.2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	36	10.7
공적기관(고용부, 공정위, 경찰 등)의 도움을 받음	20	5.9
관련 단체(노조)나 협회의 도움을 받음	15	4.4
법률 소송을 함	11	3.3
개인적으로 처리함	80	23.7
해당사항 없음	84	24.9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후 해결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해결되었음’이 60.5%, ‘해결되지 않았음’이 35.5%로 나타났다.

〈표 III-111〉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72	100.0
해결되지 않았음	61	35.5
해결되었음	104	60.5
현재 진행 중	7	4.1

부당대우·인권침해에 대해 그냥 참고 넘긴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의 응답자가 41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의 응답자가 26명(28.3%)으로 나타났다.

〈표 III-112〉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92	100.0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26	28.3
비용이 많이 소요됨	6	6.5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르겠음	18	19.6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	41	44.6
기타	1	1.1

## 마.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 1) 직무역량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46.1%),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리능력’(18.4%), ‘협업능력’(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13〉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협업능력	28	10.9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118	46.1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리능력	47	18.4
디지털 활용능력	16	6.3

구분	빈도	비율
협상 능력	14	5.5
프로젝트 관리능력	11	4.3
강의 및 발표능력	19	7.4
문서작성능력	2	0.8
행정 사무 능력	1	0.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을 선택한 응답자가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88명), ‘계약관련 교육’(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1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에게 필요한 교육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256	256	256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	92	44	16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	88	59	26
저작권 관련 교육	21	19	23
계약관련 교육	24	64	66
노동권익 교육	8	20	34
세무/회계 교육	11	22	41
불공정행위 예방 및 구제 교육	6	21	41
성희롱 예방 교육	5	7	7
기타	1	0	2

## 2) 경력 경로

일감(프로젝트)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65.6%), ‘매우 그렇다’(18.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15〉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6	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33	12.9
그런 편이다	168	65.6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48	18.8
잘 모르겠다	1	0.4

경력 증빙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함+매우 필요함)를 선택한 응답자는 177명(69.2%)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리랜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보관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87명(73.0%)으로 나타났다.

〈표 Ⅲ-116〉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경력 증빙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0.4
	별로 필요하지 않음	15	5.9
	보통	63	24.6
	대체로 필요함	144	56.3
	매우 필요함	33	12.9
경력 증빙 자료 보관 여부	보관	187	73.0
	미보관	69	27.0

경력 증빙자료의 유형은 '경력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증'이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Ⅲ-117〉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378	100.0
계약서	87	23.0
포트폴리오	99	26.2
거래내역서(통장내역 등)	44	11.6
세금영수증	17	4.5
경력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증	128	33.9
기타	3	0.8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에 관한 설문한 결과에서는 41.7%가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18〉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6	100.0
보수(계약금) 산정 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음	41	26.3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됨	65	41.7
경력 증빙과 상관없이 보수(계약금)는 똑같이 책정되었음	49	31.4
기타	1	0.6

주)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는 경력증빙 자료 인정 정도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음의 응답자 대상

## 바. 정책

### 1)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정책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는 ‘4대 보험 지원’ 응답자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력인정시스템 마련’ 48명,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과 ‘노동 관련 법률지원시스템 제공’이 각각 41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119〉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에게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256	256	256
노동 관련 법률지원시스템 제공	41	12	15
경력인정시스템 마련	48	37	23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	41	31	32
세무상담 지원	16	19	19
4대 사회보험 지원	63	45	31
계약 및 업무수행지원(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11	29	22
프리랜서 인식개선	12	35	25
심리 상담 지원	2	6	15
교육훈련 지원	6	25	29
일감정보 지원	16	17	45

### 2) 에스프로 시스템 관련

에스프로 시스템 관련하여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4.1%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0〉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있음	36	14.1
없음	220	85.9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있음+매우 있음) 응답 비율은 전체의 43.4%로 나타났고, '보통'도 41.8%로 높게 나타났다. 사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있음+매우 있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43.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용 의향이 없는 응답자(전혀 없음+없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기존 거래 중인 클라이언트(발주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31.6%)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121〉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	합계	256	100.0
	전혀 없음	9	3.5
	없음	29	11.3
	보통	107	41.8
	있음	101	39.5
	매우 있음	10	3.9
사용 의향 이유	합계	111	100.0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48	43.2
	수수료가 저렴해서	3	2.7
	보수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8	34.2
	일감 찾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	9.0
	별도로 경력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12	10.8
	기타	0	0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	합계	38	100.0
	경력관리가 필요 없어서	8	21.1
	보수 미지급 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	2.6
	해당 분야의 일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4	10.5
	기존 거래 중인 클라이언트(발주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	12	31.6
	에스프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	11	28.9
	기타	2	5.3

주) 사용 의향 이유(사용 의향 있음+매우 있음 응답 대상자),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사용 의향 전혀 없음+없음 응답 대상자)

에스크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라는 응답 비율이 43.4%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이 28.1%로 나타났다.

〈표 Ⅲ-122〉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에스크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56	100.0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예, 0.2% 내외)	72	28.1
발급 건당 일정액 (예, 700원)	64	25.0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예, 3회까지 무료 이후 발급)	111	43.4
기타	9	3.5

### 3)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프리랜서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4대 보험, 시스템, 홍보 등 다양한 의견이 언급되었다.

〈표 Ⅲ-123〉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항목	사례
4대 보험	4대 보험 지원 및 혜택 강화
	4대 보험 의무 가입
시스템	간편한 시스템(프리랜서 및 발주처 포함)
	저렴한 수수료
	속도개선
	실질적인 활용
홍보	홍보 확대

## 사. 요약

### 1) 고용 특성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세부 직종은 총 7개로 분류되었으며, '예능 강사'가 79명(3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문리 및 어학 강사' 69명(27.0%),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 강사' 32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평균 활동 기간은 9.1년이었으며 '2~5년 미만'이 25.4%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선택한 이유(1순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근로 유연성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2) 계약

일감(프로젝트)의 주 발주처를 '중소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5%로 가장 높았고, 일감(프로젝트)의 계약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60.9%로 가장 높았다. '구두계약'은 39.1%였고,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는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41.9%)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1%였으며,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임금'과 '기간' 관련이 각각 35.5%로 나타났다. 계약서 내용 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수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5.2%로 나타났고,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한 결과, '임금 삭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6%로 가장 높았다. 일감의 보수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발주처 내부 규정'이 4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수지급 방식은 '정기적 지급'(39.5%), '완료 후 전액'(32.8%) 순으로 나타났다. 일감을 찾는 방식은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가 35.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일감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1순위)은,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3) 노동환경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45.4%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1주일간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나타났고, 근무시간 결정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의 응답 비율이 41.8%로 가장 높았다. 근무 장소는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55.1%로 가장 높았고, 발주처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1순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4) 불공정 경험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미수금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은 12.1%, '인권침해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은 12.1%로 나타났고, 인권침해 사례유형으로는 폭언(43.6%), 성희롱(20.5%), 기타 괴롭힘(15.4%) 순으로 나타났다.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8%로 나타났고,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 기간 이행 중'이 62.5%로 가장 높았다. 중도하차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지시'가 23.0%로 높게 나타났다.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냥 참고 넘김'(27.2%), '개인적으로 처리함'(23.7%) 순으로 높았고, 대처 후 '해결되었음'의 응답 비율은 60.5%로 나타났다.

### 5)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1순위)은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의 응답 비율이 46.1%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한 교육(1순위)은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으로 나타났다. 일감(프로젝트)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5.6%, 경력 증빙이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69.2%로 나타났다. 경력 증빙자료의 형태는 '경력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증'이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에 관한 설문한 결과에서는 41.7%가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응답하였다.

### 6) 정책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 '4대 보험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 분석 결과, '있음'의 응답 비율은 전체의 43.4%로 나타났고, 사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43.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에스크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라는 응답 비율이 43.4%로 가장 높았다.

## 5. 직종별 분석결과: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 특성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53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54명(35.3%), 여성이 99명(64.7%)이었다. 연령은 30대 51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49명(32.0%), 50대 25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95명(6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50명(32.7%), 200~300만원 미만과 400~600만원 미만이 각각 20.9%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 76명(49.7%), 기혼 65명(42.5%), 이혼 또는 사별 12명(7.8%)이었으며, 이전 근로 이력 중 주된 일자리 지위는 처음부터 프리랜서가 82명(53.6%)으로 가장 많았다.

〈표 III-12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성별	남성	54	35.3
	여성	99	64.7
연령	20대	13	8.5
	30대	51	33.3
	40대	49	32.0
	50대	25	16.3
	60대 이상	15	9.8
최종학력	고졸이하	7	4.6
	2~3년제(전문대) 졸업	12	7.8
	4년제 대학 졸업	95	62.1
	대학원(석사이상) 졸업	34	22.2
	기타 무응답	5	3.3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50	32.7
	200~300만원 미만	32	20.9
	300~400만원 미만	25	16.3
	400~600만원 미만	32	20.9
	600만원 이상	14	9.2
혼인상태	미혼	76	49.7
	기혼	65	42.5

구분		빈도	비율
	이혼/사별	12	7.8
이전 근로 이력 중 주된 일자리 지위	상용 근로자	27	17.6
	임시근로자	26	17.0
	일용근로자	2	1.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	0.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	7.8
	무급가족종사자	1	0.7
	처음부터 프리랜서	82	53.6
	일하지 않았음	2	1.3

## 2) 고용 특성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세부 직종은 총 5개로 분류되었으며, 기타 직종이 79명(51.6%)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직종은 작가(공예, 글, 대필, 미술, 방송, 시나리오, 웹소설, 콘텐츠 등), 미술가, 시인, 영상 관련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어서 번역가 43명(28.1%), 웹툰 작가 17명(11.1%), 통역가 9명(5.9%), 만화가 5명(3.3%)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평균 활동 기간은 10년으로 나타났다으며, 활동 기간이 '2~5년 미만'인 응답자가 34명(22.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년~10년 미만'과 '10년~15년 미만'이 각각 19.6%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Ⅲ-12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직종 및 활동 기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세부 직종	웹툰작가	17	11.1
	만화가	5	3.3
	통역가	9	5.9
	번역가	43	28.1
	기타	79	51.6
프리랜서 활동 기간 (비율 평균 10년)	2년 미만	21	13.7
	2년~5년 미만	34	22.2
	5년~10년 미만	30	19.6
	10년~15년 미만	30	19.6
	15~20년 미만	14	9.2
	20년 이상	24	15.7

프리랜서 직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를 선택한 응답자가 35명, '근로 유연성 확보'와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가 각각 34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126〉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53	153	153
조직생활이 안 맞아서	18	15	7
소득이 다른 일자리보다 나올 것 같아서	7	4	7
근로 유연성 확보	34	36	21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	34	37	23
재택근무 선호	17	25	25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6	5	8
미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경력을 쌓으려고	0	4	11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35	19	30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2	8	19
기타	0	0	2

## 나. 계약

### 1) 주 발주처

일감(프로젝트)의 주 발주처로 '중소기업'을 선택한 응답자가 59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29명(19.0%), '소기업' 22명(14.4%), '개인사업자' 20명(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27〉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발주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공공기관	11	7.2
대기업	29	19.0
중소기업	59	38.6
소기업(10인 미만)	22	14.4
개인사업자	20	13.1
일반 시민	6	3.9
기타	6	3.9

## 2) 계약의 형태

일감(프로젝트의 계약)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다. ‘구두계약’은 35.1%였고,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는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가 21명(32.3%),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서’, ‘구두계약이 편해서’가 각각 23.1%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계약서 한 부를 함께 교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응답이 104명(86.7%)으로 나타났다.

〈표 Ⅲ-128〉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계약 형태 및 계약서 교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계약 형태 (복수응답)	합계	185	100.0
	서면계약서 작성	120	64.9
	구두계약	65	35.1
계약서 교부	합계	120	100.0
	예	104	86.7
	아니오	16	13.3
동일계약서 교부받지 않은 이유	합계	16	100.0
	동일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1	6.3
	동일한 계약서를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어서	5	31.3
	발주처(주요 고객)에서 주지 않아서	4	25.0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5	31.3
	기타	1	6.3
구두계약체결 이유	합계	65	100.0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서	15	23.1
	발주처(주요 고객)가 서면계약을 거부해서	11	16.9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	21	32.3
	구두계약이 편해서	15	23.1
	기타	3	4.6

## 3) 계약시 요청사항 및 준수 여부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7명(37.3%)이었고,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임금 관련’이 40.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Ⅲ-129〉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계약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요구사항 요청 경험	합계	153	100.0
	있음	57	37.3
	없음	96	62.7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 (복수응답)	합계	105	100.0
	업무 내용	27	25.7
	기간	32	30.5
	임금	42	40.0
	기타	4	3.8

계약서 내용 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수됨’이 84명(54.9%),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이 51명(33.3%)으로 나타났다.

〈표 Ⅲ-13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아예 준수되지 않음	1	0.7
거의 준수되지 않음	12	7.8
어느 정도 준수됨	84	54.9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	51	33.3
모르겠음	5	3.3

주)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의 설문은 아예 준수되지 않음+준수되지 않은 응답자 대상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추가’가 2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기간 연장’이 21.2%, ‘임금 지연’과 ‘임금 삭감’이 각각 15.2%로 나타났다.

〈표 Ⅲ-13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33	100.0
업무 변경	4	12.1
기간 연장	7	21.2
임금 지연	5	15.2
임금 체불	4	12.1
임금 삭감	5	15.2

구분	빈도	비율
업무 추가	8	24.2
기타	0	0

주)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의 설문은 이에 준수되지 않음+준수되지 않은 응답자 대상으로 함

#### 4)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일감(프로젝트)의 보수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발주처 내부 규정’이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구두 합의’(32.7%), ‘업계의 불문율 또는 관행’(28.1%)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지급 방식은 ‘완료 후 전액’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기적 지급’(22.2%),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받음’(16.3%) 순으로 높았다.

〈표 Ⅲ-13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보수 결정방법	발주처(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 내부 규정	57	37.3
	구두 합의	50	32.7
	업계의 불문율 또는 관행	43	28.1
	기타	3	2.0
보수 지급방식	완료 후 전액	67	43.8
	완료 후 수익 일정 비율 분배	23	15.0
	정기적 지급	34	22.2
	작업 시작 전 전액 지급	3	2.0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받음	25	16.3
	기타	1	0.7

#### 5)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방식은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라고 답한 응답자가 68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에이전시’ 23명(15.0%), ‘잡 포털 사이트’ 19명(12.4%), ‘온라인 커뮤니티’ 15명(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33〉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잡 포털 사이트	19	12.4
온라인 커뮤니티	15	9.8
어플리케이션(온라인 중개 사이트)	14	9.2
에이전시	23	15.0
협회 등	8	5.2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	68	44.4
기타	6	3.9

일감(프로젝트)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업 기간'과 '업무 내용'이 각각 23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13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감 선택시 중요한 요인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53	153	153
작업 기간	23	23	10
보수	59	39	17
발주처	8	9	13
업무 내용	23	27	25
본인 경력 도움 정도	5	7	20
작업 강도	5	12	9
작업 난이도	12	12	16
업무 마감 기한	8	10	18
업무 결과물	6	3	13
작업 결과에 대한 유지보수	2	8	2
보수를 받는 방식	2	3	8
기타	0	0	2

## 다. 노동환경

### 1)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 여부

사업자등록증 보유 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받은 비율은 26.1%, 발급받지 않은 비율은 73.9%로 나타났으며,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83.0%(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30.7%, 필요 없음 52.3%)로 나타났다.

〈표 Ⅲ-13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발급받았음	40	26.1
발급받지 않았음	113	73.9

〈표 Ⅲ-136〉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여부(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78	100.0
국가자격(면허) 필요	11	6.2
협회/단체/기업 등에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19	10.7
협회/단체/기업 등에서 발급하는 교육수료증(이수증) 필요	21	11.8
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47	26.4
필요 없음	80	44.9

### 2) 노동시간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 52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35시간 이상~40시간 미만’ 31명(20.3%), ‘15시간 미만’ 29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결정 방법은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이 103명(67.3%)으로 가장 많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이 28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137〉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 결정방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29	19.0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52	34.0
	3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31	20.3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19	12.4
	52시간 초과	22	14.4
근무시간 결정방법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지정	16	10.5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	103	67.3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	28	18.3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권고	6	3.9

### 3) 근무 장소와 지휘·감독

근무 장소는 '재택'이 86명(5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공간 활용' 30명(19.6%),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 24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의 지휘·감독 여부는 '지휘·감독 자체가 없었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표 III-138〉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근무 장소 및 지휘·감독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근무 장소	재택	86	56.2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직업장)	24	15.7
	다양한 공간 활용(카페 등 비업무 공간)	30	19.6
	개인소유 작업장(집 제외)	13	8.5
지휘·감독 여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하였음	23	15.0
	지휘·감독 자체가 없었음	51	33.3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	43	28.1
	지휘·감독이라기보다 발주처가 필요할 때 보고하도록 요청받았음	36	23.5

### 4) 프리랜서로서의 어려움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 '소득의 불안정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감 구하기'가 42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139〉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로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53	153	153
일감 구하기	42	22	18
특정한 시기에만 일이 집중됨	21	20	22
소득의 불안정성	56	42	27
낮은 작업단가	18	27	19
직무 관련 훈련 참여기회 혹은 훈련비용 지불능력 부족	4	5	5
계약 협상/체결/대금 결제 등을 1인 사업자로서 모두 처리하는 어려움	6	13	9
불공정한 계약 관행	1	6	17
장래에도 계속 일을 할지 전망이 불투명함	5	18	36

## 라. 불공정 경험

### 1) 부당대우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에 대해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9명, '일방적인 계약 변경'은 20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14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 경험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53	110	110
일방적인 계약변경 (일방적인 연장,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20	18	12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	29	14	21
다른 업무 강요	13	10	9
업무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음	18	20	15
업무와 관련 없는 갑질 행위	4	4	9
인권침해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3	3	5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 요구	5	9	7
아이디어만 탈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음	3	16	8
터무니없는 보수(단가) 제시 및 적용	15	16	22
기타	0	0	2
해당 없음	43	0	0

불리한 계약 변경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계약 내용(구두계약 포함)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7명(30.7%)으로 나타났다. 일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 여부에서는 ‘미수금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이 20.9%로 나타났다.

〈표 III-14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있음	47	30.7
	경험 없음	106	69.3
보수 미수금	경험 있음	32	20.9
	경험 없음	121	79.1

인권침해 경험 여부 조사 결과, ‘인권침해 경험 있음’이 12명(7.8%)으로 나타났고, 인권침해 사례 유형으로는 성희롱(35.3%), 폭언(29.4%), 기타 괴롭힘(17.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4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인권침해 경험 여부	합계	153	100.0
	경험 있음	12	7.8
	경험 없음	141	92.2
인권침해 사례유형 (복수응답)	합계	17	100.0
	폭언	5	29.4
	폭행	2	11.8
	성희롱	6	35.3
	성폭력	1	5.9
	기타 괴롭힘	3	17.6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험 있음’이 34명(22.2%)으로 나타났다.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 기간 이행 중’이 55.9%, ‘계약 직후’가 35.3%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하차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지시’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가 각각 1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43〉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합계	153	100.0
	경험 있음	34	22.2
	경험 없음	119	77.8
중도하차 시점	합계	34	100.0
	계약 전	3	8.8
	계약 직후	12	35.3
	계약기간 이행중	19	55.9
중도하차 이유 (복수응답)	합계	78	100.0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	15	19.2
	과도한 업무지시	16	20.5
	열악한 작업환경	15	19.2
	협업/커뮤니케이션 갈등	14	17.9
	개인적 사유(건강, 가정 문제 등)	3	3.8
	계약 내용 이외의 부가 업무 지시	12	15.4
	기타	3	3.8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처리함’(27.4%), ‘그냥 참고 넘김’(26.9%),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4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08	100.0
그냥 참고 넘김	56	26.9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	16	7.7
공적기관(고용부, 공정위, 경찰 등)의 도움을 받음	15	7.2
관련 단체(노조)나 협회의 도움을 받음	12	5.8
법률 소송을 함	7	3.4
개인적으로 처리함	57	27.4
해당사항 없음	45	21.6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후 해결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해결되었음’이 53.7%, ‘해결되지 않았음’이 40.7%로 나타났다.

〈표 III-14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08	100.0
해결되지 않았음	44	40.7
해결되었음	58	53.7
현재 진행 중	6	5.6

부당대우·인권침해를 참고 넘긴 이유로는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 응답 비율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은 26.8%로 나타났다.

〈표 III-146〉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56	100.0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15	26.8
비용이 많이 소요됨	3	5.4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르겠음	7	12.5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	27	48.2
기타	4	7.1

## 마.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 1) 직무역량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77명(50.3%),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리능력’ 21명(13.7%), ‘협상 능력’ 18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47〉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협업능력	17	11.1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77	50.3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리능력	21	13.7
디지털 활용능력	5	3.3
협상 능력	18	11.8

구분	빈도	비율
프로젝트 관리능력	7	4.6
강의 및 발표능력	1	0.7
문서작성능력	4	2.6
행정 사무 능력	2	1.3
기타	1	0.7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과 ‘저작권 관련 교육’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7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148〉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에게 필요한 교육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53	153	153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	37	14	16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	31	23	9
저작권 관련 교육	37	27	13
계약관련 교육	28	37	35
노동권익 교육	6	20	20
세무/회계 교육	7	15	35
불공정행위 예방 및 구제 교육	6	17	20
성희롱 예방 교육	0	0	5
기타	1	0	0

## 2) 경력 경로

일감(프로젝트)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60.8%), ‘매우 그렇다’(19.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49〉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5	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	15.0
그런 편이다	93	60.8
매우 그렇다	30	19.6
잘 모르겠다	2	1.3

경력 증빙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함+매우 필요함)를 선택한 응답자는 85명(55.5%)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리랜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보관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11명(72.5%)으로 나타났다.

〈표 III-15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경력 증빙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1.3
	별로 필요하지 않음	14	9.2
	보통	52	34.0
	대체로 필요함	75	49.0
	매우 필요함	10	6.5
경력 증빙 자료 보관 여부	보관	111	72.5
	미보관	42	27.5

경력 증빙자료의 형태는 '포트폴리오'가 3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계약서'가 23.7%로 나타났다.

〈표 III-15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94	100.0
계약서	46	23.7
포트폴리오	77	39.7
거래내역서(통장내역 등)	23	11.9
세금영수증	10	5.2
경력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증	35	18.0
기타	3	1.5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라는 응답 비율이 44.9%로 나타났다.

〈표 Ⅲ-15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78	100.0
보수(계약금) 산정 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침	22	28.2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됨	35	44.9
경력 증빙과 상관없이 보수(계약금)는 똑같이 책정되었음	21	26.9
기타	0	0

주)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는 경력증빙 자료 인정 정도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음의 응답자 대상

## 바. 정책

### 1)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정책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을 선택한 응답자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력인정시스템 마련'(29명), '4대 사회보험 지원'(2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53〉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53	153	153
노동 관련 법률지원시스템 제공	17	11	17
경력인정시스템 마련	29	15	16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	30	27	16
세무상담 지원	12	19	10
4대 사회보험 지원	28	28	22
계약 및 업무수행지원(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10	18	26
프리랜서 인식개선	16	18	16
심리 상담 지원	1	1	1
교육훈련 지원	4	4	12
일감정보 지원	6	11	17
기타	0	1	0

## 2) 에스크로 시스템 관련

타기관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 있다는 응답 비율이 15.0%로 나타났다.

〈표 III-15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있음	23	15.0
없음	130	85.0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있음+매우 있음) 응답 비율은 전체의 52.9%로 나타났다.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있음+매우 있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보수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44.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용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전혀 없음+없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해당 분야의 일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25.0%)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5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	합계	153	100.0
	전혀 없음	6	3.9
	없음	10	6.5
	보통	56	36.6
	있음	66	43.1
	매우 있음	15	9.8
사용 의향 이유	합계	81	100.0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2	39.5
	수수료가 저렴해서	3	3.7
	보수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6	44.4
	일감 찾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	6.2
	별도로 경력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5	6.2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	합계	16	100.0
	경력관리가 필요 없어서	3	18.8
	보수 미지급 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	6.3
	해당 분야의 일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4	25.0

구분		빈도	비율
	기존 거래 중인 클라이언트(발주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	3	18.8
	에스크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	2	12.5
	기타	3	18.8

주) 사용 의향 이유(사용 의향 있음+매우 있음 응답 대상자),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사용 의향 전혀 없음+없음 응답 대상자)

에스크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가 39.9%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28.8%), '발급 건당 일정액'(2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56〉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에스크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53	100.0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예, 0.2% 내외)	44	28.8
발급 건당 일정액 (예, 700원)	41	26.8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예, 3회까지 무료 이후 발급)	61	39.9
기타	7	4.6

### 3)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프리랜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경력관리, 시스템, 홍보 등 다양한 의견이 언급되었다.

〈표 Ⅲ-157〉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항목	사례
4대 보험	4대 보험 지원
경력관리	경력 증빙 기능 추가
	경력인정 가이드라인 제작
시스템	강제성을 지닌 의무 시행
	낮은 수수료 또는 무료
	신속한 시스템 도입
홍보	간편한 사용
	홍보 확대

## 사. 요약

### 1) 고용 특성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세부 직종은 총 5개로 분류되었으며, 기타 직종이 79명(51.6%)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직종은 작가(공예, 글, 대필, 미술, 방송, 시나리오, 웹소설, 콘텐츠 등), 미술가, 시인, 영상 관련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어서 번역가 43명(28.1%), 웹툰 작가 17명(11.1%), 통역가 9명(5.9%), 만화가 5명(3.3%)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평균 활동 기간은 10년으로 나타났다으며, 활동 기간이 '2~5년 미만'인 응답 비율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직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는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 2) 계약

일감(프로젝트)의 주 발주처로 '중소기업'을 선택한 응답자가 38.6%로 가장 많았고, 일감(프로젝트)의 계약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두계약'은 35.1%였고,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는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계약서 한 부를 함께 교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86.7%로 나타났다.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이 있는 비율은 37.3%였으며,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임금 관련'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서 내용 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수됨'이 84명(54.9%)으로 높게 나타났고, 준수되지 않는 사례로는, '업무 추가'가 2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일감(프로젝트)의 보수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발주처 내부 규정'이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방식은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라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다. 일감(프로젝트)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는 '보수'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 3) 노동환경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83.0%로 나타났다.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시간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이 67.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근무 장소는 '재택'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발주처의 지휘·감독 여부는 '지휘·감독 자체가 없었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 '소득의 불안정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4) 불공정 경험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에 대해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계약 내용(구두계약 포함)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응답 비율이 30.7%로, '미수금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은 20.9%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은 7.8%로 나타났으며, 인권침해 사례유형으로는 성희롱(35.3%), 폭언(29.4%) 순으로 나타났다.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이 있는 응답 비율은 22.2%로 나타났고,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 기간 이행 중'이 55.9%로 높게 나타났다.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처리함'의 응답 비율이 27.4%, '그냥 참고 넘김'의 응답 비율이 26.9%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인권침해를 참고 넘긴 이유로는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5)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요한 교육(1순위)에 대해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 '계약 관련 교육'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일감(프로젝트)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의 응답 비율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력 증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5%로 나타났고, 증빙자료 보관 방법은 '개인적으로 보관한다'는 응답 비율이 72.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력 증빙자료의 형태는 '포트폴리오'가 3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라는 응답 비율이 44.9%로 나타났다.

#### 6) 정책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 '표준 계약 가이드 마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해 질

문한 결과, '있음'의 응답 비율은 전체의 52.9%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보수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44.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에스프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가 39.9%로 높게 나타났다.

## 6. 직종별 분석결과: 디자이너

###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 특성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디자이너 165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 남성이 65명(39.4%), 여성이 100명(60.6%)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54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2명(31.5%), 50대 32명(19.4%)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105명(6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 수준은 200~300만원 미만(26.7%), 200만원 미만(22.4%), 400~600만원 미만(20.6%)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 93명(56.4%), 기혼 68명(41.2%)이었으며, 이전 근로 이력에서 주된 일자리의 지위는 처음부터 프리랜서였던 경우가 51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는 50명(30.3%)으로 나타났다.

〈표 III-158〉 디자이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성별	남성	65	39.4
	여성	100	60.6
연령	20대	17	10.3
	30대	52	31.5
	40대	54	32.7
	50대	32	19.4
	60대 이상	10	6.1
	고졸이하	11	6.7
최종학력	2~3년제(전문대) 졸업	25	15.2
	4년제 대학 졸업	105	63.6
	대학원(석사이상) 졸업	21	12.7
	기타 무응답	3	1.8

구분		빈도	비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37	22.4
	200~300만원 미만	44	26.7
	300~400만원 미만	32	19.4
	400~600만원 미만	34	20.6
	600만원 이상	18	10.9
혼인상태	미혼	93	56.4
	기혼	68	41.2
	이혼/사별	4	2.4
이전 근로 이력 중 주된 일자리 지위	상용 근로자	50	30.3
	임시근로자	20	12.1
	일용근로자	14	8.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1	6.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6	9.7
	무급가족종사자	1	0.6
	처음부터 프리랜서	51	30.9
	알하지 않았음	2	1.2

## 2) 고용 특성

디자이너의 세부 직종은 총 7개로 분류되었으며,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가 43명(2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시각 디자이너’ 41명(24.8%), ‘기타 디자이너’ 30명(18.2%), ‘제품 디자이너’ 20명(12.1%), ‘패션 디자이너’ 17명(10.3%), ‘실내장식 디자이너’ 10명(6.1%)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평균 활동 기간은 7.7년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기간이 ‘2~5년 미만’인 응답자가 59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5년~10년 미만’(20.6%), ‘10년~15년 미만’(1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59〉 디자이너의 직종 및 활동 기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세부 직종	제품 디자이너	20	12.1
	패션 디자이너	17	10.3
	실내장식 디자이너	10	6.1
	시각 디자이너	41	24.8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43	26.1
	기타 디자이너	30	18.2

구분		빈도	비율
	기타	4	2.4
프리랜서 활동 기간 (비율 평균 7.7년)	2년 미만	20	12.1
	2년~5년 미만	59	35.8
	5년~10년 미만	34	20.6
	10년~15년 미만	26	15.8
	15~20년 미만	11	6.7
	20년 이상	15	9.1

프리랜서의 직종 선택 이유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 '근로 유연성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 생활이 안 맞아서'(30명),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2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60〉 디자이너의 프리랜서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65	165	165
조직생활이 안 맞아서	30	10	10
소득이 다른 일자리보다 나올 것 같아서	16	11	16
근로 유연성 확보	47	38	25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	28	20	14
재택근무 선호	14	35	29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14	11	14
미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경력을 쌓으려고	4	9	16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2	18	18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4	10	22
기타	6	3	1

## 나. 계약

### 1) 주 발주처

일감(프로젝트)의 주 발주처를 '중소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9명(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사업자' 43명(26.1%), '소기업' 29명(17.6%) '대기업' 17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61〉 디자이너의 일감(프로젝트) 발주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공공기관	7	4.2
대기업	17	10.3
중소기업	59	35.8
소기업(10인 미만)	29	17.6
개인사업자	43	26.1
일반 시민	9	5.5
기타	1	0.6

## 2) 계약의 형태

일감(프로젝트의 계약)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두계약'은 39.2%였고,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는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가 26명(31.7%), '구두계약이 편해서'(25.6%),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24.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계약서 한 부를 함께 교부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받았다'는 응답이 116명(91.3%)으로 나타났다.

〈표 Ⅲ-162〉 디자이너의 계약 형태 및 계약서 교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계약 형태 (복수응답)	합계	209	100.0
	서면계약서 작성	127	60.8
	구두계약	82	39.2
계약서 교부	합계	127	100.0
	예	116	91.3
	아니오	11	8.7
동일계약서 교부 받지 않은 이유	합계	11	100.0
	동일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2	18.2
	동일한 계약서를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어서	5	45.5
	발주처(주요 고객)에서 주지 않아서	2	18.2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	18.2
구두계약체결 이유	합계	82	100.0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	20	24.4
	발주처(주요 고객)가 서면계약을 거부해서	10	12.2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	26	31.7
	구두계약이 편해서	21	25.6
	기타	5	6.1

### 3) 계약시 요청사항 및 준수 여부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이 68명(41.2%)이었고,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업무 내용'과 '임금 관련'이 각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63〉 디자이너의 계약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요구사항 요청 경험	합계	165	100.0
	있음	68	41.2
	없음	97	58.8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 (복수응답)	합계	132	100.0
	업무 내용	44	33.3
	기간	43	32.6
	임금	44	33.3
	기타	1	0.8

계약서 내용 준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느 정도 준수됨'이 104명(63.0%),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이 51명(30.9%)으로 나타났다.

〈표 III-164〉 디자이너의 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아예 준수되지 않음	1	0.6
거의 준수되지 않음	8	4.8
어느 정도 준수됨	104	63.0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	51	30.9
모르겠음	1	0.6

주)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의 설문은 아예 준수되지 않음+준수되지 않은 응답자 대상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간 연장'이 2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업무 변경'과 '업무 추가'가 각각 19.2%, '임금 삭감'이 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65〉 디자이너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33	100.0
업무 변경	5	19.2
기간 연장	6	23.1
임금 지연	3	11.5
임금 체불	3	11.5
임금 삭감	4	15.4
업무 추가	5	19.2

주)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의 설문은 아예 준수되지 않음+준수되지 않은 응답자 대상으로 함

#### 4)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일감(프로젝트)의 보수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구두 합의'가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발주처 내부 규정'(34.5%), '업계의 불문을 또는 관행' (23.0%)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지급 방식은 '완료 후 전액'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받음'(28.5%), '정기적 지급'(1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66〉 디자이너의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보수 결정방법	발주처(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 내부 규정	57	34.5
	구두 합의	68	41.2
	업계의 불문을 또는 관행	38	23.0
	기타	2	1.2
보수 지급방식	완료 후 전액	66	40.0
	완료 후 수익 일정 비율 분배	21	12.7
	정기적 지급	25	15.2
	작업 시작 전 전액 지급	6	3.6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받음	47	28.5

#### 5)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가 80명(48.5%)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30명(18.2%), '잡 포털 사이트' 22명(1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67〉 디자이너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잡 포털 사이트	22	13.3
온라인 커뮤니티	30	18.2
어플리케이션(온라인 중개 사이트)	14	8.5
에이전시	14	8.5
협회 등	3	1.8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	80	48.5
기타	2	1.2

일감(프로젝트)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업무 내용'(45명), '작업 기간'(2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68〉 디자이너의 일감 선택시 중요한 요인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65	165	165
작업 기간	28	22	17
보수	61	35	18
발주처	9	4	6
업무 내용	45	28	20
본인 경력 도움 정도	3	12	2
작업 강도	3	16	18
작업 난이도	8	24	33
업무 마감 기한	1	10	15
업무 결과물	1	7	19
작업 결과에 대한 유지보수	3	4	10
보수를 받는 방식	3	3	7

## 다. 노동환경

### 1)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 여부

사업자등록증 보유 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받은 비율은 39.4%, 발급받지 않은 비율은 60.6%로 나타났으며,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54.6%(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29.7%, 필요 없음 24.9%)로 나타났다.

〈표 Ⅲ-169〉 디자이너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발급받았음	65	39.4
발급받지 않았음	100	60.6

〈표 Ⅲ-170〉 디자이너의 자격증 여부(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09	100.0
국가자격(면허) 필요	34	16.3
협회/단체/기업 등에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34	16.3
협회/단체/기업 등에서 발급하는 교육수료증(이수증) 필요	27	12.9
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62	29.7
필요 없음	52	24.9

### 2) 노동시간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 52명(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35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이 45명(27.3%), '15시간 미만'이 28명(17.0%)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결정 방법으로는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이 90명(54.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이 48명(29.1%)이었다.

〈표 III-171〉 디자이너의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 결정방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28	17.0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52	31.5
	3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5	27.3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25	15.2
	52시간 초과	15	9.1
근무시간 결정방법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지정	19	11.5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	90	54.5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	48	29.1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권고	8	4.8

### 3) 근무 장소와 지휘·감독

근무 장소는 '재택'이 94명(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 40명(24.2%), '다양한 공간 활용' 16명(9.7%) 순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72〉 디자이너의 근무 장소 및 지휘·감독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근무 장소	재택	94	57.0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직업장)	40	24.2
	다양한 공간 활용(카페 등 비업무 공간)	16	9.7
	개인소유 작업장(집 제외)	15	9.1
지휘·감독 여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하였음	18	10.9
	지휘·감독 자체가 없었음	48	29.1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	58	35.2
	지휘·감독이라기보다 발주처가 필요할 때 보고하도록 요청받았음	41	24.8

#### 4) 프리랜서로서의 어려움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일감 구하기’를 선택한 응답자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의 불안정성’(53명), ‘낮은 작업단가’(2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73〉 디자이너의 프리랜서로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65	165	165
일감 구하기	55	16	25
특정한 시기에만 일이 집중됨	19	18	14
소득의 불안정성	53	54	26
낮은 작업단가	20	21	24
직무 관련 훈련 참여기회 혹은 훈련비용 지불능력 부족	4	14	6
계약 협상/체결/대금 결제 등을 1인 사업자로서 모두 처리하는 어려움	3	21	24
불공정한 계약 관행	5	9	15
장래에도 계속 일을 할지 전망이 불투명함	6	12	31

### 라. 불공정 경험

#### 1) 부당대우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7명, ‘업무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4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174〉 디자이너의 부당대우 경험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65	132	132
일방적인 계약변경 (일방적인 연장,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20	17	13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	37	16	12
다른 업무 강요	12	18	17
업무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음	24	20	21
업무와 관련 없는 갑질 행위	4	14	11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인권침해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4	5	6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 요구	4	12	9
아이디어만 탈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음	9	14	18
터무니없는 보수(단가) 제시 및 적용	18	15	24
기타	0	1	1
해당 없음	33	0	0

불리한 계약 변경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계약 내용(구두계약 포함)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5명(33.3%)으로 나타났다. 일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수금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이 23.6%로 나타났다.

〈표 III-175〉 디자이너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있음	55	33.3
	경험 없음	110	66.7
보수 미수금	경험 있음	39	23.6
	경험 없음	126	76.4

인권침해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권침해 경험 있음'이 22명(13.3%)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침해 사례유형으로는 폭언(53.6%), 성희롱(32.1%), 폭행( 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76〉 디자이너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인권침해 경험 여부	합계	165	100.0
	경험 있음	22	13.3
	경험 없음	143	86.7
인권침해 사례유형 (복수응답)	합계	17	100.0
	폭언	15	53.6
	폭행	2	7.1
	성희롱	9	32.1
	성폭력	1	3.6
	기타 괴롭힘	1	3.6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 있음'이 43명(26.1%)으로 나타났고,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 기간 이행 중'(67.4%), '계약 전'(18.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하차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지시'가 2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와 '협업/커뮤니케이션 갈등'이 각각 20.7%로 나타났다.

〈표 Ⅲ-177〉 디자이너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합계	165	100.0
	경험 있음	43	26.1
	경험 없음	122	73.9
중도하차 시점	합계	43	100.0
	계약 전	8	18.6
	계약 직후	6	14.0
	계약기간 이행중	29	67.4
중도하차 이유 (복수응답)	합계	87	100.0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	18	20.7
	과도한 업무지시	23	26.4
	열악한 작업환경	10	11.5
	협업/커뮤니케이션 갈등	18	20.7
	개인적 사유(건강, 가정 문제 등)	7	8.0
	계약 내용 이외의 부가 업무 지시	11	12.6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처리함'(32.5%), '그냥 참고 넘김'(24.7%),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1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78〉 디자이너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31	100.0
그냥 참고 넘김	57	24.7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	26	11.3
공적기관(고용부, 공정위, 경찰 등)의 도움을 받음	16	6.9
관련 단체(노조)나 협회의 도움을 받음	11	4.8
법률 소송을 함	9	3.9
개인적으로 처리함	75	32.5
해당사항 없음	37	16.0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해결되었음'이 57.0%, '해결되지 않았음'이 37.5%로 나타났다.

〈표 III-179〉 디자이너의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28	100.0
해결되지 않았음	48	37.5
해결되었음	73	57.0
현재 진행 중	7	5.5

부당대우·인권침해를 참고 넘긴 이유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때문이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이 31.6%로 나타났다.

〈표 III-180〉 디자이너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57	100.0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25	43.9
비용이 많이 소요됨	2	3.5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르겠음	12	21.1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	18	31.6
기타	0	0

## 마.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 1) 직무역량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63명(38.2%), '협업능력'이 28명(17.0%),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리능력'이 27명(1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81〉 디자이너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협업능력	28	17.0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63	38.2

구분	빈도	비율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리능력	27	16.4
디지털 활용능력	9	5.5
협상 능력	12	7.3
프로젝트 관리능력	18	10.9
강의 및 발표능력	2	1.2
문서작성능력	2	1.2
행정 사무 능력	3	1.8
기타	1	0.6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을 선택한 응답자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37명), ‘계약관련 교육’(2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82〉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교육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65	165	165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	37	17	15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	57	23	17
저작권 관련 교육	19	29	22
계약관련 교육	27	44	34
노동권익 교육	5	16	22
세무/회계 교육	10	21	31
불공정행위 예방 및 구제 교육	9	12	19
성희롱 예방 교육	1	3	5

## 2) 경력 경로

일감(프로젝트)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54.5%), ‘매우 그렇다’(25.5%),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83〉 디자이너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3	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	17.0
그런 편이다	90	54.5
매우 그렇다	42	25.5
잘 모르겠다	2	1.2

경력 증빙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함+매우 필요함)라고 답한 응답자는 106명(64.3%)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리랜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의 보관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33명(80.6%)으로 가장 많았다.

〈표 III-184〉 디자이너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경력 증빙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0	0
	별로 필요하지 않음	5	3.0
	보통	54	32.7
	대체로 필요함	92	55.8
	매우 필요함	14	8.5
경력 증빙 자료 보관 여부	보관	133	80.6
	미보관	32	19.4

경력 증빙자료의 형태는 '포트폴리오'가 8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II-185〉 디자이너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85	100.0
계약서	64	22.5
포트폴리오	115	40.4
거래내역서(통장내역 등)	38	13.3
세금영수증	24	8.4
경력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증	43	15.1
기타	1	0.4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62.2%가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86〉 디자이너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11	100.0
보수(계약금) 산정 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음	29	26.1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됨	69	62.2
경력 증빙과 상관없이 보수(계약금)는 똑같이 책정되었음	13	11.7
기타	0	0

주)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는 경력증빙 자료 인정 정도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음의 응답자 대상

## 바. 정책

### 1)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정책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력인정시스템 마련'(34명), '노동 관련 법률 지원시스템 제공'(25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187〉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65	165	165
노동 관련 법률지원시스템 제공	25	7	11
경력인정시스템 마련	34	15	12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	47	17	13
세무상담 지원	10	18	13
4대 사회보험 지원	20	29	23
계약 및 업무수행지원(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3	28	24
프리랜서 인식개선	14	25	22
심리상담 지원	2	3	6
교육훈련 지원	0	8	13
일감정보 지원	10	15	28

## 2) 에스크로 시스템 관련

타기관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명(12.1%)으로 나타났다.

〈표 III-188〉 디자이너의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있음	20	12.1
없음	145	87.9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있음+매우 있음) 응답 비율은 전체의 53.4%로 나타났다.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있음+매우 있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38.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용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전혀 없음+없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기존 거래 중인 클라이언트(발주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33.3%)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89〉 디자이너의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서울시 에스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	합계	165	100.0
	전혀 없음	3	1.8
	없음	9	5.5
	보통	65	39.4
	있음	79	47.9
	매우 있음	9	5.5
사용 의향 이유	합계	88	100.0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4	38.6
	수수료가 저렴해서	3	3.4
	보수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2	36.4
	일감 찾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3	14.8
	별도로 경력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6	6.8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	합계	12	100.0
	경력관리가 필요 없어서	2	16.7
	보수 미지급 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2	16.7
	해당 분야의 일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3	25.0

구분	빈도	비율
기존 거래 중인 클라이언트(발주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	4	33.3
에스크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	1	8.3

주) 사용 의향 이유(사용 의향 있음+매우 있음 응답 대상자),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사용 의향 전혀 없음+없음 응답 대상자)

에스크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가 38.2%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이 32.7%로 나타났다.

〈표 Ⅲ-190〉 디자이너의 에스크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5	100.0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예, 0.2% 내외)	54	32.7
발급 건당 일정액 (예, 700원)	45	27.3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예, 3회까지 무료 이후 발급)	63	38.2
기타	3	1.8

### 3)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프리랜서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4대 보험, 권익보호, 시스템, 홍보 등 다양한 의견이 언급되었다.

〈표 Ⅲ-191〉 디자이너의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항목	사례
4대 보험	4대 보험 지원
권익보호	인식개선
	처우 개선
시스템	낮은 수수료 또는 무료
	경력관리 시스템 지원
	빠른 처리 속도
	빠른 상용화
	발주처 의무화 시행
홍보	적정한 예치기간
	홍보 확대

## 사. 요약

### 1) 고용 특성

디자이너의 세부 직종은 총 7개로 분류되었으며,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가 43명(2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시각 디자이너' 41명(24.8%), '기타 디자이너' 30명(18.2%), '제품 디자이너' 20명(12.1%), '패션 디자이너' 17명(10.3%), '실내장식 디자이너' 10명(6.1%)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평균 활동 기간은 7.7년이었으며, 활동 기간이 '2~5년 미만'인 응답자가 59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프리랜서의 직종 선택 이유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는 '근로 유연성 확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 2) 계약

일감(프로젝트)의 주 발주처를 '중소기업'이라고 답한 비율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감(프로젝트)의 계약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60.8%로 가장 높았다. '구두계약'은 39.2%였으며,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는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가 31.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로 나타났으며,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업무 내용'과 '임금 관련'이 각각 33.3%로 가장 높았다. 계약서 내용 준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느 정도 준수됨'이 104명(63.0%),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간 연장'이 2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일감(프로젝트)의 보수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구두 합의'가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수지급 방식은 '완료 후 전액'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의 응답 비율이 48.5%로 가장 많았다. 일감(프로젝트)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1순위 분석 결과,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3) 노동환경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54.6%로 나타났고,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의 응답 비율이 31.5%로 가장 많았다. 근무시간 결정방법으로는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이 5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무 장소는 '재택'의 응답 비율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주처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휘·감독에 대해

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1순위를 분석한 결과, '일감 구하기'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4) 불공정 경험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의 1순위 분석 결과,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계약 내용(구두계약 포함)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3.3%의 비율로 나타났다. '미수금 경험 있음'의 비율은 23.6%로 나타났으며, '인권침해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은 13.3%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사례 유형으로는 폭언(53.6%), 성희롱(32.1%) 순으로 나타났다.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 기간 이행 중'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하차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지시'가 26.4%로 가장 높았다.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처리함'(32.5%), '그냥 참고 넘김'(24.7%)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인권침해를 참고 넘긴 이유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때문이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5)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의 응답 비율이 38.2%로 나타났고,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1순위 분석 결과,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일감(프로젝트)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가 54.5%의 응답 비율로 나타났으며, 경력 증빙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3%로 나타났다. 경력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6%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 증빙자료의 형태는 '포트폴리오'가 8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62.2%가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응답하였다.

#### 6) 정책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분석 결과,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 에스스로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 응답 비율은 전체의

53.4%로 나타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38.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에스프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가 38.2%로 나타났다.

## 7. 직종별 분석결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 특성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82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42명(51.2%), 여성이 40명(48.8%)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가 37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7명(32.9%), 50대 9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47명(5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수준은 200~300만원 미만 27명(32.9%), 200만원 미만 24.4%, 300~400만원 미만 20.7%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 40명(48.8%), 기혼 42명(51.2%)이었으며, 이전 근로이력에서 주된 일자리의 지위는 처음부터 무급가족종사자였던 경우가 28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는 27명(32.9%)으로 나타났다.

〈표 III-19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성별	남성	42	51.2
	여성	40	48.8
연령	20대	6	7.3
	30대	37	45.1
	40대	27	32.9
	50대	9	11.0
	60대 이상	3	3.7
	고졸이하	6	7.3
최종학력	2~3년제(전문대) 졸업	10	12.2
	4년제 대학 졸업	47	57.3
	대학원(석사이상) 졸업	8	9.8
	기타 무응답	11	13.4

구분		빈도	비율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0	24.4
	200~300만원 미만	27	32.9
	300~400만원 미만	17	20.7
	400~600만원 미만	10	12.2
	600만원 이상	8	9.8
혼인상태	미혼	40	48.8
	기혼	42	51.2
	이혼/사별	0	0
이전 근로 이력 중 주된 일자리 지위	상용 근로자	27	32.9
	임시근로자	16	19.5
	일용근로자	2	2.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	3.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	7.3
	무급가족종사자	28	34.1
	처음부터 프리랜서	0	0
	알하지 않았음	0	0

## 2) 고용 특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세부 직종은 총 7개로 분류되었으며,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가 26명(3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요가·필라테스 강사' 24명(29.3%), '스포츠 감독 및 코치' 14명(17.1%), '경기심판 및 경기 기록원', '기타 여가서비스 종사원', '기타'가 각각 5명(6.1%), '직업 운동선수' 3명(3.7%)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평균 활동 기간은 7.2년이었으며, 활동 기간이 '5~10년 미만'인 응답자가 27명(32.9%)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2년~5년 미만'(30.5%), '10년~15년 미만'(1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9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직종 및 활동 기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세부 직종	스포츠 감독 및 코치	14	17.1
	직업 운동선수	3	3.7
	경기심판 및 경기 기록원	5	6.1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6	31.7
	기타 여가서비스 종사원	5	6.1

구분		빈도	비율
	요가 필라테스 강사	24	29.3
	기타	5	6.1
프리랜서 활동 기간 (비율 평균 7.2년)	2년 미만	9	11.0
	2년~5년 미만	25	30.5
	5년~10년 미만	27	32.9
	10년~15년 미만	11	13.4
	15~20년 미만	6	7.3
	20년 이상	4	4.9

프리랜서의 직종 선택 이유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23명, ‘근로 유연성 확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19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82	82	82
조직생활이 안 맞아서	14	7	4
소득이 다른 일자리보다 나올 것 같아서	8	4	7
근로 유연성 확보	19	18	14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	23	14	11
재택근무 선호	3	5	3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2	9	7
미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경력을 쌓으려고	0	6	12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11	10	15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2	8	7
기타	0	1	2

## 나. 계약

### 1) 주 발주처

일감(프로젝트)의 주 발주처를 ‘개인사업자’라고 답한 응답자가 26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15명(18.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공공기관’ 14명(1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9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발주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공공기관	14	17.1
대기업	5	6.1
중소기업	15	18.3
소기업(10인 미만)	10	12.2
개인사업자	26	31.7
일반 시민	12	14.6

## 2) 계약의 형태

일감(프로젝트)의 계약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두계약은 32.0%였고,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는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가 15명(48.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서'와 '구두계약이 편해서'가 각각 22.6%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계약서 한 부를 함께 교부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받았다'는 응답이 62명(93.9%)으로 나타났다.

〈표 Ⅲ-19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계약 형태 및 계약서 교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계약 형태 (복수응답)	합계	97	100.0
	서면계약서 작성	66	68.0
	구두계약	31	32.0
계약서 교부	합계	66	100.0
	예	62	93.9
	아니오	4	6.1
동일계약서 교부 받지 않은 이유	합계	4	100.0
	동일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0	0
	동일한 계약서를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어서	4	100.0
	발주처(주요 고객)에서 주지 않아서	0	0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0	0
	기타	0	0
구두계약체결 이유	합계	31	100.0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서	7	22.6
	발주처(주요 고객)가 서면계약을 거부해서	2	6.5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	15	48.4
	구두계약이 편해서	7	22.6

### 3) 계약시 요청사항 및 준수 여부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이 28명(34.1%)이었고,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임금 관련'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9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계약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요구사항 요청 경험	합계	82	100.0
	있음	28	34.1
	없음	54	65.9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 (복수응답)	합계	51	100.0
	업무 내용	16	31.4
	기간	14	27.5
	임금	21	41.2

계약서 내용 준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느 정도 준수됨' 54명(65.9%),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 23명(2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9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아예 준수되지 않음	1	1.2
거의 준수되지 않음	2	2.4
어느 정도 준수됨	54	65.9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	23	28.0
모르겠음	2	2.4

주)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의 설문은 아예 준수되지 않음+준수되지 않은 응답자 대상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변경'과 '임금 지연'이 각각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기간 연장'과 '업무 추가'가 각각 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9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6	100.0
업무 변경	2	33.3
기간 연장	1	16.7
임금 지연	2	33.3
임금 체불	0	0
임금 삭감	0	0
업무 추가	1	16.7
기타	0	0

주)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의 설문은 이에 준수되지 않음+준수되지 않은 응답자 대상으로 함

#### 4)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일감(프로젝트)의 보수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발주처 내부 규정'이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업계의 불문을 또는 관행'(31.7%), '구두 합의'(24.4%)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지급 방식은 '정기적 지급'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완료 후 전액'(20.7%), '완료 후 수익 일정 비율 분배'(1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0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보수 결정방법	발주처(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 내부 규정	36	43.9
	구두 합의	20	24.4
	업계의 불문을 또는 관행	26	31.7
보수 지급방식	완료 후 전액	17	20.7
	완료 후 수익 일정 비율 분배	13	15.9
	정기적 지급	42	51.2
	작업 시작 전 전액 지급	4	4.9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받음	6	7.3

#### 5)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가 21명(2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20명(24.4%), ‘잡 포털 사이트’ 14명(1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0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잡 포털 사이트	14	17.1
온라인 커뮤니티	20	24.4
어플리케이션(온라인 중개 사이트)	12	14.6
에이전시	11	13.4
협회 등	4	4.9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	21	25.6

일감(프로젝트)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업무 내용’이 10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2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감 선택시 중요한 요인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82	82	82
작업 기간	8	5	6
보수	34	10	7
발주처	7	7	1
업무 내용	10	12	12
본인 경력 도움 정도	5	9	13
작업 강도	4	11	13
작업 난이도	5	11	5
업무 마감 기한	1	3	3
업무 결과물	3	2	6
작업 결과에 대한 유지보수	1	4	7
보수를 받는 방식	3	6	8
기타	1	2	1

## 다. 노동환경

### 1)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 여부

사업자등록증 보유 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받은 비율은 31.7%, 발급받지 않은 비율은 68.3%로 나타났으며,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19.1%(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16.7%, 필요 없음 2.4%)로 나타났다.

〈표 Ⅲ-20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발급받았음	26	31.7
발급받지 않았음	56	68.3

〈표 Ⅲ-20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여부(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26	100.0
국가자격(면허) 필요	25	19.8
협회/단체/기업 등에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42	33.3
협회/단체/기업 등에서 발급하는 교육수료증(이수증) 필요	35	27.8
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21	16.7
필요 없음	3	2.4

### 2) 노동시간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 27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15시간 미만’이 21명(25.6%), ‘35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이 16명(19.5%)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결정 방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이 35명(42.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이 27명(32.9%)으로 나타났다.

〈표 III-20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 결정방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21	25.6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27	32.9
	3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6	19.5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15	18.3
	52시간 초과	3	3.7
근무시간 결정방법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지정	19	23.2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	27	32.9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	35	42.7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권고	1	1.2

### 3) 근무 장소와 지휘·감독

근무 장소는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가 53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공간 활용' 12명(14.6%), '개인소유 작업장' 10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0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근무 장소 및 지휘·감독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근무 장소	재택	7	8.5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직업장)	53	64.6
	다양한 공간 활용(카페 등 비업무 공간)	12	14.6
	개인소유 작업장(집 제외)	10	12.2
지휘·감독 여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하였음	8	9.8
	지휘·감독 자체가 없었음	27	32.9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	35	42.7
	지휘·감독이라기보다 발주처가 필요할 때 보고하도록 요청받았음	12	14.6

### 4) 프리랜서로서의 어려움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선택한 응답자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감 구하기' 응답은 18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20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로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b>합계</b>	<b>82</b>	<b>82</b>	<b>82</b>
일감 구하기	18	13	11
특정한 시기에만 일이 집중됨	7	10	4
소득의 불안정성	38	21	11
낮은 작업단가	13	13	6
직무 관련 훈련 참여기회 혹은 훈련비용 지불능력 부족	0	2	6
계약 협상/체결/대금 결제 등을 1인 사업자로서 모두 처리하는 어려움	1	8	14
불공정한 계약 관행	0	4	9
장래에도 계속 일을 할지 전망이 불투명함	5	10	20
기타	0	1	1

## 라. 불공정 경험

### 1) 부당대우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선택한 응답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을 선택한 응답자는 12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20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 경험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b>합계</b>	<b>82</b>	<b>66</b>	<b>66</b>
일방적인 계약변경 (일방적인 연장,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17	5	10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	12	9	3
다른 업무 강요	8	13	8
업무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음	7	9	10
업무와 관련 없는 갑질 행위	8	5	8
인권침해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5	6	2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 요구	4	2	5
아이디에만 탈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음	1	6	6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터무니없는 보수(단가) 제시 및 적용	4	11	12
기타	0	0	2
해당 없음	16	0	0

불리한 계약 변경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계약 내용(구두계약 포함)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3명(40.2%)으로 나타났다. 일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 여부에서는 받지 못한 경험 비율이 12.2%로 나타났다.

〈표 III-20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있음	33	40.2
	경험 없음	49	59.8
보수 미수금	경험 있음	10	12.2
	경험 없음	72	87.8

인권침해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권침해 경험 있음'이 12명(14.6%)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권침해 사례유형으로는 폭언(57.1%), 폭행(21.4%), 성희롱(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인권침해 경험 여부	합계	82	100.0
	경험 있음	12	14.6
	경험 없음	70	85.4
인권침해 사례유형 (복수응답)	합계	14	100.0
	폭언	8	57.1
	폭행	3	21.4
	성희롱	2	14.3
	성폭력	0	0
	기타 괴롭힘	1	7.1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 있음'이 15명(18.3%)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 기간 이행 중'(66.7%), '계약 직후'(2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하차 이유

로는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가 25.8%, '과도한 업무지시'와 '열악한 작업환경'이 각각 1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합계	82	100.0
	경험 있음	15	18.3
	경험 없음	67	81.7
중도하차 시점	합계	15	100.0
	계약 전	2	13.3
	계약 직후	3	20.0
	계약기간 이행중	10	66.7
중도하차 이유 (복수응답)	합계	31	100.0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	8	25.8
	과도한 업무지시	5	16.1
	열악한 작업환경	5	16.1
	협업/커뮤니케이션 갈등	2	6.5
	개인적 사유(건강, 가정 문제 등)	4	12.9
	계약 내용 이외의 부가 업무 지시	4	12.9
	기타	3	9.7

부당대우 인권침해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처리함'(24.4%), '그냥 참고 넘김'(22.0%),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1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 인권침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23	100.0
그냥 참고 넘김	27	22.0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	18	14.6
공적기관(고용부, 공정위, 경찰 등)의 도움을 받음	12	9.8
관련 단체(노조)나 협회의 도움을 받음	11	8.9
법률 소송을 함	7	5.7
개인적으로 처리함	30	24.4
기타	1	0.8
해당사항 없음	17	13.8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해결되었음’(56.9%), ‘해결되지 않았음’(2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1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65	100.0
해결되지 않았음	19	29.2
해결되었음	37	56.9
현재 진행 중	9	13.8

부당대우·인권침해를 참고 넘긴 이유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때문이라는 응답이 5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이 29.6%로 나타났다.

〈표 III-21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7	100.0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14	51.9
비용이 많이 소요됨	1	3.7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르겠음	4	14.8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	8	29.6

## 마.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 1) 직무역량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36명(43.9%),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리능력’이 18명(22.0%), ‘협업능력’이 9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1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협업능력	9	11.0

구분	빈도	비율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36	43.9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리능력	18	22.0
디지털 활용능력	5	6.1
협상 능력	6	7.3
프로젝트 관리능력	5	6.1
강의 및 발표능력	3	3.7
문서작성능력	0	0
행정 사무 능력	0	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과,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Ⅲ-21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에게 필요한 교육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b>합계</b>	<b>82</b>	<b>82</b>	<b>82</b>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	29	14	6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	29	19	3
저작권 관련 교육	5	4	8
계약관련 교육	12	23	18
노동권익 교육	1	6	15
세무/회계 교육	3	7	9
불공정행위 예방 및 구제 교육	2	8	17
성희롱 예방 교육	1	1	5
기타	0	0	1

## 2) 경력 경로

일감(프로젝트)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가 56.1%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26.8%), ‘그렇지 않은 편이다’(1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1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2	2.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	12.2
그런 편이다	46	56.1
매우 그렇다	22	26.8
잘 모르겠다	2	2.4

경력 증빙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함+매우 필요함)를 선택한 응답자는 52명(63.4%)이었으며, 프리랜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보관 방법으로는 '개인적으로 보관한다'가 64명(78.0%)으로 가장 많았다.

〈표 III-21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경력 증빙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2
	별로 필요하지 않음	3	3.7
	보통	26	31.7
	대체로 필요함	43	52.4
	매우 필요함	9	11.0
경력 증빙 자료 보관 여부	보관	64	78.0
	미보관	18	22.0

경력 증빙자료의 형태는 '계약서'가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경력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증'의 응답 비율이 24.4%로 나타났다.

〈표 III-21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19	100.0
계약서	35	29.4
포트폴리오	27	22.7
거래내역서(통장내역 등)	18	15.1
세금영수증	9	7.6

구분	빈도	비율
경력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증	29	24.4
기타	1	0.8

경력 증빙자료가 보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50.9%가 ‘단가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2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55	100.0
보수(계약금) 산정 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음	14	25.5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됨	28	50.9
경력 증빙과 상관없이 보수(계약금)는 똑같이 책정되었음	13	23.6

주)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는 경력증빙 자료 인정 정도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음의 응답자 대상

## 바. 정책

### 1)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정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경력인정시스템 마련’을 선택한 응답자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17명), ‘노동 관련 법률지원시스템 제공’(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2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82	82	82
노동 관련 법률지원시스템 제공	16	7	6
경력인정시스템 마련	20	8	7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	17	10	8
세무상담 지원	7	10	4
4대 사회보험 지원	11	20	7
계약 및 업무수행지원(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2	5	11
프리랜서 인식개선	3	8	18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심리상담 지원	1	5	7
교육훈련 지원	1	3	5
일감정보 지원	4	6	9

## 2) 에스프로 시스템 관련

타기관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5%로 나타났다.

〈표 III-22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2	100.0
있음	16	19.5
없음	66	80.5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있음+매우 있음) 응답 비율은 전체의 45.1%로 나타났다.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있음+매우 있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48.6%)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전혀 없음+없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에스프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42.9%)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	합계	82	100.0
	전혀 없음	0	0
	없음	7	8.5
	보통	38	46.3
	있음	30	36.6
	매우 있음	7	8.5
사용 의향 이유	합계	37	100.0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8	48.6
	수수료가 저렴해서	4	10.8
	보수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9	24.3
	일감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	10.8

구분		빈도	비율
	별도로 경력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2	5.4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	<b>합계</b>	<b>7</b>	<b>100.0</b>
	경력관리가 필요 없어서	0	0
	보수 미지급 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0	0
	해당 분야의 일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2	28.6
	기존 거래 중인 클라이언트(발주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	2	28.6
	에스크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	3	42.9

주) 사용 의향 이유(사용 의향 있음+매우 있음 응답 대상자),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사용 의향 전혀 없음+없음 응답 대상자)

에스크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가 50.0%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이 29.3%로 나타났다.

〈표 Ⅲ-22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에스크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b>합계</b>	<b>82</b>	<b>100.0</b>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예, 0.2% 내외)	24	29.3
발급 건당 일정액 (예, 700원)	16	19.5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예, 3회까지 무료 이후 발급)	41	50.0
기타	1	1.2

### 3)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프리랜서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4대 보험, 복지, 시스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Ⅲ-22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항목	사례
4대 보험	4대 보험 지원
복지	세제 혜택
	복지 지원
시스템	낮은 수수료 및 무료
	다양한 정보 제공
	안정화된 시스템
	일자리 정보 제공

## 사. 요약

### 1) 고용 특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세부 직종은 총 7개로 분류되었으며,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가 26명(3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요가/필라테스 강사' 24명(29.3%), '스포츠 감독 및 코치' 14명(17.1%), '경기심판 및 경기 기록원', '기타 여가서비스 종사원', '기타'가 각각 5명(6.1%), '직업 운동선수' 3명(3.7%)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평균 활동 기간은 7.2년이었으며, 활동 기간이 '5~10년 미만'인 응답자가 27명(32.9%)으로 가장 많았다. 프리랜서의 직종 선택 이유에 대해 1순위 분석 결과,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2) 계약

일감(프로젝트)의 주 발주처를 '개인사업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감(프로젝트)의 계약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두계약은 32.0%였으며,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는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의 응답 비율이 48.4%로 높게 나타났다.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로 나타났으며,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임금 관련'이 41.2%로 가장 높았다. 계약서 내용 준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느 정도 준수됨'이 65.9%로 조사되었으며,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변경'과 '임금 지연'이 각각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일감(프로젝트)의 보수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발주처 내부 규정'이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수지급 방식은 '정기적 지급'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감(프로젝트)은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로 찾는다는 응답 비율이 25.6%로 가장 많았고, 일감(프로젝트)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1순위)에 대해 1순위를 분석한 결과,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3) 노동환경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19.1%로 나타났다.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의 응답 비율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시간 결정 방식으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이 4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무 장소는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가 64.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 진행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다.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1순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4) 불공정 경험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에 대해 분석한 결과, 1순위로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계약 내용(구두계약 포함)이 변경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일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은 12.2%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은 14.6%로 나타났으며, 인권침해 사례 유형으로는 폭언(57.1%), 폭행(21.4%) 순으로 나타났다.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은 18.3%로 나타났으며,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 기간 이행 중'이 66.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처리함'(24.4%), '그냥 참고 넘김'(22.0%)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대우·인권침해를 참고 넘긴 이유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때문이라는 응답이 5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5)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9%였으며, 필요한 교육에 대해 1순위를 분석한 결과,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과,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경력 증빙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4%로 나타났으며, 증빙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0%로 나타났다. 경력 증빙자료의 형태는 '계약서'가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에 관한 설문한 결과에서는 50.9%가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응답하였다.

#### 6) 정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 분석 결과, '경력인정시스템 마련'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서울시 에스스로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 응답 비율은 전체의 45.1%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48.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에스스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가 50.0%로 높게 나타났다.

## 8. 직종별 분석결과: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 특성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30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31명(23.8%), 여성이 99명(76.2%)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가 47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8명(29.2%), 30대 22명(16.9%)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72명(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 68명(52.3%), 200~300만원 미만 16.9%, 300~400만원 미만 15.4%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31명(23.8%), 기혼 92명(70.8%). 이혼/사별 7명(5.4%)이었으며, 이전 근로 이력에서 주된 일자리의 지위는 임시근로자였던 경우가 36명(27.7%)으로 가장 많았고, 처음부터 프리랜서는 35명(26.9%)으로 나타났다.

〈표 III-226〉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성별	남성	31	23.8
	여성	99	76.2
연령	20대	8	6.2
	30대	22	16.9
	40대	38	29.2
	50대	47	36.2
	60대 이상	15	11.5
	최종학력	고졸이하	17
	2~3년제(전문대) 졸업	23	17.7
	4년제 대학 졸업	72	55.4
	대학원(석사이상) 졸업	13	10.0
	기타-무응답	5	3.8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68	52.3
	200~300만원 미만	22	16.9
	300~400만원 미만	20	15.4
	400~600만원 미만	12	9.2
	600만원 이상	8	6.2

구분		빈도	비율
혼인상태	미혼	31	23.8
	기혼	92	70.8
	이혼/사별	7	5.4
이전 근로 이력 중 주된 일자리 지위	상용 근로자	32	24.6
	임시근로자	36	27.7
	일용근로자	14	10.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	6.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	1.5
	무급가족종사자	1	0.8
	처음부터 프리랜서	35	26.9
	일하지 않았음	1	0.8

## 2) 고용 특성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세부 직종은 총 5개로 분류되었으며, 그중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가 70명(53.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서비스 종사자 41명(31.5%),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명(9.2%), 기타 5명(3.8%), 혼례 및 장례 종사자 2명(1.5%)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평균 활동 기간은 4.7년이었으며, 활동 기간이 '2~5년 미만'인 응답자가 53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년 미만'(26.2%), '5년~10년 미만'(20.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Ⅲ-22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직종 및 활동 기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세부 직종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70	53.8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	9.2
	혼례 및 장례 종사자	2	1.5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41	31.5
	기타	5	3.8
프리랜서 활동 기간 (비율 평균 4.7년)	2년 미만	34	26.2
	2년~5년 미만	53	40.8
	5년~10년 미만	26	20.0
	10년~15년 미만	12	9.2
	15~20년 미만	3	2.3
	20년 이상	2	1.5

프리랜서 직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근로 유연성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III-228〉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프리랜서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30	130	130
조직생활이 안 맞아서	18	5	3
소득이 다른 일자리보다 나올 것 같아서	8	7	7
근로 유연성 확보	50	25	19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	14	24	15
재택근무 선호	4	10	13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17	14	10
미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경력을 쌓으려고	2	13	13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11	11	22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4	21	28
기타	2	0	0

## 나. 계약

### 1) 주 발주처

일감(프로젝트)의 주 발주처를 '개인사업자'라고 답한 응답자는 33명(25.4%)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공공기관' 29명(22.3%), '일반 시민' 27명(2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29〉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감(프로젝트) 발주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공공기관	29	22.3
대기업	4	3.1
중소기업	25	19.2
소기업(10인 미만)	11	8.5
개인사업자	33	25.4
일반 시민	27	20.8
기타	1	0.8

## 2) 계약의 형태

일감(프로젝트의 계약)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두계약'은 35.9%였으며,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는 '구두계약이 편해서'가 22명(39.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37.5%),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서'(16.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계약서 한 부를 함께 교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응답이 85명(85.0%)으로 나타났다.

〈표 Ⅲ-23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계약 형태 및 계약서 교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계약 형태 (복수응답)	합계	156	100.0
	서면계약서 작성	100	64.1
	구두계약	56	35.9
계약서 교부	합계	100	100.0
	예	85	85.0
	아니오	15	15.0
동일계약서 교부 받지 않은 이유	합계	15	100.0
	동일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3	20.0
	동일한 계약서를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어서	2	13.3
	발주처(주요 고객)에서 주지 않아서	7	46.7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3	20.0
구두계약체결 이유	합계	56	100.0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서	9	16.1
	발주처(주요 고객)가 서면계약을 거부해서	4	7.1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	21	37.5
	구두계약이 편해서	22	39.3

## 3) 계약서 요청사항 및 준수 여부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이 32명(24.6%)이었으며,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임금 관련'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계약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 및 반영된 요구사항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요구사항 요청 경험	합계	130	100.0
	있음	32	24.6
	없음	98	75.4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 (복수응답)	합계	55	100.0
	업무 내용	15	27.3
	기간	19	34.5
	임금	20	36.4
	기타	1	1.8

계약서 내용 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수됨’이 83명(63.8%),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이 40명(30.8%)으로 나타났다.

〈표 III-232〉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계약서 내용 준수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아예 준수되지 않음	1	0.8
거의 준수되지 않음	4	3.1
어느 정도 준수됨	83	63.8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	40	30.8
모르겠음	2	1.5

주)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의 설문은 아예 준수되지 않음+준수되지 않은 응답자 대상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추가’가 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II-233〉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6	100.0
업무 변경	1	16.7
기간 연장	0	0
임금 지연	1	16.7
임금 체불	0	0

구분	빈도	비율
임금 삭감	0	0
업무 추가	3	50.0
기타	1	16.7

주)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의 설문은 아예 준수되지 않음+준수되지 않은 응답자 대상으로 함

#### 4)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일감(프로젝트)의 보수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발주처 내부 규정'이 4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구두 합의'(36.9%), '업계의 불문율 또는 관행'(16.2%)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지급 방식은 '정기적 지급'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완료 후 전액'(35.4%), '완료 후 수익 일정 비율 분배'(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34〉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결정방법 및 지급방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보수 결정방법	발주처(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 내부 규정	60	46.2
	구두 합의	48	36.9
	업계의 불문율 또는 관행	21	16.2
	기타	1	0.8
보수 지급방식	완료 후 전액	46	35.4
	완료 후 수익 일정 비율 분배	17	13.1
	정기적 지급	60	46.2
	작업 시작 전 전액 지급	3	2.3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받음	4	3.1

#### 5)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방식은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라고 답한 응답자가 38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잡 포털 사이트' 27명(20.8%), '온라인 커뮤니티' 26명(2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35〉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감(프로젝트) 찾는 방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잡 포털 사이트	27	20.8
온라인 커뮤니티	26	20.0
어플리케이션(온라인 중개 사이트)	29	22.3
에이전시	3	2.3
협회 등	5	3.8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	38	29.2
기타	2	1.5

일감(프로젝트)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무 내용'(31명), 작업 기간(1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36〉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감 선택시 중요한 요인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30	130	130
작업 기간	14	17	14
보수	49	32	13
발주처	7	5	4
업무 내용	31	22	21
본인 경력 도움 정도	7	9	6
작업 강도	8	16	31
작업 난이도	6	17	18
업무 마감 기한	1	2	4
업무 결과물	0	5	4
작업 결과에 대한 유지보수	2	2	4
보수를 받는 방식	5	3	10
기타	0	0	1

## 다. 노동환경

### 1)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 여부

사업자등록증 보유 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받은 비율은 17.7%, 발급받지 않은 비율은 82.3%로 나타났으며,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34.8%(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22.2%, 필요 없음 12.6%)로 나타났다.

〈표 Ⅲ-23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발급받았음	23	17.7
발급받지 않았음	107	82.3

〈표 Ⅲ-238〉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자격증 여부(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67	100.0
국가자격(면허) 필요	49	29.3
협회/단체/기업 등에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36	21.6
협회/단체/기업 등에서 발급하는 교육수료증(이수증) 필요	24	14.4
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37	22.2
필요 없음	21	12.6

### 2) 노동시간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 63명(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15시간 미만' 34명(26.2%), '35시간 이상~40시간 미만' 22명(16.9%)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결정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이 49명(3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이 39명(30.0%)으로 나타났다.

〈표 III-239〉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시간 및 근무시간 결정방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34	26.2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63	48.5
	3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22	16.9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9	6.9
	52시간 초과	2	1.5
근무시간 결정방법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지정	36	27.7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	39	30.0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	49	37.7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권고	6	4.6

### 3) 근무 장소와 지휘·감독

근무 장소는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가 84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택' 18명(13.8%), '다양한 공간 활용' 17명(13.1%) 순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의 지휘·감독 여부는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다.

〈표 III-24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장소 및 지휘·감독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근무 장소	재택	18	13.8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직업장)	84	64.6
	다양한 공간 활용(카페 등 비업무 공간)	17	13.1
	개인소유 작업장(집 제외)	10	7.7
	기타	1	0.8
지휘·감독 여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하였음	30	23.1
	지휘·감독 자체가 없었음	30	23.1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	46	35.4
	지휘·감독이라기보다 발주처가 필요할 때 보고하도록 요청받았음	24	18.5

### 4) 프리랜서로서의 어려움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선택한 응답자가 4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감 구하기'를 선택한 응답자는 38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24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프리랜서로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30	130	130
일감 구하기	38	16	16
특정한 시기에만 일이 집중됨	14	14	11
소득의 불안정성	46	36	23
낮은 작업단가	13	25	21
직무 관련 훈련 참여기회 혹은 훈련비용 지불능력 부족	3	6	8
계약 협상/체결/대금 결제 등을 1인 사업자로서 모두 처리하는 어려움	2	9	9
불공정한 계약 관행	3	4	8
장래에도 계속 일을 할지 전망이 불투명함	11	20	34

## 라. 불공정 경험

### 1) 부당대우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선택한 응답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Ⅲ-242〉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부당대우 경험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30	82	81
일방적인 계약변경 (일방적인 연장,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25	15	6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	15	12	8
다른 업무 강요	15	6	13
업무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음	11	19	13
업무와 관련 없는 갑질 행위	6	10	14
인권침해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1	4	4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 요구	0	2	9
아이디어만 탈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음	1	0	6
터무니없는 보수(단가) 제시 및 적용	8	12	8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	0	2	0
해당 없음	48	0	0

불리한 계약 변경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계약 내용(구두계약 포함)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9명(22.2%)으로 나타났다. 일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수금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이 5.4%로 나타났다.

〈표 III-243〉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경험 있음	29	22.3
	경험 없음	101	77.7
보수 미수금	경험 있음	7	5.4
	경험 없음	123	94.6

인권침해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권침해 경험 있음'이 17명(13.1%)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침해 사례유형으로는 '폭언'과 '성희롱'(각각 36.0%), 기타 괴롭힘(2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44〉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인권침해 경험 여부	합계	130	100.0
	경험 있음	17	13.1
	경험 없음	113	86.9
인권침해 사례유형 (복수응답)	합계	25	100.0
	폭언	9	36.0
	폭행	1	4.0
	성희롱	9	36.0
	성폭력	1	4.0
	기타 괴롭힘	5	20.0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 있음'이 27명(20.8%)으로 나타났고,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 기간 이행 중'(51.9%), '계약 직후'(33.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하차 이유로

는 '과도한 업무지시'가 2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열악한 작업환경'(20.8%),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와 '개인적 사유'가 각각 1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45〉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	합계	130	100.0
	경험 있음	27	20.8
	경험 없음	103	79.2
중도하차 시점	합계	27	100.0
	계약 전	4	14.8
	계약 직후	9	33.3
	계약기간 이행중	14	51.9
중도하차 이유 (복수응답)	합계	48	100.0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	7	14.6
	과도한 업무지시	13	27.1
	열악한 작업환경	10	20.8
	협업/커뮤니케이션 갈등	3	6.3
	개인적 사유(건강, 가정 문제 등)	7	14.6
	계약 내용 이외의 부가 업무 지시	6	12.5
	기타	2	4.2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냥 참고 넘김'(27.3%), '개인적으로 처리함'(22.7%),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1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46〉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72	100.0
그냥 참고 넘김	47	27.3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	20	11.6
공적기관(고용부, 공정위, 경찰 등)의 도움을 받음	10	5.8
관련 단체(노조)나 협회의 도움을 받음	5	2.9
법률 소송을 함	7	4.1
개인적으로 처리함	39	22.7
기타	1	0.6
해당사항 없음	43	25.0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후 해결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해결되었음’(69.0%), ‘해결되지 않았음’(27.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4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부당대우·인권침해 해결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87	100.0
해결되지 않았음	24	27.6
해결되었음	60	69.0
현재 진행 중	3	3.4

부당대우·인권침해를 참고 넘긴 이유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때문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이 27.7%로 나타났다.

〈표 III-248〉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무대응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47	100.0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18	38.3
비용이 많이 소요됨	8	17.0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르겠음	8	17.0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	13	27.7

## 마. 직무 역량 및 경력경로

### 1) 직무역량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46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협업능력’과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리능력’이 각각 31명(23.8%)으로 나타났다.

〈표 III-249〉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협업능력	31	23.8

구분	빈도	비율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46	35.4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리능력	31	23.8
디지털 활용능력	4	3.1
협상 능력	8	6.2
프로젝트 관리능력	5	3.8
강의 및 발표능력	1	0.8
문서작성능력	2	1.5
행정 사무 능력	2	1.5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결과,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을 선택한 응답자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을 선택한 응답자는 38.0%로 나타났다.

〈표 Ⅲ-25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30	130	130
프리랜서 기본 역량 교육	38	31	10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	50	25	11
저작권 관련 교육	4	3	11
계약관련 교육	16	22	24
노동권익 교육	10	25	20
세무/회계 교육	3	10	17
불공정행위 예방 및 구제 교육	6	12	24
성희롱 예방 교육	2	2	11
기타	1	0	2

## 2) 경력 경로

일감(프로젝트)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57.7%), ‘매우 그렇다’(23.1%), ‘그렇지 않은 편이다’(1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5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매우 그렇지 않다	2	1.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	16.9
그런 편이다	75	57.7
매우 그렇다	30	23.1
잘 모르겠다	1	0.8

경력 증빙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함+매우 필요함)가 75명(57.7%)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보관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2명(55.4%)으로 나타났다.

〈표 III-252〉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력 증빙 필요성과 증빙자료 보관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경력 증빙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0.8
	별로 필요하지 않음	8	6.2
	보통	46	35.4
	대체로 필요함	69	53.1
	매우 필요함	6	4.6
경력 증빙 자료 보관 여부	보관	72	55.4
	미보관	58	44.6

경력 증빙자료의 형태로는 '계약서'가 2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경력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증'이 2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53〉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력 증빙자료 형태(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48	100.0
계약서	43	29.1
포트폴리오	25	16.9
거래내역서(통장내역 등)	25	16.9
세금영수증	15	10.1
경력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증	40	27.0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라는 응답 비율이 46.9%로 나타났다.

〈표 Ⅲ-254〉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64	100.0
보수(계약금) 산정 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음	21	32.8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됨	30	46.9
경력 증빙과 상관없이 보수(계약금)는 똑같이 책정되었음	13	20.3

주)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는 경력증빙 자료 인정 정도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음의 응답자 대상

## 바. 정책

### 1)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정책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순위 분석 결과, '경력인정시스템 마련'과 '4대 사회보험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29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255〉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30	130	130
노동 관련 법률지원시스템 제공	17	9	13
경력인정시스템 마련	29	12	13
표준계약 가이드 마련	23	22	15
세무상담 지원	6	10	6
4대 사회보험 지원	29	23	12
계약 및 업무수행지원(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5	14	16
프리랜서 인식개선	7	19	17
심리상담 지원	1	3	8
교육훈련 지원	2	6	15
일감정보 지원	11	12	15

## 2) 에스프로 시스템 관련

타기관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256〉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타기관 시스템 사용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있음	8	6.2
없음	122	93.8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있음+매우 있음) 응답 비율은 전체의 40.8%로 나타났다. 사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있음+매우 있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43.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용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전혀 없음+없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에스프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61.1%)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에스프로 시스템 사용 의향	합계	130	100.0
	전혀 없음	3	2.3
	없음	15	11.5
	보통	59	45.4
	있음	47	36.2
	매우 있음	6	4.6
사용 의향 이유	합계	53	100.0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3	43.4
	수수료가 저렴해서	3	5.7
	보수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8	15.1
	일감 찾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2	22.6
	별도로 경력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7	13.2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	합계	18	100.0
	경력관리가 필요 없어서	2	11.1
	보수 미지급 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	5.6
	해당 분야의 일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2	11.1

구분	빈도	비율
기존 거래 중인 클라이언트(발주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	1	5.6
에스크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	11	61.1
기타	1	5.6

주) 사용 의향 이유(사용 의향 있음+매우 있음 응답 대상자), 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사용 의향 전혀 없음+없음 응답 대상자)

에스크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25.4%), '발급 건당 일정액'(2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58〉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에스크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0	100.0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예, 0.2% 내외)	33	25.4
발급 건당 일정액 (예, 700원)	30	23.1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예, 3회까지 무료 이후 발급)	62	47.7
기타	5	3.8

### 3)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프리랜서 처우 개선에 관한 의견으로는 4대 보험, 권익보호, 시스템, 홍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Ⅲ-259〉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프리랜서 처우 개선 의견

항목	사례
4대 보험	4대 보험 지원
권익보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존중
	노동권 보장
시스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구직지원 다양화
	바로 결제 시스템
	빠른 처리
	쉽고 편리한 사용성
홍보	낮은 수수료
	홍보 확대

## 사. 요약

### 1) 고용 특성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세부 직종은 총 5개로 분류되었으며,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가 70명(53.8%)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41명(31.5%),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명(9.2%), 기타 5명(3.8%), 혼례 및 장례 종사자 2명(1.5%)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의 평균 활동 기간은 4.7년이었으며, 활동 기간은 '2~5년 미만'의 응답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다. 프리랜서 직종을 선택한 이유 1순위 분석 결과, '근로 유연성 확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 2) 계약

일감(프로젝트)의 주 발주처를 '개인사업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25.4%로 가장 높았고, 일감(프로젝트)의 계약형태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두계약'은 35.9%였으며, 구두계약 체결 이유로는 '구두계약이 편해서'의 응답 비율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서 작성 시 요구사항 요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였으며, 계약서에 반영된 요구사항은 '임금 관련'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서 내용 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수됨'의 응답 비율이 63.8%였으며,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무 추가'가 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일감(프로젝트)의 보수의 경우, '발주처 내부 규정'이 4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수 지급 방식은 '정기적 지급'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방식은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라고 응답한 비율이 29.2%로 가장 높았고, 일감(프로젝트)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의 1순위 분석 결과,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3) 노동환경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이 34.8%로 나타났다.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의 응답 비율이 48.5%로 나타났고, 근무시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이 3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무 장소는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가 64.6%로 가장 많았고, 발주처의 지휘·감독 여부는 '지휘·감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1순위 분석 결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4) 불공정 경험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인권침해)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계약 내용(구두계약 포함)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응답 비율은 22.2%로 나타났으며, '미수금 경험 있음'의 응답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권침해 경험 있음'이 13.1%의 응답 비율을 보였고, 인권침해 사례유형으로는 폭언과 성희롱(각각 36.0%), 기타 괴롭힘(20.0%) 순으로 나타났다.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은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8%로 나타났으며, 중도하차 시점은 '계약 기간 이행 중'이 5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냥 참고 넘김'은 27.3%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5)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은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의 응답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한 교육의 1순위 분석 결과,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감(프로젝트)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런 편이다'가 57.7%로 조사되었으며, 경력 증빙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의 응답 비율이 57.7%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보관은 '개인적으로 보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5.4% 높게 나타났다. 경력 증빙자료의 형태로는 '계약서'가 2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경력 증빙자료의 보수 영향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라는 응답 비율이 46.9%로 나타났다.

#### 6) 정책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1순위를 분석한 결과, '경력인정시스템 마련'과 '4대 사회보험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 에스스로 시스템 사용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음' 응답 비율은 전체의 40.8%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43.4%)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에스스로 시스템의 적당한 수수료 수준은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가 47.7%로 나타났다.

## 9. 직종별 분석결과: 요약

### 가. 고용 특성

직종별 평균 활동 기간을 분석한 결과,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가 10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9.1년), 디자이너(7.7년)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를 제외한 5개 직종의 활동 기간은 2~5년 미만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로는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가에서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21.7%와 22.0%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4개 직종은 '근로 유연성 확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나. 계약

일감(프로젝트)의 주 발주처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의 응답 비율이, 그 외 직종은 '중소기업'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감(프로젝트)의 계약 형태와 관련하여 서면계약서 작성 비율은 모든 직종에서 60.0%를 상회하였으며, 계약서 교부에 대한 응답 비율도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두계약의 이유로는 '서면 계약이 필요 없어서'라는 응답이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계약서 작성시 요구사항으로는 '임금 관련'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서 내용 준수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직종에서 '어느 정도 준수됨'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계약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연', '업무 추가 및 변경', '임금 삭감' 등이 언급되었다.

일감(프로젝트)의 보수 결정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디자이너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발주처 내부 규정'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수 지급 방식은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와 디자이너는 '완료 후 전액'이, 그 외 다른 직종에서는 '정기적 지급'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방식은 모든 직종에서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감(프로젝트)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다. 노동환경

사업자등록증 보유율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디자이너

가 39.4%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직종은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자격에 대해 모든 직종에서 '없어도 가능'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다른 직종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1주일간 평균 노동시간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38.5%)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직종에서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시간 결정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지정'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직종에서는 '발주처와 협의'하거나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 장소에 대한 조사 결과,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와 디자이너는 '재택'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그 외 직종에서는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휘·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경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서 일하였음'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함'이 가장 높았고,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는 '지휘·감독 자체가 없었음'(33.3%)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모든 직종에서 '소득의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일감 구하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라. 불공정 경험

일을 수행하면서 부당대우·인권침해의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수 미지급/지연지급/일방적 삭감/로열티 미지급 등'과 '일방적인 계약 변경'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리한 계약 변경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직종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계약 내용(구두계약 포함)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응답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미수금 경험 있음' 비율은 5.4%로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응답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침해 사례(유형)로는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에서 '성희롱'(35.3%)이 가장 높았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폭언'의 응답 비율이 3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직종에서 중도하차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 내외로 조사되었으며, 하차 시점은 모든 직종에서 '계약 기간 이행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직종에서는 중도하차 이유로 '과도한 업무지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처리함’과 ‘그냥 참고 넘김’이 모든 직종에서 20% 이상의 비율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인권침해를 참고 넘긴 이유로는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와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경우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그 외 직종에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마. 직무역량 및 경력 경로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직종에서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직종별 차이는 있으나 협업 능력과 대인관계 관리 능력이 주요 역량으로 나타났다. 일감(프로젝트)을 수주할 때 프리랜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직종에서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경력 증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직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증빙 자료의 형태로는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경우 ‘경력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계약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3개 직종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 바. 정책

프리랜서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4대 사회보험 지원’, ‘경력인정시스템 마련’, ‘표준계약 가이드’ 등이 언급되었으며, 직종별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서울시 에스 크로 시스템 사용 의향을 분석한 결과, ‘있음’의 응답 비율이 모든 직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의향 이유로는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를 제외한 5개 직종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에스 크로 시스템의 적정 수수료에 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가 모든 직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프리랜서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4대 보험 지원, 권익 보호, 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언급되었다.

## 참고 문헌

- 강금봉(2022). 프리랜서의 소득 불안정에 대한 동태적 실증 연구: 임금근로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1), 238-257.
- 김종진, 박관성(2019).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 I-규모 추정, 노동상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13), 1-18.
- 김종진 외(2020) 프리랜서 노무형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김종진, 신우진, 양경욱, 김영욱, 이종수, 정준영, 김민정(2021). 서울지역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실태조사.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문은미(2023). 울산지역 여성프리랜서 노동실태 및 지원방안.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박가영, 박영중, 정혜선, 최은희, 정명희, 백은미, 박지영, 문지현(2022). 돌봄 종사자의 안전보건실태 및 건강보호방안 마련. 안전보건공단산업 안전보건연구원.
- 박선효, 장진희(2024). 서울시 프리랜서 경력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신태중(2019). 서울지역 프리랜서 규모와 특성. 동향과 이슈.
- 신태중 외(2019). 서울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 유재홍 외(2018).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 실태 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부 록

## [부록 1] 서울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설문지

## 서울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론리서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의뢰로 서울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프리랜서의 권익향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설문 응답은 평소 귀하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따라서 익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조사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약 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1.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024년 10월

조사 주관 기관	조사 수행 기관 (조사 문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여론리서치
	김달환 부서장 02-3149-0472



## 선정질문

S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1. 만 ( )세 [로직: 18 TO 99]

//확인창(SQ1): SQ1>=60인 경우 확인창 출력 //만 17세 이하 설문 중단//

//지시문(SQ2):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가 아니면서),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을 의미(예: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작가, 통번역가, 각 분야 강사, 요양보호사 등)//

### SQ2. 귀하는 현재 프리랜서에 해당하십니까? [단수]

1.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2. 해당하지 않는다 → 조사 종료

### SQ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1. 서울
2. 경기
3. 인천
4. 그 외 지역

### SQ4. 귀하께서 현재 프리랜서로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1. 서울
2. 경기
3. 인천
4. 그 외 지역

//SQ3=1 or SQ4=1만 조사 계속//



## 1. 고용 특성

### Q1. 귀하의 프리랜서 직종은 무엇입니까? [단수]

//지시문(Q1) 각 항목 아래에 제시:

- ※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기타 컴퓨터 시스템 운영자 등
- ※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문리 및 어학강사, 컴퓨터강사, 기술 및 기능계 강사, 예능강사,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기타 강사 등
- ※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기타 디자이너 등
- ※ 작가 및 언론관련 전문가: 웹툰·만화작가, 통번역 전문가 등
-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스포츠 감독 및 코치, 직업 운동선수, 경기심판 및 경기 기록원,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요가강사 등
- ※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및 장애 돌봄 서비스 종사원,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혼례 및 장례 종사자, 보육 및 교사 보조 서비스 종사원, 산후조리 종사원, 치료사 보조원, 보건서비스 보조 종사자 등 //

- |                        |        |
|------------------------|--------|
| 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 → Q1-1 |
| 2.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 → Q1-2 |
| 3. 디자이너                | → Q1-3 |
| 4. 작가 및 언론관련 전문가       | → Q1-4 |
| 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 → Q1-5 |
| 6.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 → Q1-6 |
| 7. 해당 직종 없음            | → 설문종료 |

[로직: Q1=1인 경우에만 응답]

Q1-1.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단수]

1.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4. 웹 개발자
5. 기타 컴퓨터 시스템 운영자
6. 기타 ( )

[로직: Q1=2인 경우에만 응답]

Q1-2.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단수]

1. 문리 및 어학강사
2. 컴퓨터강사
3. 기술 및 기능계 강사
4. 예능강사
5.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6.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7. 기타 ( )

[로직: Q1=3인 경우에만 응답]

Q1-3.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단수]

1. 제품 디자이너
2. 패션 디자이너
3. 실내장식 디자이너
4. 시각 디자이너
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6. 기타 디자이너
7. 기타 ( )

[로직: Q1=4인 경우에만 응답]

Q1-4.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단수]

1. 웹툰작가
2. 만화가
3. 통역가
4. 번역가
5. 기타 ( )

[로직: Q1=5인 경우에만 응답]

Q1-5.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단수]

1. 스포츠 감독 및 코치
2. 직업 운동선수
3. 경기심판 및 경기 기록원
4.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5. 기타 여가서비스 종사원
6. 요가·필라테스 강사
7. 기타 ( )

[로작: Q1=6인 경우에만 응답]

**Q1-6.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단수]**

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2.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3. 혼례 및 장례 종사자
4.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5. 기타 ( )

**Q2. 2024년 10월 1일 기준, 귀하가 프리랜서로 활동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픈]**

1. ( )년 [로작: 0 TO 30]  
( )개월 [로작: 0 TO 11]

**Q3. 귀하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시요. [복수][RANK:3]**

1. 조직생활이 안 맞아서
2. 소득이 다른 일자리보다 나올 것 같아서
3. 근로 유연성 확보
4. 프리랜서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서
5. 재택근무 선호
6.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7. 미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경력을 쌓으려고
8.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방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9.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10. 기타 ( )

**Q4. 귀하는 프리랜서로 현재 주되게 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계십니까? [단수]**

1. 예 → Q4-1
2. 아니오 → Q5

[로작: Q4=1인 경우에만 응답]

**Q4-1. 프리랜서로 현재 주되게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주된 프리랜서 일자리만으로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2. 현재 주되게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소득이 불규칙해서
3. 프리랜서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4.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5.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로는 직업 전망이 없어서
6.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 외에 다른 경험을 쌓고 싶어서
7. 기타( )



## 2. 계약 관련

Q5. 2024년 10월 1일 기준, 귀하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일감(프로젝트)의 발주처는 주로 누구였습니까? [단수]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등), 공공기관
2. 대기업
3. 중소기업
4. 소기업(10인 미만)
5. 개인사업자
6. 일반 시민
7. 기타 ( )

Q6. 2024년 10월 1일 기준, 귀하가 지난 1년간 주로 수행한 일감(프로젝트) 중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은 어떠합니까? 주로 계약한 형태를 우선하여 선택해주시시오. [복수][maxrank:2]

1. 서면계약서 작성
2. 구두계약

[로직: Q6=1인 경우에만 응답]

Q6-1. 귀하는 계약서 작성 후 동일한 계약서 한 부를 함께 교부받았습니까? [단수]

1. 예
2. 아니오

[로직: Q6-1=2인 경우에만 응답]

Q6-2. 동일한 계약서를 한 부 교부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동일한 계약서를 교부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2. 동일한 계약서를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어서
3. 발주처(주요 고객)에서 주지 않아서
4.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5. 기타 ( )

[로직: Q6=2인 경우에만 응답]

Q6-3. 구두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서면계약을 요청하기 어려워서
2. 발주처(주요 고객)가 서면계약을 거부해서
3. 서면계약이 필요 없어서
4. 구두계약이 편해서
5. 기타 ( )

Q7. 2024년 10월 1일 기준, 귀하는 지난 1년간 계약서 작성시, 본인이 별도의 요구사항을 요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단수]

1. 있음-> Q7-1
2. 없음-> Q8

[로직: Q7=1인 경우에만 응답]

Q7-1. 귀하의 요구사항 중 어느 부분이 계약서에 반영되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1. 업무 내용
2. 기간
3. 임금
4. 기타 ( )

Q8.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로 준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척도]

1. 아예 준수되지 않음 -> Q8-1
2. 거의 준수되지 않음 -> Q8-1
3. 어느 정도 준수됨 -> Q9
4. 모두 완벽하게 준수됨 -> Q9
5. 모르겠음 -> Q9

[로직: Q8=1 OR Q8=2인 경우에만 응답]

Q8-1. 계약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었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1. 업무 변경
2. 기간 연장
3. 임금 지연
4. 임금 체불
5. 임금 삭감
6. 업무 추가
7. 기타( )

Q9. 2024년 10월 1일 기준, 귀하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일감(프로젝트)의 주된 보수 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수]

1. 발주처(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 내부 규정
2. 구두 합의
3. 업계의 불문을 또는 관행
4. 기타( )

Q10. 2024년 10월 1일 기준, 귀하는 지난 1년간 일감(프로젝트)의 주된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단수]

1. 완료 후 전액
2. 완료 후 수익 일정 비율 분배
3. 정기적 지급
4. 작업 시작 전 전액 지급
5.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받음
6. 기타( )

Q11. 귀하가 일감(프로젝트)을 찾는 주된 방식은 무엇입니까? [단수]

1. 잡 포털 사이트
2. 온라인 커뮤니티
3. 어플리케이션(온라인 중개 사이트)

4. 에이전시
5. 협회 등
6. 개인 네트워크(지인 추천 등)
7. 기타( )

**Q11-1. 일감(프로젝트)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십시오. [복수][RANK:3]**

1. 작업기간
2. 보수
3. 발주처
4. 업무 내용
5. 본인 경력 도움 정도
6. 작업 강도
7. 작업 난이도
8. 업무 마감 기한
9. 업무 결과물
10. 작업 결과에 대한 유지보수
11. 보수를 받는 방식
12. 기타( )



### 3. 노동환경

**Q12. 귀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수]**

1. 발급받았음
2. 발급받지 않았음

**Q13. 귀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복수]**

1. 국가자격(면허) 필요
2. 협회/단체/기업 등에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3. 협회/단체/기업 등에서 발급하는 교육수료증(이수증) 필요
4. 필요하지만 없어도 가능
5. 필요 없음 [중복선택불가]

**Q14. 귀하의 1주일간 평균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수]**

1. 15시간 미만
2.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3. 3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5. 52시간 초과

**Q15. 2024년 10월 1일 기준, 귀하는 지난 1년간 일을 하면서 근무시간을 주로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단수]**

1.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지정
2. 내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

3.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결정
4. 발주처가 특정한 근무시간을 권고

**Q16. 2024년 10월 1일 기준, 귀하가 지난 1년간 일을 하면서, 주로 일을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단수]**

1. 재택
2. 발주처 혹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직업장)
3. 다양한 공간 활용(카페 등 비업무 공간)
4. 개인소유 작업장(집 제외)
5. 기타( )

**Q17. 2024년 10월 1일 기준, 귀하는 지난 1년간 일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가장 주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단수]**

1.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서 일을 하였음
2. 지휘 감독 자체가 없었음
3. 지휘 감독에 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함
4. 지휘 감독이라기보다 발주처가 필요할 때 보고하도록 요청받았음

**Q18. 귀하가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복수][RANK:3]**

1. 일감 구하기
2. 특정한 시기에만 일이 집중됨
3. 소득의 불안정성
4. 낮은 작업단가
5. 직무 관련 훈련 참여기회 혹은 훈련비용 지불능력 부족
6. 계약협상/체결/대금 결제 등을 1인 사업자로서 모두 처리하는 어려움
7. 불공정한 계약 관행
8. 장래에도 계속 일을 할지 전망이 불투명함
9. 기타( )



## 불공정 경험

**Q19. 귀하는 지난 1년간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부당대우, 인권침해 등)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복수][RANK:3]**

1. 일방적인 계약 변경(일방적인 연장,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2.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
3. 다른 업무 강요
4. 업무 관련하여 사전협의 없음
5. 업무와 관련 없는 갑질 행위
6.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7.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 요구
8. 아이디어만 탈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음
9. 터무니없는 보수(단가) 제시 및 적용
10. 기타( )
11. 해당 없음 [중복선택불가]

Q20. 2024년 10월 1일 기준, 귀하가 지난 1년간 일을 하면서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계약 내용(구두계약 포함)이 변경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수]

1. 있음→ Q20-1
2. 없음→ Q21

[로직: Q20=1인 경우에만 응답]

Q20-1. 귀하에게 불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사항입니까?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시오. [오픈]

1. ( )

Q21. 2024년 10월 1일 기준,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일을 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단수]

1. 있음→ Q21-1
2. 없음→ Q22

[로직: Q21=1인 경우에만 응답]

Q21-1. 지난 1년 간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은, 전체 일감(프로젝트)의 대략 몇 % 정도입니까? [오픈]

1. ( )% [로직: 1 TO 100]

[로직: Q21=1인 경우에만 응답]

Q21-2. 지난 1년 간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보수(미수금)는 총 얼마입니까? [오픈]

1. ( )만원 [로직: 1 TO 10000]

Q22. 2024년 10월 1일 기준, 귀하는 지난 1년간 일을 하면서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단수]

1. 있음→ Q22-1
2. 없음→ Q23

[로직: Q22=1인 경우에만 응답]

Q22-1. 귀하가 지난 1년간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유형)은 무엇입니까? [복수]

1. 폭언
2. 폭행
3. 성희롱
4. 성폭력
5. 기타 괴롭힘

Q23. 귀하는 지난 1년간 일을 하면서 과도한 업무, 업무 변경, 임금 갈등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종도에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까? [단수]

1. 있음→ Q23-1
2. 없음→ Q24

[로직: Q23=1인 경우에만 응답]

**Q23-1. 귀하가 중도에 하차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단수]**

1. 계약 전
2. 계약 직후
3. 계약기간 이행중

[로직: Q23=1인 경우에만 응답]

**Q23-2. 귀하가 중도에 일을 하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1. 불법적/불합리한 업무지시
2. 과도한 업무지시
3. 열악한 작업환경
4. 협업/커뮤니케이션 갈등
5. 개인적 사유(건강, 가정 문제 등)
6. 계약 내용 이외의 부가 업무 지시
7. 기타( )

**Q24. 귀하는 지난 1년간 일을 수행하면서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1. 그냥 참고 넘김
2. 발주업체나 수주업체에 알림
3. 공적기관(고용부, 공정위, 경찰 등)의 도움을 받음
4. 관련 단체(노조)나 협회의 도움을 받음
5. 법률 소송을 함
6. 개인적으로 처리함
7. 기타( )
8. 해당사항 없음 [중복선택불가] → Q25

[로직: Q24&lt;&gt;8인 경우에만 응답]

**Q24-1. 대처 후 부당대우나 인권침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단수]**

1. 해결되지 않았음
2. 해결되었음
3. 현재 진행 중

[로직: Q24=1인 경우에만 응답]

**Q24-2. 그냥 참고 넘겼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2. 비용이 많이 소요됨
3.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르겠음
4.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음
5. 기타( )

**직무역량 및 경력경로**

**Q25. 귀하가 생각할 때, 프리랜서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입니까? 가장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 역량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시시오. [복수][RANK:3]

1. 협업능력
2.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3. 대인관계(커뮤니케이션) 관리능력
4. 디지털 활용 능력
5. 협상능력
6. 프로젝트 관리능력
7. 강의 및 발표능력
8. 문서작성능력
9. 행정사무능력
10. 기타 ( )

Q26. 2024년 10월 1일 기준, 귀하는 지난 1년간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단수]

1. 예 -> Q26-1
2. 아니오 -> Q27
3. [로직: Q26=1인 경우에만 응답]

Q26-1. 지난 1년간 참여한 대표적인 교육훈련과정에 대해 3개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스텀]  
[오픈]

구분	과정명	총 시간	교육훈련기관	해당 없음
1	1. ( )			9. 해당 없음
2	2. ( )			9. 해당 없음
3	3. ( )			9. 해당 없음

//지시문(Q26-1):

<총 시간> 드롭다운 목록

1. 10시간 미만
2. 10시간~20시간 미만
3. 20시간~30시간 미만
4. 30시간~40시간 미만
5. 40시간 이상 //

//지시문(Q26-1):

<교육훈련기관> 드롭다운 목록

1. 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
2. 서울시 기술교육원/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 관련분야 협회 등
5. 일반학원
6. 온라인 강의
7. 기타( ) //

[로직: Q26=1인 경우에만 응답]

Q26-2. 지난 1년 간 교육훈련을 몇 시간 이수하셨습니다? [오픈]

1. ( ) 시간 [로직: 1 TO 500]

[로직: Q26=1인 경우에만 응답]

Q26-3. 귀하가 지난 1년 간 이수한 교육훈련은 본인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단일척도]

1. 전혀 도움 되지 않았음
2. 도움 되지 않았음
3. 보통



1. 공공기관 제출용 (지원사업 신청 등)
2. 금융기관 제출용
3. 어린이집 등 지원신청(입소대기신청 취업자 증빙용)
4. 일감 수주
5. 취업용
6. 기타( )

[로직: Q30=1인 경우에만 응답]

**Q30-3. 경력증빙자료 제출 시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았습니까? [단수]**

1. 인정받지 못함
2.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
3.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음(대출한도 등)
4. 제출하지 않음

[로직: Q30-3=2 OR Q30-3=3인 경우에만 응답]

**Q30-4. 경력증빙자료를 인정받았을 때, 보수(계약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단수]**

1. 보수(계약금) 산정 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음
2. 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됨
3. 경력증빙과 상관없이 보수(계약금)는 똑같이 책정되었음
4. 기타( )

[로직: Q30=2인 경우에만 응답]

**Q30-5. 경력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경력 증빙할 상황이 없어서
2. 경력증빙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서
3.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4. 경력증빙자료가 인쇄물 형태로 보관이 어려워서
5. 기타( )

**Q31. 귀하는 발주처에서 경력증명서류를 요청받았을 때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단수]**

1. 있음-> Q31-1
2. 없음-> Q32

[로직: Q31=1인 경우에만 응답]

**Q31-1. 경력증빙서류를 요청받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복수]**

1. 경력증빙서류를 발급해줘야 할 기존 발주처의 폐업 혹은 관련 담당자의 퇴사
2. 발주처에 경력증빙서류 발급 요청을 말하기 어려워서
3. 발주처에서 별도 서류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4. 발주처와 구두 계약으로 일해서 경력증빙을 증빙받기 어려워서
5. 발주처에서 경력증빙 확인서 발급 자체를 꺼려서
6. 발주처의 문서폐기 규정에 따라, 경력증빙 관련 서류들을 폐기해서
7. 기타( )



## 정책

Q32. 귀하는 프리랜서로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시시오. [복수][RANK:3]

1. 노동 관련 법률지원시스템 제공
2. 경력인정시스템 마련
3. 표준계약가이드 마련
4. 세무상담지원
5. 4대 사회보험 지원
6. 계약 및 업무수행지원(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7. 프리랜서 인식개선
8. 심리상담지원
9. 교육훈련 지원
10. 일감 정보 지원
11. 기타 ( )

//지시문(Q33~Q39): 문항 상단에 고정 출력

에스크로 시스템은 발주처의 결제 대금(일감 보수)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프리랜서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 프리랜서와 발주처 간 대금 거래를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해 미수금 발생을 차단하고, 발주처의 대금을 프리랜서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입금하는 한편, 프리랜서의 경력관리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

Q33. 귀하는 타 기관 에스크로 시스템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수]

1. 있음
2. 없음

Q34. 귀하는 서울시 에스크로시스템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일척도]

1. 전혀 없음-> Q34-2
2. 없음 -> Q34-2
3. 보통 -> Q35
4. 있음 -> Q34-1
5. 매우 있음-> Q34-1

[로직: Q34=4 OR Q34=5인 경우에만 응답]

Q34-1. 서울시 에스크로시스템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서울시 공공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 수수료가 저렴해서
3. 보수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4. 일감 찾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 별도로 경력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6. 기타( )

[로직: Q34=1 OR Q34=2인 경우에만 응답]

Q34-2. 서울시 에스크로시스템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경력관리가 필요 없어서
2. 보수 미지급 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3. 해당 분야의 일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4. 기존 거래 중인 클라이언트(발주처)와 불편해질 것 같아서
5. 에스프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
6. 기타( )

Q35. 귀하는 서울시 에스프로시스템의 수수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예, 0.2% 내외)
2. 발급 건당 일정액 (예, 700원)
3.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예, 3회까지 무료 이후 발급)
4. 기타 ( )

Q36. 프리랜서 처우 개선 및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에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1. ( )



## 사회인구학적특성 및 이전근로특성

D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단수]

1. 남성
2. 여성

DQ3.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을 바탕으로 응답해주십시오. [단수]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600만원 미만
7. 600~700만원 미만
8. 700~800만원 미만
9. 800~900만원 미만
10. 900~1,000만원 미만
11. 1,000만원 이상

DQ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1. 미혼
2. 기혼(사실혼 포함)
3. 이혼/사별

DQ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1. 고졸 이하
2. 2~3년제(전문대)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4. 대학원(석사 이상) 졸업

**DQ6. 귀하의 지난 1년 간의 근로 이력 중 주된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지시문(DQ6):

- ※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 ※ 임시근로자: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 일용근로자: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유급 고용원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 //

- |                  |         |
|------------------|---------|
| 1. 상용근로자         | -> DQ7  |
| 2. 임시근로자         | -> DQ7  |
| 3. 일용근로자         | -> DQ7  |
|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설문종료 |
|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설문종료 |
| 6. 무급가족종사자       | -> 설문종료 |
| 7.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활동 | -> 설문종료 |
| 8. 일하지 않았음       | -> 설문종료 |

[로직: DQ6=1~3인 경우에만 응답]

**DQ7. 임금근로자로 일하신 경우, 근로형태는 어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지시문(DQ7):

- ※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비기간제 근로자
- ※ 시간제근로자: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 ※ 파견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 ※ 용역 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해당 업체의 지휘 하에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원, 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 ※ 가정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작업)에 종사하는 자
- ※ 일일(단기)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

1. 한시적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3. 파견·용역 근로자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 가정내 근로자
6. 일일(단기) 근로자
7. 정규직

[부록 2] 실태조사 결과 표

<표 1> 프리랜서 선택 이유 1순위(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조직 생활의 어려움		관찰은 소득		근로 유연성		적성과 흥미		재택근무		퇴직/안정된 일자리 미확보		경력 확보		분야 특성상		정년이 없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66	16.3	115	11.3	310	30.4	147	14.4	49	4.8	77	7.5	9	0.9	116	11.4	20	2.0	11	1.1	
성별	남성	98	21.3	73	15.9	115	25.0	63	13.7	18	3.9	50	10.9	5	1.1	26	5.7	11	2.4	1	2.4
	여성	68	12.1	42	7.5	195	34.8	84	15.0	31	5.5	27	4.8	4	0.7	90	16.1	9	1.6	10	1.8
연령	20대	21	23.9	13	14.8	26	29.5	12	13.6	6	6.8	2	2.3	2	2.3	6	6.8	0	0	0	0
	30대	53	18.3	35	12.1	89	30.8	43	14.9	16	5.5	11	3.8	2	0.7	31	10.7	3	1.0	6	2.1
	40대	62	19.0	40	12.1	95	29.1	42	12.8	16	4.9	25	7.6	3	0.9	41	12.5	2	0.6	1	0.3
	50대	27	11.2	22	9.1	74	30.6	40	16.5	8	3.3	32	13.2	2	0.8	28	11.6	7	2.9	2	0.8
	60대 이상	3	4.1	5	6.8	26	35.1	10	13.5	3	4.1	7	9.5	0	0	10	13.5	8	10.8	2	2.7
최종 학력	고졸이하	13	21.7	4	6.7	15	25.0	13	21.7	3	5.0	2	3.3	1	1.7	5	8.3	4	6.7	0	0
	2~3년제 졸업	15	14.3	15	14.3	28	26.7	14	13.3	5	4.8	8	7.6	0	0	14	13.3	4	3.8	2	1.9
	4년제 대학 졸업	117	18.1	74	11.4	205	31.7	88	13.6	27	4.2	54	8.3	6	0.9	60	9.3	8	1.2	8	1.2
	대학원 졸업	18	10.7	12	7.1	53	31.5	24	14.3	9	5.4	12	7.1	2	1.2	34	20.2	3	1.8	1	0.6
소득 수준	기타 무응답	3	7.5	10	25.0	9	22.5	8	20.0	5	12.5	1	2.5	0	0	3	7.5	1	2.5	0	0
	200만원 미만	32	11.0	7	2.4	105	36.2	43	14.8	10	3.4	37	9.3	0	0	50	17.2	9	3.1	7	2.4
	200~300만원 미만	41	18.1	18	8.0	72	31.9	30	13.3	17	7.5	12	5.3	4	1.8	27	11.9	4	1.8	1	0.4
	300~400만원 미만	31	16.8	24	13.0	52	28.3	33	17.9	11	6.0	11	6.0	0	0	18	9.8	2	1.1	2	1.1
소득 수준	400~600만원 미만	34	19.9	29	17.0	49	28.7	24	14.0	8	4.7	14	8.2	2	1.2	9	5.3	1	0.6	1	0.6
	600만원 이상	28	18.8	37	24.8	32	21.5	17	11.4	3	2.0	13	8.7	3	2.0	12	8.1	4	2.7	0	0

〈표 2〉 프리랜서 선택이유 1순위(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조직 생활의 어려움		관찰은 소득		근로 유연성		적성과 흥미		재택근무		퇴직/안정된 일자리 미확보		경력 확보		분야 특성상		정년이 없어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66	16.3	115	11.3	310	30.4	147	14.4	49	4.8	77	7.5	9	0.9	116	11.4	20	2.0	11	1.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58	24.8	60	25.6	60	25.6	16	6.8	8	3.4	19	8.1	2	0.9	7	3.0	4	1.7	0	0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28	10.9	16	6.3	100	39.1	32	12.5	3	1.2	19	7.4	1	0.4	50	19.5	4	1.6	3	1.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8	11.8	7	4.6	34	22.2	34	22.2	17	11.1	6	3.9	0	0	35	22.9	2	1.3	0	0
디자이너	30	18.2	16	9.7	47	28.5	28	17.0	14	8.5	14	8.5	4	2.4	2	1.2	4	2.4	6	3.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4	17.1	8	9.8	19	23.2	23	28.0	3	3.7	2	2.4	0	0	11	13.4	2	2.4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8	13.8	8	6.2	50	38.5	14	10.8	4	3.1	17	13.1	2	1.5	11	8.5	4	3.1	2	1.5

〈표 3〉 프리랜서의 다중직업 여부(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다중직업						다중직업의 이유												
	있음		없음		소득 불충분		소득 불규칙		고용 불안정		열악한 작업환경		직업 전망성		다양한 경험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453	44.4	567	55.6	192	42.4	106	23.4	78	17.2	14	3.1	13	2.9	45	9.9	5	1.1	
성별																			
남성	224	48.7	236	51.3	99	44.2	45	20.1	38	17.0	12	5.4	8	3.6	21	9.4	1	0.4	
여성	229	40.9	331	59.1	93	40.6	61	26.6	40	17.5	2	0.9	5	2.2	24	10.5	4	1.7	
연령																			
20대	51	58.0	37	42.0	22	43.1	12	23.5	11	21.6	3	5.9	0	0	3	5.9	0	0	
30대	153	52.9	136	47.1	66	43.1	37	24.2	28	18.3	4	2.6	5	3.3	11	7.2	2	1.3	
40대	136	41.6	191	58.4	57	41.9	25	18.4	24	17.6	4	2.9	5	3.7	20	14.7	1	0.7	
50대	81	33.5	161	66.5	35	43.2	22	27.2	12	14.8	1	1.2	3	3.7	7	8.6	1	1.2	
60대 이상	32	43.2	42	56.8	12	37.5	10	31.3	3	9.4	2	6.3	0	0	4	12.5	1	3.1	
고졸이하	24	40.0	36	60.0	11	45.8	8	33.3	4	12.5	0	0	0	0	2	8.3	0	0	
2~3년제 졸업	47	44.8	58	55.2	21	44.7	12	25.5	8	17.0	1	2.1	0	0	4	8.5	1	2.1	
최종 학력																			
4년제 대학 졸업	274	42.3	373	57.7	116	42.3	62	22.6	45	16.4	10	3.6	7	2.6	30	10.9	4	1.5	
대학원 졸업	91	54.2	77	45.8	39	42.9	19	20.9	19	20.9	2	2.2	5	5.5	7	7.7	0	0	
기타 무응답	17	42.5	23	57.5	5	29.4	5	29.4	3	17.6	1	5.9	1	5.9	2	11.8	0	0	
200만원 미만	109	37.6	181	62.4	52	48.6	25	22.9	16	14.7	1	0.9	4	3.7	8	7.3	2	1.8	
200~300만원 미만	94	41.6	132	58.4	44	46.8	25	26.6	17	18.1	1	1.1	0	0	5	5.3	2	2.1	
300~400만원 미만	87	47.3	97	52.7	38	43.7	18	20.7	16	18.4	4	4.6	3	3.4	8	9.2	0	0	
400~600만원 미만	93	54.4	78	45.6	34	36.6	21	22.6	14	15.1	5	5.4	4	4.3	14	8.2	1	1.1	
600만원 이상	70	47.0	79	53.0	23	32.9	17	24.3	15	21.4	2	4.3	2	2.9	10	14.3	0	0	

〈표 4〉 프리랜서의 근무시간 결정방법(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발주처 지정		자유롭게 결정		발주처와 협의		발주처 권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25	22.1	441	43.2	323	31.7	31	3.0
성별	남성	106	23.0	202	43.9	141	30.7	11	2.4
	여성	119	21.3	239	42.7	182	32.5	20	3.6
연령	20대	17	19.3	45	51.1	25	28.4	1	1.1
	30대	49	17.0	149	51.6	80	27.2	11	3.8
	40대	77	23.5	134	41.0	105	32.1	11	3.4
	50대	64	26.4	85	35.1	89	36.8	4	1.7
	60대 이상	18	24.3	28	37.8	24	32.4	4	5.4
최종 학력	고졸이하	13	21.7	28	46.7	18	30.0	1	1.7
	2~3년제 졸업	24	22.9	40	38.1	34	32.4	7	6.7
	4년제 대학 졸업	148	22.9	285	44.0	197	30.4	17	2.6
	대학원 졸업	33	19.6	72	42.9	58	34.5	5	3.0
	기타 무응답	7	17.5	16	40.0	16	40.0	1	2.5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57	19.7	126	43.4	95	32.8	12	4.1
	200~300만원 미만	42	18.6	105	46.5	72	31.9	7	3.1
	300~400만원 미만	35	19.0	78	42.4	65	35.3	6	3.3
	400~600만원 미만	32	18.7	83	48.5	55	32.2	1	0.6
	600만원 이상	59	39.6	49	32.9	36	24.2	5	3.4

〈표 5〉 프리랜서의 노동시간(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52시간 초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99	19.5	341	33.4	234	22.9	185	18.1	61	6.0
성별	남성	55	12.0	115	25.0	133	28.9	119	25.9	38	8.3
	여성	144	25.7	226	40.4	101	18.0	66	11.8	23	4.1
연령	20대	9	10.2	35	39.8	30	34.1	11	12.5	3	3.4
	30대	41	14.2	93	32.2	77	26.6	54	18.7	24	8.3
	40대	70	21.4	108	33.0	79	24.2	50	15.3	20	6.1
	50대	62	25.6	74	30.6	34	14.0	60	24.8	12	5.0
	60대 이상	17	23.0	31	41.9	14	18.9	10	13.5	2	2.7
최종 학력	고졸이하	12	20.0	18	30.0	15	25.0	12	20.0	3	5.0
	2~3년제 졸업	25	23.8	35	33.3	19	18.1	19	18.1	7	6.7
	4년제 대학 졸업	116	17.9	211	32.6	159	24.6	125	19.3	36	5.6
	대학원 졸업	38	22.6	64	38.1	30	17.9	22	13.1	14	8.3
	기타 무응답	8	20.0	13	32.5	11	27.5	7	17.5	1	2.5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9	41.0	123	42.4	27	9.3	18	6.2	3	1.0
	200~300만원 미만	32	14.2	92	40.7	58	25.7	32	14.2	12	5.3
	300~400만원 미만	22	12.0	54	29.3	59	32.1	33	17.9	16	8.7
	400~600만원 미만	17	9.9	55	32.2	51	29.8	39	22.8	9	5.3
	600만원 이상	9	6.0	17	11.4	39	26.2	63	42.3	21	14.1

〈표 6〉 프리랜서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중도하차 경험				중도하차 시점								중도하차 이유(복수응답)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약 전		계약 직후		계약 기간 이행 중		불합리한 업무지시		과도한 업무지시		열악한 작업환경		협업/소통 갈등		개인적 사유		계약 내용 외 업무지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17	21.3	803	78.7	32	14.7	57	26.3	128	59.0	84	18.3	111	24.2	76	16.6	66	14.4	42	9.2	69	15.1	10	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50	21.4	184	78.6	8	16.0	16	32.0	26	52.0	19	16.7	31	27.2	20	17.5	14	12.3	11	9.6	19	16.7	0	0
문리·기술 및 에너지	48	18.8	208	81.3	7	14.6	11	22.9	30	62.5	17	17.0	23	23.0	16	16.0	15	15.0	10	10.0	17	17.0	2	2.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34	22.2	119	77.8	3	8.8	12	35.3	19	55.9	15	19.2	16	20.5	15	19.2	14	17.9	3	3.8	12	15.4	3	3.8
디자이너	43	26.1	122	73.9	8	18.6	6	14.0	29	67.4	18	20.7	23	26.4	10	11.5	18	20.7	7	8.0	11	12.6	0	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5	18.3	67	81.7	2	13.3	3	20.0	10	66.7	8	25.8	5	16.1	5	16.1	2	6.5	4	12.9	4	12.9	3	9.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27	20.8	103	79.2	4	14.8	9	33.3	14	51.9	7	14.6	13	27.1	10	20.8	3	6.3	7	14.6	6	12.5	2	4.2

〈표 7〉 프리랜서의 필요역량 1순위(직종별)

(단위 : 명, %)

구분	협업능력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대인관계 관리능력		디지털 활용능력		협상 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		강의 및 발표능력		문서작성능력		행정사무능력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67	16.4	435	42.6	181	17.7	58	5.7	72	7.1	57	5.6	28	2.7	11	1.1	9	0.9	2	0.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54	23.1	95	40.6	37	15.8	19	8.1	14	6.0	11	4.7	2	0.9	1	0.4	1	0.4	0	0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	28	10.9	118	46.1	47	18.4	16	6.3	14	5.5	11	4.3	19	7.4	2	0.8	1	0.4	0	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7	11.1	77	50.3	21	13.7	5	3.3	18	11.8	7	4.6	1	0.7	4	2.6	2	1.3	1	0.7
디자이너	28	17.0	63	38.2	27	16.4	9	5.5	12	7.3	18	10.9	2	1.2	2	1.2	3	1.8	1	0.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9	11.0	36	43.9	18	22.0	5	6.1	6	7.3	5	6.1	3	3.7	0	0	0	0	0	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31	23.8	46	35.4	31	23.8	4	3.1	8	6.2	5	3.8	1	0.8	2	1.5	2	1.5	0	0

〈표 8〉 프리랜서의 교육훈련 과정별 훈련기관(직종별/대표과정 3개)

(단위 : 명, %)

구분	한국폴리텍 대학/한국 기술교육 대학교		서울시 기술교육원 등		여성새로일하 기센터		관련 분야 협회 등		일반학원		온라인 강의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47	7.4	118	18.7	31	4.9	141	22.3	51	8.1	204	32.3	39	6.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5	19.5	20	15.6	11	8.6	20	15.6	16	12.5	33	25.8	3	2.3
문라기술 및 예능강사	9	4.5	42	20.9	5	2.5	43	21.4	8	4.0	79	39.3	15	7.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	3.8	11	21.2	2	3.8	14	26.9	1	1.9	22	42.3	0	0
디자이너	3	5.7	8	15.1	6	11.3	10	18.9	4	7.5	17	32.1	5	9.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3	4.2	11	15.3	1	1.4	19	26.4	16	22.2	17	23.6	5	6.9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5	4.0	26	20.8	6	4.8	35	28.0	6	4.8	36	28.8	11	8.8

〈표 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및 보수 미수금 경험(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일방적인 계약변경 경험				보수 미수금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75	32.1	159	67.9	46	19.7	188	80.3
성별	남성	56	31.3	123	68.7	36	20.1	143	79.9
	여성	19	34.5	36	65.5	10	18.2	45	81.8
연령	20대	15	55.6	12	44.4	8	29.6	19	70.4
	30대	19	29.2	46	70.8	14	21.5	51	78.5
	40대	23	31.5	50	68.5	14	19.2	59	80.8
	50대	14	25.0	42	75.0	6	10.7	50	89.3
	60대 이상	4	30.8	9	69.2	4	30.8	9	69.2
최종 학력	고졸이하	4	3.64	7	63.6	2	18.2	9	81.8
	2~3년제 졸업	5	23.8	16	76.2	5	23.8	16	76.2
	4년제 대학 졸업	52	30.4	119	69.6	31	18.1	140	81.9
	대학원 졸업	9	40.9	13	59.1	5	22.7	17	77.3
	기타 무응답	5	55.6	4	44.4	2	18.2	9	81.8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4	20.0	16	80.0	4	20.0	16	80.0
	200~300만원 미만	13	44.8	16	55.2	5	17.2	24	82.8
	300~400만원 미만	18	34.0	35	66.0	11	20.8	42	79.2
	400~600만원 미만	19	41.3	27	58.7	11	23.9	35	76.1
	600만원 이상	21	24.4	65	75.6	15	17.4	71	82.6

〈표 1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다중직업 여부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프리랜서 이외에 다중직업 여부	합계	234	100.0
	하고 있음	101	43.2
	하고 있지 않음	133	56.8
다른 일을 하는 주된 이유	합계	101	100.0
	주된 프리랜서 일자리만으로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43	42.6
	현재 주되게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소득이 불규칙해서	25	24.8
	프리랜서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16	15.8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4	4.0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로는 직업 전망이 없어서	5	5.0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 외에 다른 경험을 쌓고 싶어서	8	7.9
	기타	0	0

〈표 1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인권침해 경험 여부				인권침해 사례유형(복수응답)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기타 괴롭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8	16.2	196	83.8	22	42.3	9	17.3	5	9.6	6	11.5	10	19.2
성별	남성	30	16.8	149	83.2	19	48.7	5	12.8	4	10.3	4	10.3	7	17.9
	여성	8	14.5	47	85.5	3	23.1	4	30.8	1	7.7	2	15.4	3	23.1
연령	20대	6	22.2	21	77.8	3	30.0	3	30.0	2	20.0	1	10.0	1	10.0
	30대	13	20.0	52	80.0	7	33.3	6	28.6	2	9.5	5	23.8	1	4.8
	40대	9	12.3	64	87.7	5	55.6	0	0	1	11.1	0	0	3	33.3
	50대	9	16.1	47	83.9	7	63.6	0	0	0	0	0	0	4	36.4
	60대 이상	1	7.7	12	92.3	0	0	0	0	0	0	0	0	1	10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	18.2	9	81.8	1	50.0	1	50.0	0	0	0	0	0	0
	2~3년제 졸업	3	14.3	18	85.7	1	25.0	1	25.0	0	0	1	25.0	1	25.0
	4년제 대학 졸업	30	17.5	141	82.5	18	41.9	6	14.0	5	11.6	5	11.6	9	20.9
	대학원졸업	1	4.5	21	95.5	1	100.0	0	0	0	0	0	0	0	0
	기타-무응답	2	22.2	7	77.8	1	50.0	1	50.0	0	0	0	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3	15.0	17	85.0	2	66.7	0	0	0	0	0	0	1	33.3
	200~300만원 미만	3	10.3	26	89.7	2	66.7	0	0	0	0	0	0	1	33.3
	300~400만원 미만	9	17.0	44	83.0	5	33.3	4	26.7	2	13.3	3	20.0	1	6.7
	400~600만원 미만	11	23.9	35	76.1	7	63.6	1	9.1	1	9.1	0	0	2	18.2
	600만원 이상	12	14.0	74	86.0	6	30.0	4	20.0	2	10.0	3	15.0	5	25.0

〈표 1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과 시점(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중도하차 경험				중도하차 시점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약 전		계약 직후		계약 기간 이행 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50	21.4	184	78.6	8	16.0	16	32.0	26	52.0
성별	남성	38	21.2	141	78.8	7	18.4	9	23.7	22	57.9
	여성	12	21.8	43	78.2	1	8.3	7	58.3	4	33.3
연령	20대	7	25.9	20	74.1	0	0	4	57.1	3	42.9
	30대	15	23.1	50	76.9	4	26.7	6	40.0	5	50.0
	40대	16	21.9	57	78.1	4	25.0	4	25.0	8	50.0
	50대	11	19.6	45	80.4	0	0	2	18.2	9	81.8
	60대 이상	1	7.7	12	92.3	0	0	0	0	1	10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	18.2	9	81.8	0	0	1	50.0	1	50.0
	2~3년제 졸업	7	33.3	14	66.7	0	0	2	28.6	5	71.4
	4년제 대학 졸업	34	19.9	137	80.1	6	17.6	11	32.4	17	50.0
	대학원졸업	5	22.7	17	77.3	0	0	2	40.0	3	60.0
	기타 무응답	2	22.2	7	77.8	2	22.0	0	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3	15.0	17	85.0	0	0	0	0	3	100.0
	200~300만원 미만	5	17.2	24	82.8	2	40.0	1	20.0	2	40.0
	300~400만원 미만	17	32.1	36	67.9	1	5.9	7	41.2	9	52.9
	400~600만원 미만	9	19.6	37	80.4	2	22.2	5	55.6	2	22.2
	600만원 이상	16	18.6	70	81.4	3	18.8	3	18.8	10	62.5

〈표 1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이유(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중도하차 이유(복수응답)											
		불합리한 업무지시		과도한 업무지시		열악한 작업환경		협업/소통 갈등		개인적 사유		계약 내용 외 업무지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9	16.7	31	27.2	20	17.5	14	12.3	11	9.6	19	16.7
성별	남성	15	17.0	26	29.5	15	17.0	10	11.4	8	9.1	14	15.9
	여성	4	15.4	5	19.2	5	19.2	4	15.4	3	11.5	5	19.2
연령	20대	2	10.0	6	30.0	1	5.0	5	25.0	3	15.0	3	15.0
	30대	6	17.1	9	25.7	9	25.7	3	8.6	4	11.4	4	11.4
	40대	7	21.2	8	24.2	7	21.2	2	6.1	2	6.1	7	21.2
	50대	3	13.0	7	30.4	3	13.0	4	17.4	2	8.7	4	17.4
	60대 이상	1	33.3	1	33.3	0	0	0	0	0	0	1	33.3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	0	1	16.7	1	16.7	2	33.3	1	16.7	1	16.7
	2~3년제 졸업	2	11.8	5	29.4	4	23.5	1	5.9	2	11.8	3	17.6
	4년제 대학 졸업	14	18.2	20	26.0	14	18.2	11	14.3	8	10.4	10	13.0
	대학원졸업	2	20.0	3	30.0	0	0	0	0	0	0	5	50.0
	기타 무응답	1	25.0	2	50.0	1	25.0	0	0	0	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	20.0	1	20.0	2	40.0	0	0	1	20.0	0	0
	200~300만원 미만	3	27.3	4	36.4	2	18.2	1	9.1	0	0	1	9.1
	300~400만원 미만	4	9.8	12	29.3	8	19.5	4	9.8	4	9.8	9	22.0
	400~600만원 미만	3	15.8	6	31.6	2	10.5	4	21.1	2	10.5	2	10.5
	600만원 이상	8	21.1	8	21.1	6	15.8	5	13.2	4	10.5	7	18.4

〈표 14〉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부당대우 인권침해 대처 방법 및 해결여부(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대처 방법(복수응답)										해결 여부								
	그냥 참고 넘김		발주처 등에 알림		공적기관 도움받음		관련 단체나 협회 도움 받음		법률 소송		개인적으로 처리		해결되지 않았음		해결되었음		현재 진행 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77	21.0	70	19.1	29	7.9	31	8.4	22	6.0	78	21.3	55	31.6	111	63.8	8	4.6	
성별																			
남성	68	23.9	50	17.5	18	6.3	22	7.7	14	4.9	66	23.2	41	31.1	87	65.9	4	3.0	
여성	9	11.0	20	24.4	11	13.4	9	11.0	8	9.8	12	14.6	14	33.3	24	57.1	4	9.5	
연령																			
20대	9	17.6	12	23.5	4	7.8	8	15.7	6	11.8	9	17.6	9	37.5	14	58.3	1	4.2	
30대	18	16.2	24	21.6	12	10.8	11	9.9	8	7.2	25	22.5	12	23.1	37	71.2	3	5.8	
40대	26	23.0	22	19.5	10	8.8	7	6.2	5	4.4	19	16.8	20	40.8	27	55.1	2	4.1	
50대	21	29.2	9	12.5	2	2.8	3	4.2	2	2.8	20	27.8	11	26.8	28	68.3	2	4.9	
60대 이상	3	15.0	3	15.0	1	5.0	2	10.0	1	5.0	5	25.0	3	37.5	5	62.5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	22.2	4	22.2	1	5.6	2	11.1	1	5.6	5	27.8	0	0	10	100.0	0	0	
2~3년제 졸업	6	20.7	1	3.4	2	6.9	3	10.3	2	6.9	8	27.6	4	28.6	9	64.3	1	7.1	
4년제 대학 졸업	58	21.2	54	19.7	24	8.8	21	7.7	17	6.2	55	20.1	43	34.1	78	61.9	5	4.0	
대학원졸업	6	19.4	7	22.6	1	3.2	3	9.7	1	3.2	8	25.8	6	35.3	10	58.8	1	5.9	
기타 무응답	3	20.0	4	26.7	1	6.7	2	13.3	1	6.7	2	13.3	2	28.6	4	57.1	11.1	14.3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6	20.0	5	16.7	1	3.3	1	3.3	3	10.0	11	36.7	5	29.4	12	70.6	0	0	
200~300만원 미만	11	24.4	5	11.1	3	6.7	3	6.7	5	11.1	10	22.2	12	57.1	9	42.9	0	0	
300~400만원 미만	14	16.1	16	18.4	10	11.5	9	10.3	4	4.6	19	21.8	9	23.7	26	68.4	3	7.9	
400~600만원 미만	14	20.3	20	29.0	4	5.8	9	13.0	4	5.8	10	14.5	14	36.8	24	63.2	0	0	
600만원 이상	32	23.5	23	17.6	11	8.1	9	6.6	6	4.4	28	20.6	15	25.0	40	66.7	5	8.3	

〈표 15〉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협업능력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대인관계 관리능력		디지털 활용능력		협상 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		강의 및 발표능력		문서작성능력		행정 사무 능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54	23.1	95	4.06	37	15.8	19	9.1	14	6.0	11	4.7	2	0.9	1	0.4	1	0.4		
성별	남성	47	26.3	75	41.9	25	14.0	10	5.6	10	5.6	8	4.5	2	1.1	1	0.6	1	0.6	
	여성	7	12.7	20	36.4	12	21.8	9	16.4	4	7.3	3	5.5	0	0	0	0	0	0	
연령	20대	4	14.8	14	51.9	7	25.9	1	3.7	0	0	1	3.7	0	0	0	0	0	0	
	30대	15	23.1	19	29.2	10	15.4	7	10.8	7	10.8	6	9.2	0	0	1	1.5	0	0	
	40대	21	28.8	27	37.0	8	11.0	9	12.3	4	5.5	2	2.7	1	1.4	0	0	1	1.4	
	50대	11	19.6	28	50.0	10	17.9	2	3.6	3	5.4	2	3.6	0	0	0	0	0	0	0
	60대 이상	3	23.1	7	53.8	2	15.4	0	0	0	0	0	0	1	7.7	0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	18.2	4	36.4	2	18.2	2	18.2	1	9.1	0	0	0	0	0	0	0	0	
	2~3년제 졸업	6	28.6	8	38.1	6	28.6	0	0	1	4.8	0	0	0	0	0	0	0	0	
	4년제 대학 졸업	41	24.0	70	40.9	25	14.6	15	8.8	8	4.7	9	5.3	1	0.6	1	0.6	1	0.6	
	대학원졸업	2	9.1	9	40.9	3	13.6	2	9.1	3	13.6	2	9.1	1	4.5	0	0	0	0	
소득 수준	기타 무응답	3	33.3	4	44.4	1	11.1	0	0	1	11.1	0	0	0	0	0	0	0	0	
	200만원 미만	4	20.0	9	45.0	2	10.0	3	15.0	1	5.0	1	5.0	0	0	0	0	0	0	
	200~300만원 미만	10	34.5	6	20.7	9	31.0	1	3.4	2	6.9	0	0	0	0	1	3.4	0	0	
	300~400만원 미만	10	18.9	21	39.6	6	11.3	7	13.2	4	7.5	4	7.5	1	1.9	0	0	0	0	
	400~600만원 미만	12	26.1	18	39.1	5	10.9	4	8.7	3	6.5	3	6.5	1	2.2	0	0	0	0	
600만원 이상	18	20.9	41	47.7	15	17.4	4	4.7	4	4.7	3	3.5	0	0	0	0	1	1.2		

〈표 16〉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교육훈련 참여와 총 시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교육훈련 참여 여부	합계	234	100.0
	경험 있음	74	31.6
	경험 없음	160	68.4
교육훈련 총시간	합계	74	100.0
	20시간 미만	35	47.3
	20시간~40시간 미만	20	27.0
	40시간~60시간 미만	10	13.5
	60시간~100시간 미만	4	5.4
	100시간~200시간 미만	3	4.1
	200시간 이상	2	2.7

〈표 17〉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과정별 이수 시간 및 훈련기관(대표과정 3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28	100.0
교육훈련 시간	10시간 미만	77	60.2
	10시간~20시간 미만	25	19.5
	20시간~30시간 미만	8	6.3
	30시간~40시간 미만	9	7.0
	40시간 이상	9	7.0
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	25	19.5
	서울시 기술교육원/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	20	15.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	8.6
	관련 분야 협회 등	20	15.6
	일반학원	16	12.5
	온라인 강의	33	25.8
	기타	3	2.3

〈표 18〉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역량 향상 효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74	100.0
전혀 도움 되지 않았음	0	0
도움 되지 않았음	6	8.1
보통	16	21.6
도움이 되었음	49	66.2
매우 도움이 되었음	3	4.1

〈표 19〉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4	1.7	25	10.7	122	52.1	83	35.0	0	0	
성별	남성	3	1.7	20	11.2	94	52.5	62	34.6	0	0
	여성	1	1.8	5	9.1	28	50.9	21	38.2	0	0
연령	20대	0	0	1	3.7	12	44.4	14	51.9	0	0
	30대	0	0	1	1.5	30	46.2	34	52.3	0	0
	40대	2	2.7	11	15.1	42	57.5	18	24.7	0	0
	50대	2	3.6	10	17.9	32	57.1	12	21.4	0	0
	60대 이상	0	0	2	15.4	6	46.2	5	38.5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	0	0	0	9	81.8	2	18.2	0	0
	2~3년제 졸업	0	0	4	19.0	14	66.7	3	14.3	0	0
	4년제 대학 졸업	4	2.3	20	11.7	82	48.0	65	38.0	0	0
	대학원졸업	0	0	1	4.5	13	59.1	8	36.4	0	0
	기타 무응답	0	0	0	0	4	44.4	5	55.6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	5.0	3	15.0	15	75.0	1	5.0	0	0
	200~300만원 미만	0	0	2	6.9	17	58.6	10	34.5	0	0
	300~400만원 미만	1	1.9	6	11.3	28	52.8	18	34.0	0	0
	400~600만원 미만	0	0	2	4.3	21	45.7	23	50.0	0	0
	600만원 이상	2	2.3	12	14.0	41	47.7	31	36.0	0	0

〈표 2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경력 증빙 용도(목적) 및 인정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75	100.0
경력 증빙 용도(목적)	공공기관 제출용 (지원사업 신청 등)	53	30.3
	금융기관 제출용	25	14.3
	어린이집 등 지원신청 (입소대기신청 취업자 증빙용)	7	4.0
	일감 수주	67	38.3
	취업용	22	12.6
	기타	1	0.6
	경력 증빙자료 인정 정도	인정받지 못함	14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		126	72.0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음 (대출한도 등)		27	15.4
제출하지 않음		8	4.6

〈표 21〉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경력 증빙자료 미보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59	100.0
경력 증빙할 상황이 없어서	13	22.0
경력 증빙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서	19	32.2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13	22.0
경력증빙자료가 인쇄물 형태로 보관이 어려워서	13	22.0
기타	1	1.7

〈표 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경력증빙서류 요청 시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서류 요청 시 어려웠던 경험	합계	234	100.0
	있음	81	34.6
	없음	153	65.4
어려움의 이유 (복수응답)	합계	167	100.0
	경력증빙서류를 발급해줘야 할 기존 발주처의 폐업 혹은 관련 담당자의 퇴사	34	20.4
	발주처에 경력증빙서류 발급 요청을 말하기 어려워서	36	21.6
	발주처에서 별도 서류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36	21.6
	발주처와 구두 계약으로 일해서 경력증빙을 증빙받기 어려워서	22	13.2
	발주처에서 경력증빙 확인서 발급 자체를 꺼려서	30	18.0
	발주처의 문서폐기 규정에 따라, 경력증빙 관련 서류들을 폐기해서	9	5.4

〈표 23〉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에스프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발급 건당 일정액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54	23.1	76	32.5	95	40.6	9	3.8
성별	남성	45	25.1	57	31.8	70	39.1	7	3.9
	여성	9	16.4	19	34.5	25	45.5	2	3.6
연령	20대	4	14.8	14	51.9	9	33.3	0	0
	30대	19	29.2	24	36.9	20	30.8	2	3.1
	40대	21	28.8	19	26.0	31	42.5	2	2.7
	50대	5	8.9	15	26.8	31	55.4	5	8.9
	60대 이상	5	38.5	4	30.8	4	30.8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	36.4	2	18.2	5	45.5	0	0
	2~3년제 졸업	3	14.3	7	33.3	11	52.4	0	0
	4년제 대학 졸업	38	22.2	57	33.3	67	39.2	9	5.3
	대학원졸업	6	27.3	7	31.8	9	40.9	0	0
	기타 무응답	3	33.3	3	33.3	3	33.3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3	15.0	4	20.0	12	60.0	1	5.0
	200~300만원 미만	4	13.8	11	37.9	14	48.3	0	0
	300~400만원 미만	13	24.5	21	39.6	19	35.8	0	0
	400~600만원 미만	16	34.8	14	30.4	16	34.8	0	0
	600만원 이상	18	20.9	26	30.2	34	39.5	8	9.3

〈표 2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다중직업 여부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프리랜서 이외에 다중직업 여부	합계	256	100.0
	하고 있음	113	44.1
	하고 있지 않음	143	55.9
다른 일을 하는 주된 이유	합계	113	100.0
	주된 프리랜서 일자리만으로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48	42.5
	현재 주되게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소득이 불규칙해서	25	22.1
	프리랜서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21	18.6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3	2.7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는 직업 전망이 없어서	4	3.5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 외에 다른 경험을 쌓고 싶어서	12	10.6
	기타	0	0

〈표 25〉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및 보수 미수금 경험(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일방적인 계약변경 경험				보수 미수금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73	28.5	183	71.5	31	12.1	225	87.9
성별	남성	28	31.5	61	68.5	14	15.7	75	84.3
	여성	45	26.9	122	73.1	17	10.2	150	89.8
연령	20대	3	17.6	14	82.4	3	17.6	14	82.4
	30대	24	38.7	38	61.3	10	16.1	52	83.9
	40대	23	26.7	63	73.3	11	12.8	75	87.2
	50대	17	23.3	56	76.7	6	8.2	67	91.8
	60대 이상	6	33.3	12	66.7	1	5.6	17	94.4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	12.5	7	87.5	1	12.5	7	87.5
	2~3년제 졸업	8	57.1	6	42.9	1	7.1	13	92.9
	4년제 대학 졸업	44	28.0	113	72.0	17	10.8	140	89.2
	대학원졸업	17	24.3	53	75.7	9	12.9	61	87.1
	기타 무응답	3	42.9	4	57.1	3	42.9	4	57.1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7	17.9	78	82.1	3	3.2	92	96.8
	200~300만원 미만	22	30.6	50	69.4	12	16.7	60	83.3
	300~400만원 미만	11	29.7	26	70.3	6	16.2	31	83.8
	400~600만원 미만	12	32.4	25	67.6	6	16.2	31	83.8
	600만원 이상	11	73.3	4	26.7	4	26.7	11	73.3

〈표 26〉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인권침해 경험 여부				인권침해 사례유형(복수응답)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기타 괴롭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1	12.1	225	87.9	17	54.8	5	16.1	8	25.8	3	9.7	6	19.4
성별	남성	14	15.7	75	84.3	8	50.0	2	12.5	4	25.0	1	6.3	1	6.3
	여성	17	10.2	150	89.8	9	39.1	3	13.0	4	17.4	2	8.7	5	21.7
연령	20대	1	5.9	16	94.1	0	0	0	0	0	0	1	100.0	0	0
	30대	12	19.4	50	80.6	6	37.5	4	25.0	5	31.3	1	6.3	0	0
	40대	12	14.0	74	86.0	6	40.0	1	6.7	3	20.0	1	6.7	4	26.7
	50대	6	8.2	67	91.8	5	71.4	0	0	0	0	0	0	2	28.6
	60대 이상	0	0	18	100.0	0	0	0	0	0	0	0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	12.5	7	87.5	0	0	1	100.0	0	0	0	0	0	0
	2~3년제 졸업	0	0	14	100.0	0	0	0	0	0	0	0	0	0	0
	4년제 대학 졸업	25	15.9	132	84.1	15	50.0	3	10.0	5	16.7	1	3.3	6	20.0
	대학원졸업	3	4.3	67	95.7	2	33.3	1	16.7	1	16.7	2	33.3	0	0
	기타 무응답	2	28.6	5	71.4	0	0	0	0	2	100.0	0	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	7.4	88	92.6	4	50.0	0	0	2	25.0	0	0	2	25.0
	200~300만원 미만	6	8.3	66	91.7	5	83.3	0	0	0	0	1	16.7	0	0
	300~400만원 미만	4	10.8	33	89.2	2	50.0	1	25.0	0	0	0	0	1	25.0
	400~600만원 미만	9	24.3	28	75.7	2	14.3	3	21.4	4	28.6	2	14.3	3	21.4
	600만원 이상	5	33.3	10	66.7	4	57.1	1	14.3	2	28.6	0	0	0	0

〈표 27〉 문라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과 시점(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중도하차 경험				중도하차 시점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약 전		계약 직후		계약 기간 이행 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48	18.8	208	81.3	7	14.6	11	22.9	30	62.5
성별	남성	15	16.9	74	83.1	0	0	3	20.0	12	80.0
	여성	33	19.8	134	80.2	7	21.2	8	24.2	18	54.5
연령	20대	0	0	17	100.0	0	0	0	0	0	0
	30대	17	27.	45	72.6	3	17.6	7	41.2	7	41.2
	40대	15	17.4	71	82.6	1	6.7%	2	13.3	12	80.0
	50대	13	17.8	60	82.2	1	7.7	2	15.4	10	76.9
	60대 이상	3	16.7	15	83.3	2	66.7	0	0	1	33.3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	12.5	7	87.5	0	0	1	100.0	0	0
	2~3년제 졸업	1	7.1	13	92.9	1	100.0	0	0	0	0
	4년제 대학 졸업	35	22.3	122	77.7	6	17.1	8	22.9	21	60.0
	대학원졸업	10	14.3	60	85.7	0	0	1	10.0	9	90.0
	기타 무응답	1	14.3	6	85.7	0	0	1	100.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	13.7	82	86.3	2	15.4	3	23.1	8	61.5
	200~300만원 미만	12	16.7	60	83.3	2	16.7	1	8.3	9	75.0
	300~400만원 미만	9	24.3	28	75.7	1	11.1	1	11.1	7	77.8
	400~600만원 미만	7	18.9	30	81.1	1	14.3	2	28.6	4	57.1
	600만원 이상	7	46.7	8	53.3	1	14.3	4	57.1	2	28.6

〈표 28〉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이유(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중도하차 이유(복수응답)													
		불합리한 업무지시		과도한 업무지시		열악한 작업환경		협업/소통 갈등		개인적 사유		계약 내용 외 업무지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7	17.0	23	23.0	16	16.0	15	15.0	10	10.0	17	17.0	2	2.0
성별	남성	3	10.3	8	27.6	5	17.2	4	13.8	5	17.2	4	13.8	0	0
	여성	14	19.7	15	21.1	11	15.5	11	15.5	5	7.0	13	18.3	2	2.8
연령	20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대	8	19.5	11	26.8	8	19.5	4	9.8	4	9.8	6	14.6	0	0
	40대	4	13.8	4	13.8	5	17.2	8	27.6	1	3.4	7	24.1	0	0
	50대	4	18.2	6	27.3	2	9.1	2	9.1	4	18.2	2	9.1	2	9.1
	60대 이상	1	12.5	2	25.0	1	12.5	1	12.5	1	12.5	2	25.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	100.0	0	0	0	0	0	0	0	0	0	0	0	0
	2~3년제 졸업	0	0	0	0	0	0	1	100.0	0	0	0	0	0	0
	4년제 대학 졸업	14	18.9	16	21.6	12	16.2	10	13.5	8	10.8	13	17.6	1	1.4
	대학원졸업	1	4.8	6	28.6	3	14.3	4	19.0	2	9.5	4	19.0	1	4.8
	기타 무응답	1	33.3	1	33.3	1	33.3	0	0	0	0	0	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4	15.4	5	19.2	4	15.4	4	15.4	3	11.5	4	15.4	2	7.7
	200~300만원 미만	6	24.0	5	20.0	5	20.0	2	8.0	2	8.0	5	20.0	0	0
	300~400만원 미만	4	28.6	3	21.4	1	7.1	3	21.4	0	0	3	21.4	0	0
	400~600만원 미만	0	0	3	20.0	2	13.3	3	20.0	2	13.3	5	33.3	0	0
	600만원 이상	3	15.0	7	35.0	4	20.0	3	15.0	3	15.0	0	0	0	0

〈표 29〉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 및 해결여부(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대처 방법(복수응답)												해결 여부						
	그냥 참고 넘김		발주처 등에 알림		공작기관 도움받음		관련 단체나 협회 도움 받음		법률 소송		개인적으로 처리		해결되지 않았음		해결되었음		현재 진행 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92	27.2	36	10.7	20	5.9	15	4.4	11	3.3	80	23.7	61	35.5	104	60.5	7	4.1	
성별																			
남성	31	24.0	14	10.9	14	10.9	6	4.7	8	6.2	32	24.8	19	29.2	42	64.6	4	6.2	
여성	61	29.2	22	10.5	6	2.9	9	4.3	3	1.4	48	23.0	42	39.3	62	57.9	3	2.8	
연령																			
20대	6	27.3	7	31.8	1	4.5	0	0	0	0	5	22.7	3	21.4	9	64.3	2	14.3	
30대	22	24.7	12	13.5	8	9.0	6	6.7	5	5.6	19	21.3	16	35.6	29	64.4	0	0	
40대	31	27.7	7	6.3	8	7.1	6	5.4	5	4.5	27	24.1	21	36.2	34	58.6	3	5.2	
50대	26	27.7	9	9.6	2	2.1	2	2.1	1	1.1	24	25.5	18	41.9	23	53.5	2	4.7	
60대 이상	7	33.3	1	4.8	1	4.8	1	4.8	0	0	5	23.8	3	25.0	9	75.0	0	0	
고졸 이하	0	0	2	18.2	2	18.2	2	18.2	1	9.1	0	0	0	0	4	100.0	0	0	
2~3년제 졸업	9	50.0	1	5.6	1	5.6	0	0	0	0	3	16.7	6	60.0	3	0.0	1	10.0	
4년제 대학 졸업	58	27.9	20	9.6	13	6.3	11	5.3	9	4.3	50	24.0	37	33.6	68	61.8	5	4.5	
대학원졸업	23	25.3	10	11.0	4	4.4	2	2.2	1	1.1	23	25.3	18	42.9	23	54.8	1	2.4	
기타 무응답	2	20.0	3	30.0	0	0	0	0	0	0	4	40.0	0	0	6	100.0	0	0	
200만원 미만	33	28.9	9	7.9	1	0.9	1	0.9	0	0	26	22.8	23	45.1	27	52.9	1	2.0	
200~300만원 미만	27	28.1	11	11.5	6	6.3	5	5.2	1	1.0	25	26.0	14	27.5	34	66.7	3	5.9	
300~400만원 미만	16	35.6	4	8.9	2	4.4	3	6.7	0	0	10	22.2	12	44.4	14	51.9	1	3.7	
400~600만원 미만	12	24.5	7	14.3	3	6.1	3	6.1	3	6.1	12	24.5	9	32.1	17	60.7	2	7.1	
600만원 이상	4	11.8	5	14.7	8	23.5	3	8.8	7	20.6	7	20.6	3	20.0	12	80.0	0	0	

〈표 30〉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협업능력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대인관계 관리능력		디지털 활용능력		협상 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		강의 및 발표능력		문서작성 능력		행정 사무 능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8	10.9	118	46.1	47	18.4	16	6.3	14	5.5	11	4.3	19	7.4	2	0.8	1	0.4	
성별	남성	7	7.9	42	47.2	15	16.9	5	5.6	7	7.9	7	7.9	5	5.6	1	1.1	0	0
	여성	21	12.6	76	45.5	32	19.2	11	6.6	7	4.2	4	2.4	14	8.4	1	0.6	1	0.6
연령	20대	4	23.5	5	29.4	5	29.4	2	11.8	1	5.9	0	0	0	0	0	0	0	0
	30대	9	14.5	24	38.7	15	24.2	5	8.1	2	3.2	3	4.8	3	4.8	1	1.6	0	0
	40대	6	7.0	41	47.7	15	17.4	5	5.8	8	9.3	5	5.8	5	5.8	0	0	1	1.2
	50대	8	11.0	42	57.5	9	12.3	2	2.7	3	4.1	2	2.7	6	8.2	1	1.4	0	0
	60대 이상	1	5.6	6	33.3	3	16.7	2	11.1	0	0	1	5.6	5	27.8	0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	12.5	2	25.0	1	12.5	1	12.5	0	0	1	12.5	2	25.0	0	0	0	0
	2~3년제 졸업	1	7.1	4	28.6	5	35.7	1	7.1	0	0	1	7.1	2	14.3	0	0	0	0
	4년제 대학 졸업	17	10.8	66	42.0	32	20.4	11	7.0	12	7.6	8	5.1	9	5.7	2	1.3	0	0
	대학원졸업	8	11.4	42	60.0	8	11.4	3	4.3	1	1.4	1	1.4	6	8.6	0	0	1	1.4
	기타 무응답	1	14.3	4	57.1	1	14.3	0	0	1	14.3	0	0	0	0	0	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6	6.3	50	52.6	19	20.0	4	4.2	4	4.2	1	1.1	10	10.5	0	0	1	1.1
	200~300만원 미만	9	12.5	30	41.7	15	20.8	3	4.2	5	6.9	4	5.6	5	6.9	1	1.4	0	0
	300~400만원 미만	8	21.6	18	48.6	4	10.8	2	5.4	0	0	3	8.1	1	2.7	1	2.7	0	0
	400~600만원 미만	2	5.4	16	43.2	6	16.2	4	10.8	4	10.8	2	5.4	3	8.1	0	0	0	0
	600만원 이상	3	20.0	4	26.7	3	20.0	3	20.0	1	6.7	1	6.7	0	0	0	0	0	0

〈표 31〉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교육훈련 참여와 총 시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교육훈련 참여 여부	합계	256	100.0
	경험 있음	94	36.7
	경험 없음	162	63.3
교육훈련 총시간	합계	94	100.0
	20시간 미만	42	44.7
	20시간~40시간 미만	20	21.3
	40시간~60시간 미만	17	18.1
	60시간~100시간 미만	5	5.3
	100시간~200시간 미만	8	8.5
	200시간 이상	2	2.1

〈표 32〉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과정별 이수 시간 및 훈련기관(대표과정 3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01	100.0
교육훈련 시간	10시간 미만	128	63.7
	10시간~20시간 미만	35	17.4
	20시간~30시간 미만	18	9.0
	30시간~40시간 미만	6	3.0
	40시간 이상	14	7.0
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	9	4.5
	서울시 기술교육원/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	42	20.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	2.5
	관련 분야 협회 등	43	21.4
	일반학원	8	4.0
	온라인 강의	79	39.3
	기타	15	7.5

〈표 33〉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역량 향상 효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94	100.0
전혀 도움 되지 않았음	0	0
도움 되지 않았음	6	6.4
보통	24	25.5
도움이 되었음	54	57.4
매우 도움이 되었음	10	10.6

〈표 3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6	2.3	33	12.9	168	65.6	48	18.8	1	0.4	
성별	남성	1	1.1	12	13.5	62	69.7	13	14.6	1	1.1
	여성	5	3.0	21	12.6	106	63.5	35	21.0	0	0
연령	20대	0	0	0	0	12	70.6	5	29.4	0	0
	30대	2	3.2	7	11.3	40	64.5	13	21.0	0	0
	40대	2	2.3	13	15.1	53	61.6	18	20.9	0	0
	50대	0	0	12	16.4	50	68.5	10	13.7	1	1.4
	60대 이상	2	11.1	1	5.6	13	72.2	2	11.1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	0	1	12.5	7	87.5	0	0	0	0
	2~3년제 졸업	0	0	4	28.6	9	64.3	1	7.1	0	0
	4년제 대학 졸업	5	3.2	23	14.6	99	63.1	30	19.1	0	0
	대학원졸업	1	1.4	5	7.1	47	67.1	16	22.9	1	1.4
	기타 무응답	0	0	0	0	6	86.7	1	14.3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	2.1	17	17.9	63	66.3	13	13.7	0	0
	200~300만원 미만	4	5.6	7	9.7	48	66.7	13	18.1	0	0
	300~400만원 미만	0	0	3	8.1	25	67.6	8	21.6	1	2.7
	400~600만원 미만	0	0	6	16.2	21	56.8	10	27.0	0	0
	600만원 이상	0	0	0	0	11	73.3	4	26.7	0	0

〈표 35〉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경력 증빙 용도(목적) 및 인정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87	100.0
경력 증빙 용도(목적)	공공기관 제출용 (지원사업 신청 등)	46	24.6
	금융기관 제출용	15	8.0
	어린이집 등 지원신청 (입소대기신청 취업자 증빙용)	11	5.9
	일감 수주	64	34.2
	취업용	50	26.7
	기타	1	0.5
경력 증빙자료 인정 정도	인정받지 못함	6	3.2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	115	61.5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음 (대출한도 등)	41	21.9
	제출하지 않음	25	13.4

〈표 36〉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경력 증빙자료 미보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69	100.0
경력 증빙할 상황이 없어서	10	14.5
경력 증빙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서	32	46.4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9	13.0
경력증빙자료가 인쇄물 형태로 보관이 어려워서	18	26.1
기타	0	0

〈표 37〉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경력증빙서류 요청 시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서류 요청 시 어려웠던 경험	합계	256	100.0
	있음	67	26.2
	없음	189	73.8
어려움의 이유 (복수응답)	합계	109	100.0
	경력증빙서류를 발급해줘야 할 기존 발주처의 폐업 혹은 관련 담당자의 퇴사	21	19.3
	발주처에 경력증빙서류 발급 요청을 말하기 어려워서	21	19.3
	발주처에서 별도 서류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19	17.4
	발주처와 구두 계약으로 일해서 경력증빙을 증빙받기 어려워서	21	19.3
	발주처에서 경력증빙 확인서 발급 자체를 꺼려서	20	18.3
	발주처의 문서폐기 규정에 따라, 경력증빙 관련 서류들을 폐기해서	7	6.4

〈표 38〉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의 에스크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발급 건당 일정액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72	28.1	64	25.0	111	43.4	9	3.5
성별	남성	31	34.8	29	32.6	27	30.3	2	2.2
	여성	41	24.6	35	21.0	84	50.3	7	4.2
연령	20대	4	23.5	4	23.5	9	52.9	0	0
	30대	28	45.2	18	29.0	14	22.6	2	3.2
	40대	21	24.4	17	19.8	43	50.0	5	5.8
	50대	14	19.2	20	27.4	37	50.7	2	2.7
	60대 이상	5	27.8	5	27.8	8	44.4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	25.0	1	12.5	5	62.5	0	0
	2~3년제 졸업	3	21.4	3	21.4	7	50.0	1	7.1
	4년제 대학 졸업	48	30.6	41	26.1	62	39.5	6	3.8
	대학원졸업	16	22.9	17	24.3	35	50.0	2	2.9
	기타 무응답	3	42.9	2	28.6	2	28.6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4	25.3	17	17.9	48	50.5	6	6.3
	200~300만원 미만	19	26.4	18	25.0	32	44.4	3	4.2
	300~400만원 미만	14	37.8	10	27.0	13	35.1	0	0
	400~600만원 미만	11	29.7	13	35.1	13	35.1	0	0
	600만원 이상	4	26.7	6	40.0	5	33.3	0	0

〈표 39〉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다중직업 여부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프리랜서 이외에 다중직업 여부	합계	153	100.0
	하고 있음	74	48.4
	하고 있지 않음	79	51.6
다른 일을 하는 주된 이유	합계	74	100.0
	주된 프리랜서 일자리만으로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29	39.2
	현재 주되게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소득이 불규칙해서	18	24.3
	프리랜서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13	17.6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1	1.4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는 직업 전망이 없어서	2	2.7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 외에 다른 경험을 쌓고 싶어서	10	13.5
	기타	1	1.4

〈표 4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및 보수 미수금 경험(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일방적인 계약변경 경험				보수 미수금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47	30.7	106	69.3	32	20.9	121	79.1
성별	남성	24	44.4	30	55.6	15	27.8	39	72.2
	여성	23	23.2	76	76.8	17	17.2	82	82.8
연령	20대	6	46.2	7	53.8	4	30.8	9	69.2
	30대	16	31.4	35	68.6	7	13.7	44	86.3
	40대	14	28.6	35	71.4	9	18.4	40	81.6
	50대	5	20.0	20	80.0	7	28.0	18	72.0
	60대 이상	6	40.0	9	60.0	5	33.3	10	66.7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	28.6	5	71.4	2	28.6	5	71.4
	2~3년제 졸업	2	16.7	10	83.3	4	33.3	8	66.7
	4년제 대학 졸업	28	29.5	67	70.5	13	13.7	82	86.3
	대학원졸업	12	35.3	22	64.7	12	35.3	22	64.7
	기타 무응답	3	60.0	2	40.0	1	20.0	4	80.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	22.0	39	78.0	7	14.0	43	86.0
	200~300만원 미만	13	40.6	19	59.4	8	25.0	24	75.0
	300~400만원 미만	10	40.0	15	60.0	6	24.0	19	76.0
	400~600만원 미만	8	25.0	24	75.0	6	18.8	26	81.3
	600만원 이상	5	35.7	9	64.3	5	35.7	9	64.3

〈표 4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인권침해 경험 여부				인권침해 사례유형(복수응답)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기타 괴롭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2	7.8	141	92.2	5	29.4	2	11.8	6	35.3	1	5.9	3	17.6
성별	남성	5	9.3	49	90.7	0	0	1	14.3	3	42.9	1	14.3	2	29.6
	여성	7	7.1	92	92.9	5	50.0	1	10.0	3	30.0	0	0	1	14.3
연령	20대	1	7.7	12	92.3	0	0	0	0	1	50.0	1	50.0	0	0
	30대	5	9.8	46	90.2	1	14.3	1	14.3	3	42.9	0	0	2	28.6
	40대	4	8.2	45	91.8	3	50.0	1	16.7	2	33.3	0	0	0	0
	50대	2	8.0	23	92.0	1	50.0	0	0	0	0	0	0	1	50.0
	60대 이상	0	0	15	100.0	0	0	0	0	0	0	0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	0	7	100.0	0	0	0	0	0	0	0	0	0	0
	2~3년제 졸업	1	8.3	11	91.7	0	0	0	0	1	100.0	0	0	0	0
	4년제 대학 졸업	6	6.3	89	93.7	2	22.0	1	11.1	4	44.4	1	11.1	1	11.1
	대학원졸업	4	11.8	30	88.2	2	33.3	1	16.7	1	16.7	0	0	2	33.3
	기타 무응답	1	20.0	4	80.0	1	100.0	0	0	0	0	0	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	2.0	49	98.0	1	100.0	0	0	0	0	0	0	0	0
	200~300만원 미만	2	6.3	30	93.8	0	0	0	0	1	50.0	0	0	1	50.0
	300~400만원 미만	4	16.0	21	84.0	2	28.6	1	14.3	2	28.6	0	0	2	28.6
	400~600만원 미만	4	12.5	28	87.5	2	40.0	0	0	2	40.0	1	20.0	0	0
	600만원 이상	1	7.1	13	92.9	0	0	1	50.0	1	50.0	0	0	0	0

〈표 4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과 시점(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중도하차 경험				중도하차 시점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약 전		계약 직후		계약 기간 이행 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4	22.2	119	77.8	3	8.8	12	35.3	19	55.9
성별	남성	16	29.6	38	70.4	1	6.3	9	56.3	6	37.5
	여성	18	18.2	81	81.8	2	11.1	3	16.7	13	72.2
연령	20대	3	23.1	10	76.9	0	0	2	66.7	1	33.3
	30대	8	15.7	43	84.3	1	12.5	2	25.0	5	62.5
	40대	13	26.5	36	73.5	2	15.4	6	46.2	5	38.5
	50대	6	24.0	19	76.0	0	0	1	16.7	5	83.3
	60대 이상	4	26.7	11	73.3	0	0	1	25.0	3	75.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	14.3	6	85.7	0	0	0	0	1	100.0
	2~3년제 졸업	4	33.3	8	66.7	0	0	1	25.0	3	75.0
	4년제 대학 졸업	18	18.9	77	81.1	2	11.1	7	38.9	9	50.0
	대학원졸업	8	23.5	26	76.5	1	12.5	2	25.0	5	62.5
	기타 무응답	3	60.0	2	40.0	0	0	2	66.7	1	33.3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5	10.0	45	90.0	1	20.0	0	0	4	80.0
	200~300만원 미만	10	31.3	22	68.8	0	0	3	30.0	7	70.0
	300~400만원 미만	8	32.0	17	68.0	1	12.5	4	50.0	3	37.5
	400~600만원 미만	9	28.1	23	71.9	1	11.1	4	44.4	4	44.4
	600만원 이상	2	14.3	12	85.7	0	0	1	50.0	1	50.0

〈표 43〉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이유(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중도하차 이유(복수응답)													
		불합리한 업무지시		과도한 업무지시		열악한 작업환경		협업/소통 갈등		개인적 사유		계약 내용 외 업무지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5	19.2	16	20.5	15	19.2	14	17.9	3	3.8	12	15.4	3	3.8
성별	남성	7	16.7	9	21.4	10	23.8	9	21.4	1	2.4	6	14.3	0	0
	여성	8	22.2	7	19.4	5	13.9	5	13.9	2	5.6	6	16.7	3	8.3
연령	20대	1	12.5	1	12.5	3	37.5	1	12.5	1	12.5	1	12.5	0	0
	30대	3	23.1	2	15.4	2	15.4	5	38.5	1	7.7	0	0	0	0
	40대	8	22.2	9	25.0	7	19.4	6	16.7	0	0	6	16.7	0	0
	50대	1	7.7	3	23.1	2	15.4	2	15.4	1	7.7	2	15.4	2	15.4
	60대 이상	2	25.0	1	12.5	1	12.5	0	0	0	0	3	37.5	1	12.5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	0	1	50.0	0	0	0	0	0	0	1	50.0	0	0
	2~3년제 졸업	0	0	2	33.3	1	16.7	1	16.7	0	0	0	0	2	33.3
	4년제 대학 졸업	8	19.0	6	14.3	8	19.0	9	21.4	2	4.8	8	19.0	1	2.4
	대학원졸업	5	23.8	6	28.6	4	19.0	4	19.0	0	0	2	9.5	0	0
	기타 무응답	2	28.6	1	14.3	2	28.6	0	0	1	14.3	1	14.3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0	0	3	30.0	3	30.0	1	10.0	0	0	2	20.0	1	10.0
	200~300만원 미만	6	31.6	2	10.5	3	15.8	2	10.5	0	0	4	21.1	2	10.5
	300~400만원 미만	5	20.0	6	24.0	4	16.0	6	24.0	0	0	4	16.0	0	0
	400~600만원 미만	4	20.0	5	25.0	4	20.0	3	15.0	2	10.0	2	10.0	0	0
	600만원 이상	0	0	0	0	1	25.0	2	50.0	1	25.0	0	0	0	0

〈표 4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 및 해결 여부(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대처 방법(복수응답)												해결 여부						
	고양 참고 넘김		발주처 등에 알림		공작기관 도움받음		관련 단체나 협회 도움 받음		법률 소송		개인적으로 처리		해결되지 않았음		해결되었음		현재 진행 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56	26.9	16	7.7	15	7.2	12	5.8	7	3.4	57	27.4	44	40.7	58	53.7	6	5.6	
성별																			
남성	19	23.5	6	7.4	8	9.9	5	6.2	6	7.4	24	29.6	19	46.3	20	48.8	2	4.9	
여성	37	29.1	10	7.9	7	5.5	7	5.5	1	0.8	33	26.0	25	37.3	38	56.7	4	6.0	
연령																			
20대	5	27.8	0	0	2	11.1	0	0	1	5.6	4	22.2	5	71.4	2	28.6	0	0	
30대	21	30.9	4	5.9	7	10.3	4	5.9	5	7.4	12	17.6	16	44.4	18	50.0	2	5.6	
40대	15	21.4	9	12.9	6	8.6	5	7.1	1	1.4	23	32.9	11	28.9	24	63.2	3	7.9	
50대	7	26.9	0	0	0	0	0	0	0	0	10	38.5	6	37.5	10	62.5	0	0	
60대 이상	8	30.9	3	11.5	0	0	3	11.5	0	0	8	30.8	6	54.5	4	36.4	1	9.1	
교육 이하	2	18.2	1	9.1	0	0	1	9.1	1	9.1	5	45.5	1	16.7	4	66.7	1	16.7	
2~3년제 졸업	5	35.7	1	7.1	1	7.1	0	0	0	0	4	28.6	3	33.3	5	55.6	1	11.1	
4년제 대학 졸업	28	21.5	11	8.5	11	8.5	7	5.4	6	4.6	34	26.2	22	35.5	37	59.7	3	4.8	
대학원졸업	18	39.1	2	4.3	2	4.3	3	6.5	0	0	13	28.3	15	57.7	10	38.5	1	3.8	
기타 무응답	3	42.9	1	14.3	1	14.3	1	14.3	0	0	1	14.3	3	60.0	2	40.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4	23.0	3	4.9	1	1.6	2	3.3	0	0	22	36.1	12	38.7	17	54.8	2	6.5	
200~300만원 미만	17	34.7	5	10.2	3	6.1	3	6.1	3	6.1	12	24.5	11	42.3	14	53.8	1	3.8	
300~400만원 미만	13	41.9	1	3.2	1	3.2	1	3.2	0	0	6	19.4	11	68.8	4	25.0	1	6.3	
400~600만원 미만	7	14.9	4	8.5	8	17.0	5	10.6	3	6.4	11	23.4	7	30.4	15	65.2	1	4.3	
600만원 이상	5	25.0	3	15.0	2	10.0	1	5.0	1	5.0	6	30.0	3	25.0	8	66.7	1	8.3	

〈표 45〉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협업능력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대인관계 관리능력		디지털 활용능력		협상 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		강의 및 발표능력		문서작성 능력		행정 사무 능력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7	11.1	77	50.3	21	13.7	5	3.3	18	11.8	7	4.6	1	0.7	4	2.6	2	1.3	1	0.7	
성별	남성	9	16.7	21	38.9	10	18.5	3	5.6	6	11.1	0	0	1	1.9	2	3.7	2	3.7	0	0
	여성	8	8.1	56	56.6	11	11.1	2	2.0	12	12.1	7	7.1	0	0	2	2.0	0	0	1	1.0
연령	20대	1	7.7	2	15.4	4	30.8	3	23.1	2	15.4	0	0	0	0	1	7.7	0	0	0	0
	30대	4	7.8	26	51.0	6	11.8	1	2.0	6	11.8	5	9.8	0	0	1	2.0	1	2.0	1	2.0
	40대	7	14.3	26	53.1	8	16.3	0	0	6	12.2	1	2.0	1	2.0	0	0	0	0	0	0
	50대	4	16.0	12	48.0	3	12.0	1	4.0	3	12.0	1	4.0	0	0	0	0	1	4.0	0	0
	60대 이상	1	6.7	11	73.3	0	0	0	0	1	6.7	0	0	0	0	2	13.3	0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	14.3	4	57.1	2	28.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년제 졸업	1	8.3	9	75.0	2	16.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년제 대학 졸업	12	12.6	43	45.3	11	11.6	5	5.3	15	15.8	3	3.2	0	0	3	3.2	2	2.1	1	1.1
	대학원졸업	3	8.8	19	55.9	4	11.8	0	0	2	5.9	4	11.8	1	2.9	1	2.9	0	0	0	0
소득 수준	기타-무응답	0	0	2	40.0	2	40.0	0	0	1	20.0	0	0	0	0	0	0	0	0	0	0
	200만원 미만	6	12.0	29	58.0	4	8.0	3	6.0	4	8.0	2	4.0	0	0	0	0	2	4.0	0	0
	200~300만원 미만	1	3.1	15	46.9	5	15.6	0	0	6	18.8	2	6.3	0	0	2	6.3	0	0	1	3.1
	300~400만원 미만	4	16.0	14	56.0	2	8.0	1	4.0	1	4.0	2	8.0	0	0	1	4.0	0	0	0	0
	400~600만원 미만	6	18.8	13	40.6	6	18.8	1	3.1	3	9.4	1	3.1	1	3.1	1	3.1	0	0	0	0
600만원 이상	0	0	6	42.9	4	28.6	0	0	4	28.6	0	0	0	0	0	0	0	0	0	0	

〈표 46〉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교육훈련 참여와 총 시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교육훈련 참여 여부	합계	153	100.0
	경험 있음	27	17.6
	경험 없음	126	82.4
교육훈련 총시간	합계	27	100.0
	20시간 미만	11	40.7
	20시간~40시간 미만	11	40.7
	40시간~60시간 미만	4	14.8
	60시간~100시간 미만	0	0
	100시간~200시간 미만	0	0
	200시간 이상	1	3.7

〈표 47〉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과정별 이수 시간 및 훈련기관(대표과정 3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52	100.0
교육훈련 시간	10시간 미만	33	63.5
	10시간~20시간 미만	10	19.2
	20시간~30시간 미만	5	9.6
	30시간~40시간 미만	3	5.8
	40시간 이상	1	1.9
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	2	3.8
	서울시 기술교육원/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	11	21.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	3.8
	관련 분야 협회 등	14	26.9
	일반학원	1	1.9
	온라인 강의	22	42.3

〈표 48〉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역량 향상 효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27	100.0
전혀 도움 되지 않았음	0	0
도움 되지 않았음	2	7.4
보통	4	14.8
도움이 되었음	19	70.4
매우 도움이 되었음	2	7.4

〈표 49〉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5	3.3	23	15.0	93	60.8	30	19.6	2	1.3	
성별	남성	1	1.9	6	11.1	32	59.3	15	27.8	0	0
	여성	4	4.0	17	17.2	61	61.6	15	15.2	2	2.0
연령	20대	1	7.7	2	15.4	5	38.5	5	38.5	0	0
	30대	1	2.0	8	15.7	33	64.7	8	15.7	1	2.0
	40대	2	4.1	9	18.4	30	61.2	8	16.3	0	0
	50대	1	4.0	2	8.0	20	80.0	2	8.0	0	0
	60대 이상	0	0	2	13.3	5	33.3	7	46.7	1	6.7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	0	1	14.3	4	57.1	2	28.6	0	0
	2~3년제 졸업	3	25.0	2	16.7	6	50.0	1	8.3	0	0
	4년제 대학 졸업	0	0	14	14.7	58	61.1	23	24.2	0	0
	대학원졸업	1	2.9	5	14.7	23	67.6	4	11.8	1	2.9
	기타 무응답	1	20.0	1	20.0	2	40.0	0	0	1	20.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	4.0	10	20.0	33	66.0	5	10.0	0	0
	200~300만원 미만	1	3.1	7	21.9	18	56.3	6	18.8	0	0
	300~400만원 미만	0	0	4	16.0	14	56.0	7	28.0	0	0
	400~600만원 미만	0	0	2	6.3	20	62.5	9	28.1	1	3.1
	600만원 이상	2	14.3	0	0	8	57.1	3	21.4	1	7.1

〈표 50〉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경력 증빙 용도(목적) 및 인정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11	100.0
경력 증빙 용도(목적)	공공기관 제출용 (지원사업 신청 등)	27	24.3
	금융기관 제출용	9	8.1
	어린이집 등 지원신청 (입소대기신청 취업자 증빙용)	2	1.8
	일감 수주	57	51.4
	취업용	15	13.5
	기타	1	9
	경력 증빙자료 인정 정도	인정받지 못함	8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		55	49.5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음 (대출한도 등)		23	20.7
제출하지 않음		25	22.5

〈표 5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경력 증빙자료 미보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42	100.0
경력 증빙할 상황이 없어서	17	40.5
경력 증빙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서	12	28.6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3	7.1
경력증빙자료가 인쇄물 형태로 보관이 어려워서	7	16.7
기타	3	7.1

〈표 52〉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경력증빙서류 요청 시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서류 요청 시 어려웠던 경험	합계	153	100.0
	있음	60	39.2
	없음	93	60.8
어려움의 이유 (복수응답)	합계	112	100.0
	경력증빙서류를 발급해줘야 할 기존 발주처의 폐업 혹은 관련 담당자의 퇴사	22	19.6
	발주처에 경력증빙서류 발급 요청을 말하기 어려워서	28	25.0
	발주처에서 별도 서류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27	24.1
	발주처와 구두 계약으로 일해서 경력증빙을 증빙받기 어려워서	22	19.6
	발주처에서 경력증빙 확인서 발급 자체를 꺼려서	11	9.8
	발주처의 문서폐기 규정에 따라, 경력증빙 관련 서류들을 폐기해서	1	0.9
기타	1	0.9	

〈표 53〉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의 에스프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발급 건당 일정액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44	28.8	41	26.8	61	39.9	7	4.6
성별	남성	16	29.6	17	31.5	20	37.0	1	1.9
	여성	28	28.3	24	24.2	41	41.4	6	6.1
연령	20대	3	23.1	4	30.8	6	46.2	0	0
	30대	18	35.3	9	17.6	21	41.2	3	5.9
	40대	11	22.4	17	34.7	19	38.8	2	4.1
	50대	7	28.0	7	28.0	10	40.0	1	4.0
	60대 이상	5	33.3	4	26.7	5	33.3	1	6.7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	14.3	4	57.1	1	14.3	1	14.3
	2~3년제 졸업	5	41.7	2	16.7	5	41.7	0	0
	4년제 대학 졸업	23	24.2	28	29.5	40	42.1	4	4.2
	대학원졸업	12	35.3	6	17.6	14	41.2	2	5.9
	기타 무응답	3	60.0	1	20.0	1	20.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7	34.0	7	14.0	20	40.0	6	12.0
	200~300만원 미만	8	25.0	9	28.1	15	46.9	0	0
	300~400만원 미만	9	36.0	8	32.0	8	32.0	0	0
	400~600만원 미만	8	25.0	12	37.5	12	37.5	0	0
	600만원 이상	2	14.3	5	35.7	6	42.9	1	7.1

〈표 54〉 디자이너의 다중직업 여부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프리랜서 이외에 다중직업 여부	합계	165	100.0
	하고 있음	76	46.1
	하고 있지 않음	89	53.9
다른 일을 하는 주된 이유	합계	76	100.0
	주된 프리랜서 일자리만으로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27	35.5
	현재 주되게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소득이 불규칙해서	20	26.3
	프리랜서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17	22.4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1	1.3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는 직업 전망이 없어서	0	0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 외에 다른 경험을 쌓고 싶어서	9	11.8
기타	2	2.6	

〈표 55〉 디자이너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및 보수 미수금 경험(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일방적인 계약변경 경험				보수 미수금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55	33.3	110	66.7	39	23.6	126	76.4
성별	남성	15	23.1	50	76.9	14	21.5	51	78.5
	여성	40	40.0	60	60.0	25	25.0	75	75.0
연령	20대	6	35.3	11	64.7	4	23.5	13	76.5
	30대	20	38.5	32	61.5	12	23.1	40	76.9
	40대	19	35.2	35	64.8	11	20.4	43	79.6
	50대	10	31.3	22	68.8	11	34.4	21	65.6
	60대 이상	0	0	10	100.0	1	10.0	9	9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	27.3	8	72.7	1	9.1	10	90.9
	2~3년제 졸업	10	40.0	15	60.0	11	44.0	14	56.0
	4년제 대학 졸업	33	31.4	72	68.6	23	21.9	82	78.1
	대학원졸업	7	33.3	14	66.7	4	19.0	17	81.0
	기타 무응답	2	66.7	1	33.3	0	0	3	100.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0	27.0	27	73.0	9	24.3	28	75.7
	200~300만원 미만	16	36.4	28	63.6	8	18.2	36	81.8
	300~400만원 미만	10	31.3	22	68.8	11	34.4	21	65.6
	400~600만원 미만	16	47.1	18	52.9	10	29.4	24	70.6
	600만원 이상	3	16.7	15	83.3	1	5.6	17	94.4

〈표 56〉 디자이너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인권침해 경험 여부				인권침해 사례유형(복수응답)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기타 괴롭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2	13.3	143	86.7	15	53.6	2	7.1	9	32.1	1	3.6	1	3.6
성별	남성	6	9.2	59	90.8	2	28.6	1	14.3	3	42.9	1	14.3	0	0
	여성	16	16.0	84	84.0	13	61.9	1	4.8	6	28.6	0	0	1	4.8
연령	20대	1	5.9	16	94.1	1	50.0	0	0	1	50.0	0	0	0	0
	30대	10	19.2	42	80.8	6	46.2	2	15.4	4	30.8	0	0	1	7.7
	40대	8	14.8	46	85.2	5	55.6	0	0	3	33.3	1	11.1	0	0
	50대	3	9.4	29	90.6	3	75.0	0	0	1	25.0	0	0	0	0
	60대 이상	0	0	10	100.0	0	0	0	0	0	0	0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	0	11	100.0	0	0	0	0	0	0	0	0	0	0
	2~3년제 졸업	3	12.0	22	88.0	2	50.0	0	0	2	50.0	0	0	0	0
	4년제 대학 졸업	14	13.3	91	86.7	8	44.4	1	5.6	7	38.9	1	5.6	1	5.6
	대학원졸업	3	14.3	18	85.7	3	100.0	0	0	0	0	0	0	0	0
	기타 무응답	2	66.7	1	33.3	2	66.7	1	33.3	0	0	0	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	5.4	35	94.6	1	50.0	0	0	1	50.0	0	0	0	0
	200~300만원 미만	7	15.9	37	84.1	4	50.0	0	0	4	50.0	0	0	0	0
	300~400만원 미만	3	9.4	29	90.6	3	60.0	0	0	1	20.0	0	0	1	20.0
	400~600만원 미만	8	23.5	26	76.5	7	70.0	1	10.0	2	20.0	0	0	0	0
	600만원 이상	2	11.1	16	88.9	0	0	1	33.3	1	33.3	1	33.3	0	0

〈표 57〉 디자이너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과 시점(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중도하차 경험				중도하차 시점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약 전		계약 직후		계약 기간 이행 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43	26.1	122	73.9	8	18.6	6	14.0	29	67.4
성별	남성	15	23.1	50	76.9	2	13.3	2	13.3	11	73.3
	여성	28	28.0	72	72.0	6	21.4	4	14.3	18	64.3
연령	20대	4	23.5	13	76.5	0	0	1	25.0	3	75.0
	30대	18	34.6	34	65.4	3	16.7	4	22.2	11	61.1
	40대	14	25.9	40	74.1	5	35.7	0	0	9	64.3
	50대	7	21.9	25	78.1	0	0	1	14.3	6	85.7
	60대 이상	0	0	10	100.0	0	0	0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	27.3	8	72.7	1	33.3	0	0	2	66.7
	2~3년제 졸업	7	28.0	18	72.0	2	28.6	1	14.3	4	57.1
	4년제 대학 졸업	31	29.5	74	70.5	5	16.1	4	12.9	22	71.0
	대학원졸업	2	9.5	19	90.5	0	0	1	50.0	1	50.0
	기타 무응답	0	0	3	100.0	0	0	0	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0	27.0	27	73.0	2	20.0	1	10.0	7	70.0
	200~300만원 미만	16	36.4	28	63.6	3	18.8	2	12.5	11	68.8
	300~400만원 미만	6	18.8	26	81.3	1	16.7	0	0	5	83.3
	400~600만원 미만	8	23.5	26	76.5	1	12.5	3	37.5	4	50.0
	600만원 이상	3	16.7	15	83.3	1	33.3	0	0	2	66.7

〈표 58〉 디자이너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이유(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중도하차 이유(복수응답)											
		불합리한 업무지시		과도한 업무지시		열악한 작업환경		협업/소통 갈등		개인적 사유		계약 내용 외 업무지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8	20.7	23	26.4	10	11.5	18	20.7	7	8.0	11	12.6
성별	남성	6	19.4	8	25.8	5	16.1	6	19.4	3	9.7	3	9.7
	여성	12	21.4	15	26.8	5	8.9	12	21.4	4	7.1	8	14.3
연령	20대	3	30.0	3	30.0	1	10.0	1	10.0	1	10.0	1	10.0
	30대	7	20.6	10	29.4	4	11.8	9	26.5	2	5.9	2	5.9
	40대	6	18.8	8	25.0	4	12.5	5	15.6	4	12.5	5	15.6
	50대	2	18.2	2	18.2	1	9.1	3	27.3	0	27.3	3	27.3
	60대 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	16.7	2	33.3	1	16.7	1	16.7	1	16.7	0	0
	2~3년제 졸업	3	18.8	3	18.8	3	18.8	3	18.8	0	0	4	25.0
	4년제 대학 졸업	13	21.3	16	26.2	6	9.8	14	23.0	6	9.8	6	9.8
	대학원졸업	1	25.0	2	50.0	0	0	0	0	0	0	1	25.0
	기타 무응답	-	-	-	-	-	-	-	-	-	-	-	-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4	20.0	6	30.0	0	0	6	30.0	3	15.0	1	5.0
	200~300만원 미만	7	23.3	8	26.7	4	13.3	5	16.7	1	3.3	5	16.7
	300~400만원 미만	3	21.4	3	21.4	3	21.4	3	21.4	1	7.1	1	7.1
	400~600만원 미만	3	15.8	5	26.3	2	10.5	4	21.1	2	10.5	3	15.8
	600만원 이상	1	25.0	1	25.0	1	25.0	0	0	0	0	1	25.0

〈표 59〉 디자이너의 부당대우·인권침해 대처 방법 및 해결 여부(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대처 방법(복수응답)												해결 여부						
	고양 참고 넘김		발주처 등에 알림		공작기관 도움받음		관련 단체나 협회 도움 받음		법률 소송		개인적으로 처리		해결되지 않았음		해결되었음		현재 진행 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57	24.7	26	11.3	16	6.9	11	4.8	9	3.9	75	32.5	48	37.5	73	57.0	7	5.5	
성별																			
남성	18	19.4	10	10.8	6	6.5	3	3.2	4	4.3	32	34.4	14	31.1	30	66.7	1	2.2	
여성	39	28.3	16	11.6	10	7.2	8	5.8	5	3.6	43	31.2	34	41.0	43	51.8	6	7.2	
연령																			
20대	4	14.8	5	18.5	3	11.1	3	11.1	2	7.4	6	22.2	4	30.8	9	69.2	0	0	
30대	16	22.2	10	13.9	7	9.7	4	5.6	3	4.2	21	29.2	17	41.5	21	51.2	3	7.3	
40대	21	27.3	8	10.4	4	5.2	3	3.9	4	5.2	27	35.1	14	31.8	28	63.6	2	4.5	
50대	15	33.3	3	6.7	2	4.4	1	2.2	0	0	19	42.2	13	48.1	13	48.1	1	3.7	
60대 이상	1	10.0	0	0	0	0	0	0	0	0	2	20.0	0	0	2	66.7	1	33.3	
고졸 이하	3	23.1	0	0	0	0	0	0	0	0	7	53.8	3	37.5	5	62.5	0	0	
최종 학력																			
2~3년제 졸업	12	31.6	2	5.3	3	7.9	1	2.6	1	2.6	18	47.4	11	45.8	12	50.0	1	4.2	
4년제 대학 졸업	35	23.8	21	14.3	8	5.4	7	4.8	4	2.7	45	30.6	29	37.2	44	56.4	5	6.4	
대학원졸업	6	20.7	2	6.9	5	17.2	3	10.3	3	10.3	5	17.2	5	31.3	10	62.5	1	6.3	
기타 무응답	1	25.0	1	25.0	0	0	0	0	1	25.0	0	0	0	0	2	100.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4	28.6	3	6.1	3	6.1	2	4.1	1	2.0	16	32.7	9	33.3	17	63.0	1	3.7	
200~300만원 미만	12	21.4	5	8.9	3	5.4	3	5.4	2	3.6	21	37.5	15	44.1	15	44.1	4	11.8	
300~400만원 미만	12	26.1	5	10.9	4	8.7	2	4.3	1	2.2	15	32.6	11	44.0	13	52.0	1	4.0	
400~600만원 미만	14	28.0	7	14.0	3	6.0	2	4.0	3	6.0	15	30.0	11	39.3	16	57.1	1	3.6	
600만원 이상	5	16.7	6	20.0	3	10.0	2	6.7	2	6.7	8	26.7	2	14.3	12	85.7	0	0	

〈표 60〉 디자이너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협업능력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대인관계 관리능력		디지털 활용능력		협상 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		강의 및 발표능력		문서작성 능력		행정 사무 능력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8	17.0	63	38.2	27	16.4	9	5.5	12	7.3	18	10.9	2	1.2	2	1.2	3	1.8	1	0.6	
성별	남성	9	13.8	24	36.9	13	20.0	3	4.6	2	3.1	9	13.8	2	3.1	0	0	3	4.6	0	0.0
	여성	19	19.0	39	39.0	14	14.0	6	6.0	10	10.0	9	9.0	0	0	2	2.0	0	0	1	1.0
연령	20대	2	11.8	5	29.4	2	11.8	3	17.6	1	5.9	0	0	1	5.9	0	0	2	11.8	1	5.9
	30대	9	17.3	21	40.4	9	17.3	3	5.8	5	9.6	4	7.7	0	0	0	0	1	1.9	0	0
	40대	12	22.2	18	33.3	12	22.2	0	0	5	9.3	6	11.1	1	1.9	0	0	0	0	0	0
	50대	4	12.5	12	37.5	3	9.4	3	9.4	1	3.1	7	21.9	0	0	2	6.3	0	0	0	0
최종 학력	60대 이상	1	10.0	7	70.0	1	10.0	0	0	0	0	1	10.0	0	0	0	0	0	0	0	0
	고졸 이하	2	18.2	2	18.2	1	9.1	1	9.1	1	9.1	3	27.3	0	0	1	9.1	0	0	0	0
	2~3년제 졸업	9	36.0	7	28.0	3	12.0	0	0	3	12.0	2	8.0	0	0	1	4.0	0	0	0	0
	4년제 대학 졸업	12	11.4	44	41.9	21	20.0	7	6.7	6	5.7	9	8.6	2	1.9	0.0	0	3	2.9	1	1.0
소득 수준	대학원졸업	5	23.8	7	33.3	2	9.5	1	4.8	2	9.5	4	19.0	0	0	0	0	0	0	0	0
	기타 무응답	0	0	3	1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만원 미만	6	16.2	16	43.2	6	16.2	3	8.1	1	2.7	4	10.8	0	0	1	2.7	0	0	0	0
	200~300만원 미만	6	13.6	20	45.5	6	13.6	2	4.5	5	11.4	4	9.1	1	2.3	0	0	0	0	0	0
소득 수준	300~400만원 미만	5	15.6	13	40.6	7	21.9	2	6.3	1	3.1	2	6.3	0	0	1	3.1	1	3.1	0	0
	400~600만원 미만	6	17.6	13	38.2	4	11.8	2	5.9	5	14.7	3	8.8	0	0	0	0	0	0	1	2.9
	600만원 이상	5	27.8	1	5.6	4	22.2	0	0	0	0	5	27.8	1	5.6	0	0	2	11.1	0	0

〈표 61〉 디자이너의 교육훈련 참여와 총 시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교육훈련 참여 여부	합계	165	100.0
	경험 있음	33	20.0
	경험 없음	132	80.0
교육훈련 총시간	합계	33	100.0
	20시간 미만	15	45.5
	20시간~40시간 미만	8	24.2
	40시간~60시간 미만	5	15.2
	60시간~100시간 미만	1	3.0
	100시간~200시간 미만	2	6.1
	200시간 이상	2	6.1

〈표 62〉 디자이너의 이수 교육훈련 과정별 이수 시간 및 훈련기관(대표과정 3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52	100.0
교육훈련 시간	10시간 미만	27	50.9
	10시간~20시간 미만	11	20.8
	20시간~30시간 미만	6	11.3
	30시간~40시간 미만	5	9.4
	40시간 이상	4	7.5
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	3	5.7
	서울시 기술교육원/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	8	15.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	11.3
	관련 분야 협회 등	10	18.9
	일반학원	4	7.5
	온라인 강의	17	32.1
	기타	5	9.4

〈표 63〉 디자이너의 역량 향상 효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33	100.0
전혀 도움 되지 않았음	0	0
도움 되지 않았음	3	9.1
보통	7	21.2
도움이 되었음	20	60.6
매우 도움이 되었음	3	9.1

〈표 64〉 디자이너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	1.8	28	17.0	90	54.5	42	25.5	2	1.2	
성별	남성	0	0	10	15.4	34	52.3	21	32.3	0	0
	여성	3	3.0	18	18.0	56	56.0	21	21.0	2	2.0
연령	20대	2	11.8	0	0	5	29.4	9	52.9	1	5.9
	30대	0	0	10	19.2	27	51.9	15	28.8	0	0
	40대	0	0	14	25.9	32	59.3	7	13.0	1	1.9
	50대	1	3.1	4	12.5	20	62.5	7	21.9	0	0
	60대 이상	0	0	0	0	6	60.0	4	40.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	0	2	18.2	9	81.8	0	0	0	0
	2~3년제 졸업	1	4.0	5	20.0	14	56.0	5	20.0	0	0
	4년제 대학 졸업	2	1.9	19	18.1	54	51.4	29	27.6	1	1.0
	대학원졸업	0	0	2	9.5	11	52.4	7	33.3	1	4.8
	기타 무응답	0	0	0	0	2	66.7	1	33.3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0	0	9	24.3	20	54.1	7	18.9	1	2.7
	200~300만원 미만	0	0	11	25.0	24	54.5	8	18.2	1	2.3
	300~400만원 미만	1	3.1	5	15.6	19	59.4	7	21.9	0	0
	400~600만원 미만	2	5.9	2	5.9	19	55.9	11	32.4	0	0
	600만원 이상	0	0	1	5.6	8	44.4	9	50.0	0	0

〈표 65〉 디자이너의 경력 증빙 용도(목적) 및 인정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33	100.0
경력 증빙 용도(목적)	공공기관 제출용 (지원사업 신청 등)	16	12.0
	금융기관 제출용	18	13.5
	어린이집 등 지원신청 (입소대기신청 취업자 증빙용)	2	1.5
	일감 수주	74	55.6
	취업용	23	17.3
	기타	0	0
	경력 증빙자료 인정 정도	인정받지 못함	6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		87	65.4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음 (대출한도 등)		24	18.0
제출하지 않음		16	12.0

〈표 66〉 디자이너의 경력 증빙자료 미보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32	100.0
경력 증빙할 상황이 없어서	9	28.1
경력 증빙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서	10	31.3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9	28.1
경력증빙자료가 인쇄물 형태로 보관이 어려워서	4	12.5
기타	0	0

〈표 67〉 디자이너의 경력증빙서류 요청 시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서류 요청 시 어려웠던 경험	합계	165	100.0
	있음	51	30.9
	없음	114	69.1
어려움의 이유 (복수응답)	합계	106	100.0
	경력증빙서류를 발급해줘야 할 기존 발주처의 폐업 혹은 관련 담당자의 퇴사	22	43.1
	발주처에 경력증빙서류 발급 요청을 말하기 어려워서	22	43.1
	발주처에서 별도 서류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22	43.1
	발주처와 구두 계약으로 일해서 경력증빙을 증빙받기 어려워서	18	35.3
	발주처에서 경력증빙 확인서 발급 자체를 꺼려서	15	29.4
	발주처의 문서폐기 규정에 따라, 경력증빙 관련 서류들을 폐기해서	7	13.7

〈표 68〉 디자이너의 에스프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발급 건당 일정액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54	32.7	45	27.3	63	38.2	3	1.8	
성별	남성	17	26.2	26	40.0	21	32.3	1	1.5
	여성	37	37.0	19	19.0	42	42.0	2	2.0
연령	20대	5	29.4	5	29.4	7	41.2	0	0
	30대	19	36.5	16	30.8	16	30.8	1	1.9
	40대	15	27.8	17	31.5	21	38.9	1	1.9
	50대	9	28.1	7	21.9	16	50.0	0	0
	60대 이상	6	60.0	0	0	3	30.0	1	1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6	54.5	1	9.1	4	36.4	0	0
	2~3년제 졸업	8	32.0	5	20.0	12	48.0	0	0
	4년제 대학 졸업	32	30.5	29	27.6	41	39.0	3	2.9
	대학원졸업	7	33.3	8	38.1	6	28.6	0	0
	기타 무응답	1	33.3	2	66.7	0	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1	29.7	8	21.6	16	43.2	2	5.4
	200~300만원 미만	10	22.7	14	31.8	20	45.5	0	0
	300~400만원 미만	16	50.0	8	25.0	8	25.0	0	0
	400~600만원 미만	11	32.4	9	26.5	13	38.2	1	2.9
	600만원 이상	6	33.3	6	33.3	6	33.3	0	0

〈표 6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다중직업 여부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프리랜서 이외에 다중직업 여부	합계	82	100.0
	하고 있음	41	50.0
	하고 있지 않음	41	50.0
다른 일을 하는 주된 이유	합계	41	100.0
	주된 프리랜서 일자리만으로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21	51.2
	현재 주되게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소득이 불규칙해서	10	24.4
	프리랜서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4	9.8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3	7.3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는 직업 전망이 없어서	0	0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 외에 다른 경험을 쌓고 싶어서	1	2.4
	기타	2	4.9

〈표 7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및 보수 미수금 경험(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일방적인 계약변경 경험				보수 미수금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3	40.2	49	59.8	10	12.2	72	87.8
성별	남성	20	47.6	22	52.4	5	11.9	37	88.1
	여성	13	32.5	27	67.5	5	12.5	35	87.5
연령	20대	2	33.3	4	66.7	0	0	6	100.0
	30대	16	43.2	21	56.8	8	21.6	29	78.4
	40대	12	44.4	15	55.6	2	7.4	25	92.6
	50대	3	33.3	6	66.7	0	0	9	100.0
	60대 이상	0	0	3	100.0	0	0	3	10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	33.3	4	66.7	0	0	6	100.0
	2~3년제 졸업	3	30.0	7	70.0	1	10.0	9	90.0
	4년제 대학 졸업	20	42.6	27	57.4	7	14.9	40	85.1
	대학원졸업	3	37.5	5	62.5	0	0	8	100.0
	기타 무응답	5	45.5	6	54.5	2	18.2	9	81.8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6	30.0	14	70.0	1	5.0	19	95.0
	200~300만원 미만	12	44.4	15	55.6	6	22.2	21	77.8
	300~400만원 미만	7	41.2	10	58.8	2	11.8	15	88.2
	400~600만원 미만	3	30.0	7	70.0	0	0	10	100.0
	600만원 이상	5	62.5	3	37.5	1	12.5	7	87.5

〈표 7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인권침해 경험 여부				인권침해 사례유형(복수응답)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기타 괴롭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2	14.6	70	85.4	8	57.1	3	21.4	2	14.3	0	0	1	7.1
성별	남성	5	11.9	37	88.1	3	42.9	3	42.9	1	14.3	0	0	0	0
	여성	7	17.5	33	82.5	5	71.4	0	0	1	14.3	0	0	1	14.3
연령	20대	1	16.7	5	83.3	1	100.0	0	0	0	0	0	0	0	0
	30대	8	21.6	29	78.4	7	70.0	2	20.0	1	10.0	0	0	0	0
	40대	1	3.7	26	96.3	0	0	0	0	1	100.0	0	0	0	0
	50대	2	22.2	7	77.8	0	0	1	50.0	0	0	0	0	1	50.0
	60대 이상	0	0	3	100.0	0	0	0	0	0	0	0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	0	6	100.0	0	0	0	0	0	0	0	0	0	0
	2~3년제 졸업	2	20.0	8	80.0	1	50.0	0	0	1	50.0	0	0	0	0
	4년제 대학 졸업	8	17.0	39	83.0	7	70.0	1	10.0	1	10.0	0	0	1	10.0
	대학원졸업	1	12.5	7	87.5	0	0	1	100.0	0	0	0	0	0	0
	기타 무응답	1	9.1	10	90.9	0	0	1	100.0	0	0	0	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3	15.0	17	85.0	2	66.7	0	0	0	0	0	0	1	33.3
	200~300만원 미만	3	11.1	24	88.9	3	100.0	0	0	0	0	0	0	0	0
	300~400만원 미만	3	17.6	14	82.4	3	60.0	1	20.0	1	20.0	0	0	0	0
	400~600만원 미만	1	10.0	9	90.0	0	0	1	100.0	0	0	0	0	0	0
	600만원 이상	2	25.0	6	75.0	0	0	1	50.0	1	50.0	0	0	0	0

〈표 7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과 시점(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중도하차 경험				중도하차 시점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약 전		계약 직후		계약 기간 이행 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5	18.3	67	81.7	2	13.3	3	20.0	10	66.7
성별	남성	7	16.7	35	83.3	1	14.3	2	28.6	4	57.1
	여성	8	20.0	32	80.0	1	12.5	1	12.5	6	75.0
연령	20대	1	16.7	5	83.3	0	0	0	0	1	100.0
	30대	7	18.9	30	81.1	0	0	2	28.6	5	71.4
	40대	6	22.2	21	77.8	2	33.3	1	16.7	3	50.0
	50대	0	0	9	100.0	0	0	0	0	0	0
	60대 이상	1	33.3	2	66.7	0	0	0	0	1	10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	66.7	2	33.3	1	25.0	1	25.0	2	50.0
	2~3년제 졸업	2	20.0	8	80.0	0	0	0	0	2	100.0
	4년제 대학 졸업	6	12.8	41	87.2	0	0	2	33.3	4	66.7
	대학원졸업	1	12.5	7	87.5	0	0	0	0	1	100.0
	기타 무응답	2	18.2	9	81.8	1	50.0	0	0	1	50.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5	25.0	15	75.0	1	20.0	1	20.0	3	60.0
	200~300만원 미만	5	18.5	22	81.5	1	20.0	0	0	4	80.0
	300~400만원 미만	3	17.6	14	82.4	0	0	2	66.7	1	33.3
	400~600만원 미만	1	10.0	9	90.0	0	0	0	0	1	100.0
	600만원 이상	1	12.5	7	87.5	0	0	0	0	1	100.0

〈표 7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이유(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중도하차 이유(복수응답)													
		불합리한 업무지시		과도한 업무지시		열악한 작업환경		협업/소통 갈등		개인적 사유		계약 내용 외 업무지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8	25.8	5	16.1	5	16.1	2	6.5	4	12.9	4	12.9	3	9.7
성별	남성	4	25.0	3	18.8	4	25.0	2	12.5	1	6.3	2	12.5	0	0
	여성	4	26.7	2	13.3	1	6.7	0	0	3	20.0	2	13.3	3	20.0
연령	20대	0	0	0	0	0	0	0	0	1	50.0	0	0	1	50.0
	30대	4	28.6	2	14.3	1	7.1	1	7.1	2	14.3	3	21.4	1	7.1
	40대	4	28.6	3	21.4	4	28.6	1	7.1	1	7.1	1	7.1	0	0
	50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0대 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	20.0	3	30.0	3	30.0	1	10.0	0	0	1	10.0	0	0
	2~3년제 졸업	2	50.0	0	0	0	0	0	0	1	25.0	1	25.0	0	0
	4년제 대학 졸업	3	25.0	1	8.3	1	8.3	1	8.3	2	16.7	2	16.7	2	16.7
	대학원졸업	1	50.0	1	50.0	0	0	0	0	0	0	0	0	0	0
	기타 무응답	0	0	0	0	1	33.3	0	0	1	33.3	0	0	1	33.3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	16.7	3	25.0	3	25.0	1	8.3	1	8.3	0	0	2	16.7
	200~300만원 미만	2	20.0	1	10.0	1	10.0	0	0	2	20.0	3	30.0	1	10.0
	300~400만원 미만	2	40.0	0	0	1	20.0	1	20.0	1	20.0	0	0	0	0
	400~600만원 미만	1	50.0	1	50.0	0	0	0	0	0	0	0	0	0	0
	600만원 이상	1	50.0	0	0	0	0	0	0	0	0	1	50.0	0	0

〈표 7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부당대우 인권침해 대처 방법 및 해결 여부(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대처 방법(복수응답)												해결 여부								
	그냥 참고 넘김		발주처 등에 알림		공직기관 도움받음		관련 단체나 협회 도움 받음		법률 소송		개인적으로 처리		기타		해결되지 않았음		해결되었음		현재 진행 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7	22.0	18	14.6	12	9.8	11	8.9	7	5.7	30	24.4	1	0.8	19	29.2	37	56.9	9	13.8	
성별																					
남성	14	19.7	14	19.7	8	11.3	8	11.3	5	7.0	15	21.1	0	0	5	14.3	26	74.3	4	11.4	
여성	13	25.0	4	7.7	4	7.7	3	5.8	2	3.8	15	28.8	1	1.9	14	46.7	11	36.7	5	16.7	
연령																					
20대	3	37.5	1	12.5	0	0	0	0	1	12.5	2	25.0	0	0	1	20.0	4	80.0	0	0	
30대	12	18.8	11	17.2	8	12.5	5	7.8	5	7.8	18	28.1	1	1.6	9	27.3	16	48.5	8	24.2	
40대	11	31.4	3	8.6	3	8.6	3	8.6	0	0	8	22.9	0	0	8	40.0	12	60.0	0	0	
50대	1	7.7	3	23.1	1	7.7	3	23.1	1	7.7	2	15.4	0	0	1	14.3	5	71.4	1	14.3	
60대 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	0	3	33.3	1	11.1	2	22.2	0	0	2	22.2	0	0	0	0	4	80.0	1	20.0	
2~3년제 졸업	4	33.3	0	0	0	0	0	0	0	0	7	58.3	0	0	3	33.3	5	55.6	1	11.1	
4년제 대학 졸업	17	21.5	13	16.5	9	11.4	8	10.1	7	8.9	18	22.8	1	1.3	13	31.7	23	56.1	5	12.2	
대학원졸업	3	30.0	0	0	2	20.0	1	10.0	0	0	1	10.0	0	0	1	20.0	3	60.0	1	20.0	
기타 무응답	3	23.1	2	15.4	0	0	0	0	0	0	2	15.4	0	0	2	40.0	2	40.0	1	20.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4	18.2	3	13.6	1	4.5	1	4.5	0	0	4	18.2	1	4.5	3	25.0	9	75.0	0	0	
200~300만원 미만	12	27.3	7	15.9	3	6.8	3	6.8	3	6.8	13	29.5	0	0	9	37.5	10	41.7	5	20.8	
300~400만원 미만	5	20.0	3	12.0	5	20.0	2	8.0	1	4.0	5	20.0	0	0	4	30.8	8	61.5	1	7.7	
400~600만원 미만	0	0	4	20.0	3	15.0	4	20.0	2	10.0	6	30.0	0	0	1	11.1	6	66.7	2	22.2	
600만원 이상	6	50.0	1	8.3	0	0	1	8.3	1	8.3	2	16.7	0	0	2	28.6	4	57.1	1	14.3	

〈표 7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협업능력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대인관계 관리능력		디지털 활용능력		협상 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		강의 및 발표능력		문서작성 능력		행정 사무 능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9	11.0	36	43.9	18	22.0	5	6.1	6	7.3	5	6.1	3	3.7	0	0	0	0
성별	남성	6	14.3	20	47.6	7	16.7	3	7.1	4	9.5	2	4.8	0	0	0	0	0
	여성	3	7.5	16	40.0	11	27.5	2	5.0	2	5.0	3	7.5	3	7.5	0	0	0
연령	20대	1	16.7	1	16.7	3	50.0	0	0	1	16.7	0	0	0	0	0	0	0
	30대	1	2.7	17	45.9	8	21.6	4	10.8	3	8.1	3	8.1	1	2.7	0	0	0
	40대	5	18.5	14	51.9	4	14.8	0	0	2	7.4	1	3.7	1	3.7	0	0	0
	50대	2	22.2	3	33.3	2	22.2	1	11.1	0	0	1	11.1	0	0	0	0	0
	60대 이상	0	0	1	33.3	1	33.3	0	0	0	0	0	0	1	33.3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	16.7	3	50.0	1	16.7	1	16.7	0	0	0	0	0	0	0	0	0
	2~3년제 졸업	3	30.0	1	10.0	3	30.0	0	0	1	10.0	2	20.0	0	0	0	0	0
	4년제 대학 졸업	2	4.3	20	42.6	13	27.7	4	8.5	4	8.5	3	6.4	1	2.1	0	0	0
	대학원졸업	0	0	7	87.5	0	0	0	0	1	12.5	0	0	0	0	0	0	0
소득 수준	기타 무응답	3	27.3	5	45.5	1	9.1	0	0	0	0	0	0	2	18.2	0	0	0
	200만원 미만	1	5.0	7	35.0	8	40.0	0	0	0	0	2	10.0	2	10.0	0	0	0
	200~300만원 미만	2	7.4	13	48.1	5	18.5	2	7.4	3	11.1	1	3.7	1	3.7	0	0	0
	300~400만원 미만	2	11.8	7	41.2	3	17.6	2	11.8	3	17.6	0	0	0	0	0	0	0
	400~600만원 미만	1	10.0	5	50.0	1	10.0	1	10.0	0	0	2	20.0	0	0	0	0	0
600만원 이상	3	37.5	4	50.0	1	12.5	0	0	0	0	0	0	0	0	0	0	0	

〈표 7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교육훈련 참여와 총 시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교육훈련 참여 여부	합계	82	100.0
	경험 있음	38	46.3
	경험 없음	44	53.7
교육훈련 총시간	합계	38	100.0
	20시간 미만	22	57.9
	20시간~40시간 미만	8	21.1
	40시간~60시간 미만	3	7.9
	60시간~100시간 미만	1	2.6
	100시간~200시간 미만	2	5.3
	200시간 이상	2	5.3

〈표 7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과정별 이수 시간 및 훈련기관(대표과정 3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72	100.0
교육훈련 시간	10시간 미만	39	54.2
	10시간~20시간 미만	18	25.0
	20시간~30시간 미만	3	4.2
	30시간~40시간 미만	5	6.9
	40시간 이상	7	9.7
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	3	4.2
	서울시 기술교육원/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	11	15.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	1.4
	관련 분야 협회 등	19	26.4
	일반학원	16	22.2
	온라인 강의	17	23.6
	기타	5	6.9

〈표 7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역량 향상 효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38	100.0
전혀 도움 되지 않았음	1	2.6
도움 되지 않았음	1	2.6
보통	7	18.4
도움이 되었음	23	60.5
매우 도움이 되었음	6	15.8

〈표 7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	2.4	10	12.2	46	56.1	22	26.8	2	2.4	
성별	남성	1	2.4	3	7.1	23	54.8	13	31.0	2	4.8
	여성	1	2.5	7	17.5	23	57.5	9	22.5	0	0
연령	20대	0	0	0	0	2	33.3	3	50.0	1	16.7
	30대	1	2.7	5	13.5	18	48.6	12	32.4	1	2.7
	40대	1	3.7	4	14.8	17	63.0	5	18.5	0	0
	50대	0	0	1	11.1	6	66.7	2	22.2	0	0
	60대 이상	0	0	0	0	3	100.0	0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	0	1	16.7	4	66.7	1	16.7	0	0
	2~3년제 졸업	0	0	2	20.0	7	70.0	1	10.0	0	0
	4년제 대학 졸업	1	2.1	5	10.6	23	48.9	17	36.2	1	2.1
	대학원졸업	1	12.5	1	12.5	5	62.5	1	12.5	0	0
	기타 무응답	0	0	1	9.1	7	63.6	2	18.2	1	9.1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	5.0	3	15.0	11	55.0	5	25.0	0	0
	200~300만원 미만	0	0	6	22.2	16	59.3	5	18.5	0	0
	300~400만원 미만	0	0	0	0	8	47.1	8	47.1	1	5.9
	400~600만원 미만	0	0	1	10.0	6	60.0	2	20.0	1	10.0
	600만원 이상	1	12.5	0	0	5	62.5	2	25.0	0	0

〈표 8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경력 증빙 용도(목적) 및 인정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64	100.0
경력 증빙 용도(목적)	공공기관 제출용 (지원사업 신청 등)	20	31.3
	금융기관 제출용	9	14.1
	어린이집 등 지원신청 (입소대기신청 취업자 증빙용)	4	6.3
	일감 수주	14	21.9
	취업용	17	26.6
경력 증빙자료 인정 정도	인정받지 못함	3	4.7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	38	59.4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음 (대출한도 등)	17	26.6
	제출하지 않음	6	9.4

〈표 8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경력 증빙자료 미보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8	100.0
경력 증빙할 상황이 없어서	6	33.3
경력 증빙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서	4	22.2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3	16.7
경력증빙자료가 인쇄물 형태로 보관이 어려워서	5	27.8

〈표 8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경력증빙서류 요청 시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서류 요청 시 어려웠던 경험	합계	82	100.0
	있음	31	37.8
	없음	51	62.2
어려움의 이유 (복수응답)	합계	52	100.0
	경력증빙서류를 발급해줘야 할 기존 발주처의 폐업 혹은 관련 담당자의 퇴사	11	21.2
	발주처에 경력증빙서류 발급 요청을 말하기 어려워서	17	32.7
	발주처에서 별도 서류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11	21.2
	발주처와 구두 계약으로 일해서 경력증빙을 증빙받기 어려워서	6	11.5
	발주처에서 경력증빙 확인서 발급 자체를 꺼려서	3	5.8
	발주처의 문서폐기 규정에 따라, 경력증빙 관련 서류들을 폐기해서	4	7.7

〈표 8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의 에스프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발급 건당 일정액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4	29.3	16	19.5	41	50.0	1	1.2
성별	남성	13	31.0	10	23.8	19	45.2	0	0
	여성	11	27.5	6	15.0	22	55.0	1	2.5
연령	20대	2	33.3	2	33.3	2	33.3	0	0
	30대	13	35.1	7	18.9	17	45.9	0	0
	40대	7	25.9	5	18.5	14	51.9	1	3.7
	50대	2	22.2	2	22.2	5	55.6	0	0
	60대 이상	0	0	0	0	3	100.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	33.3	0	0	4	66.7	0	0
	2~3년제 졸업	4	40.0	0	0	6	60.0	0	0
	4년제 대학 졸업	14	29.8	14	29.8	19	40.4	0	0
	대학원졸업	1	12.5	2	25.0	5	62.5	0	0
	기타 무응답	3	27.3	0	0	7	63.6	1	9.1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6	30.0	2	10.0	12	60.0	0	0
	200~300만원 미만	9	33.3	6	22.2	11	40.7	1	3.7
	300~400만원 미만	6	35.3	3	17.6	8	47.1	0	0
	400~600만원 미만	1	10.0	4	40.0	5	50.0	0	0
	600만원 이상	2	25.0	1	12.5	5	62.5	0	0

〈표 84〉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다중직업 여부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프리랜서 이외에 다중직업 여부	합계	130	100.0
	하고 있음	48	36.9
	하고 있지 않음	82	63.1
다른 일을 하는 주된 이유	합계	48	100.0
	주된 프리랜서 일자리만으로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24	50.0
	현재 주되게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소득이 불규칙해서	8	16.7
	프리랜서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7	14.6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2	4.2
	현재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는 직업 전망이 없어서	2	4.2
	주되게 일하는 프리랜서 일자리 외에 다른 경험을 쌓고 싶어서	5	10.4

〈표 85〉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및 보수 미수금 경험(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일방적인 계약변경 경험				보수 미수금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9	22.3	101	77.7	7	5.4	123	94.6
성별	남성	10	32.3	21	67.7	3	9.7	28	90.3
	여성	19	19.2	80	80.8	4	4.0	95	96.0
연령	20대	4	50.0	4	50.0	2	25.0	6	75.0
	30대	4	18.2	18	81.8	0	0	22	100.0
	40대	9	23.7	29	76.3	4	10.5	34	89.5
	50대	10	21.3	37	78.7	1	2.1	46	97.9
	60대 이상	2	13.3	13	86.7	0	0	15	10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	23.5	13	76.5	1	5.9	16	94.1
	2~3년제 졸업	5	21.7	18	78.3	2	8.7	21	91.3
	4년제 대학 졸업	14	19.4	58	80.6	3	4.2	69	95.8
	대학원졸업	4	30.8	9	69.2	1	7.7	12	92.3
	기타·무응답	2	40.0	3	60.0	0	0	5	100.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	19.1	55	80.9	1	1.5	67	98.5
	200~300만원 미만	6	27.3	16	72.7	3	13.6	19	86.4
	300~400만원 미만	6	30.0	14	70.0	3	15.0	17	85.0
	400~600만원 미만	3	25.0	9	75.0	0	0	12	100.0
	600만원 이상	1	12.5	7	87.5	0	0	8	100.0

〈표 86〉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인권침해 경험 및 사례(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인권침해 경험 여부				인권침해 사례유형(복수응답)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기타 괴롭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17	13.1	113	86.9	9	36.0	1	4.0	9	36.0	1	4.0	5	20.0
성별	남성	4	12.9	27	87.1	1	14.3	1	14.3	2	28.6	1	14.3	2	28.6
	여성	13	13.1	86	86.9	8	44.4	0	0	7	38.9	0	0	3	16.7
연령	20대	3	37.5	5	62.5	2	50.0	1	25.0	1	25.0	0	0	0	0
	30대	2	9.1	20	90.9	1	33.3	0	0	2	66.7	0	0	0	0
	40대	6	15.8	32	84.2	4	36.4	0	0	3	27.3	1	9.1	3	27.3
	50대	6	12.8	41	87.2	2	28.6	0	0	3	42.9	0		2	33.3
	60대 이상	0	0	15	100.0	0	0	0	0	0	0	0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	17.6	14	82.4	1	20.0	1	20.0	2	40.0	0	0	1	20.0
	2~3년제 졸업	3	13.0	20	87.0	3	75.0	0	0	1	25.0	0	0	0	0
	4년제 대학 졸업	10	13.9	62	86.1	4	26.7	0	0	6	40.0	1	6.7	4	26.7
	대학원졸업	0	0	13	100.0	0	0	0	0	0	0	0	0	0	0
	기타 무응답	1	20.0	4	80.0	1	100.0	0	0	0	0	0	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	10.3	61	89.7	5	35.7	1	7.1	6	42.9	1	7.1	1	7.1
	200~300만원 미만	7	31.8	15	68.2	3	42.9	0	0	1	14.3	0	0	3	42.9
	300~400만원 미만	2	10.0	18	90.0	0	0	0	0	1	50.0	0	0	1	50.0
	400~600만원 미만	1	8.3	11	91.7	1	50.0	0	0	1	50.0	0	0	0	0
	600만원 이상	0	0	8	100.0	0	0	0	0	0	0	0	0	0	0

〈표 8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경험과 시점(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중도하차 경험				중도하차 시점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약 전		계약 직후		계약 기간 이행 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7	20.8	103	79.2	4	14.8	9	33.3	14	51.9
성별	남성	7	22.6	24	77.4	0	0	5	71.4	2	28.6
	여성	20	20.2	79	79.8	4	20.0	4	20.0	12	60.0
연령	20대	3	37.5	5	62.5	2	66.7	0	0	1	33.3
	30대	2	9.1	20	90.9	1	50.0	1	50.0	0	0
	40대	12	31.6	26	68.4	0	0	4	33.3	8	66.7
	50대	8	17.0	39	83.0	1	12.5	3	37.5	4	50.0
	60대 이상	2	13.3	13	86.7	0	0	1	50.0	1	5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	17.6	14	82.4	0	0	3	100.0	0	0
	2~3년제 졸업	7	30.4	16	69.6	0	0	0	0	7	100.0
	4년제 대학 졸업	12	16.7	60	83.3	3	25.0	3	25.0	6	50.0
	대학원졸업	3	23.1	10	76.9	0	0	3	100.0	0	0
	기타 무응답	2	40.0	3	60.0	1	50.0	0	0	1	50.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2	17.6	56	82.4	0	0	3	25.0	9	75.0
	200~300만원 미만	9	40.9	13	59.1	2	22.2	2	22.2	5	55.6
	300~400만원 미만	3	15.0	17	85.0	1	33.3	2	66.7	0	0
	400~600만원 미만	3	25.0	9	75.0	1	33.3	2	66.7	0	0
	600만원 이상	0	0	8	100.0	0	0	0	0	0	0

〈표 88〉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 수행 중 중도하차 이유(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중도하차 이유(복수응답)													
		불합리한 업무지시		과도한 업무지시		열악한 작업환경		협업/소통 갈등		개인적 사유		계약 내용 외 업무지시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7	14.6	13	27.1	10	20.8	3	6.3	7	14.6	6	12.5	2	4.2
성별	남성	4	30.8	4	30.8	1	7.7	1	7.7	2	15.4	0	0	1	7.7
	여성	3	8.6	9	25.7	9	25.7	2	5.7	5	14.3	6	17.1	1	2.9
연령	20대	0	0	2	29.6	2	28.6	1	14.3	2	28.6	0	0	0	0
	30대	0	0	0	0	2	66.7	0	0	1	33.3	0	0	0	0
	40대	4	19.0	6	28.6	3	14.3	1	4.8	3	14.3	3	14.3	1	4.8
	50대	2	14.3	4	28.6	3	21.4	1	7.1	1	7.1	3	21.4	0	0
	60대 이상	1	33.3	1	33.3	0	0	0	0	0	0	0	0	1	33.3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	33.3	2	33.3	1	16.7	0	0	1	16.7	0	0	0	0
	2~3년제 졸업	0	0	4	44.4	1	11.1	0	0	1	11.1	2	22.2	1	11.1
	4년제 대학 졸업	4	17.4	6	26.1	5	21.7	2	8.7	4	17.4	2	8.7	0	0
	대학원졸업	1	14.3	0	0	2	29.6	1	14.3	1	14.3	2	28.6	0	0
	기타 무응답	0	0	1	33.3	1	33.3	0	0	0	0	0	0	1	33.3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	9.5	4	19.0	4	19.0	1	4.8	3	14.3	5	23.8	2	9.5
	200~300만원 미만	3	18.8	7	43.8	2	12.5	1	6.3	3	18.8	0	0	0	0
	300~400만원 미만	0	0	1	16.7	2	33.3	1	16.7	1	16.7	1	16.7	0	0
	400~600만원 미만	2	40.0	1	20.0	2	40.0	0	0	0	0	0	0	0	0
	600만원 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표 89〉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중시자의 부당대우 인권침해 대처 방법 및 해결 여부(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대처 방법(복수응답)												해결 여부								
	그냥 참고 넘김		발주처 등에 알림		공직기관 도움받음		관련 단체나 협회 도움 받음		법률 소송		개인적으로 처리		기타		해결되지 않았음		해결되었음		현재 진행 중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47	27.3	20	11.6	10	5.8	5	2.9	7	4.1	39	22.7	1	0.6	24	27.6	60	69.0	3	3.4	
성별																					
남성	11	26.2	4	9.5	5	11.9	1	2.4	4	9.5	7	16.7	1	2.4	5	22.7	15	68.2	2	9.1	
여성	36	27.7	16	12.3	5	3.8	4	3.1	3	2.3	32	24.6	0	0	19	29.2	45	69.2	1	1.5	
연령																					
20대	5	41.7	0	0	2	16.7	0	0	1	8.3	3	25.0	0	0	4	57.1	3	42.9	0	0	
30대	7	22.6	5	16.1	4	12.9	0	0	2	6.5	4	12.9	1	3.2	4	28.6	9	64.3	1	7.1	
40대	17	34.0	5	10.0	2	4.0	3	6.0	2	4.0	10	20.0	0	0	11	40.7	16	59.3	0	0	
50대	12	19.4	9	14.5	2	3.2	2	3.2	2	3.2	18	29.0	0	0	4	13.3	24	80.0	2	6.7	
60대 이상	6	35.3	1	5.9	0	0	0	0	0	0	4	23.5	0	0	1	11.1	8	88.9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8	32.0	3	12.0	1	4.0	2	8.0	1	4.0	7	28.0	0	0	1	7.1	12	85.7	1	7.1	
2~3년제 졸업	5	18.5	4	14.8	1	3.7	2	7.4	1	3.7	6	22.2	1	3.7	6	37.5	10	62.5	0	0	
4년제 대학 졸업	27	28.4	9	9.5	8	8.4	1	1.1	4	4.2	16	16.8	0	0	14	33.3	26	61.9	2	4.8	
대학원졸업	3	16.7	4	22.2	0	0	0	0	1	5.6	8	44.4	0	0	0	0	11	100.0	0	0	
기타 무응답	4	57.1	0	0	0	0	0	0	0	0	2	28.6	0	0	3	75.0	1	20.0	4	100.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0	24.1	6	7.2	3	3.6	2	2.4	2	2.4	19	22.9	1	1.2	12	31.6	25	65.8	1	2.6	
200~300만원 미만	13	39.4	3	9.1	3	9.1	1	2.0	2	6.1	8	24.2	0	0	6	31.6	13	68.4	0	0	
300~400만원 미만	6	23.1	4	15.1	2	7.7	2	7.7	2	7.7	5	19.2	0	0	5	33.3	9	60.0	1	6.7	
400~600만원 미만	5	29.4	3	17.6	1	5.9	0	0	1	5.9	4	23.5	0	0	0	0	8	88.9	1	11.1	
600만원 이상	3	23.1	4	30.8	1	7.7	0	0	0	0	3	23.1	0	0	1	16.7	5	83.3	0	0	

〈표 9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프리랜서 필요역량 1순위(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협업능력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대인관계 관리능력		디지털 활용능력		협상 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		강의 및 발표능력		문서작성 능력		행정 사무 능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1	23.8	46	35.4	31	23.8	4	3.1	8	6.2	5	3.8	1	0.8	2	1.5	2	1.5	
성별	남성	5	16.1	10	32.3	7	22.6	3	9.7	4	12.9	0	0	1	3.2	1	3.2	0	0
	여성	26	26.3	36	36.4	24	24.2	1	1.0	4	4.0	5	5.1	0	0	1	1.0	2	2.0
연령	20대	2	25.0	2	25.0	3	37.5	0	0	1	12.5	0	0	0	0	0	0	0	0
	30대	4	18.2	6	27.3	3	13.6	2	9.1	1	4.5	2	9.1	0	0	2	9.1	2	9.1
	40대	9	23.7	14	36.8	11	28.9	1	2.6	3	7.9	0	0	0	0	0	0	0	0
	50대	11	23.4	19	40.4	10	21.3	1	2.1	2	4.3	3	6.4	1	2.1	0	0	0	0
	60대 이상	5	33.3	5	33.3	4	26.7	0	0	1	6.7	0	0	0	0	0	0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6	35.3	4	23.5	3	17.6	1	5.9	3	17.6	0	0	0	0	0	0	0	0
	2~3년제 졸업	3	13.0	9	39.1	7	30.4	0	0	2	8.7	2	8.7	0	0	0	0	0	0
	4년제 대학 졸업	19	26.4	27	37.5	14	19.4	3	4.2	3	4.2	3	4.2	0	0	1	1.4	2	2.8
	대학원졸업	1	7.7	6	46.2	4	30.8	0	0	0	0	0	0	1	7.7	1	7.7	0	0
	기타 무응답	2	40.0	0	0	3	60.0	0	0	0	0	0	0	0	0	0	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5	22.1	23	33.8	21	30.9	0	0	3	4.4	4	5.9	0	0	0	0	2	2.9
	200~300만원 미만	8	36.4	4	18.2	4	18.2	1	4.5	3	13.6	0	0	0	0	2	9.1	0	0
	300~400만원 미만	5	25.0	11	55.0	3	15.0	1	5.0	0	0	0	0	0	0	0	0	0	0
	400~600만원 미만	3	25.0	7	58.3	1	8.3	0	0	1	8.3	0	0	0	0	0	0	0	0
	600만원 이상	0	0	1	12.5	2	25.0	2	25.0	1	12.5	1	12.5	1	12.5	0	0	0	0

〈표 9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 참여와 총 시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교육훈련 참여 여부	합계	130	100.0
	경험 있음	65	50.0
	경험 없음	65	50.0
교육훈련 총시간	합계	65	100.0
	20시간 미만	33	50.8
	20시간~40시간 미만	17	26.2
	40시간~60시간 미만	6	9.2
	60시간~100시간 미만	2	3.1
	100시간~200시간 미만	5	7.7
	200시간 이상	2	3.1

〈표 92〉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이수 교육훈련 과정별 이수 시간 및 훈련기관(대표과정 3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25	100.0
교육훈련 시간	10시간 미만	93	74.4
	10시간~20시간 미만	13	10.4
	20시간~30시간 미만	4	3.2
	30시간~40시간 미만	4	3.2
	40시간 이상	11	8.8
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	5	4.0
	서울시 기술교육원/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	26	20.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	4.8
	관련 분야 협회 등	35	28.0
	일반학원	6	4.8
	온라인 강의	36	28.8
	기타	11	8.8

〈표 93〉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향상 효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65	100.0
전혀 도움 되지 않았음	0	0
도움 되지 않았음	5	7.7
보통	15	23.1
도움이 되었음	41	63.1
매우 도움이 되었음	4	6.2

〈표 94〉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일감(프로젝트) 수주 시 경력 인정(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2	1.5	22	16.9	75	57.7	30	23.1	1	0.8	
성별	남성	1	3.2	4	12.9	20	64.5	6	19.4	0	0
	여성	1	1.0	18	18.2	55	55.6	24	24.2	1	1.0
연령	20대	0	0	2	25.0	5	62.5	1	12.5	0	0
	30대	1	4.5	1	4.5	10	45.5	9	40.9	1	4.5
	40대	0	0	7	18.4	22	57.9	9	23.7	0	0
	50대	0	0	10	21.3	28	59.6	9	19.1	0	0
	60대 이상	1	6.7	2	13.3	10	66.7	2	13.3	0	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0	0	2	11.8	11	64.7	4	23.5	0	0
	2~3년제 졸업	2	8.7	4	17.4	13	56.5	4	17.4	0	0
	4년제 대학 졸업	0	0	11	15.3	43	59.7	17	23.6	1	1.4
	대학원졸업	0	0	4	30.8	5	38.5	4	30.8	0	0
	기타 무응답	0	0	1	20.0	3	60.0	1	20.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	2.9	13	19.1	44	64.7	9	13.2	0	0
	200~300만원 미만	0	0	3	13.6	13	59.1	6	27.3	0	0
	300~400만원 미만	0	0	4	20.0	7	35.0	8	40.0	1	5.0
	400~600만원 미만	0	0	1	8.3	7	58.3	4	33.3	0	0
	600만원 이상	0	0	1	12.5	4	50.0	3	37.5	0	0

〈표 95〉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력 증빙 용도(목적) 및 인정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72	100.0
경력 증빙 용도(목적)	공공기관 제출용 (지원사업 신청 등)	18	25.0
	금융기관 제출용	6	8.3
	어린이집 등 지원신청 (입소대기신청 취업자 증빙용)	4	5.6
	일감 수주	14	19.4
	취업용	30	41.7
경력 증빙자료 인정 정도	인정받지 못함	0	0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음	40	55.6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받음 (대출한도 등)	24	33.3
	제출하지 않음	8	11.1

〈표 96〉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력 증빙자료 미보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58	100.0
경력 증빙할 상황이 없어서	14	24.1
경력 증빙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서	23	39.7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10	17.2
경력증빙자료가 인쇄물 형태로 보관이 어려워서	11	19.0

〈표 97〉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력증빙서류 요청 시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서류 요청 시 어려웠던 경험	합계	130	100.0
	있음	24	18.5
	없음	106	81.5
어려움의 이유 (복수응답)	합계	40	100.0
	경력증빙서류를 발급해줘야 할 기존 발주처의 폐업 혹은 관련 담당자의 퇴사	9	37.5
	발주처에 경력증빙서류 발급 요청을 말하기 어려워서	13	54.2
	발주처에서 별도 서류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9	37.5
	발주처와 구두 계약으로 일해서 경력증빙을 증빙받기 어려워서	5	20.8
	발주처에서 경력증빙 확인서 발급 자체를 꺼려서	4	16.7
	발주처의 문서폐기 규정에 따라, 경력증빙 관련 서류들을 폐기해서	0	0

〈표 98〉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에스크로 시스템 수수료 의견(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일반 카드 수수료 수준		발급 건당 일정액		일정 회당 무료, 이후 발급 수수료 부과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계/비율 평균	33	25.4	30	23.1	62	47.7	5	3.8	
성별	남성	10	32.3	10	32.3	11	35.5	0	0
	여성	23	23.2	20	20.2	51	51.5	5	5.1
연령	20대	3	37.5	3	37.5	2	25.0	0	0
	30대	5	22.7	7	31.8	9	40.9	1	4.5
	40대	12	31.6	6	15.8	19	50.0	1	2.6
	50대	12	25.5	11	23.4	23	48.9	1	2.1
	60대 이상	1	6.7	3	20.0	9	60.0	2	13.3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	23.5	4	23.5	9	52.9	0	0
	2~3년제 졸업	5	21.7	5	21.7	11	47.8	2	8.7
	4년제 대학 졸업	20	27.8	18	25.0	31	43.1	3	4.2
	대학원졸업	3	23.1	1	7.7	9	69.2	0	0
	기타 무응답	1	20.0	2	40.0	2	40.0	0	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2	17.6	10	14.7	42	61.8	4	5.9
	200~300만원 미만	8	36.4	6	27.3	8	36.4	0	0
	300~400만원 미만	8	40.0	7	35.0	4	20.0	1	5.0
	400~600만원 미만	3	25.0	4	33.3	5	41.7	0	0
	600만원 이상	2	25.0	3	37.5	3	37.5	0	0

## [부록 3]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 요약

### 2-1 불리한 계약 변경 사례

1) 갑질 행위 사례
가장 기억나는 건 업무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말한 적이 있다.
강압적인 업무 지시
결과물 보수에 대한 무한 요청
과중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일방적 계약파기 및 위약금을 물겠다고 함
너무 많이 강요하는
명시된 업무 외에 비효율적 업무 강요 및 시간 투자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있다
불분명한 요구사항 제시 및 일정 변경 없이 무리한 추가 작업 요구
불필요한 감시 및 보수에 대한 불만
사업장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다 수용해야 한다
사장님이 화를 내면서 강요함
사전 협의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통보됨
사전에 미리 얘기 없이 일정취소 혹은 근무지 변경 등이 가끔 있음
수정사항 5회 이상 초과
업무마감기간 단축 요구
업무변경 및 새로운 업무 추가 단가 조정 등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초과근무 했으나 보수는 변동 없음
원래 하기로 했던 업무요일이 갑자기 변경됨. 사전에 고지하거나 의논 없었음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높은 사람이 와서 다시 초기화
이미 나온 일정을 바꾸는 경우
일방적인 업무시간 변경.
일방적인 일정 변경, 취소로 인한 손실 발생
일의 내용물을 추가로 요구
자유로운 시간 제한
회사에 유리하게 임금 주는 방식이 바뀐 처음엔 선택이었으나 나중에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라고 강제 이행함
구두 계약하거 시작했지만, 일이 발주처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 거기에 대한 말을 미리 하지 않고 보수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 메이크업은 촬영 쪽에선 힘이 하나도 없다
수업을 하겠다고 해놓고선 당일엔 일방적으로 취소함
2) 무리한 계약 변경 사례
2년 계약 중 1년째 연봉인하 하고 재계약 요구
2시간 계약인데 1시간만 요구하고 50프로 임금 경감
갑자기 해직 통보
강의로 기준으로 지급 받기로 했는데 막상 수업을 시작하고 첫 달이 지나니 구두로 나는 강의로가 깎여서 지급되었는데, 주임님 얘기로는 예산이 깎여서 집행되고 알았다.

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컨셉의 내용으로 바꾸거나 정해진 무료 수정 회수를 넘어서 더 많은 수정을 무상으로 요구
계약기간과 다르게 단축
계약기간보다 연장됐다가 스케줄 상 연장기간이 축소됐는데 이야기한 페이대로 지급되지 않고 삭감해서 보수가 지급되었다
계약내용과 기간을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
계약당시에 정해져 있던 딜리버리를 갑자기 당기라는 통보를 받고 만약 기일을 못 맞출 시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계약보다 낮은 보수로 업무 요청. 거절시 수업 못 하게 하고 공강 시간을 만들었음
계약상 지급 건 삭감
계약서는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1개월간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7개월만에 종료
계약서에 명시된 세부항목을 임의로 변경
근무시간 변경
급여 조건 변경
기간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음
기존 정한 기간보다 더 늘어났다
기한 변경, 업무강도 증가
기한을 불합리하게 연장. 관행으로 여김
무리한 일정 변경 요구
수익배분 비율을 임의로 낮춤
이행 방법 수정
일방적 보수 삭감과 마감 기한을 앞당김
일방적인 계약 파기
일방적인 서류 정정
일정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다반사
일정 보수지급 방식 등의 변경
작업량에 대한 일방적인 조정을 경험했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몰래 변경
중도 업무내용 변경(변경 내용이 기존 업무와 관계없음)
추가금액이 발생하나 동일가격에 추가 요구
추가되는 업무를 비용 없이 진행하도록 요청함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측에 유리하게 변경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험 중 하나는,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합의 없이 작업을 요구함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기간 변경
제시한 근무시간 축소

### 3) 계약 조건 불이행

계약 전에는 보조작가를 붙여준다거 했으나 지켜지지 않음

계약서 미준수

계약서 위반
계약조건(시간 및 수당)외에 추가로 업무지시가 있으나 추가 수당은 없음
근무기간 연장·보수 삭감
근무시간연장(추가 보수는 없음), 근무의 마감 및 연장을 발주처의 통보로 결정됨
근무시간을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함
기간연장 수정사항 협의 불이행 등
기간이 계약과 같지 않음
기간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연장됐음
기관의 운영진이 바뀔 때, 이전 계약을 종결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고 조작된 허위사실을 뒤집어씌워 부당하고
기준에 업무 범위를 정하고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계속 추가되고 늘어나서 견적에 비해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내용이 일정 하지 않고 유동성이 심했음
당일 통보를 받고 갑자기 업무내용에 대해 변경된 적이 있음
마감 기간이 급하게 변경됨
무급으로 보충수업 요구
사업의 일부가 사라짐. 기간의 단축
사전에 일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해당날짜 당일 오전에 일방적 취소통보
상대방의 입장만 내세우고 멋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험
업무 내용 완전 수정
업무 내용이 변경, 마감기한 변경, 뒤엎는일 다반사, 지급기한 안 지킴
업무 범위가 갑자기 변경
업무 완료 후 비용을 낮춰달라는 요청
업무강도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통보 함
요구하는 업무변경, 기간 변경, 보수 지급 미룸
일방적인 계약관계 불이행
일하는 시간 마음대로 줄여버림
작업범위 추가
작업이 시작된 건을 취소
작업지시가 수시로 변경되어 착수기간 외 종료시점에 대해 불명확
제작물 증가요구
처음 합의된 내용보다 요구사항이 많아짐
처음에 요구했던 일보다 다른 업무까지 더 주면서 보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계약 이외의 부수적인 부분까지 전가하려고 함
협의 되지 않은 내용들 일방적인 통보

#### 4) 근로시간 연장/변경

시간 변경

시간, 장소를 상대방이 마음대로 변경함

시간을 그들이 원하는대로 휴기도 맘대로 정함
시간을 변경했다. 1-2시간 정도 줄이는 것으로
심야 근무시간의 강제 조정
야근 강요
업무 기간 늘림
업무시간 변경 요청
업무연장이나 업무추가
초과근무시간 개인경비 지출

<b>5) 다른 업무 강요</b>
A라는 내용의 프로젝트 였는데 B가 추가되는 상황
계약서상에 없는 업무분담 강요
관련된 일과는 무관한 서류 제출 강요
관련업무외 업무를 수행
관련없는 작업 추가
근무 외의 다른 업무 자연스레 지시 및 감독
근무외의 다른 근무까지 요구
내 업무가 아닌 일들이 늘어남
기존 계약 했던 업무 외에 추가로 요구
다른 업무지시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강요 당함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도록 요구함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을 시킨다

<b>6) 보수 미지급, 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b>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음
비용지급시기 미준수
급여협약이 잘 안 됨
기존에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깔끔하게 하자면 가격을 일방적으로 내려버림.
돈 받을 시간 변경이 싫어요
보수 지급 방식과 임금 날짜가 변경됨
보수준다던 것이 나중에 알아서 주겠다는 식
보수하향조정, 무제한으로 변경되는 요구사항
새로운 시안요구 비용 미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 분배 불합리적인 조정
시급을 갑자기 내렸고, 싫으면 바로 그만두라는 식으로 통보했음
업무태도를 문제 삼아 기존에 정함이 있었던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엔터회사에서 촉박하게 시간을 제안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는데 중간에 은에어를 하지 않아 돈을 못받음, 계약서도 갑질함

예산부족으로 인해 보수 삭감
일방적인 단가 하향 통보, 노동착취
임금의 지연
임금이 낮아지거나 약속된 날짜보다 늦어진 경우. 혹은 업무 내용에 없던 사항이 추가된 경우
작업비용 불이행
작업이 끝나고 나서 지급을 미룸
작업장 자체 규정에 의한 할인율 조정으로 배분제 강사료가 터무니없이 적어짐
제대로 일을 했으나 발주처(에이전사)의 갑질로 에이전시도 돈을 받지 못 해서 나도 돈을 못 받음
제시한 보수를 회사 사정을 핑계로 절반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은 음악 관련 업체에 일을 해줬는데 일을 잘해주셨다고 고마워하면서도 돈은 안 주고 티켓으로 주더군요.
지불기로 한 보수를 일방적으로 줄이자고 하는 경우.
처음 얘기했던 임금과 일이 다름
처음 이야기하였던 작업 분량과 작업 기간, 보수 지급 기한이 지켜지지 않음.
코로나로 인한 임금삭감
클라이언트의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작업 도중 무산됐으나 일부의 보수도 받지 못함

<b>7) 불합리한 계약 조건</b>
3년내에 동종 창업금지
가격책정이 불합리했다.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서 힘들었다.
갑의 권리와 을의 권리부분을 동일 조건으로 변경 후 계약
경력 2년으로 취급
계약 단가를 업체 쪽에선 올려줬는데 나는 안올려줌
계약연장과 보수
계약을 할 때 어려웠다
계약회사와 사업장 두 곳의 지시를 모두 받아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강사가 지는 것
고객이 기분이 나빠서 컴플레인 한 부분이라 계약해지가 어쩔 수 없다는 부당 이유
그냥 문자로 계약했다가 근로금이 달라서 다시 계약서 작성
근로계약기간 준수 의무위반사항
근무 스케줄과 임금지급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너무나도 회사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보수가 터무니없이 적음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임금지급 불가하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시간이나 난이도가 올라가도 금액을 조정해주지 않음
업계관행보다 적게 임금 계약을 체결하고 경력이 없으니 수궁하라고 은근스레 계약을 강요함
업체와 비율을 비슷하게 나누는데 수강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강사에게 비율을 낮추어 계약을 하게 함
업체측에서 주는 금액대비 올려주지 않음
일방적 단가 적용

일방적인 계약 보수 내용 수정
일을 하나 주고서 그 일과 연계된 다른 작업들이 원래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함. 밤샘 근무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밤새서 하지 않았다고 돈 안 줌
일한 대가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낮다
작업장 내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저의 조건에 불리한 부분이 많아서

<b>8) 아이디어/저작권 관련</b>
아이디어 도용
작업물에 대한 디자이너의 저작권을 너무 축소시킵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까지 인정해서 계약금액을 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림 저작권에 대한 변경
저작권 침해

<b>9) 기타</b>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고 일이 없는데도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기획단계에서 머뭇. 프로젝트 진행이 안 됨.
시스템개선
업무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기간 무료 출근요청, 급여 연체
일정변경의 어려움
중간에 고용보험 적용시키지, 온라인연수 수료를 중간에 제시함
크리에이터의 수입이 불균형
통보로 전달함
하기 싫은 지역 배정받았을 때
하자보증
협의 된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당연하다는 듯이 수정이나 추가 작업을 위해 시간을 내달라고 함
계약 기간이 불규칙, 의사 결정권 없음

## 7. 프리랜서 처우 개선 및 에스프로 시스템 개선 요구 사항

<b>1) 4대 보험 관련</b>
4대 보험 혜택 지원 및 강화
금액적인 부분이 아닌 경력증명 인정으로 4대 보험의 직장가입자 처럼 활용할 수 있기를
서울시 에스프로 시스템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 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요원하고요.
세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프리랜서를 위한 4대 보험 지원이 필요하다

<b>2) 경력 관리</b>
경력 별 평균 단가 관리
경력관리 시스템 지원 및 부당대우 지원

경력관리를 잘 해주면 좋겠다
경력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경력이 있든 없든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수준 높은 아이디어 제공
경력인정 및 보수를 올려주셨음 합니다.
경력증빙 기능 추가되면 좋겠네요
경력증빙과 발급의 신속성
경력증빙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게 신뢰가 필요함
경력증빙자료로 활용가능하게 하고 기존 경력도 입력할수 있게 해야함.
기업에 참여를 반강제적으로 해서 활용 가능하게 해야함
특급이상의 경력보유자의 경우 고급기술자로 단가를 낮춰야하는 불합리가 개선되어야함
프리랜서 경력관리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업 차원에서 특혜를 주어야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리랜서 직업에도 경력 및 인식 개선 장치마련
프리랜서도 일반회사 면접볼때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회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프리랜서들을 위한 경력증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경력관리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학교 시간강사는 전혀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호봉이 높아지는 정규직과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 3) 공정한, 투명한 운영

공정하게 일감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한 계약사항 준수 및 근무시간 철저이행
공정한 관리와 정보 공개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
공정한 계약 조건: 에스코로 시스템을 통해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간의 계약 조건을 명시
프리랜서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기업편 또한 들지 말고 제3자로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합리적인 프로젝트 관련 정보 정당한 입찰경쟁
등록된 프리랜서의 체계적 관리(노동인권, 저작권 등) 필요.
'을'로서 당할 수 밖에 없는 피해가 없도록 서로 동등한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
시스템의 투명성
원칙에 맞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정당하고 원활한 체계가 필요
중간 역할을 프리랜서 입장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관리 감독 강화
국가가 특정 기준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 4) 대출 관련

대출 제도
-------

금융권 대출이 4대보험 이력이 있어야 대출되는 것처럼 프리랜서직도 대출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심사, 카드 발급 심사시 경력을 인정 받았으면 해요

<b>5) 권익 보호</b>
고용안정과 노동자인권보호
표준 근로계약서 제시
근로자의 권익보호
근로자인권보호 및 처우 보호가 필요하다
근로표준계약서 의무
노무상담 상설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방송작가들은 기획기간이라고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페이지급을 안하거나 후려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보장
미수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같습니다. 빨리 안착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금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법률지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제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안전하게 도움을 받고 싶다
보수 미지급시 법적인 도움
서울시의 법적 자문서비스 제공
역율하게보수를 못받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업무내용과 강도에 비해 임금을 낮추기위한 목적으로 프리랜서 외주계약을 강요하는 현행에 대한 권고 이상의 강제성 있는 대책마련 필요. 에스크로에는 아직 없음
에스크로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에스크로시스템이 잘 정착돼서 이용 프리랜서들에 대한 고용주의 부당처우가 개선되고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인권보호 강화, 기업이 아닌 근로자의 편에서 도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권 존중/인권처우 시급하다
프리랜서의 안정적인 고용과 권익 보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주처와 갈등시 조정 기능
어떠한 상황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 중요
프리랜서 노동권 인정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법률 제정도 되면 좋겠다
프리랜서의 권익을 위한 법적제도 마련을 통해프리랜서는 단순히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계약자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해야
기본 생활권 보장
시스템이용시 값이 작정하고 업무원료 처리를 안해줄경우의대책 필요. 완료처리를 빌미로 다른 일을 조건부로 더시킬 가능성이 있음
약자 입장 대변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지급
율이 되는 상황을 개선해주세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지위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아니하기에 처우가 열악하여도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과 개선책이 부단히 발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너무 혹사시킨다
단체교섭권 폭 넓게 허용
부당한 대우 없애주세요
불안정한 고용시스템을 안전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불이익 없이 일하게 해주세요
소규모 업장에서 임금체불 업무의 부당대우에 관한 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되기를 바람
애초 합의나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는 기업문화
증빙 관련 확고한 법률안

#### 6) 에스프로 시스템 긍정적 평가

좋은 시스템 마련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스템같다
지금처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로 매우 유용할 것
좋았던 기억이 있다
편리함
에스프로 방식은 좋은 안전 장치이며 향후 블록체인 적용으로 발전시켜야 함

#### 7) 복지 관련

프리랜서도 일정 조건이 되면 퇴직금 형식의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프리랜서들도 법적으로 퇴직금이 있으면 좋겠다
프리랜서들이 일반 정규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것은 사실이니
저소득 프리랜서들도 충분히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복지시스템구축
프리랜서 복지 향상
프리랜서의 출산 및 육아관련 지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다양한 혜택 제공
이를 이용할 때 노동자에게 특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 보다
공공복지 차원의 도움을 기반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8) 보수/계약 관련

보수의 적절성 추구
급여 미지급에 대한 적극 도움
급여가 늘어나면 좋겠다
빠른 지급 방식
단가 상향
대금 지급은 월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장치를 보다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좀 똑바로 주소
때먹히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먹튀하는 업체들이 사라질 수 있다면 쓰고싶음 프리랜서는 국가에서 인정한 노동자가 아니라서
노동청에 신고해도 받기가 힘들
미지급 처리
발주처에서 계약 완료시에만 결제되는 방식은 간혹 발주처의 횡포가 남아있을수 있어서 일 마무리 확정시
바로 결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보수 현실화
부당한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주세요
신속 안전 대금지급능력
안정적 보수 지급과 체계적 지위 관리가 효율적 그리고 정당하게 이뤄지길 바램
안정적인 계약 관계 수립
안정적인 급여관리와 퇴직금
용역비의 안전한 지급 보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함
일괄적인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임금등 개인정보 보안유지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해주세요.
임금지급시점 조율
적정한 보수 지급
정상적 수급
정확한 기한에 송금
표준 권장단가 산정
표준계약서를 지키지않음 안되게 실질적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표준단가가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지급금액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프리랜서 계약서 관련 도움 서비스
프리랜서 처우 개선을 위해 프리랜서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취합된 의견을 반영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정말 급한 사정이 생기면 대처가 불가능 한 직업 이다. 그만큼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수당이 측정 됐으면 좋겠다
프리랜서도 고정월급이 있어야한다
프리랜서들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담당해주는 부서를 노동부는 아니라도 어딘가에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프리랜서의 임금관련 일을 제대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프리랜서특성상 퇴직금 또는 임금연체나 미지급사례가 종종있으니 적극적법적 보호가필요하다고 봅니다
힘없는 프리랜서들의 안전한 계약금액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과의 계약시 카드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프리랜서다 보니 사업자가 아니어서 해당 관련해서 도움을 출수가 없어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대부분 프리랜서들은 일일하고 페이를 못받거나 삭감된 돈을 받는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거부하는등 여러 불합리한 일을 경험 함. 이를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함

지자체의 체계적인 처우개선이 필수

### 9) 분쟁해결

거래간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조정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임금 미지급시 개인이 조직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법률 지식 강의

트러블이 있을 때 해결가능한 자체적인 법률지원 시스템이 내부에 확보되어 있길 바람

프리랜서에 대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지원

프리랜서의 노동이나 금전적 문제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설

양측이 에스스로 시스템에 대해 정확한 분석없이 진행된다면 분쟁을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10) 신속한 도입

빠른 도입 바랍니다

빨리 상용화가 되면 좋겠다.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신속하게 시행

신속한 처리

제도가 실행되면 좋겠다

처리시 우선순위가 뒤로 안밀렸으면 합니다

처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 11) 의무화

거의 준강제적으로 에스스를 거쳐야 서울시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함

고용인 및 피고용인 모두에게 의무화되었으면 한다

강제성을 지닌 의무 시행

대다수의 프리랜서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할수있게 제도화 해야 합니다

발주처에 강제가 가능해야 한다

선택 없이 필수로 해야함

에스스로 시스템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사나 방송사에서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스로 시스템을 알고있어도 요청하기는 어려움. 1년 내로 한정해서 없다고 했지만 보수를 못받거나 후려치는경우는 빈번하고 그때문에 발주처의 의무적인 에스스로우 시스템 사용이 필요

방송 광고, 기업에서 채용시 고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뢰인이 돈을 줄 의지가 없으면 나라끼고 하는것을 싫어할거라서 법적의무로 제도해야 효과가있음

의무사용을위한 법제화

### 12) 수수료/이용료

가격 인하 및 수수료 지원

가입 초기에 수수료 무료서비스 3개월 지원, 안정성 보장, 저렴한 수수료

과도하지 않은 수수료
그렇잖아도 세액떼어내고 또 세전수입의 10%를 협회에 내는데 또 수수료 시스템 가당찮아요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 또한 부가세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기준구간을 정하여 수수료 차별화 등 실질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줄수있는 프로그램 이 되었으면 한다
나라에서 하는 건데 수수료 없이 시범사업으로 일단 시도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다 20퍼센트가 넘습니다. 꼭좀 시행해주십쇼.
낮은 이용료/수수료
발주처가 서울시 아닌 업체도 시스템 안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영세한 출판업체나 저소득 작가들에겐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것도 아니고 정부가 보호는 못해줄 망정 수수료 요구하면 안되죠
서울시가 프리랜서 위하여 수수료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것 같음.
수수료 받을 생각만 하지말고 프리랜서가 제대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
수수료 부담됩니다
수수료 없으면 좋을듯
수수료 월5회는 무료로 해주세요
수수료 인하
수수료가 낮다면 모두 만족할듯.
수수료가 높으면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무료였으면
수수료가 무료이면 좋겠구 3일후가 아니라 기한이 짧음 좋겠다
수수료가 부담없었으면 개인정보보호가 잘 되었으면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 가능한 시스템이었으면 합니다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만큼 편리하고 이득이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합니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프리랜서 소득에 더 악영향을 줄것 같음
시스템은 좋으나..수수료를 떼는 건 반대 국가 차원에서 보호만해주길. 이익창출하려는 건 반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수수료 발생됨
에스크로 수수료는 발주처가 지급
이런 정부 시스템에도 수수료 때면 누가 이용합니까
이용수수료 부담없는 수준으로
좋은 취지의 서비스이긴 한데, 여기에도 수수료가 붙는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도 중간수수료를 너무 떼어 실속이 없는데 입년 시스템 또한 더많은 수수료를 강요받는 기분이다
추가 수수료가 없다면 이용할 의사 있음
크몽 재능넷 숨고 등 플랫폼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
프로그램 장점을 모르겠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무료인데 굳이 수수료를 내긴 아깝다.
프리랜서가 정직원 만큼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노동시장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돌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크로 시스템의 수수료가 완전히 없었으면 합니다.
프리랜서도 사람인데 수수료 좀 조금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업체랑 시스템이 수수료 명목으로 너무 많이 가져가요
프리랜서들은 금액이 고정 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급여에 따른 수수료 변화라던지 낮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프리랜서의
세금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스자체가 보수가 낮는데 에스프로 제도이용시 수수료 낸다면 이용하지 않을것같습니다
현재도 박봉인데 수수료까지 내야한다면 꼭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필요
계약 플랫폼으로 수익사업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서라면 만든 공공기관 서비스 라면 무료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료로 제공되어 시범 사용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리적 가격에 좋은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착취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과비용없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공공서비스로 부담없는 가격 수준이었으면 하며 e세로 처럼 이를 기반으로 세무, 이력관리 등 확장된 서비스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금액이 작은데도 10만원, 이런데도 세금을 8.8프로 떼는곳도 많은데 그런게 억울해도 말도 못합니다.
거기선 당연하다고 얘기하니까요
에스프로 시스템은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진행해야한다고 봄
요금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
우선시행시에는 무료로 진행후 시행 1년후 유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좋을듯하네요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시스템이니 이자율이 낮으면 좋을것 같다
결국 해결될 거 없음 세금만 더 떼어나갈 거라 기대가 없어서 사용할 의향 없음
세금을 적당히 가져갔으면한다
중간마진을 서울시가 챙기고 단가는내려갈까 우려된다
보다 저렴하게 정확한 관리 필요
비용 인하

### 13) 시스템 관련

간단하게 줌
간단한 인증을 통한 로그인
간편하고 편리한 시스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었으면 한다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더 불편해 질 수도 있다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서울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셨으면 해요.
믿을만한 서비스가 시행,유지되면 좋을 것 같다.
사용 절차가 간편하고 쉽게 제공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주세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지속된 바란다
서류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면 좋겠다
서버 안정성 향상
서비스 종료 후 지급시 종료 결정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가 중요함
거래안전장치
귀찮은 가입 절차 완화
내부 시스템에 오류가 없었으면 합니다
사용시 버그가 걸리지 않게
시스템 사용법 교육
시스템 개선
시스템에 대해 더 공부를 해봐야 할 듯 하다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사용자는 분명 허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공리를 할 겁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제도가 더 생기면 좋겠습니다
안정성 필요
앱으로 간편히 사용, 조회 가능
에스크로 시스템에 대한 안전 보장 확인
에스크로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들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메뉴얼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에스크로의 안전장치는 확인불가
요즘 워낙 티몬 위메프 상품권 사태와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므로 철저하게 금액이 보장되는
안전 시스템 마련과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운영주체 입장이 아닌 프리랜서 입장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용하기 쉽고 편한 시스템 필요
익숙하지 않아 눈에 잘 띄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시행 후 시스템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잘 만들어 주세요. 실업무에 사용할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절차상 편리성
점진적 개선
접근성 확대
접근성을 좀 더 편하게 해주세요
접근하기 편리한
정보 보호
정보가 있어서 좋음
정보관리및 보관기술개선
정보를 자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음
좀더 나은 시스템
발주처 입장에서 사용하기에 쉽고 어려움이 없어야하며, 해당 시스템 사용에 따른 이득이 있어야 많은 활용이 있을것 같다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능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급이 빨랐으면
빠른 서비스 처리
속도 개선
쉬운 안내가 필요
실기가 필요한 분야이니(음악) 포트폴리오로 동영상도 감상 될 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데서나 잘 발급편하게되길
안전하게 꼭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프리랜서 계약서 인터넷에 무료로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근거에 의거 증빙서류 발급
발주처에 대한 확실한 이력관리
빠른 정산
씨보지는 않았지만 단순 보수결제 뿐 아니라,
원천징수 같은 세금 부분도 포함, 구분되어 정산되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네요
에스크로 서비스 예치기간이 넘 길다.
원할 때 관련 서류를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좀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문서들을 처리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휴대폰으로도 발급받기 간단하고 오류없이 편해야함

#### 14) 실효성/유용성

실제 꼭 필요한 업무가 되길
실제 업무 형식과 어울리는 서비스였으면 좋겠다
실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 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해주세요. 일감 구하기, 주변시세에 맞은 금액책정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얼마나 높을지 의구심이 듬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적용되어야 함
제발 프리랜서로도 생활할수있게 개선해주세요
탁상공정 현실성 없는 정책
구체적인 관리로 프리랜서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화 된다면 효과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대중화가 되어서 다양하게 이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사용할수있도록 알려주세요
모두 평등하게 혜택볼 수 있게 마련되길 바램
상용화되었으면 좋겠다
시에서 사전 조사 충분히 하고 시행되어서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정책 수립
전반적인 조사 후 실시 특히 예능계
현실에 맞게 해야한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구현되기를 바램

**15) 일자리 관련**

일감 정보사이트가 개설 되었으면 좋겠음

일방적인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일을 할수있는 기간을 늘려주기를

일자리 연계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일처리가 빨라야 합니다

임금 개선이 가장 시급함

정확한 일감과 단가 보장이 필요

직업 안정

고용안정성 확보

더 큰 플랫폼이 되어 일감을 구하기 좋은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일감

안정적인 일감

안정적인 일감찾기가 힘든 부분을 도와주시길

일감 먼저 확보

일꺼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일의분배

프리랜서 일감 관리도 가능하면 좋겠다.

프리랜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프리랜서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중개기관을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이 맡았으면 한다

합당한 대우와 좋은 일자리

구직 지원 다양화

다양한 분야의 퇴직 경력자에 일자리 확보

패션디자이너프리랜서의 경우는 대부분 일할수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곳이나 커뮤니티가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 패션업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프리랜서의 일감을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줬으면해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

복합적으로 프리랜싱 과정의 업무를 나눠주길 희망

**16) 홍보 관련**

모두가 시스템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홍보 확대를 통해 수혜자 증가

홍보를 강화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홍보를 더 많이 하고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홍보를 많이하고 적용되는 사업장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듯합니다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이용할수있도록 많은홍보와 보급 필요

많은 프리랜서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주처의 에스프로 시스템의 적극 도입 홍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홍보 수단이 필요할 것 같다.
사용방법 교육및 홍보
사용법을 홍보했음 좋겠다
시스템 홍보
양당사자 홍보
업계관행이있어서 시스템정착이 쉽지않겠지만 업계인식이 바뀌어아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할듯
에스프로 시스템에 대해 잘 모릅니다. 홍보가 되면 좋겠네요
일단은 서울시에스프로시스템의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장기간동안 무료 정책으로 인지도와 안정성에대한 홍보 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러한 정책이 정착되었으면 좋겠음
적극적인 홍보와 시스템의 체계화 및 주류 시스템으로 정착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것이다
좋은 제도인거 같습니다 홍보많이해서 프리랜서 분들이 활용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들이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수 있을때까지는
홍보기간과 상당기간 자유로 사용할수 있게 무료화하면 좋을듯 합니다
프리랜서란 이유로 갑질을 많이 당하는 편인데 어떻게도움을받을수있는지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참여가 많아야 한다
에스프로 시스템에 대한 마케팅이 활발해져서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이용하였으면 한다.
중소 발주처에서도 에스프로 이용을 꺼리지 않도록 인식개선
이 시스템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임

### 17) 기타

이런 식으로 강의를 갈취하지 말았음. 요즘 강의로 못받는 사례는 거의 없음.
이런 것 좀 그만 하세요. 프리랜서들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계약서 예산안 확보
국내 업체와 거래하는 프리랜서들에게 유용할 듯합니다.
나이가 있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양하고 불특정한 프리랜서에 대한 작업이만큼 철저하고 다양하고 촘촘한 계획이 되지 않으면
실행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비용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재능의 가치를 찾아 키워서,
존중과 배려로 가득한 사회에서 서로 행복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 마련
모든 제도가 현재는 주먹구구식 문지마 형식으로. 정치인의 주도권이 바뀌면 휴지조각으로.
별로 신뢰성이 없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보기도 미심쩍다.

발주처에서 기피할 가능성 있음
발주처에서 서비스 종료를 미루는 경우 해결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발주처의 상황에 대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하지 않음
사업주에게 아쉬운 모습 안보이게 경영관리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상기 기재 되어있는 내용 그대로 되면 됨
서울시보다 고용노동부에서 일괄처리 요망
세금 정책 마련
세무 관련 서비스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시간이 있으면 다른일이나 하시길. 노동부에서 하면됨.
실력에 따른 등급 분류를 철저히 해서 고급인력을 인정받게 해야함.
어차피 안 줄 회사는 안줄텐데. 에스크로라니 더귀찮을듯
에스크로에 대해 생소한 면도 있지만 거래관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듯함
의견 청취를 세심하게 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넓은 시각과 지원
지인과 개인대 개인이 하는 프리랜서이다보니 미수금이라든지 대금 지연 입금은 거의 없는편이어서 시스템 활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행의 여부를 고시
처음에는 시범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추가 피해자 방지를 위한 불량 발주처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업
취지는 좋으나 일감을 주는 업체가 협력할지 의문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공공에 치우친 느낌이에요. 금융이나 전반적인 산업에 적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임금 수준 범위에 따른 세금
프리랜서 중에는 능력과 스펙 등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일을 의뢰한 업체측과의 마찰 내지 갈등도 문제지만 기존 직원들의 갑질로부터 결과물을 뺏기는 등 애로가 많습니다.
프리랜서가 당당히 자립하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프리랜서를 위한 매뉴얼 마련
프리랜서뿐만아닌 일을 주는 사람도 이용하고 증명받을수있으면 좋겠다
프리랜서에게 모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담 상담사나 기타 등등
프리랜서의 도움을 위해 많은 시스템 마련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의 특성 및 사정을 생각해서 좋은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어요
프리랜서 관점에서 지원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금전적으로 지원도 강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
확실한 증빙
활성화가 된다면 좋을 것 같음. 고용주가 기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

---

## 2024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

---

저 자 지혜순, 이영민, 권태구, 김미희, 이유리

---

발행인 임승운

---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전화 : 070-4139-4460

팩스 : 02-868-5256

홈페이지 : <https://labors.or.kr>

---

I S B N 979-11-87917-52-6

---

인쇄처 DESIGN편집 032-710-6480

---

〈비매품〉





